

1996  
7

# 성도의벗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별책 부록 : 교회 소식 (잉글리 대관장 방한 특집)







그림: 제리 이 스미스,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시고 슬피어시는 예수님**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임밖이 그 세계를 남게 아래 모음 같이 내게 내 자녀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나 그러니 너희가 와서 아니하였도다.(마태복음 2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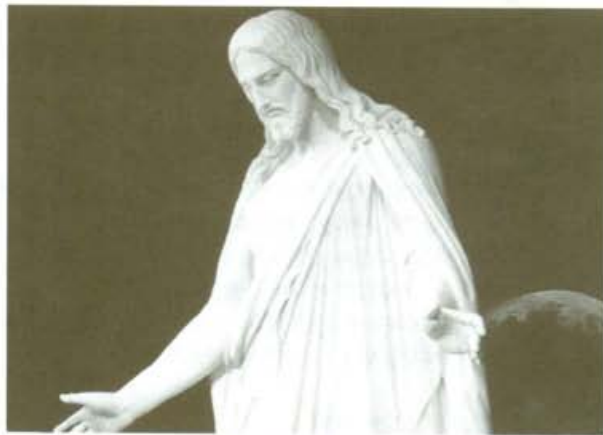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66차 연차 대회 보고

1996년 4월 6~7일,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의 태버넌클에서 행해진 말씀과 대회 진행 절차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교회의 4월 연차 대회의 마지막 모임인 일요일 오후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커틀랜드 성전의 헌납 기도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오 주여, 당신의 모든 교회 회원들... 기억하시고... 그리하여 당신의 교회가 흑암의 광야로부터 나와서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를 세운 군대같이 두렵게 하옵소서.’”(교리와 성약 109:72~73)

“우리는 지금 이 훌륭한 간구에 대한 응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국내외적으로 점차 참되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진리로 무장한 것발을 든 군대처럼 진군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와 선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힝클리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이 사업의 생기를 보게 됩니다. 교회가 조직되어 있는 곳은 어디든 열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구속주의 사업입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며, 참으로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일요일 오전 모임에서 힝클리 대관장은 똑같은 주제로 이렇게 말씀했다. “신앙을 지니고 충실하게 생활하시는 이 교회의 모든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템플 스퀘어의 복방문자 센터 안에 있는 그리스도 조각상

말일성도로서 똑같이 이 사업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구속주이신 주님을 똑같이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받드는 성약의 백성입니다.”

4월 6일과 7일,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에 걸쳐 개최된 연차 대회 모임에서 힝클리 대관장과 대관장단 제1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과 대관장단 제2보좌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이 각각 사회를 맡았다.

이번 대회에서 주요한 행정 조치는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 행해졌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 다음의 네 분이 지지 받았다. 메릴 제이 베이트먼 장로, 1965년 11월, 브리감 영 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되자 관리 감독의 직에서 해임되

고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으로 부름을 받았음. 달러스 엔 아치볼드 장로와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장로, 두 분 다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회원임. 유타 주 오림 출신의 브루스 시하펜 장로, 새로운 총관리 역원. 또한 8명의 새로운 총관리 역원이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회원으로 지지 받았다. 그 분들은 다음과 같다. 아이다호 주 포카텔로 출신의 엘 에드워드 브라운 장로, 솔트레이크시티 출신의 셸든 에프 차일드 장로, 캘리포니아 주 힐스버러 출신의 켈틴 엘 쿡 장로, 유타 주 프로보 출신의 윌리엄 롤프 카 장로,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 출신의 데니스 이 시먼즈 장로, 멕시코 치와와, 콜로니아 드블란 출신의 제럴드 엘 테일러 장로, 스페인 마드리드 출신의 프란시스코 제이 비나스 장로, 솔트레이크시티 출신의 리처드 비 워스틴 장로.

힝클리 대관장은 대회에서 템플 스퀘어 바로 북쪽에 있는 대지에 현재의 태버넌클보다 “3, 4배나 큰 회의장” 곧 “종교 행사와 문화 행사를 위한 전당”을 짓기로 한 총관리 역원들의 결정을 발표했다. 연차 대회의 비디오테이프는 대회의 실황이 중계 방송되지 않는 지역의 교회 단위 조직에 배부되었다. — 편집인 □

# 목차

성도의 빛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 판 출판물임.

대관장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이사도 정형화: 보이드 케이 매커, 얼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벨슨, 앨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블라드, 조셉 비 위스린,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잭 에이치 고슬링드  
 고문: 스펜서 채이 켈다, 얼 라이오날 캔들리  
 교과 과정부 관리자들:  
 관리 책임자: 로날드 엠 나이튼  
 기획 및 편집 책임자: 브라이언 케이 켈리  
 그래픽 책임자: 윌리엄 로이 보그

편집스탑:  
 관리 편집인: 차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올 팻 존슨  
 부편집인: 데이비드 마셜  
 편집인 보조/어레이어: 디앤 워커  
 편집/제작부장: 메리언 마틴태일  
 제작보조: 베스 테일리  
 편집보조: 제니퍼 그랜우드

디자인스탑:  
 삽지 그래픽 부장: 엠 엠 가와시카  
 미술 책임자: 스킵트 벤 켈렌  
 디자이너: 캐리 쿡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생산 관리: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테니스 케바, 데이브 맥스웰

구독 담당 스텝: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리스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티슨  
 마케팅 부장: 조이스 헨슨

통 권: 제 364호, 제 33권, 제 7호  
 통 권: 1967년 10월 4호, 권-3186  
 발행일: 1996년 7월 1일(월간지)  
 발행인: 잭 에이치 고슬링드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클북빌리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안성림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1996년 재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영어 순번-8/94 번역 순번-8/94 July 1996 International Magazine이 번역본, Korean, 98887 320  
 성도의 빛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일반층은 권당 500원이며, 특집층은 1,000원입니다. 성도의 빛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 1차(대(일본 등) 12,000원, 2차(대(미국, 캐나다 등) 18,200원, 3차(대(영국 등) 23,200원, 4차(대(중국, 대만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안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로 배부 센터(☎738-8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 price is \$9.00 per year.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Box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The SOUNGDO-UI POT, is published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 간-중국어, 헝가리어, 네덜란드어, 영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노르웨이어, 포르투갈어, 시리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및 통가어  
 ●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 계 간-불가리아어, 체코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러시아어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Box 26368, Salt Lake City, Utah 84126-0368, U.S.A.

## I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66차 연차 대회 보고

### 토요일 오전 모임

- 4 예언의 음성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 8 "너희는... 알지니라" 키스 비 맥밀린 감독
- 10 안식일과 일요일 물건 구매 얼 시 텅기 장로
- 12 바구니와 병 지에코 엠 오가자끼 자매
- 14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러셀 엠 벨슨 장로
- 17 지혜의 말씀: 그 원리와 약속 보이드 케이 매커 회장

### 토요일 오후 모임

- 20 교회 역원 지지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 21 교회 감사 위원회 보고서 테드 이 데이비스 형제
- 21 1995년도 통계 보고서 에프 마이클 왓슨 형제
- 22 이 사업은 참됩니다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 24 인생에서 기름을 찾음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 27 약속 에프 버튼 하워드 장로
- 29 한 움큼의 음식과 기름 한 방울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 32 우리 선조들의 신앙 조셉 비 위스린 장로

### 신권 모임

- 35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 38 영적인 목자들 더블류 유진 헨슨 장로
- 40 나의 아들이 선교 사업을 떠나기 전에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 43 봉사하도록 부름 받음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46 깨끗할지어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 일요일 오전 모임

- 50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역원
- 54 주님의 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57 주님의 만찬에서 제정된 성찬 앨 톰 페리 장로
- 59 올바른 길에 머무르십시오 칼로스 이 에이시 장로
- 62 간증의 유산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 65 이 영광스러운 부활절 아침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 일요일 오후 모임

- 68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닐 에이 맥스웰 장로
- 71 요셉 의로운 자이며 예언자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 74 거듭남과 헌신 더블류 맥 로렌스 장로
- 76 유혹 물린 시 크레이븐 장로
- 78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올었는지 생각하라 수잔 엘 워너 자매
- 80 주님의 상에 와서 먹음 엠 러셀 블라드 장로
- 82 오 주여, 당신의 교회를 기억하소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 청녀 대회

- 84 살아 계신 예언자를 지지함 제넷 헤일즈 베컴 자매
- 85 새로운 마음으로 경청함 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 자매
- 87 낙관을 가슴에 품고 역경을 이겨냄 앤 매리 로즈 자매



- 88 내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커스틴 보이어 자매
- 89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재계 예언자를 주셨습니다  
앤 프리스콧 자매
- 90 영광과 오늘을 위한 닛 보나 디 파킨 자매
- 91 참되고 충실하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 95 어린이에 관한 총관리 역원의 말씀
- 96 연차 대회에서 부름 받은 새로운 칠십인

# 색인

## 1996년 4월 연차 대회 및 청년 대회

아래의 주제는 다음 연사의 말씀에 언급되어 있다.

가르침	몬슨(신권)
가족	아이어링, 워너, 벨라드, 파킨
간증	파우스트(신권), 아이어링, 힝클리(일요일 오전)
개심	로렌스
결심	하워드, 맥스웰, 로렌스
경전 공부	스코트, 위스린, 파우스트(신권), 벨라드
계명	넬슨, 헤일즈, 위스린, 몬슨(일요일 오전), 워너
교육	헤일즈, 힝클리(청녀)
교회 건물	힝클리(토요일 오전, 일요일 오전)
교회 역사	파우스트(토요일 오전), 헤이트, 넬슨, 페리
권능	넬슨
기도	넬슨
도덕	에이시
배도	파우스트(토요일 오전)
복음	오까자끼, 홀런드
봉사	몬슨(신권: 일요일 오전), 힝클리(일요일 오전)
부활절	위스린, 아이어링, 힝클리(일요일 오전), 몬슨(일요일 오전)
비평	파우스트(토요일 오전), 맥스웰, 힝클리(일요일 오후)
사랑	오까자끼, 파우스트(신권), 몬슨(일요일 오전), 맥스웰, 벨라드
선교 사업	파우스트(신권)
선택	넬슨, 힝클리(청녀)
성신	맥멀린, 패커, 힝클리(일요일 오전), 벨라드
성약	팅기, 넬슨, 힝클리(일요일 오전), 에이시, 헤일즈, 아이어링, 페리
성전 사업	스코트
성찬	맥멀린, 헤일즈, 패커, 페리
속죄	오까자끼, 홀런드, 위스린, 페리, 헤일즈, 에이시, 몬슨(신권 모임)

순결	넬슨, 힝클리(청녀)
순종	패커, 위스린, 크레이븐
신앙	홀런드, 넬슨, 스코트, 위스린, 파킨
아론 신권	헤일즈, 헨슨, 파우스트(신권 모임), 몬슨(신권 모임), 힝클리(신권 모임)
안식일	팅기
어린 아이	스코트, 아이어링, 맥스웰, 워너
영생	위스린, 헤일즈, 에이시, 벨라드
예수 그리스도	팅기, 맥멀린, 패커, 헤이트, 스코트, 몬슨(일요일 오전), 힝클리(일요일 오전), 위스린, 페리, 아이어링, 맥스웰, 벨라드, 힝클리(일요일 오후)
요셉 스미스	옥스
우정	헨슨
의료용	벨라드, 피어스
자유의지	스코트, 크레이븐
제자의 책임	로렌스
죽음	힝클리(일요일 오전)
지혜의 말씀	패커
창의력	스코트
청소년	힝클리(일요일 오전), 벨라드
최후의 만찬	페리
침례	힝클리(청녀)
하나님	팅기, 넬슨, 힝클리(청녀), 피어스
회개	패커, 스코트, 힝클리(신권)

## 4월 연차 대회에서 말씀하신 연사들(가나다 순)

넬슨, 리셀 엠 14	위스린, 조셉 비 32
로렌스, 더블류 맥 74	크레이븐, 톨런 지 76
로즈, 앤 매리 87	팅기, 알 시 10
맥멀린, 키스 비 8	파우스트, 제임즈 이 4, 20, 40
맥스웰, 닐 에이 68	파킨, 보나 디 90
몬슨, 토마스 에스 43, 54	패커, 보이드 케이 17
벨라드, 엠 러셀 80	페리, 엘 톰 57
베컴, 제닛 헤일즈 84	프리스콧, 앤 89
보이어, 커스틴 88	피어스, 버지니아 에이치 85
스코트, 리차드 지 24	하워드, 에프 버튼 27
아이어링, 첼리 비 62	헨슨, 더블류 유진 38
에이시, 칼로스 이 59	헤이트, 데이비드 비 22
오까자끼, 지에코 앤 12	헤일즈, 로버트 디 35
옥스, 델린 에이치 71	홀런드, 제프리 알 29
워너, 수잔 엘 78	힝클리, 고든 비 46, 65, 82, 91

본 대회 특집호에 실린 사진 촬영: 제드 클라크, 윌슨 앤더슨, 크레이그 다이어먼드, 존 루크, 마렌 미첨, 매튜 라이어, 타모라 햄블린, 돈 도프, 브라이언트 리빙스턴, 스티브 슈레더.



# 예언의 음성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2보좌

교회를 위한 계시와 지도력은 교회 대관장을 통해 계속됩니다.  
그분은 결코 성도들을 잘못 이끌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친구 여러분, 이 역사적 대회를 시작하는 순간에, 우리는 앞으로 진행될 모든 순서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합법적으로 1830년 4월 6일에 조직된 이후로 166년이 흐른 오늘날까지 주님의 거룩한 인도에 따라 이 교회의 모든 업무가 수행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 사업이 이루어 낸 것은 기적적인 것입니다. 제가 소년이었을 때, 백부 윌리엄 웨첼이 그 분의 가족과 함께 미국의 평원을 건너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걸어온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고투, 희생, 신앙으로 가득한 그 분의 이야기는 저의 어린 가슴에 잊혀지지 않는 감명을 주었습니다.

증조부의 가족이 이 계곡에 도착했을 때, 대부분의 교회 회원들은 데저레

지역에 있는 작고 먼지 투성이인 정착촌에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양을 용감히 건너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마차와 손수레를 끌고 불볕 더위와 혹독한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의 평원과 높은 산들을 지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와 하나님을 경배 드릴 수 있는 곳을 향해서 말입니다.

대체로 그 당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심하게 멸시받고, 박해받고 쫓겨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주님의 이러한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세대에 나의 교회는 광야에서 일어나 나아 오기 시작하려니와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를 세운 군대같이 두려우리라.”(교리와 성약 5:14) 어느 누구도 교회의 기초가 놓여진 중요한 예언적 진리를 알지 못하고는 어떻게, 그리고 왜 교회가 “어두운 데서”(교리와 성약 1:30) 나아 와 번성케 되었는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년 전 제가 총관리 역원의 부름을 처음으로 받았을 때, 그 당시 대관장단의 일원이었던 휴 비 브라운 부대관장님을 찾아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브라운 부대관장님, 새로 부름을 받은 젊고 미숙한 총관리 역원에게 충고해 주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이 지혜롭고 존엄하신 분은 간결하며 솔직 담백하게 “관리 역원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관리 역원이라고 합니까? 관리 역원이라 함은 지상에서의 왕국 열쇠를 지니신 분들입니다. 이들은 대관장단과 십이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의 태버내클 내부

사도 정원으로 모두가 사도이며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사도적 권능이 주어진 칠십인 그리고 실무적인 면에서는 관리 감독단들입니다.

팔마이라에서 커틀랜드, 커틀랜드에서 나부, 나부에서 서부로, 그리고 전세계 150개 이상 되는 나라로 교회가 성장해 온 것은 교회 회원들이 어디 있던 관리 역원들에게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명의 남녀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따랐습니다. 회복의 때로부터 교회에서 울려 나오는 예언의 음성에 귀기울인 충실한 모든 여성들께 특별한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고결한 여성다운 은사와 재능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없어서는 안될 긴요하고 불가결한 방법으로 커다란 도움을 주었습니다.

관리 역원을 따랐던 사람들은 요셉 스미스가 거룩한 권능으로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시 세우신 하나님의 한 예언자임을 믿는 굳은 간증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굳은 신앙은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 계속되는 계시의 실재성에 관한 확고한 간증을 가진 대부분의 충실한 교회 회원들이 보여 주는 충성의 기초가 됩니다. 이 계시는 각 시대에 교회의 대관장, 대관장단 보좌 그리고 대관장의 지시 하에 봉사하는 십이사도 정원회로부터 주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거룩한 진리가 충만한 이 경륜의 시대는 다른 이전의 경륜의 시대와 달리 배도로 멸망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다음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한 자리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다 2:44; 교리와 성약 138:44) 존 테일러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이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매우 분명한, 참으로 매우 분명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음모를 꾸미고 계획하든지 간에 이 왕국은 결코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장하고 퍼지고 발전할 것이며 어느 누구도 그 발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설교집, 25:348, 14:3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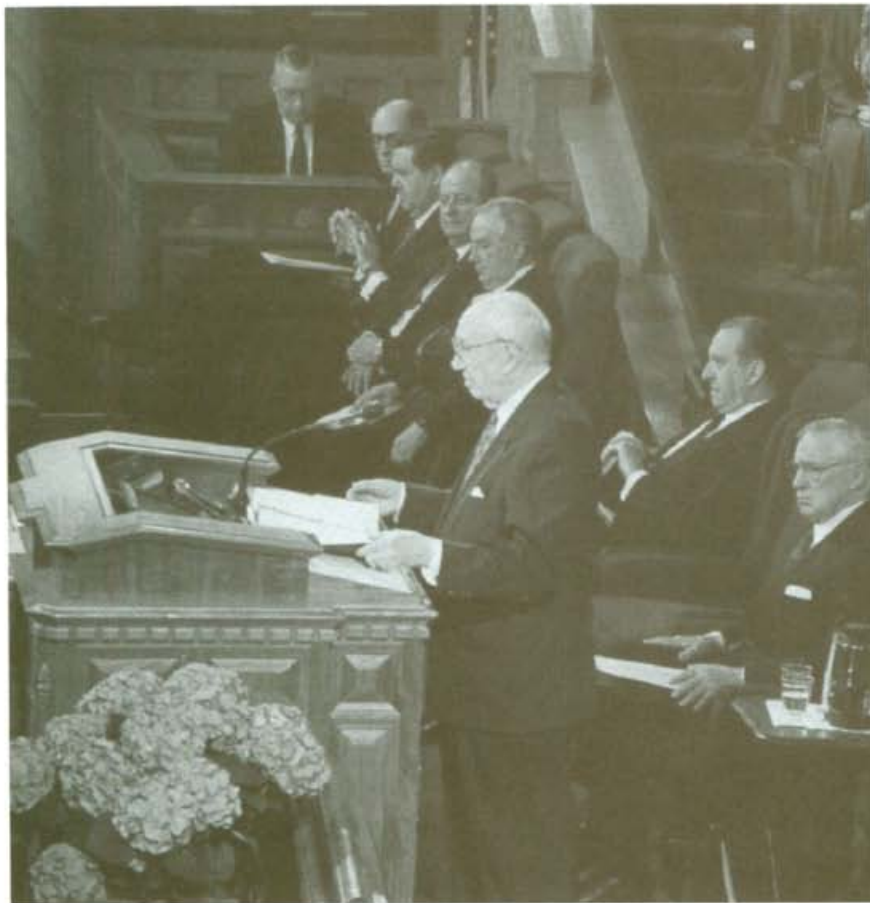
초기부터 교회의 안팎에서 교회의 회원들이 지상의 왕국의 열쇠를 지닌 분들이 영감 받은 말씀을 따르지 않도록 피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릇되게 인도하려는 자들은 지혜의 특별한 은사나 교회에서 제정된 질서를 무시한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한 권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경고로써 주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권위를 가진 자로부터 성임되고 또 저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교회의 머리되는 자들로 말미암아 정식으로 성임되었음이 교회에 알려지지 아니하면 어떠한 자에게도 나의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거나 나의 교회를 세울 권

능이 허락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교리와 성약 42:11)

회복의 초기 시대에 올리버 카우드리는 교회의 두 번째 장로가 되었으며 요셉과 함께 놀라운 회복에 관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1829년 신권이 지상에 회복되었을 때 하늘 사자의 안수로 예언자 요셉과 함께 성임되었습니다. 올리버는 예언자 요셉의 입을 통해 나오는 몰몬경 번역을 기록하는 필기자로 봉사했습니다. 그는 1836년에 커틀랜드 성전에서 보여진 위대한 열쇠가 부여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초기 계시에서 주님은 올리버에게 경고했습니다. "너는 축복을 받았고 정죄를 받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교만을 조심하라." (교리와 성약 23:1) 올리버는 명석했으며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주님의 경고를 잊고 교만이 마음속에 자리잡게 되었습





연차 대회 모임을 사회하시는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니다. 브리감 영은 이 교만에 대해 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왕국이 발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특히 자만심이 강하고 보편적인 능력을 가졌던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는 예언자 요셉에게 몇 차례 자신이 이 왕국을 떠난다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떠났지만 왕국은 여전히 발전하여 모든 적대자를 물리쳤으며 왕국에 충실했던 모든 자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었습니다.”(설교집 11:252)

교회를 떠난 지 10년 후인 1848년 10월에 아이오와에 있는 교회 본부를 방문하여 침례를 통해 교회에 다시 받아들여 지기를 겸손히 간청했습니다. 이 기억할 만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조지 에이 스미스는 올리버에 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가장 적극적인 단어로 간증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따르기 원한다면 교회의 회원들이 가는 큰 흐름

을 좇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권능이라고 말했다.”(조지 에이 스미스가 올슨 프랫에게, 1848년 10월 20일, 밀레니얼 스타 1849년 1월 1일, 14쪽)

마지막 간증으로 그는 아론 신권의 열쇠를 지닌 침례 요한의 방문과 맬기 설펍 신권의 열쇠를 지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방문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이 신권은 그 권능과 함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조직에 있으며 반드시 계속되어야 한다. 같은 신권과 권능을 받은 장로는 축복 받았으며 끝까지 충실한 자는 기록하며 세 배나 축복 받게 된다.”(올리버 카우드리가 사무엘 더블류 리차드에게, 1849년 1월 14일, 데저렛 뉴스 1884년 3월 26일, 153쪽)

수년 동안 많은 분파의 사람들이 권리 역원을 따르지 않았습니. 이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구 세주가 십자가에 달리신 후 베드로와 사도들은 한 적대자를 가르쳤습니. 율법을 공부한 가말리엘은 그들의 가르칠 권리를

방해했습니다. 일어나 사람들을 퍼었던 다른 두 무리들의 잘못된 결과를 상기시키며 그는 이렇게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사도행전 5:38~39)

산상 수훈에서 구세주께서는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태복음 7:16~20) 이 사업의 아름다운 열매가 세상 가득히 알려지고 있습니다.

권능을 지닌 자를 받아들임을 보여 주기 위해 “모든 일은 간절한 기도와 굳은 신앙으로써 교회 회원의 만장 일치로 수행되어야 하나니”(교리와 성약 26:2)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며”(교리와 성약 1:20)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구세주의 가르침대로 생활하는 교회의 모든 성인과 청남은 신권에 성임됩니다. 그러나 이 권세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든 아버지는 가족의 족장이며 모든 어머니는 여족장의 동등한 자격으로 그들만의 부모된 역할을 수행합니다. 남녀 회원들은 성신의 은사로 개인적인 삶이나 그들의 책임 분야에 대해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닌 예언자와 대관장만이 지상의 왕국의 모든 열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그 분은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입니다. 그 분과 보좌 그리고 십이사도 정원회는 구체적인 권능과 책임을 다른 총관리 역원, 지역 역원 및 보조 조직 지도자에게 임하여 그들 자신의 책임 분야에 일을 지시하게 합니다.

교회 초기에 주님은 회원들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는 네 율람 곧 교회의 우두머리 된 자에게 말하지 말아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28:6)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속직하기



위해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양심에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깨끗한 양심은 성신에 의해 인도될 때 매우 귀중한 영적인 은사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자신의 도덕적 결정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어떤 사람이 자신보다 더 높은 권능을 지닌 사람들을 위한 지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에 위배됩니다."(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1쪽; 교리와 성약 28:12 참조)

또한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기존 신권의 권능 이외의 더 높고 영적인 은사나 권능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복음의 원리와 의식을 믿고 교회의 대관장을 합법적인 관리자라 받아들이지만, 그들은 대관장이 갖지 못한 더 높은 지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교리에 일치되지 않는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주 행해집니다. 그러나 더 높은 지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대관장은 지상의 하나님의 왕국의 모든 열쇠를 지고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대관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계명과 계시를 받기로) 지명 받은 자는 아무도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43:3-4)

토마스 비 마쉬는 요셉과 친한 사이였습니다. 1984년 4월 연차 대회 이 연단에서 힝클리 대관장님은 마쉬 형제가 그의 아내와 다른 자매들 사이의 유유 생산에 대한 분쟁에 대해 대관장단과 교회 지도자들의 결정을 따르지 않기로 했을 때 그는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탕자가 그랬듯이 그는 마침내 "스스로 돌이켰[을 때]"(누가복음 15:17)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친구로 지냈던 히버 시 킴볼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3년 전 아내를 잃은 후 나는 상황을 깨닫기 시작했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었으며 자네의 신뢰나 하늘 가족의 한 자리에도 합당치 못하게 행동했음을 알고 있네. 나는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자네들 가운데 있을 자격이 없네. 그러나 내가 상처를 준 교회 및 십이사도와 화해하지 않고는 이대로 살 수가 없네." 그때 그는 배반했던 수년 동안 그가 배운 중요한 교훈을 말했습니다. "주

님은 나 없이도 매우 잘 지내실 수 있었고 내가 그 직책을 떠남으로 아무 것도 잃으신 것이 없으셨지만 내가 잃은 게 뭔지 아나? 온 이세상과 이와 같은 세상에 줄 수 있는 부보다 더 큰 부라네."(토마스 비 마쉬가 히버 시 킴볼에게, 1857년 5월 5일, 브리감 영 모음집, 교회 역사부) 그는 형제들에게 위안과 평안 및 그를 받아줄 것을 기원했습니다.

재침례 받은 후 토마스는 솔트레이크 시티로 와서 교회 대관장인 브리감 영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영 대관장님은 일요일 예배에서 말씀을 하게 했으며 토마스는 다음과 같은 충고를 청중에게 했습니다. "만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배도하여 제가 한 대로 할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미리 체적질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내 충고를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총관리 역원들 곁에 서 있을 것입니다."(설교집 5:207)

예언자 요셉은 1832~33년 겨울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진실한 어떠한 천사도 사람을 성임하기 위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미 보내심을 받아 나를 성임하여 신권을 확립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성임하는 권세를 지닌 신권이 이미 이 지상에 확립되면, 하늘의 사자는 또 다른 사람을 성임함으로써 그 권세를 간섭하려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시간 이후부터 어떤 사람이 천사에 의해 성임되었음을 주장하며 여러분에게 접근한다면,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거나 또는 범법의 결과로 말미암아 악마의 천사가 강요하여 그렇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신권이 교회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밀레니얼 스타 1846년 11월 20일, 139)

이제 교회의 근본적인 예언적 진리 다섯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권능과 열쇠가 하나님에 의해 요셉 스미스와 교회 대관장으로 부름 받은 그의 후계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둘째, 그런 열쇠와 권능은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으며, 그런 권능을 지니고 있다고 "교회에 알려지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교리와 성약 42:11 참조)

넷째, 교회의 각 회원은 자신의 부름과 책임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위해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높은 권능을 지닌 자들을 위한 영적인 지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섯째, 제정된 질서나 신권 계통 외에 교회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의 직접적인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릇 인도된 것입니다.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신권을 지닌 형제들과 자매들과 다시 온전한 우정을 나누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팔을 벌려 환영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총관리 역원들의 부름의 신성함에 대한 제 간증은 제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나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열쇠, 권능, 교회 대관장의 지시를 통한 계속적인 계시가 주어지는 과정을 지켜보아 왔습니다. 저는 이 계시의 힘이 1830년 4월 6일 이래로 이 사업을 이끌고 있음을 간증합니다. 그러한 확신은 제가 지닌 가장 큰 지식의 근본이 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날 계시해 주는 이 교회의 계속되는 예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길 권고하며 간구합니다. 이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



# “너희는... 알지니라”

키스 비 맥멀린 감독  
관리 감독단 제2보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차이를 매우고 우리가 서로를 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성신의 권세와 분명한 증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업을 간증하기 위해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주의 길을 준비하려고 먼저 오셨던 분과 같은 영으로 차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임무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제 소망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을 돕고 그분의 면전에 거하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사와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연차 대회 동안 주님의 사업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일들에 관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거룩한 것들입니다. 연사가 선언할 때는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이분들이 간증하시겠지만, 저도 증인으로서 제 간증을 보태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증인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여 들으려고 하는 자녀들의 경향을 인정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진리를 소개하고 확신시키고 인봉하기 위해 이 율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혼

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예언자로 부름 받았으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형인 아론을 대변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보내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들을 모세와 함께 간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증인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생애와 성역에서 나타났습니다. 거룩한 천사들과 침례 요한과 예언자들과 사도들과 성신과 아버지 하나님 모두 주님의 신성함을 찬양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복음 회복의 각 단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논박할 수 없는 증인들은 자신이 듣고 보고 이해한 것들을 글로 쓰고 말로 표현했습니다. 어떤 경륜의 시대에서든지 두 명 이상의 증인들이 그러한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의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라”(고린도후서 13:1)

저는 오래 전, 한 남자분에게 그 분의 부인과 자녀들의 침례 승낙을 구하면서 증인이 갖추어야 할 특성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우리의 선교사들은 그 가족에게 그리스도의 신성함과, 1820년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신 것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고 지상에 참된 교회가 다시 세워진 것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배 사항마다 선교사들은 강렬한 간증을 가지고 있었으며, 성신은 그 가르침이 참되다는 것을 어머니와 자녀들에게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침례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영적인 확신을 못 얻었습니다. 오랫동안의 신념과 인습 때문에 그는 의심

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분을 만나 부인과 자녀들이 침례 받는 것에 대한 오해를 풀고 허락해 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분은 가족들의 선택의 권리를 변경시키고 싶어하지 않았으나, 자신의 신념과 가족의 전통과 이 회복의 가르침 사이에서 갈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대화가 끝날 무렵, 저는 그에게 간증했습니다. 선교사들이 가르쳤던 내용에 대해서도 간증했습니다. 이 교회의 거룩한 특성에 대해 설명하던 중, 문득 교리와 성약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이 교회는] 유일하고 참된 살아 있는 교회[입니다.]”(교리와 성약 1: 30)

그 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선언에 당황한 그 분은 불신으로 인해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교회가 신도 수도 더 많고 교회도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영향력도 당신네 교회보다 크네요. 그뿐입니까? 서회 교회의 역사와 전통으로 치면 요셉 스미스보다 훨씬 오래 됐죠. 그런데 어떻게 당신네 교회만이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던 말입니까?”

말씀을 잠시 멈추고, 그 분이 보인 반응은 그러한 간증을 처음으로 듣는 분들이 느끼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대회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경험하실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인 것입니다. 이 대회 동안 기도와 말씀과 음악을 같이 하신 분들은 자신이 참되다고 아는 것에 대해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간증에는,

•하나님의 실재와 사랑하는 아들의 신성함과 그리스도의 교리

•이 경륜의 시대의 첫예언자인 요셉 스미스와 오늘날의 주님의 예언자인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 모두에게 특별히 강조되는 사명을 띤 예언자, 선전자, 계시자들의 거룩한 부름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러한 간증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목적과 기원 및 운명에 대해 계시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물문경을 의미하기도 하는 경전 등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생각하거나 믿는 바와 달라서 이러한 간증을 듣고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그 분들은 마음속으로 이러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던 말입니까? 당신이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러한 의문을 가지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반응을 보이기 전에, 마음을 닫기 전에, 말 한 마디를 가지고 흠을 찾기 전에, 부디 이 말씀을 듣고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 자체는 의미를 전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거나 듣는 사람들이 의미를 붙이는 것입니다. 저는 경험에 기초해서 이야기하고, 여러분도 경험에 기초해서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의사 소통이 어렵다는 것입니다.”(데이비드 오 맥케이, 로엘 엘 베니온 인용, 대회 보고, 1968년 4월, 94쪽)

이것은 인간의 현상으로서 여러분이 의심을 품게 만드는 근본 이유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문제들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 해도, 우리는 경전에서 훌륭하고 위안이 되는 약속을 받습니다. “너희는... 알지니라” 우리는 성장 배경은 다르지만 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차이를 배우고 우리가 서로를 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는 바로 성신의 권세와 분명한 증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성신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나타내시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신화의 세 번째 구성원입니다. 성신은 거룩한 권세를 갖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증거해 줍니다. 성신의 증거는 들리거나 보이지 않을 수 있고 버려지거나 거절될 수도 있으나, 결코 잘못 이해될 수는 없습니다. “성신은 계시자입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11쪽) 성신을 통해 받은 것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받은 그 어느 것보다도 영혼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시력과 소리와 촉감과 맛과 냄새와 삼라 만상의 모든 능력을 통해 경험을 쌓았다 해도 성신의 영향력 아래서 그것이 잠시 동안이라 하더라도 탁월하고 온전한 경험을 하는 것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성신은 영체를 지닌 존재입니다. 성신은 영원한 율법과 원리를 통해 모든 사람들, 즉 어른과 어린이의 영에 말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아주 분명하게 전달됩니다. 이 계시된 지식으로 인해 우리는 진리에 대해 개인적으로 간증과 증거를 얻게 됩니다.(브르스 알 맥콩키, 신약전서 교리 주해, 1권, 756쪽)

주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이

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러하다. 보라, 나는 네게 와서 네 마음 가운데 거할 성령으로 네 정신과 마음에 말하리라. 보라, 이것이 계시의 영이니”(교리와 성약 8:23)

얼마나 완전합니까! 얼마나 뛰어나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삶이 서로 다르다 해도,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라는 똑같은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이고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인 연고니, 무엇이든지 진리이면 곧 빛이요, 무엇이든지 빛이면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영은 세상에 오는 각 사람에게 빛을 주시나니, 영은 세상을 통하여 영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을 깨우치느니라.”(교리와 성약 84:45~46)

주님은 또 설명하셨습니다. “진리는 현재 존재하며 과거에 존재했고 미래에 존재할 사물에 대한 지식이니라... 진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나니.”(교리와 성약 93:24, 26)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요셉 스미스 역 태태복음 7:12)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저항하듯이 제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어떻게 당신네 교회만이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던 말입니까?”라고 반문했던 형제님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통해 하신 대답이었습니다. “제 주장이 아닙니다.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논쟁하지 마십시오. 의의가 있으시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 이야기 나누십시오.” 그 분은 가족들의 침례를 허락하셨고,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몇 주 후, 스테이크 대회가 끝난 뒤 연단에서 내려오는데 두 명의 남자가 사람들을 어깨로 밀치며 제게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순간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구, 여기에서 논쟁하시려는구먼.”

그 분은 다가와서 손을 내밀더니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기억합니다. 전 아직도 형제님께서 이 교회가 유일하고 참되며 살아 있는 교회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말을 더 하기도 전에 그는 악수한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압니다!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영의 권세로 그 말씀이 모두 참되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침례를 받고 제사에 성임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서 제 친구를 침례 줄겁니다. 친구도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간증의 목적이요 성신의 권세이며 진리의 뜻입니다. 이미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그 간증에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라는 간증을 더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우리의 구속주요 세상의 구세주입니다. 그 두 분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 그의 기도에 응답에 주시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후 하늘의 다른 사자들이 그에게 나타나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그 사자들 가운데는 물론경을 가져다 준 모로나이와 아론 신권을 회복시켜 준 침례 요한과 요셉에게 대신권과 거룩한 사도 직분을 부여해 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이스라엘의 집합의 열쇠를 가진 모세와 아브라함의 복음을 지닌 일라이어스와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녀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인봉하는 권세를 가진 엘리야가 포함됩니다. 주님의 복음이 회복되었으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불리는 그분의 지상의 왕국이 재건되었습니다.(교리와 성약 115:3~4, 니파이삼서 27:7~8, 고린도전서 1:11~13 참조)

이 대회에서 저나 다른 분들의 선언으로 혼란을 겪으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로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야고보서 1:6) 이유는 이렇습니다. “... 너희가 참 마음 참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써 간구할 진대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시리라. 또한 성신의 권세로써 너희가 온갖 진리를 알찌니”(모로나이서 10:45)

이 모든 것이 참됨을 간증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안식일과 일요일 물건 구매

일 시 텅기 장로  
칠십인 정원희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것은 바로  
거룩한 성약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개심과 의지의 깊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저의 말씀 주제는 안식일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요일에 물건을 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예언자들로 하여금 성약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창조 작업을 쉬셨습니다.(모세서 3:3, 창세기 2:2~3) 이 날은 거룩한 날로 축복되고 성결케 되었습니다.

모세가 받은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출애굽기 20:8)는 것이었습니다.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님은 안식일 준수가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표시였다고 가르치셨습니다.(물론 교리, 658쪽, 브르스 알 맥콩키: 느헤미야 13:15~22; 이사야 56:1~8, 예레미야 17:19~27; 에스겔 46:1~7; 출애

굽기 31:12~17 참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들은 일요일을 그리스도께서 일요일에 무덤에서 나오시고 그 후 사도들이 한 주의 첫날에 모임을 시작한 사실을 기념하는 안식일로 여기고 있습니다.(요한복음 20:6, 누가복음 24:1, 마가복음 16:1, 마태복음 28:1, 사도행전 20:7)

1831년 8월 7일 일요일, 주님은 다음과 같은 계시를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더욱 온전히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흠없게 지키고 기도의 집에 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성찬을 바칠지어다.

“진실로 이 날은 네 일을 쉬고 가장 높이신 이에게 예배드리는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어느 때든지 네 서약을 의롭게 바쳐야 하느니라.

“그러나 이 날 곧 주의 날에 너는 네 형제와 주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며 네 현물과 네 성찬을 가장 높이신 이에게 바치는 것을 잊지 말라.

“또 이 날에는 다른 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다만 정성을 다하여 식사 준비만 하여 네 음식이 온전한 음식이 되도록, 바꿔 말하면 네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할지어다.”(교리와 성약 59:9~13)

최근 신권 지도자를 위한 한 지역 신권 모임에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교회 회원들이 세상의 방법을 수용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염려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각적으로 그러한 것을 수용하지는

않지만, 불행히도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 모든 교회가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을 충실하게 지키며 생활하는 사람은 주님의 보다 많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히버 시/유타 주 스프링빌 지역 대회, 신권 지도자 모임, 1995년 5월 13일)

안식일을 적절하게 지키는 것의 매우 중요한 면은 일요일에 물건을 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불행히도 많은 가게와 시설들이 일요일에 문을 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에 물건 사는 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회원들은 예언자들로부터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라는 권고와 가르침을 받았습니 다. 우리는 일요일에 물건을 사지 말아야 합니다.

힝클리 대관장님은 계속해서 신권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에는 일요일에 가구를 사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교회에는 일요일에 새 차를 사야 할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는 약간만 주의를 기울이고 계획하면, 일요일에 식료품을 사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요일에 아이스크림을 사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요일을 물건 구매의 날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안식일에 일반 상인들의 단골 고객이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왜 문을 열어 놓습니까? 손님을 받기 위해서죠. 누가 손님입니까? 비회원만이 모든 손님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가 압니다.”(히버시/유타 주 스프링빌 지역 대회, 신권 지도자 모임, 1995년 5월 13일)

구약전서의 느헤미야서에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가르침으로 안식일을 준수 하라고 배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화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느헤미야 10:31)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현대의 예언자들은 일요일에 물건을 사지 말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들 중에 안식일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상인들에게 일요일에도 계속 문을 열 것을 권유하고 있다는 책임을 면



키 어려울 것입니다. 필수적인 용역들은 제공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안식일에 이루어지는 거래는 상인들과 고객들이 주님의 날에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만 한다면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성도의 빛, 1989년 1월호, 26~27쪽)

형제 자매 여러분, 일요일에 물건을 사지 맙시다. 이것을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은 미리 계획하는 것입니다. 토요일에 연료를 충분히 넣으십시오. 토요일에 주말에 필요한 식료품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가게를 이용해서 그 주인이 일요일에도 일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일요일에도 문을 열어야 하는 필수적인 시설들은 있습니다. 이러한 곳은 응급 기관, 병원, 운송업체 및 경찰서나 소방서 같은 보호 기관 등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필수적인 공공 기관에 근무하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고 편안하게 해 주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계 여러 나라와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일요일에 물건 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공동체인 우리는 다른 시민들이 일요일에 물건을 사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 긍정적인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우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요일에 물건을 사지 않으면, 일요일에 문을 여는 업체들은 일요일에 계속 문을 열 재정적인 이유가 없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간단한 문제입니다.

저는 종종 일요일 오후에 스테이크 대회 감리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중에 유타 주의 작은 시골 마을들을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항상 트랙터가 멈춰 있고 들녘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겸손한 농부들의 신앙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도시로 들어서면, 일요일인데도 많은 가게의 주차장에는 차들이 꽂차 있습니다. 주님의 법이 여겨지는 것을 보면 슬프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한 업체의 주인과 운영인들은 종종 자유 경쟁 시장 원리나 조합 정책의 준수 등을 이유로 듭니다.

저는 언젠가 킴블 대관장님께서 한 충실한 교회 회원과 하신 점견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직업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유소를 운영합니다.” 제가 물



었습니다. “안식일에 영업하십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오, 안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활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주유소 운영주들은 안식일에도 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니까요.” 그가 말했습니다.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네, 심합니다. 길 건너 편 주유소는 일요일에도 종일 문을 엽니다.” “그런데 형제님은 안 연다고요?” “네, 대관장님,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친절하셔서 필요한 것은 충분히 해결됩니다.”(스펜서 더블류 킴블의 가르침, 227쪽)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들은 성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배웁니다. 성약의 백성이었던 고대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일요일에 물건을 사지 않으므로써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 보실 수 있는 표시가 되게 합시다.

이것은 우리의 유산입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우리는 개척자 조상 때부터, 그렇

게 배웠습니다. 몇 년 전 힝클리 대관장님께서 하신 다음 말씀이 기억납니다.

잠시 142년 전의 이곳으로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곳에는 태버나클도, 성전도, 템플 스퀘어도 없었습니다. 1847년 7월 24일, 개척자 부대가 이 계곡으로 들어왔는데, 선두 그룹은 하루 이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브리감 영은 토요일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과 오후에 안식일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곳에는 아무런 회당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7월의 폭염 속에서 형제들이 말씀할 때에 수레 위에 걸터 앉거나 바퀴에 기대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을을 위해 씨앗을 심어야 하느냐는 중요하고도 절박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영 대관장은 그 때나 그 후에도 안식일 계명을 어기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앤사인, 1989년 11월호, 51쪽)

개척자 조상들에게 안식일을 어겨야 할지 모르는 유혹이 얼마나 심했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생존 여부는 키워서 수확할 수 있는 농작물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도자들은 주



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여 안식일을 지키도록 권고했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물건을 사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과 축복을 주십니까? 교리와 성약 59편과 구약전서 레위기 26장에는 비슷한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땅에 충만한 것이 다 너희 것이 될 것이요, 땅이 비로 축복 받아 그 산물을 내고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하나님은 충실한 백성을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할 것이며 저들과 세운 언약을 이행하리라"(교리와 성약 59:16-19; 레위기 27:2-6, 9 참조)

또 다른 축복이자 경고로서 저는 조지 엘버트 스미스 대관장님의 다음 말씀을 생각합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슬픔과 고통이 많은 이유는 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한 사실에까지 유추해 가볼 수 있습니다."(대회 보고, 1935년 10월, 120쪽;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께서 인용, 앤사인, 1971년 5월호, 7쪽)

결론적으로 이 아름다운 부활절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것은 바로 거룩한 성약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관심과 의지의 깊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크 이 피터슨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느냐 아니냐는 주님 개인과 그분의 깃세마네 동산에서의 고통과 십자가에서의 사망과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의 확실한 척도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행위 면에서 기독교인이나 아니면 우리의 관심이 너무 약해 그분의 속죄 희생에 대해 기념하는 것이 우리에게 거의 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하는 표시입니다.(대회 보고, 1975년 4월, 72쪽; 앤사인 1975년 5월호, 49쪽)

안식일은 성스러운 날이며, 우리 모두 일요일에 물건을 사지 않겠다는 결심을 할 필요가 있음을 겸손히 간증드립니다. 그것은 영원한 원리들을 믿고 따르는 요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선택된 백성 사이의 표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율법이며 계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바구니와 병

지예코 엔 오까자키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사와 많은 다양성과 많은 차이를 주셨으나, 우리는 서로에 대해 본질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모두 그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알로하! 우리는 2월에 미국 이의 지역의 회원 수가 미국 내의 회원 수보다 약간 많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 약간의 변화는 교회가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중요한 상징이 됩니다. 갈라디안인들에게 한 바울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라디아서 3:28) 저는 이번 주로 54회 침례 생일을 맞습니다. 저와 같이 개종한 사람들은 바울의 다음과 같은 약속에 주목합니다.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고린도전서 12:13)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나누는 아름다운 하나됨에 관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3주 전에 수잔 워너 자매님과 함께 필리핀과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와 통가와 피지에서 지도자 훈련 모임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전에는 멕시코와 온두라스와

과테말라와 사모아와 한국과 일본에 지명을 받고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곳에서 열심히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구, 너무 피곤하시겠어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오히려 "독수리의 날개 위에"(교리와 성약 124:18) 탄 것처럼 높이 오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훌륭한 복음 소식을 듣고 깨어서 일어나 "아름다운 옷을"(모로나이서 10:31) 입을 시온의 딸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가르쳤지만, 배우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세주를 사랑하는 데에서도 하나이고, 복음에 대한 간증에서도 하나이며, 신앙과 소망과 사랑에서도 하나입니다. 물론경이 영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에서도 하나이고, 핑클리 대관장님과 다른 총관리 역원들을 지지하는 데에서도 하나이며, 서로를 사랑하는 데에서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어떤 것에서든 완전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어떤 것에서든 완전히 똑같은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여정에서 서로 다른 지점에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안인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말한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은 침례 받는 순간 더 이상 유대인과 그리스인이 아니었습니까? 남자들이 더 이상 남자가 아니고 여자들이 더 이상 여자가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을 것입니다.(갈라디아서 3:27)

니파이는 이러한 말로 똑같은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는... 만인을 부르



사 그의 선하심을 취하게 하시고, 그에게로 나아오는 자면 검거나 회거나 속박된 자거나 자유인이거나, 남자나 여자이거나를 부인치 아니하시고... 모두 하나님 앞에는 동일함이라”(니파이이서 26:33)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사와 많은 다양성과 많은 차이를 주셨으나, 우리는 서로에 대해 본질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모두 그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 회원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발전하기 위해 서로에게서 배워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복음의 교리는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교리는 필수적인 것이나 적용 방법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리와 문화적인 적용 방법 간의 차이를 보여 주는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유타 복숭아 병이 하나 있습니다. 유타의 한 주부가 눈 오는 겨울 동안 가족에게 먹이려고 마련한 것입니다. 하와이의 주부들은 과일을 병에 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족들이 며칠 간 먹을 과일을 따면 이런 바구니에 담아 놓습니다. 이 바구니에는 망고와 바나나와 파인애플과 파파야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솔트레이크시티의 한 슈퍼마켓에서 이 과일들을 샀습니다만, 이 과일은 일 년 내내 과일이 나는 기후에 있는 폴리네시아의 주부가 가족을 먹이려고 딴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구니와 병은 서로 다른 용기이지만, 내용물은 가족을 먹일 과일도 똑같습니다. 그럼 병은 괜찮고 바구니는 안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좋습니다. 이러한 용기들은 각각의 문화와 사람들의 필요에 적절한 것입니다. 둘 다 과일이라는 내용물을 담아 두기에 적절한 것입니다.

그럼, 과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갈라디아서 5:22~23) 상호부조회의 자매와 신권 정원회의 형제와 성찬을 취하기 위해 갖는 경건을 통해 영의 열매는 우리가 사랑과 기쁨과 화평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상호부조회가 타이페이에서 열린건 통가에서 열린건, 신권 정원회가 몬타나에서 열린건 멕시코에서 열린건, 성찬식이 피지에서 열린건 필리핀에서 열린건 상관없습니다.

세계 어디서건, 우리는 복음 안에서의 형제 자매로서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 더 가까워지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세계 어디서건 우리가 똑같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복음의 교리와 원리, 구세주를 믿는 신앙, 경전에 대한 간증, 살아 계신 예언자로부터 인도받는 것에 대한 감사, 성도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변하지 않고 강력한 복음의 핵심 원리들에 더욱 민감해집니다. 그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함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원리들 위에 굳건한 토대를 세웁시다. 그러면 비가 와서 홍수가 나도, 우리의 집은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으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마태복음 7:25)

굳건한 기초 위에 서서, 서로 기쁨을 나누고, 서로에게 귀기울이고, 서로에게서 배우고, 다른 환경과 다른 문화와 다른 세대와 다른 지역을 대할 때 서로 그러한 원리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웁시다.

저는 지금까지 6년 동안 교회의 상호부조회 여성들에게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저는 그들 모두에게서 배웠습니다. 이혼한 뒤 혼자서 자녀를 키우느라 애쓰는 어머니들에게서도 배웠으며, 결혼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여성들과, 자녀를 간절히 원하나 갖지 못하는 여성들과 가정에서 정서적, 육체적으로 혹사당하여 위험에 빠져 있는 여성들로부터도 배웠습니다. 또 가정 안에서 일하는 주부들과 가정 밖에서 일하는 여성들로부터도 배웠습니다. 약물에 의존하여 사는 여성들과 성적인 문제에 빠진 자녀를 가진 여성들과 만성적인 질병에 시달리는 여성들에게서도 배웠습니다.

이러한 분들 가운데 저에게 선물을 주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분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이 도움을 청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분들에게서 귀기울여 배움으로써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6년 전 이 달에 상호부조회 회장단에 부름 받았을 때, 히클리 대관장님은 이런 권고를 주셨습니다. “자매님께서 이 회장단에서 특별한 자격을 갖추십시오. 자매님은 미국과 캐나다 이외의 지역



에 살고 있는 자매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세계의 수많은 땅에 살고 있는 교회 회원들과 교통하는 분으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매님을 교회와 하나가 되는 것의 표본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대관장님은 제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허가 풀리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히클리 대관장님, 저는 대관장님과 이 회중 앞에서 대관장님의 권고와 축복이 정말로 성취되었다는 간증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한국어도 스페인어도 통가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지역의 상호부조회 자매님 및 신권 지도자들에게 가라는 부름을 받을 때면 그들의 언어로 말하고 싶다는 소망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히클리 대관장님의 위로와 축복의 말씀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교회 번역부 및 저와 일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신 훌륭한 지도자들의 도움으로 저는 이 백성들 앞에 서서 스페인어로 한국어로 통가어로 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영이 제 말씀을 그 분들의 마음속에 전해 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성령의 열매”가 저에게 그 분들의 사랑과 기쁨과 신앙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갈라디아서 5:22) 영이 우리를 하나로 만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열매가 복숭아든 파파야든, 여러분이 그러한 것을 병에 담은 바구니에 담든, 사랑으로 그러한 것들을 전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아버지의 것이 되게 해주소서.(교리와 성약 38:27 참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찌니라”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의 표준이 되며 이를 통해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계명을 존중하면  
다른 모든 계명도 존중하게 됩니다.



**이** 대회에 회중을 대하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총관리 역원이나 교회 역원을 만나면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진리를 배운 대로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뵈니, 오래 전 군대 시절이 생각납니다. 하사관 한 명이 저회 소대에 오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차렷!”, “우향우!”, “좌향좌!”, “뒤로 돌아!” 우리는 즉시 정확하게 그 구령에 따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그 하사관이 “위로 봐!”라는 구령은 내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전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 살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엘마서 37:47, 시편 5:3, 엘마서 5:19; 37:37 참조)

오늘 제 말씀 주제는 주님의 십계명 가운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

게 있게 말찌니라”라는 첫번째 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3; 고리와 성약 20:17~19) 누구든 이 계명을 잘 알지만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시험 받을 때 유용하다고 생각했던 제언을 함께 내놓자 합니다. 고민스러운 선택을 앞에 두게 되면 저는 이렇게 자문합니다. “넌 어느 쪽을 볼거지?”

##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지 모른 채 그분을 외면하는 생활을 합니다. 영적인 필요가 생기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뒤를 돌아다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아무리 보아도 영적인 갈급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불멸의 영이 부족해질 때 영은 그 굶주림을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었다 해도 그 삶이 합당하지 않는 한, 공허한 통증이 따르게 됩니다. 영적으로 허약한 풍요 속에서는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 주님께 나아오도록 권유함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 나아와 주님의 복음이 베푸는 영적인 향연을 누리라고 권유합니다. 성도들은 자신을 지탱시켜 주는 달콤하고 영적인 양

분을 섭취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받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성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러한 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사 불멸의 은사와 영생의 기회를 주신 것을 인식하고 그에 감사할 때 힘을 얻게 됩니다.

## 충성스러운 시민들

이러한 은사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 교회 회원들이 살고 있습니다. 국가나 정부 형태에 관계 없이 그들은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자신의 국가에 충성스러운 시민이 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더욱 깊은 애국심을 키울 수 있고 더욱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회원들은 국가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왕국에 대한 이들의 헌신은 변하기 쉽습니다. 대부분은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고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에 대한 충성보다 삶의 다른 관심있는 것들을 우선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느 쪽을 볼지 아직 정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 주님의 대표자들

어느 신문 기자가 우리 지도자 중 한 분에게 각 나라에서 한 사람씩 총관리 역원이 될 날이 언제냐고 물었을 때 그 기자는 무언가 혼동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도자께서 대답하시는 동안 저는 아시아, 유럽, 북미, 중미, 남미 및 여러 군도의 나라에서 태어난 사랑하는 총관리 역원들을 생각했습니다. 이 총관리 역원들은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서로 다르지만 자신의 출신 국가를 대표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교회의 관리 정원회들은 대표자로 구성되는 의회가 아닙니다. 각 지도자는 자신의 국가의 대표자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대표자로서 사람들을 대하도록 부름 받은 것입니다.

총관리 역원은 “예언과 권능있는 자



의 안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신앙개조 제5조)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고 증거하기 위해 온 세상에 "특별한 증인"으로 부름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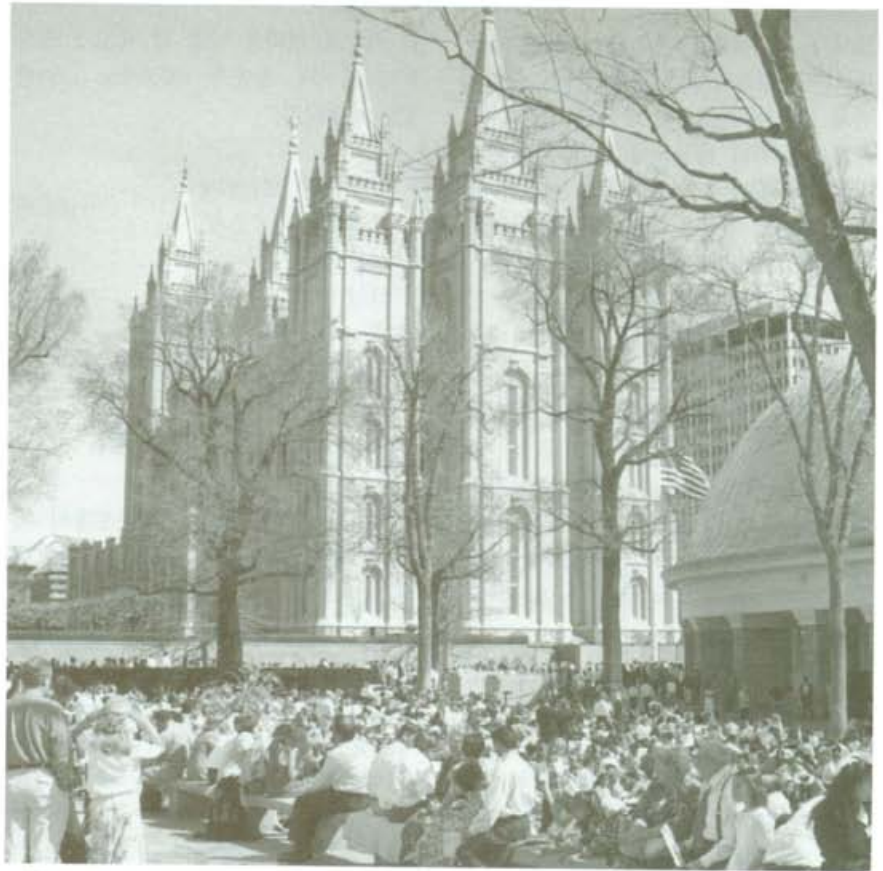
## 주님의 계명에 순종함

어디에 살고 어디에서 봉사하든 간에, 우리는 모두 어느 쪽을 바라볼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의 표준이 되며 이를 통해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계명을 존중하면 다른 모든 계명도 존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보지 않고 놀러 감으로써 안식일에 대한 충실한 태도를 변화시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어느 쪽을 보십니까?" 경전에는 우리에게 올바른 일을 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치...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이사야 58:13, 14)

순결에 관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러한 계명들이 공격받고 경시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자제를 통한 자기수양의 원리가 흔히 유해하고 물인격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구만으로 자신을 한정짓는 것이 물인격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더 진리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형상대로 태어났으며 자연적인 욕구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첫번째 계명을 어긴다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이유 때문에 주님께 충실하지 못하면 쓰라린 수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배가 저희의 신인 자들에게 "멸망"이 임할 것을 알았습니다.(모든 형태의 육적인 집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기로 한 자들은 영적인 보상을 받지



대회 동안의 태버네클 북쪽 구내를 보고 촬영한 광경.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첫번째 계명의 차원에서 정직하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방향 수정이 필요하면 "뒤로 돌아!"라고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나무는 빛을 향해 가지를 뺏고 그러면서 자랍니다. 하늘 부모님의 아들 딸인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위를 보면 오른쪽이나 왼쪽을 보는 것보다 더 높은 해안을 갖게 됩니다. 거룩함을 쫓아 위를 보면 주님의 제자로서 힘과 위엄을 갖게 됩니다.

## 가족을 바름

위를 보는 것은 성공적인 부모가 되는 데 꼭 필요합니다. 가족은 하늘의 인도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부모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두려움이나 연민 때문에

자녀에게 부당한 충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위해 돌아가신 창조주처럼 본다면, 그 부모들은 자신의 한계를 넘는 지혜를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어머니와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거룩한 율법에 기초를 두고 개인적인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준비하는 시간"(엘마서 34:32 참조)임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자녀에게 선택의 자유를 토대로도 덕적이고 영적인 특성을 가진 결정을 내릴 수는 있지만 그러한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한 것을 이해한 부모와 자녀들은 성품에 힘을 더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며 후손들도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 이웃을 바름

마찬가지로, 이웃과 친구와 동료들과의 관계도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모로나이서 7:47)을 가질 때 더욱 친해지게



됩니다. 주님을 닮고자 하는 소망이 있으면 선을 행하겠다는 강한 동기 부여를 받게 됩니다. 동정심을 갖고자 하면 더욱 황금률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가치있는 일을 자원하여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면 새로운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교회에서 신권 지도자나 보조 조직 지도자들이 주님처럼 집회를 갖고 정원회 모임을 갖고 공과를 가르칠 때, 자신이 어디에서 봉사하느냐보다 어떻게 봉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교회에서의 직책에 의해 승영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충실함을 통해서 승영에 이르는 것입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는 직책에 연연하고 종보다 주인이 되려고 힘쓰면 봉사하는 사람의 영과 그 사업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때때로 종과 주인에 관한 혼란이 있습니다. 일단의 무리가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며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마가복음 9:35)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마구잡이 요청에 무조건 응하고 대접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방법대로 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주님이 그들의 주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때 어느 쪽을 봅니까? 오른쪽이나 왼쪽만 보면 밀거나 당기는 일밖엔 할 수 없습니다. 더 높은 상태에 있어야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 있기 위해서는 옆을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올려다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아야 잘 봉사할 수 있습니다.

## 유능한 제자들의 태도

우리가 지도자 직분에 부름 받게 되면 그 직분에서 행하는 행위에 대해 구세주 앞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한 행위는 태도에 의해서 형성되는데, 겸손

한 기도로 머리를 낮출 때 태도가 향상되게 됩니다. 찬송가 100장에도 그러한 말이 나옵니다.

나의 영혼 보살피사  
버리지는 마음소서  
세상 장애 부수시고  
나의 영혼 받으소서  
내 친구 너불어 시내려고  
이제 곧 나가려 하옵나니  
사랑 안에 나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시련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도는 정확하게 우리의 태도에 중심을 둡니다. 그렇게 중심을 두면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일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실제로 죄를 짓지 않고도 자신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경험이 많은 등산가는 위험한 가장자리에 서지 않고, 자신을 튼튼히 지탱해 줄 밧줄이나 안전 장치에 의존합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험준한 인생의 산을 오를 때, 주님께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멩에를 맴으로써 복음의 쇄막대와 가족과 훌륭한 친구들에게 단단히 매달려야 합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가장자리에 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기심 때문에 우리의 이익을 위해 무엇이든 하라고 하는 자연의 법칙이 지배하는 야수들의 밀렵 가장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임프르브먼트 이라, 1957년 6월호, 390쪽)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두려워 말라."(교리와 성약 6:36) 저는 그러한 신앙을 통해 엄청난 힘을 갖게 된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고하게 결심하게 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자유롭게 추구하게 됩니다.

최근에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모든 덕과 모든 선과 모든 성품과 모든 훌륭한 성품과 선행할 수 있는 모든 충실함의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아들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대한 그분들의 사랑에 영원히 감사하십시오. 세상적인 것에 대한 사랑이 사라질 때마다 우리에게 대한 찬란하고 탁월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아들의 사랑이 임세할 것입니다."(릭스 대학 지역 대회, 1995년 10월 29일; 처치 뉴스, 1996년 3월 2일, 2쪽)

형제 여러분, 민족이나 국적이거나 직업이나 다른 이해 관계들이 방해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 주님을 생의 우선 순위에 둘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충실한 사람들은 이러한 지고의 약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기 죄를 버리고 내게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모두 나의 얼굴을 볼 것이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교리와 성약 93:1) 우리 모두 이 영광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 지혜의 말씀: 그 원리와 약속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지혜의 말씀은 엄격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긴 하지만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면 건강, 지식의 큰 보화,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속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대신하여 값을 치르신 대속 등이 주어집니다.



여 기 이 합창단에 있는 이 멋진 젊은 성도들은 세계 도처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교회의 젊은 성도들의 전형입니다. 참으로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젊은 그대들이 우리와 함께 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젊은 이들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바로 그대들, 참으로 우리의 젊은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년 전 저는 아프리카에서 무시무시할 정도로 악어가 눈에 띄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후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그들을 파멸시키고자 숨어 기다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악어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위험들이 심히 늘어났으며, 그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어떤 것들은 전장에 매설된 지뢰처럼

여러분이 원숙함으로 나아가는 길목을 가로막는 것들도 있습니다. 한 때 안전했던 이웃과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못 됩니다. 다행히 여러분은 마음속에 지뢰 탐지기와 같은 영적인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운용할지를 배운다면, 그것을 통해 눈에 띄지 않는 악어나 지뢰가 도사리고 있는지 여부를 알게 되며, 그로 인해 환난을 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조직된 후 3년이 지났을 무렵, 우리 시대를 묘사하는 다음 예언의 말씀이 계시로 주어졌습니다. “보라 진실로 주께서 너희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말일에 모의를 피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존재할 악과 음모로 인하여 계시로써 이 지혜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를 경고하였고, 또 미리 경고하노니” (교리와 성약 89:4)

교회의 회원들은 지혜의 말씀의 제약을 받습니다. 오늘날 이 규정은 회원들이나 교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이 원칙들은 필수적인 것임으로 그에 따라 살겠다고 동의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침례받아 교회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 것을 수락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가르치거나 인도하도록 부름 받지 못합니다. 성전에 들어가고자 할 때,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혜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온전히

합당해질 때까지 주님의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이 대체로 규제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한 때는 젊었으며 그러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행위를 제한하는 그 어떤 것에도 대항하려는 추세가 사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절연된 자유만을 회구하려는 망상에 집착할 때 우리 사회의 질서는 자연 붕괴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선택은 그 결과에 무관한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젊은이들이여, 극히 긴요한 필요성에 따라, 지혜의 말씀이 부과하는 제약이 정당함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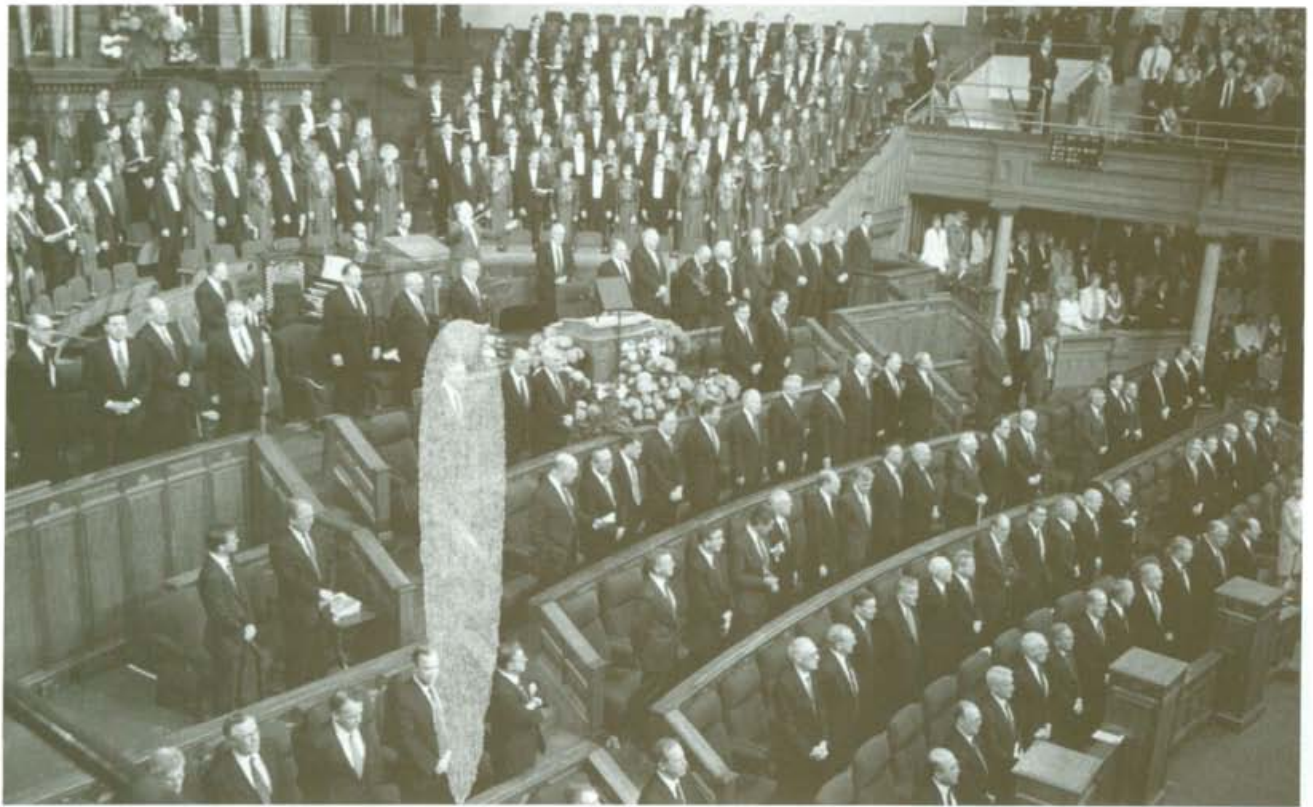
게시가 처음에는 “인사…요, 계명이나 강제[로]” (교리와 성약 89:2 참조) 주어 진 것이 아니었지만, 교회의 회원들이 계시의 취지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교회의 다음 대관장이 그것이 계명임을 선언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것이 계명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약속이 따르는 원칙으로” (교리와 성약 89:3) 주어졌습니다. 이 계시에 나온 원칙(원리)이란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원칙이란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자 할 때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항구적인 진리, 율법, 규칙 등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칙이란 세세한 것까지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항구적인 진리, 즉 원리를 여러분의 뜻으로 삼아 여러분의 길을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게 열려 있습니다.

회원들이 편지를 보내 이것 또는 저것이 지혜의 말씀에 위배되는지를 물어봅니다. 차, 커피, 술, 담배가 지혜의 말씀에 위배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우리는 약속된 축복이 따르는 원리를 가르칩니다. 계시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사람들이 마시거나 씹거나 들이쉬거나 체내로 주입하는 것들 중에는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상하게 하는 습관성 물질들이 많습니다.

해로운 모든 것들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비소는 분명 해로운 것이지만 습관성 물질은 아닙니다. 모든 일에 명을 받아야 하는 자





총관리 역원들과 본부 역원들을 위한 연단. 뒷줄은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을 위한 좌석이며, 앞줄을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들 및 관리 감독단과 본부 역원들을 위한 좌석이다.

는 “게으른 자요 현명하지 못한 자[라고]”(교리와 성약 58:26) 주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토속주가 계시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로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회원들, 특히 남자들을 가족에서 이끌어내어 필연적으로 원리를 깨뜨리는 파티로 몰고 갑니다. 부주의하고 분별없는 자들은 그 계시의 말씀에 명기된 약속들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권고에 순종할 때 여러분은 안전한 인생의 길에 있게 될 것입니다.

왕이 두 마부 중에서 자신의 마차를 몰 마부를 선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두 사람에게 깎아지른 절벽 위에 난 가파르고 구불구불한 길 아래로 자신의 마차를 몰게 했습니다.

첫번째 마부는 마차를 벽쪽으로 바짝 붙여 천천히 몰았습니다. 두 번째 마부는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는 마차를 절벽 모서리쪽으로 붙여 몰았는데 빠른 바퀴를 아슬아슬하게 걸치고선 산 아래로 손살같이 몰고 내려갔습니다.

왕은 매우 사려깊은 사람이었기에, 자

신의 마차를 몰 사람으로 현명하게 첫째 사람을 택했습니다. 안전한 길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 중에 연약한 자와 가장 연약한 자의 능력으로도 감당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89:3) 다른 경전 구절들도 이러한 사실을 지지합니다. 경전의 가르침에 따르면, 지상에서 좋은 것들은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인간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요... [주께서 말씀하시길] 참으로 육체를 강건케 하며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하여 만들어졌고 음식이나 의복이나 맛이나 냄새를 위하여 만들어졌느니라. ... 적당히 취할 것이요 지나치거나 억지로 취하지 말지니라.”(교리와 성약 59:18-20)

젊은이들이여, 건강이나 영양 섭취 그리고 특히 의약품 사용 등의 문제에 있어 절제와 상식을 활용하기를 배우십시오. 극단적이거나 광신적이거나 일시적인 열광자가 되는 것을 피하십시오.

한 예로, 지혜의 말씀에서 우리는 고기를 조금씩 먹도록 권고받고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89:12 참조) 극단으로 치우

치지 않도록 하시려고, 다른 계시를 통해 “누구든지 육식을 금하며 고기를 먹지 말라 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성임된 자가 아니니라.”(교리와 성약 49:18)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성구에는 이러한 권고가 있습니다. “게으르기를 그치라. 부정을 금하라. ... 필요 이상의 잠자기를 그치라. 네 침상에 일찍 들어가 피로를 풀고 일찍 일어나 너희 육체와 정신을 활기있게 하라.”(교리와 성약 88:124)

지혜의 말씀에 나오는 원리들을 존중하십시오. 약속된 축복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고 행하며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는 모든 성도는 배꼽에 건강을 얻으며 뼈에 골수를 얻으 [며]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도 지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이 계시로 수여되었습니다. (교리와 성약 89:18, 20)

지혜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완전한 건강을 약속하진 않지만, 여러분의 타고난 육신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며 미세한 영적인 속삭임에 민활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군복무하고 있을 때 받았던 축복



을 기억합니다. 그 중에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유익한 권고도 들어 있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영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신체적 균형과 적합성을 갖춘 육신을 부여받았느니라... 그대는 이것을 거룩한 유산으로 소중하게 돌보아야 하느니라. 지키고 보호할지이다. 장기를 손상케 하는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지니. 이는 몸이 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니라.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며 성품의 기초가 되느니라.” 그 권고는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계시의 표준대로 생활하는 데 따른 건강의 약속은 교회 회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비회원 친구에게 지혜의 말씀에 관해 이야기하며 그에 따라 생활하도록 열심히 권하십시오.

지혜의 말씀에는 더 큰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들은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와 갑추인 보화까지 찾으리[라는]”(교리와 성약 89:19)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악어나 숨겨진 지뢰와 같은 위험을 간파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적인 계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회원으로 확인받았을 때 성신의 은사를 부여받았습니다. “[바울이 이르기를]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린도전서 6:19)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한복음 14:26)

지혜의 말씀으로 불리우는 그 계시에서 주님은 이러한 약속을 마지막으로 주셨습니다. 이러한 계명들을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다시 주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주는 저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노니, 곧 멸망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한 것같이 저들을 지나치며 살해하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89:21) 그것은 눈여겨 보아야 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모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400년간 그 땅의 노예로 지냈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구원자로 왔습

니다. 모세는 애굽에 재앙을 불러들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번번히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 주기로 언약하지만 그때마다 약속을 어겼습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찌라... 모든 생축의 처음 난 것이 죽을찌라”(출애굽기 11:15)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린 양을 취하되... 흠없고 일년 된 수컷으로 하되... 뼈도 꺾지 말찌[어다]”(출애굽기 12:3, 5, 46, 요한복음 19:33 참조)

그들은 그 양을 잡아 성찬으로 준비하며 행하며 “그 피로...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처음 난 것을 다 치[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찌니라”(출애굽기 12:7, 12~14)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문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나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출애굽기 12:26~27)

젊은이들이여, 참으로 이 부활절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전조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요한복음 1:29, 36) 장자이시며 남자였고 흠없는 분이셨습니다. 병사들이 그 일을 하도록 파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뼈가 꺾이지 않은 채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계명에 순종할 때, 그 유월절에서와 같이 필멸의 죽음에서 목숨을 구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는 언젠가 때가 되면 죽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겪을 필요가 없는 영적인 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영적인 죽음이 여러분을 넘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이 되셨[기]” 때 문이라고 계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엄격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긴 하지만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속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희생의 율법은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성찬을 제정하셔서 희생의 율법을 대신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기꺼이 지킬 의식입니다! 젊은이들이여, 모임에 참석하여 성찬을 드십시오.

참으로 지혜의 말씀에 충실할 때, 여러분이 지닌 본성 중에서도 예민하고, 민감하고, 영적인 부분이 본래의 민활함을 잃지 않고 지켜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느낌에 귀기울이는 것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은 인도와 경고와 가르침과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젊은이의 삶에는 언제나 불확실성으로 가득차 있다 하더라도, 젊은이들이여,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젊은 꿈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합당하고 자연적인 신체적, 정서적 소망들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중독과 좌절 및 자극에서 벗어난 몸과 영적인 감정에 민감한 마음을 바칠 수 있는 동반자를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세와 영원을 위해 인봉될 수 있으며 인생, 자녀, 가족, 행복의 근원이 되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에서 헤매고 있다면 이제 돌아올 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니파이와 같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영에 이끌려 “갈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합당한 동반자를 찾으려고 애쓰십시오. 교회에 충실히 나가십시오. 매일같이 기도로 도움을 구하는 것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방법이 더욱 쉬워질 것이며 마음에 평정과 인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은 위험에 대한 경고를 받게 되며 성령의 속삭임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이 계시가 교회의 모든 회원들, 특히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환난과 위험과 불확실로 가득찬 삶을 직면할 때 강한 방패가 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참으로 교회의 젊은이들이여, 신앙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과 주님의 희생과 속죄와 여러분에 대한 그분의 사랑에 대해 간증합니다. 아멘. □



# 교회 역원 지지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형**제 자매 여러분, 핁클리 대관장님의 지시를 받아 이제 제가 교회의 총관리 역원과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의 명단을 발표하여 여러분의 지지를 묻겠습니다.

우리는 고든 비 핁클리 대관장을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또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토마스 에스 몬슨 형제를 대관장단 제1보좌로, 제임즈 이 파우스트 형제를 대관장단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토마스 에스 몬슨 형제를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으로, 보이드 케이 패커 형제를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 대리로,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으로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욱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바이어링 형제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

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관장단 보좌와 십이사도를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릴 제이 베이트먼 감독이 브리감 영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의 직에서 명예롭게 해임되며, 그의 두 보좌인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독과 리차드 시 에즐리 감독도 함께 해임됩니다. 그 직책에 봉사한 이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릴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 메릴 제이 베이트먼, 달러스 앤 아치볼드,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브루스 시 하펜 형제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

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 엘 에드워드 브라운, 셸던 에프 차일드, 켈턴 엘 쿡, 윌리엄 볼프 카, 테니스 이 시먼즈, 제럴드 엘 테일러, 프란시스코 제이 비냐스, 리차드 비 워스런 형제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형제를 관리 감독으로, 리차드 시 에즐리 형제를 그의 제1보좌로, 키스 비 맥밀런 형제를 그의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다른 총관리 역원들과 본부 보조 조직의 회장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 일치로 모두 지지를 하셨습니다. 칠십인 정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 지지 받으신 분들은 지금 단상에 있는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과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



대회 동안의 태버나클 내부.



# 교회 감사 위원회 보고서

테드 이 데이비스  
교회 감사 위원회

수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교**회 감사 위원회는 교회의 모든 직원, 고용원 및 운영 기구 그리고 교회 감사부를 포함하여 다른 부서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대관장단에게 직접 보고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운영 기구의 기록과 인력을 입수하고 확보해 왔습니다. 우리는 1995년 12월 31일자로 마감된 교회 예산, 회계 및 감사 체제를 포함하여 기금의 영수와 지출에 대한 관리의 합당성과 교회 및 교회 조직의 자산을 보호해 주는 절차의 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

연간 교회 기금에 대한 지출은 성문화되어 있는 정책에 따라 십일조 지출 평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평의회는 계시에 의해 규정된 대로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와 관리 감독으로 구성됩니다. 승인된 예산에 대한 집행은 예산 지출 위원회의 지시하에 예산부를 통해 관리됩니다.

교회 감사부는 교회 감사 위원회와 분리되어 있으며, 공인된 전문적인 감사 지침에 따라 교회 및 교회 계열 회사들의 1995년 12월 31일자로 마감된 연간 재정 활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교회 감사부는 또한 전세계에 있는 교회의 운영 기구에 대한 재정 감사, 운영 감사 그리고 전산 정보 시스템에 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부 직원은 자격을 갖춘 공인 회계사와 이와 유사한 자격을 지닌 감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

감사부는 교회의 모든 다른 운영 기구와 부서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감사 결과를 직접 대관장단에게 보고합니다. 교회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재단 법인 사업체는 일반인에게 인정된 경영 관례에 따라 자체의 회계 및 보고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교회 감사부나 독립된 회계 회사가 이러한 사업체들을 감사합니다. 브리감 영 대학교와 그 외의 고등 교육 기관들은 독립된 회계 회사들에 의해 감사를 받습니다.

종무를 관장하는 지역 단위 조직 감사를 위한 절차는 교회 감사부가 제정한 것입니다. 교회 감사부는 또한 지역 단위 조직 감사 결과와 지역 단위 조직의 지출을 검토하고 조언합니다.

재정 및 운영 관리에 대한 우리의 조사와 1995년의 감사 보고서 및 감사에 대한 회신에 의거하여 교회 감사 위원회는 1995년 12월 31일자로 마감된 1년간 영수하고 지출한 교회의 모든 기금에 대한 관리와 회계 보고가 현재 제정되어 있는 교회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다고 확신합니다.

## 교회 감사 위원회

테드 이 데이비스, 위원장  
도날드 디 셸먼  
제임스 비 제이콥슨

# 1995년도 통계 보고서

보고자: 에프 마이클 왓슨  
대관장단 서기

**대**관장단은 교회 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1995년 12월 31일 현재 교회의 현황과 발전에 관한 다음과 같은 통계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교회 단위 조직

스테이크 수	2,150
지방부 수	699
선교부 수	307
와드 및 지부 수	22,697
와드 또는 지부가 조직되어 있는 국가와 지역 수	159

## 교회 회원

교회 회원 총 수	9,340,898
1995년 동안 침례 받은 기록상의 8세 자녀	71,139
1994년 동안 침례 받은 개종자 수	304,330

## 선교사

복음 선교사	48,631
--------	--------

## 작년 4월 이후 작고한 교회의 저명 인사

빅터 엘 브라운 장로: 명예 총관리 역원, 도리스 티 실 자매: 고 스테일링 더블류 실 장로의 미망인, 웬델 제이 애쉬튼 형제: 교회 공보부 관리 책임자 및 데저레트 주일학교 연합회 총서기 역임, 렉스 이 리 형제: 브리감 영 대학교 전 총장, 미 법무 차관 역임, 조지 더블류 롬니 형제: 미 주택 및 도시 개발 장관 역임.



# 이 사업은 참됩니다.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피터 휘트머의] 농장에 참석한 사람들이  
1830년 4월 6일 이후로 그 작은 소식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볼 수만 있다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에 관한 통계 보고를 들으신 여러분들의 마음에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온 영혼에 활력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뉴욕 주 페이엠티의 피터 휘트머 농장에서 이 교회가 조직된 지 16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때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찬송가로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찬송가 111장)을 부르는 동안, 저는 그 농장에 참석했던 분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 분들은 1830년 4월 6일에 조그맣게 시작한 조직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볼 수만 있다면 "놀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눈여겨 본다면 대체로 세상도 "놀랄" 것입니다.

개회 찬송으로 "동트니 날이 밝는다"(찬송가, 4장)를 불러서 기쁩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가는 팔리 피 프랫으로서, 이 찬송가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께서 파송하신 첫번째 그룹의 선교사들이 영국에 도착한 뒤, 리버풀 지역에서 간행한 *밀레*

*니얼 스타*의 창간호에 실렸던 곡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팔리 피 프랫은 정성을 들여서 작사를 했습니다. 이 찬송가에는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동트니 날이 밝는다. 보라 시온 기 날린다" 깃대에 꽂혀서 바람에 휘날리는 깃발이 보이는 듯 합니다. 그 기는 바로 온 세상에 복음이 회복된 사실을 선포하는 자유의 깃발입니다. 교회가 조직된 이후 166년 동안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 우리의 여덟 번째 세대

에프 마이클 왓슨 형제님이 우리에게 통계 보고서를 읽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에 한 가지 사항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지난 30분 사이에 제 증손녀가 한 명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형제님, 그러니 그 수에 한 명을 더 추가시켜 주십시오.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님께서서는 기이한 업적이란 제목의 책을 출간하셨는데, 이 책은 전 세계에서 선교 사업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분은 그 책에서 뉴욕 소재 코넬 대학교의 전 총장이시자 독일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하신 바 있는 앤드류 더블류 화이트 박사님이 경험하신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계십니다. 1892년에 미국 외교 특사로서 러시아를 방문하신 화이트 박사께서는 레오 톨스토이 백작과 얼마 간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레오 톨스토이는 정치가요 문호이며

사회 개혁자였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그 분이 사회 개혁자였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분은 러시아 제정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한 국가나 국민이 어떻게 압박받을 수 있는가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두 분이 동석한 자리에서, 레오 톨스토이는 화이트 박사께 "미국의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화이트 박사께서는 미국에 많은 종교가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자 톨스토이 백작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미국의 종교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종교는 물론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화이트 박사는 "글쎄요, 물론의 가르침에 관하여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톨스토이 백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이트 박사님, 경악과 실망을 금치 [못하겠군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늘과 그에 속한 왕국에 관한 것은 물론 그들 상호간의 사회적 경제적 관계가 건전한 토대 위에 설립되도록 하는 생활 방법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이즘이 앞으로 삼, 사대까지 변경되지 않고 지속한다면 미래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세력을 형성할 것은 결정적인 사실입니다."(기이한 업적, 346~347쪽)

오늘 새로 탄생한 증손녀로 말하면 우리가 참되고 옳다고 확인하는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지회 가문에서 여덟 번째 세대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 축복과 부름

얼마전 저는 손주 사위가 자기의 새로 태어난 아들, 마크를 축복하는 자리에 가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 마크를 축복하면서 언젠가 마크가 선교 사업을 나가고, 귀환한 뒤에는 아름답고 훌륭한 동반자를 만나 성전에서 인봉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아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하는 동안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받은 영적인 축복들에 대해 알고 느꼈던 것을 마크도 알고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가 살아 가는 동안 바로 26년 전 제가 십이사도 정원회 보좌로 부름 받았던 때의 경험과 같은 영적인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바로 26년 전 그 날은 보이 드 케이 패커 장로님께서 십이사도 정원회에 부름 받으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 날의 일이 상세히 기억납니다. 저는 대관장단 사무실로 와서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을 뵈라는 연락을 받았습니 다. 그 분은 바로 힐클리 대관장님께서 1년 전 오늘에 그러신 것처럼 다음 날 교회의 새로운 대관장이요 예언자로 지지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대관장단 제1보좌로는 해롤드 비 리 장로님이, 제2보좌로는 엔 엘돈 태너 장로님이 지지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분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부름을 제안 받았 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다음 날 아침에 연차 대회에서 제가 호명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름을 받은 뒤 행정 건물의 화장석 계단을 걸어 내려오는 저의 느낌은 온통 놀라움과 기이함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길을 걸어 오면서 내내 앞으로 제 인생에 일어나게 될 변화들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에게 주어 질 책임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조직을 대표할 수 있을 것인가? 걷는 동안 내내 그러한 생각에 압도되다 보니 아는 사람은 누구라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를 만나서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유타 호텔 9층으로 올라갔 습니다. 아내는 어떤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노크한 뒤 문을 조금만 열고 아내에게 손짓으로 나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아내는 무슨 일인가 의아해 하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있었던 일에 완전히 압도되어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아내가 저를 세우더니 "무슨 말이라도 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손을 아내의 어깨 위에 얹은 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내는 이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둘은 서로 겨안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웬 촌사람들이 복도에서 울고 있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 다. 중대한 사건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 다. 우리의 생활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다음 날(바로 오늘 같은 날입니다), 저는 지지 받았으며, 이 빨강색 의자 하나에 올라와 앉았습니다. 내내 정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리에 앉고 나자 태버네클 합창단이 "오 거룩하신 구속주여"를 불렀습니다. "기억치 마옵소서, 기억치 마옵소서, 오 주여, 나의 죄를"이라고 탄원하는 가사를 듣는 동안 매우 비통한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 간증을 전함

저는 언젠가 제 증손자인 마크와 다른 자손들이 저와 같은 영적인 경험을 하고 이 복음의 영적인 권세와 영향력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크와 다른 자손들 모두가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께서 신권에 관한 계시를 받으실 때 제가 성전에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시 저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신참 회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 그 방안에 영이 너무나 강하게 쏟아져 내렸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조용히 사무실로 돌아갔 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너무나 강렬하게 느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관장님께서 언론에 그 내용을 발표하시고 난 후 저는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라는 지명을 받았습니 다. 다음 연결편을 타기 위해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내린 뒤, 저는 신문 가판대에서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잡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신문에는 "몸무, 흑인에게 신권을 주다"라는 표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제목으로 "킴블 대관장,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신문 한부를 사서 작은 제목 가운데 주장이라는 글자를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보기에는 그 글자가 빨간색 네온사인으로 번쩍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연



결 편 비행기를 타기 위해 복도를 걷는 동안 '나는 지금 시카고의 이 혼잡한 공항을 걷고 있다. 그런데 나는 바로 이 계시의 증인이었다. 나는 거기에 있었다. 나는 그것을 분명히 보았다. 그 거룩한 영향력을 느꼈다. 나도 그 일부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사의 편집자는 그 계시가 참되다는 것을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이라는 제목을 달았던 것입니다. 그 편집자뿐 아니라, 인쇄인도 기자도 신문 배달부도 별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라는 사실을 별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증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환히 알고 있는 내용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아버지의 육신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요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께 우리를 위하여 변론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몸서 번민하시고 큰 굴욕을 당하시고 큰 고통을 겪으셨으며 결국 돌아가셨던 분입니다. 실제로 복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언젠가는 우리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모두 참됩니다. 여러분께 저의 사랑과 간증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온 세상에 소망과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필요한 큰 군대의 일원이 되겠다는 각오로 생활하시고, 또 그렇게 가족들을 부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의 사랑과 간증을 드립니다. 아멘. □



# 인생에서 기쁨을 찾음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주님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한 발전은 여러분이 접하는 모든 성장 경험을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도록 기꺼이 허용할 때 가속화될 것입니다.



**최** 근에 저는 아름다운 태평양의 한 섬 북쪽 해변에 서서 날이 밝아오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정하게 해안선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대한 파도들에 의해 매혹되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하나님의 계획의 변하지 않는 본질, 즉 확실하고 영원한 율법, 영속적인 공의의 보장과, 순종할 때 얻는 자비의 은유함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었습니다. 파도는 수평선 위로 각각 다른 높이로 솟구치더니 해안에 독특한 길을 만들어 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위에 부딪쳐 부서진 파도들은 작은 개울을 이루고 흘러내렸습니다. 다른 것들은 해안선에서 독특한 형태를 이루며 부서졌습니다. 그것들은 가장자리에 거품을 머금고 튀놀듯이 축축한 모래로 미끌어졌고, 거품을 내더니 소용돌이치면서 물러났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끝없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많은 자유가 있으며, 우리의 독특한 개성들과 재능들을 개발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으며, 개인적인 기억들 그리고 각자가 행할 수 있는 기여가 있습니다. 그러한 웅장한 바다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지 않아 나는 빛나는 태양이 잠시 후 만들어 낼 영광스러운 정경들을 상상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 장엄한 광경을 경건하게 바라보고 있었을 때, 구름 사이로 창문이 만들어져 떠오르는 태양의 빛나는 광선들이 하늘 구름 사이로 뻗어나와 만물을 빛과 색깔과 생명을 갖도록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은 마치 주님께서 또 다른 축복을 나눠주시길 원하시는 것처럼, 그 빛이 닿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과 광채를 가져다 주는 주님의 가르침의 빛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놀라운 세상과 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토록 값없이 나눠주시는 그 뛰어난 아름다움으로 인해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으로 삶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간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가 지는 것을 본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는 해의 빛은 구름, 나무, 언덕 및 계곡들을 어둠 속에 잠들게 하며 때로는 조용히, 그러나 때로는 현란한 색깔과 형태를 발산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경이로운 하늘을 펼쳐 보이실 때, 여러분은 한 점 구름도 없는 밤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대함과 영광을 생각하게 해주는 반짝이는 별들과 달빛들을 경이로운 마음으로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비옥한 땅에 뿌려진 한 알의 씨앗이 자라나, 힘을 얻고, 아주 작고 길쭉한 보기에 비해 하찮은 싹을 자라게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얼마나 매혹적인 일입니까? 천천히 그것은 자라고

성장하여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유전적인 규칙에 의해 각자의 특질을 나타내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그것은 결국 목적된 것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즉 우아함과 아름다움의 왕관을 쓴 백합, 향기로운 양박하, 복숭아, 아보카도 또는 독특한 섬세함과 빛깔과 향기를 지닌 아름다운 꽃 등으로 말입니다. 장미 꽃봉오리의 모양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였습니까? 매일 매일 그것은 새롭고 인상적인 특질을 발전시켜 하나의 근사한 장미가 될 때까지 더욱 아름답게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창조물 중 가장 귀중한 창조물의 하나입니다. 주님이 뜻하시는 바는 여러분의 삶이 환경에 상관없이 영광스럽게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운명 지워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슬픔, 실망, 극심한 어려움들은 인생에서의 사건들이지 인생 그 자체는 아닙니다. 저는 몇몇 이러한 사건들의 어려움을 축소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됩니다. 주님은 리하이에게 근본적인 진리를 선언하도록 영감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라" "기쁨을 갖기 위함이라"는 말은 조건적인 말씀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한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의도는 우리 모두가 기쁨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명에 순종하고,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며, 이곳 지상에서 기쁨을 갖기에 필요한 일들을 행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조건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생에서의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거룩한 아들에 대한 믿음과 그분들의 행복의 계획이 참으로 여러분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확신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들의 교리를 상고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게 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분이 주시는 응답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하고 강건하게 해주는 경험을 갖게 해 줄 것입니다.

조그만 조약돌을 눈 가까이 가져가면 큰 장애물처럼 보입니다. 땅에 던져보면



그 실체가 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생에서의 문제점이나 시련들은 경전의 교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은 쉽게 우리가 멀리 내다 볼 수 없게 만들고, 우리의 힘을 잃게 하며, 주님께서 우리가 이곳 지상에서 반도록 계획하신 기쁨과 아름다움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의 바다에 던져진 바위와 같습니다. 그들은 빠지게 됩니다. 물에 뜨는 코르크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에 빠지게 될 때 문제를 극복하여 다시 행복하게 봉사하도록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목적으로 이곳 지상에 계십니다. 그것은 끝없이 즐기거나 계속해서 쾌락을 좇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시험 받고 자신을 증명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갖고 계신, 또 다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오신 것입니다. 인내의 강건하게 하는 힘이 요구됩니다. 어떤 축복들은 이곳, 이 지상 생활에서 주어질 것이며 다른 것들은 장막 너머에서 주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한 발전은 여러분이 처음에는 좋아하던 좋아하지 않은 간에 여러분이 접하는 모든 성장 경험을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도록 기꺼이 허용할 때 가속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을 기꺼이 주님의 뜻에 중심을 두도록 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영의 인도를 간구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에서 가장 큰 행복과 이 지상 생활의 경험을 통해 가장 만족할 만한 성취를 보장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행하도록 요구되는 모든 것에 의문을 품거나, 즐겁지 않은 모든 시련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려 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택을 할 권리인 자유의지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신성한 은사는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되기 원하는 것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시련 가운데 평안을 만들고 역경 가운데



대회 참석자들이 모국어로 연사들의 메시지를 경청하고 있다. 대회 말씀은 34개 국어로 동시 통역되었다.

데서도 기쁨으로 생활하는 영감 받은 사람들로부터 배우시기 바랍니다. 극도로 악화되는 불치병을 지닌 한 사랑스런 여인은 이 생에서 계속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행복의 계획을 이해했으며, 성전 의식을 받고, 약속된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의 개인 일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날이다. 편지를 꺼내 흔들의자에 앉았다. 나는 따뜻한 햇빛과 자연의 달콤한 냄새 그리고 내 주위의 나무들로 나는 매우 행복했다. 나는 가만히 앉아,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직 살아 있다는 사실에 기뻐다... 주님은 내게 너무 좋은 분이시다. 내가 아직도 이곳에 있으며 이토록 좋은 느낌을 갖게 해주신 것에 대해 어떻게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나는 아주 행복하다. 그냥 소리치고 싶고 큰 창문을 통해 비추는 햇살처럼 이 아름다운 집을 돌아다니며 춤을 추고 싶다... 나는 살아 있다는 것이 너무 사랑스럽다."

나날이 자신을 더욱 약하게 만드는 병에 용감하게 대처해 가고 있는 한 용기있는 어머니는 대형 자수로 예술 작품을 만들면서 수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시련을 경험하는 부부에게 하나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 부부에게 그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물이며, 역경에 직면해서 단호한 노력을 기울인 값진 결실을 계속적으로 상기시켜 주며, 순수한 사

랑과 기꺼이 행한 희생을 통해 얻은 끝없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어린이들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기쁨을 찾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린이들은 그들이 갖지 않은 것들에 집중함으로써 실망하게 되는 것을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 안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저는 강독을 따라 놀던 한 작은 아이를 기억합니다. 그는 낚시줄을 두 개의 버려진 음료수 깡통 끝에 묶었습니다. 그는 하나를 가지 너머로 던진 다음 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 다음 쥐고 있던 다른 깡통을 놓았습니다. 첫번째 깡통의 무게로 두 번째 깡통이 올라갔다 떨어졌습니다. 그는 웃으며 환희에 차서 춤을 추었습니다.

단순하고 행복한 경험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긴장을 완화시켜 주며 우리의 영을 고양시켜 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거나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을 나눠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시적으로 이곳에서 부족할지 모르나 다음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합당하게 생활했음을 증명하게 되면 모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로 여러분이 참으로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지 못할 때 여러분은 그에 상응하는 축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감각을 예민하게 해주십니다. 병든 자에게는 인내와 이해심과 다른 사람들의 친절함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음으로써 사랑의 결속을 더 깊게 해주시고, 기억들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시고, 미래의 재결합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할 때, 여러분은 그에 상응하는 축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 받는 엘마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어깨에 메어진 고난의 짐을 가볍게 하여... 내가 이렇게 행하려는 것은 이제로부터 너희를 나의 증인으로 서게 하려 함이요 너희가 진실로 내가 주 하나님이요 나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찾아 위로하는 이 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부담은 가벼워졌고 주가 저들의 힘을 북돋우사 쉽게 짐을 지게 하시며 즐거움으로 참을성 있게 주의 뜻에 복종하게 하였고”(모사이사서 24:13-15)

창조적이 되려는 노력은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카밀라 킴볼, 아멜리아 맥콩키 그리고 헬렌 리차드 자매님들은 그들의 훌륭한 남편들이 돌아가신 다음, 그림 그리기를 배워주셨습니다. 그분들은 예술의 유산을 남기시는 것 뿐만 아니라, 석양이나 얼굴 또는 나무들이 결코 이전과 같이 보이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색채와 형태의 오묘한 뉘앙스를 인식하시며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아름다움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음악, 무용, 조각 또는 시와 같은 어떤 것을 선택하십시오. 창조적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인생을 즐기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의 영을 키워줄 것입니다. 그것은 숨은 재능을 발전시키고, 이 생의 목적을 논하고, 행하며, 찾는 능력을 키워 줄 것입니다. 그것은 외로움과 가슴 아픔을 없애줄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움과 열의와 생애에 대한 열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기꺼이 봉사하려는 것은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는 열쇠입니다. 킴볼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봉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저는 기쁨에 넘쳐 행복했던 한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자신을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 진지한 기도는 여러 번 응답되었습니다. 많은 짐들이 가벼워졌으며 그들의 생은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의해 인도 받는 한 도구가 됨으로써 계속 축복을 받았습니니다.

저는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어려움이 우리 자신의 태만에 의한 것이든지 우리의 범법으로 인한 것이든지 간에 주님의 도움으로 성장하게 해주는 경험이 되며 하나님께로 올려주는 중요한 사다리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성장의 길을 위해 범법을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전적으로 불필요합니다. 의롭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것이며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범법으로 인한 실망은 행복의 길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행복을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 보십시오.

- 행복의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 경전을 상고한다.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기도한다.
  -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봉사한다.
  - 성전 의식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성전을 방문한다.
  - 예언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권고에 순종한다.
  -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한다.
  - 좀더 미소를 짓는다.
- 여러분의 목록은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유명한 브라질 노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것이 담겨 있습니다. “슬픔은 끝이 없고 행복은 끝이 있다네” 저는 구세주를 믿는 신앙과 그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써 행복은 결코 끝이 없지만 슬

픔은 끝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이 당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거나 모든 관심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어려움은 성장하는 경험이 되며 기쁜 생활의 배경 역할을 하게 되는 일시적인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 것도 생각할 수 없거나,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에게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없는 한 가지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몸을 치료하는 것과 흡사하게 어떤 정신적이고 영적인 어려움을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중에 인내하라. 이는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이를 견디라. 보라. 네 생애가 다하는 날 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고리와 성약 24:8) 여러분이 인내할 때 여러분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삶에 영원한 의미를 가져다줍니다. 여러분은 승영으로 가는 여행을 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행복을 잃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주님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구세주의 증인으로서 저는 여러분을 마음 상하게 했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것을 권유합니다. 범법을 행했다면 회개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행복의 계획 및 그것의 근거가 되는 복음의 원리를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분들이 마련해 주신 의식과 성약에 감사하십시오. 저는 그분들이 여러분의 생활을 평안과 기쁨으로 축복해 주시고, 목적과 의미를 가져다 줄 권세를 지니고 계심을 엄숙히 간증합니다. 여러분은 슬픔과 실망이 일시적인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합니다. 저는 주님이 살아 계시며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며,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임을 엄숙히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약속

에프 버튼 하워드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우리는 주님께 마음을 바치기 전에는  
즉, 우리가 약속한 바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안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 저희 부모님은 **대** 른 주에 살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대학교에서 공부하던 중에 잠시 부모님을 찾아 뵙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샌드위치를 만들고 차에 짐을 꾸리고 열 시간을 여행하는 동안, 어린 아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뒤 좌석을 침대로 준비했습니다. 차 안에서 한낮을 꼬박 보내는 동안 우리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아들은 잠도 자지 않고 낮이 지나도록 오히려 힘을 더 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눈을 감고 잠시만 조용히 있으면 금세 잠들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는 지고 갈 길이 아직 두 시간 정도 남았을 때 우리는 게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피로에 지친 아이를 재우는 것이 게임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숨바꼭질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차 안에서 숨바꼭질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

까? 저희가 한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뒤 좌석에 있는 아들에게 "숨바꼭질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아주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말했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가 부를 때까지 뜨면 안된다. 우리가 숨어야 하니깐."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앞 좌석의 저희는 몸을 웅크린 뒤 10여 초가 흐른 뒤 "좋아"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의자 너머로 보더니 "야,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했습니다. "더 잘 숨어야겠는걸! 다시 눈 감아." 1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우리가 부르자 아들은 다시 우리를 찾으려고 열성적으로 앞 좌석을 너머다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잘 숨을 곳이 있어. 시간이 좀더 걸릴거야. 눈을 감아라. 우리가 부를거야."

1분, 2분, 5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차를 몰았습니다. 평온이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20킬로미터 정도를 간 뒤에 작은 소리로 속임수 게임에서 이긴 것을 자축했습니다. 그런데, 뒤 좌석에서 상심한 어린 아들의 호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부른다고 해놓고 부르지는 않는거야?"

"야! 약속해 놓고 지키지도 않았어." 호된 비난이었습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그러한 게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 회원들도 많은 일을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봉사하겠다고 하고 애통해 하는 자들과 애통해 하고 고난당한 자들을 위로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서로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성약도 맺습니다. 복음을 나누고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의식을 받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래 전 차 안에서 있었던 그 사건처럼, 우리들은 때때로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많습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지금 당장 더 중요한 일이 생겼다고도 합니다. 그럴 기분이 아니라거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거나 맹신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도 합니다.

해야 할 일을 다른 때로 미루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자니, 어느 스테이크 대회에서 어떤 분이 제게 했던 질문이 기억납니다. "하워드 형제님, 우리가 교회 가장 복음 교육이 83퍼센트를 절대 넘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아니요, 왜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할로윈 데이와 설날 전야에는 아무도 가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서 봉사할 수 없다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때 제가 방문했던 멕시코의 한 스테이크가 기억납니다. 스테이크 부장은 자신의 부인에게서 배운 교훈 하나를 이야기했습니다. 대회 일주일 전에 가정 복음 교육 일정을 세웠었지만 퇴근할 때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부인에게 몸이 아파서 가정 복음 교육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부인은 "그래도 가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갔습니다.

언젠가 한 남자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좀더 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맹신자가 되고 싶어하지 않죠."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한때 들었던 정의가 생각났습니다. "광신자란 주님께서 모든 사실을 아시기만 하시면 어떻게 조치하실 것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하여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다." 하지만 진실로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광신자가 아니며, 주님께서 명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도 광신자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의 여러 단위 조직을 다니면서 저는 종종 스테이크 부장들에게 염려하는 바가 무엇이든 무엇이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습니다. 흔히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참 좋은데요, 좀더 약속을 잘 지키고 헌신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더 열심히 주님의 사업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는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약속한 일을 행할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일에 임해서는 온종일을 해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야 할 때는 약속한 바를 조용하게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수행하고 일을 마칠 때까지는 중단하지 않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아브라함이 보낸 종을 언제나 좋아합니다. 그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 관해 아는 바는 없으나 그의 성품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관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직했으며 신뢰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 즉 아들의 승명의 문제를 맡길 날이 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님과 맺었던 성약의 상속자가 이삭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이삭이 훌륭하고 합당하며 하나님을 믿는 여인과 결혼하지 않으면 그러한 성약의 축복이 실현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될 만한 여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종에게 아들이 가

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그는 이삭의 배필을 찾도록 종을 그의 조상의 땅으로 보냈습니다.

종은 그 약속을 받아들였으며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여러 날을 여행했습니다. 틀림없이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 곳에서 많은 젊은 여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들 가운데 이삭의 아내로 예임된 여인이 누구인지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신앙을 행사함으로써 리브가를 만나 그녀의 집으로 가서 그녀의 가족과 친해졌습니다. 그들은 그를 만찬에 초대했습니다. 사막에서 여러 날을 보낸 터라 시장하고 목도 말랐으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창세기 24:33)

그는 말했습니다. 그의 여행의 목적과 아브라함과 맺은 서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말 한마디로 그는 충실함과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창세기 24:34) 친족들이 열흘간 축하 모임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행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창세기 24:56)

대부분은 오랫동안 머물렀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행이 너무 길다거나, 피

곤하거나 굶주리거나 목마를 거라고 이야기하여 조금이라도 더 머무는 구실을 삼으려 했을 것입니다. 너무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열흘 간이라도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 심부름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배필을 찾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변하며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을 거두어 달라고 이야기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도시에서 어떤 젊은 여인이 배필로 선택될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데 필요한 신앙심을 갖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름을 어떻게 완수하고 주인에게 약속한 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약속은 단순한 말만이 아닙니다. 약속에는 영원한 결과가 따릅니다.

우리는 성약의 백성입니다. 교회 회원에게 특별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약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만 충실히 수행하고 약속한 바를 이루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끝까지 임무를 수행하고 충실하고 변함없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것은 성공이나 실패, 의심이나 낙담에 관계없이 신앙을 지니고 끝까지 충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것입니다.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에라도 약속한 것은 무엇이든 온 힘을 다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과 함께 장례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벨라드 장로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간증이 아직도 환하게 불타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죽기 전에는 말일성도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확신을 갖고 죽는다.” 얼마나 결의에 찬 말입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마음을 바치기 전에는, 즉 우리가 약속한 바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안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 한 움큼의 음식과 기름 한 방울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각자 합당한 대업에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없다면 시간을 줄 수 있고,  
시간이 없다면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우** 리 모두는 새로 지지 받으신 모든  
총관리 직원들과 그 아내들이 총  
관리 직원들과 가족들이 누리는 아름  
다운 관계를 맺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아합 왕의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께서는 예언자 엘리야를 통해 하늘을 인  
봉해 이스라엘 전지역에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뒤 이은 가뭄  
과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만 아니라 엘  
리야 자신도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먹을 고기와 빵  
을 날라다 주었지만 까마귀가 날라다 준  
음식은 충분치가 못했습니다. 머지 않아  
그가 은둔하던 곳 근처에 있는 그릿 시냇  
가의 마시던 물마저 바닥이 닳았습니다. 이  
같이 3년이 지났습니다.

아합과 담판을 준비하던 예언자 엘리  
야에게 하나님은 사르밧 마을로 가서 어  
떤 과부로부터 봉양을 받도록 하라는 명  
을 주셨습니다.

그가 지친 모습으로 마을로 들어갔을  
때, 그가 도움을 받을 여인을 만났는데  
그녀도 그와 마찬가지로 약하고 굶주린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거의 빌듯이 이 목  
마른 여행자는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청  
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  
시게 하라” 그녀가 요청에 응하려 돌아섰  
을 때, 엘리야는 한 가지 더 간청을 했습  
니다.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로 가져오라”

엘리야의 상황이 가련한 것은 분명했  
습니다. 게다가 주님께서 그의 요청을  
위해 그 과부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러  
나 그녀 자신의 약함과 절망적인 상황으  
로 인해 예언자의 마지막 요청은 이 충실  
한 작은 여인이 감당하기에는 힘겨운 것  
이었습니다. 굶주리고 쇠약하고 어머니로  
서의 번민을 하던 그녀는 이방인에게 이  
렇게 호소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  
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오니 나는 떡  
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워 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나 엘리야는 주님의 사명을 받았  
습니다. 이 과부와 그녀의 아들을 포함  
한 이스라엘의 미래가 그 사명에 달려 있  
었습니다. 그의 예언자적인 임무로 엘리  
야는 평소에 자신이 원했던 것보다 더 담  
대해졌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려워 말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  
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간단히 표현되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경전에서 찾을 수 있  
는 위대한 신앙이 표현되었습니다. 기록  
에는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  
니”라고 간단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  
의 신앙이 그녀 자신과 그녀의 아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녀는 아마 확신  
하지 못했겠지만 그녀는 만약에 떡이 남  
지 않는다면 그녀와 그녀 아들은 순수한  
사랑의 행위로 인해 죽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떡조각을 엘리야에게  
먼저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론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 그녀와 아들에게 행복한 결  
말을 맺습니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께서 극찬하신 또  
다른 여인과 비슷하네 그 여인은 잔돈 두  
개를 헌금했으며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하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경전에는 이 두 여인의 이  
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영원한 곳에서  
그들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면  
저는 그들의 발에 엎드려 “감사합니다”라  
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삶  
과 놀라운 모범과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  
오는 고귀한 영혼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참으로 오늘 저는 그들을 위해 무엇인  
가 조그마한 것을 지금 해 드리고 싶습  
니다. 저는 과부, 아버지를 잃은 자, 유린되고  
불이익을 당한 자, 집이 없고 굶고 굶주린  
자를 위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서 늘 사랑하시고 특별히 절박하게 말씀  
해 주신 분들을 위해 말씀하고 싶습니다.  
가난한 자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경에는 참으로 부끄러운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허영에 찬 비기독교도적  
인 조맹인들이 래미움프롬 꼭대기에 울  
라가 하나님 앞에서의 특별한 지위를 선  
언한 후 즉시 가난한 자들을 회당에서 쫓  
아내었는데 이 회당은 그들 가난한 자들  
이 수고하여 지은 회당이었습니다. 계시  
에 의하며 그들은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  
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예리한 한 성구  
는 가난한 자들의 참된 고통과 비참한 처  
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 물론경은 이러  
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 것으로





도 가난하였고 심령으로도 가난한 자였더라” 참으로 그들은 세상의 것들로 가난하였기에 심령으로도 가난했습니다.

이 백성들에 대해 보여준 조람인들의 오만함과 배타성에 대항하여 앰올레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심금을 찌르는 설교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사는 “무한하고 영원하며”,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남자, 여자와 아이들 모두에게 주어진다” 것과 그러한 은사의 자비로움에 대해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영육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들의 영육을 위해”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대속의 자비를 간구하는 방법과 장소를 모두 열거했습니다.

그러나 대속에 관한 오묘한 가르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혼의 열정을 다해 앰올레크는 이러한 진지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말한... 것으로 족하다 생각지 말라. 너희가 이 모두를 행한 뒤에도, 궁핍하고 험벗은 자를 외면하며, 병들어 신음하는 자를 찾아보지 아니하고 너희가 무엇이라도 가졌을 때 궁핍한 사람들에게 너희의 소유를 나누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정코 너희가 이 가운데 하나라도 올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의 기도는 헛된 것이라... 너희는 믿음을 거역하는 위선자같이 되리라” 이것이 적게 가진 자들에게 주었던 메시지라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물론 50여 년 이전에 베냐민 왕이 사 용했던 것도 같은 논리였습니다. 베냐민 왕은 제이라헤물라 백성들에게 아담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 가르친 후 그의 백성들이 문자 그대로 땅에 엎드려 위대한 자비심이 필요한 자신들의 상태를 자각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는 땅의 티끌보다 못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반응과 래미움프툼과 연관된 백성들의 차이점은 분명합니다.)

“모두 한 소리로 크게 외쳐 이르기를, 오 공휼히 여기시며,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효험을 미치사 우리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청결히 되게 하시옵소서”

백성들이 겸손하여지고 가르침을 받아들일만 하고 자비심이 가득하여 모든 입술과 방언이 사랑의 말씀을 하게 됐을 때, 베냐민 왕은 대속과 죄사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를 창조하시고 너희의 생사 화복과 너희가 가진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것이 올바른 것 이면 무엇이라도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실진대, 어찌 너희가 가진 것을 서로 나누지 아니하겠느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울 것이며... 궁핍한 자와 더불어 너희가 가진 것을 나눌 것이요... 우리가 모두 결식하는 자가 아니냐?... 그 밖의 온갖 재물로 인하여 같은 분이신 하나님

께 기대는 자가 아니냐?”

베냐민 왕은 결론을 내리면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 너희는 너희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며, 각각 가진 대로 주린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며, 영적으로나 육신으로 병든 자를 찾아 저들의 원대로 구제하여 위로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제사들과 시인들이 지적했고 우리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시온에 아직 이르지 못했지만 우리는 마음이 순수한 상태를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 일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러한 사회의 완전한 기능이 실현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니파이 백성들을 방문했을 때 그분의 위대한 가르침과 고결한 영이 백성들을 가장 행복한 상태로 인도했으며 그 때는 “백성들 간에 다툼이나 불화가 없었으며 사람들이 서로 대하기를 바르게 하였더라. 또한 저들은 저들의 온갖 소유를 공유하였던지라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속박된 자나 자유로운 자의 구별 없이 모두 자유로웠고, 저들이 모두 하늘의 은사를 받았으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축복된 상태는 제가 생각하기엔 오직 다른 한 곳에서만 성취되었는데 예녹의 도시입니다. “저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의롭게 생활하여 저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음이더라.”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그와 같은 우리의 장대한 가능성을 내다 보았습니다. 그는 참된 임무는 좀더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 주님께서 돌보신 대로 돌보고, 사랑하신 대로 사랑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로 하여금 자기 이웃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서 모든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것은 바로 물문경의 야곱이 가르친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얻은 후에야야 너희가 구하는 바부를 얻을 것이요, 선행을 위하여 이를 좇으리니, 험벗은 자를 입히며, 굶주린 자를 먹이며, 구속된 자를 놓아 주며, 병 들고 고난을 겪는 자들을 살피 구제하게 되리라.”

저는 “선행을 행하고자” 최선을 다하



며 노력하는 여러분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많은 분들이 참으로 관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는 자신의 생계를 충족시키기 위해 애쓰시면서도 이웃과 무언가를 나누고자 하는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배나빈 왕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의를 주었듯이 우리가 제 힘에 겹게 행함은 마땅치가 않으며 만사가 질서 안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이 하고자 노력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십니다.

또한 저는 연차 대회 말씀이 수세기 동안 인류에 만연해 있는 물질적인 불평등을 바꾸지는 못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난제들에 대한 답을 지니고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행위가 작게 보이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십일조를 바치며, 처지에 맞게 후한 현금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합당한 대업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돈이 없다면 시간을 줄 수 있으며,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기름이 다하지 않도록 의지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변영하면서 헐벗고 굶주리며 혹은 목마르고 혹은 병들고 또 잘 먹지 못한 자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험된 세상의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는 그들이 늙었거나 젊었거나, 속박된 사람이거나, 자유로운 사람이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교회에 속한 사람이거나 속하지 않은 사람이거나를 막론하고 조금도 치우침 없이 거저 나누어 주었느니라.’

엘마서 1장의 구절들이 나부 시의 백성들이 보였던 태도와 얼마나 비슷합니까? 그 축복받은 시대에 대해 예언자 요셉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존중해야 할 지에 대한 특별한 지침은 없습니다... 다만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과부를 돌보며, 고아의 눈물을 닦아주며, 교회에 속했거

나 아니 했거나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발견하면 위로해야 합니다.”

물론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합니다. 물질적인 면에서 가난하게 되는 것은 충분히 힘든 일입니다만, 그러나 더 큰 고통은 마음의 부담, 희망의 소멸, 상처받은 꿈, 부모로서의 고뇌, 어린 시절의 실망 등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그런 상황들을 동반합니다.

저는 오늘 식량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미주리에 있었던 끔찍한 적대자들은 예언자를 리버티 감옥에 가두고, 수천 명의 말일성도들이 그들의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루실라 헨드릭스 자매와 쿠루크드 강 전투에서 교회의 적들이 쏜 총에 맞아 부상당한 그녀의 남편 제임스 형제는 자녀들과 함께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 일리노이 주 킨 시에 있는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두 주도 채 못 되어 헨드릭스 가족은 굶주림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가진 것이라고는 한 숟가락의 설탕과 한 접시의 옥수수 뿐이었습니다. 두루실라 자매는 그것으로 죽을 끓여 부풀릴 대로 부풀려 제임스와 자녀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굶주린 가족들이 그 적은 음식을 비운 후 그녀는 모든 것을 씻고 그녀가

할 수 있는 한 철저히 그 대피소를 깨끗하게 청소한 후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루실라 자매는 마차 소리를 듣고 나가 보니, 이웃인 루빈 알레드 형제였습니다. 그는 헨드릭스 가족의 음식이 바닥이 났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그래서 시내로 가는 길에 곡물 한 가마를 갈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알렉산더 윌리엄 형제가 식량 두 말을 어깨에 메고 도착했습니다. 그는 두루실라 자매에게 그가 무척 바빴는데, 영이 그에게 “헨드릭스 형제의 가족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알려줘 만사를 제쳐놓고 이렇게 달려 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자비롭게 축복을 베풀었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풍성히 축복을 주고 계신 하나님께 한 가지 더 축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고통당하고, 환난을 당하며, 학대받으며, 불이익을 당하며, 가난한 자들의 조용한 외침을 듣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어떤 이웃이 어디선가 고통을 당할 때 성신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어서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대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 우리 선조들의 신앙

조셉 비 워스런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그토록 영을 감동케 하는 신앙의 본보기가 되신 초기 성도들,  
우리 부친들의 신앙과 모친들의 비이기적인 희생을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 여러분, 이 연단에 서서 새롭게 부름을 받은 형제들을 기쁘게 총관리 역원의 대열에 맞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송고한 특권입니다. 우리는 전세계에서 이 유서 깊은 태버나클에 “[우리의] 영육을 복되게 하는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며”(모로나이사서 6:5),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려고]”(니파이이서 32:3) 함께 모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개척자였던 우리 선조들의 신앙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와 이 유타 주가 이처럼 놀랍게 발전할 수 있었던 그 기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그들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넘어야 할 여러 장애들이 가로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념을 굳게 지키려던 그들의 불굴의 의지와 강인함을 마주할 때 우리는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첫째 원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스도는 복음 원리의 확고한 기초이시며 모든 공의로움의 근본이 되십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신앙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다”(신앙 강화 1985년, 1)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경전에는 신앙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히브리서 11:1) 정의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세주를 믿는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즐거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행하여야 할 바를 모두 전하여 주[신다]”는 것을 세상에 간증합니다. 주님의 교회의 회원이며, 또한 회복된 그리스도 복음의 충실한 주창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진실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심을 엄숙히 선포합니다.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이날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관해 상고하는 절기입니다. 부활을 포함한 구세주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이 불사 불멸과 영생의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해야 할 축복입니까!

우리는 “땅의 주민에게 임할 재앙을 알고 있는” 주님께서 “[그의] 종 요셉 스미스 이세를 불러 하늘에서 그에게 말하며 그에게 계명을 주어”(교리와 성약 1:17) 초기 성도들이 누렸던 충만한 복음을 회복하게 하셨음을 “듣는 귀”(마태복음 11:15)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기꺼이 선포합니다.

우리는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이 오늘날 지상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예언자

이심을 “산 꼭대기에서”(이사야 42:11) 간증합니다. 말일성도인 우리는 우리의 예언자를 믿는 신앙으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되풀이 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아는 더 확실한 지식이 있으니 어두운 데 비취는 등불을 바라보듯이 날이 새어 셋째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 예언의 말에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베드로후서 1:19, 영감역) 거룩한 계시의 빛이 어둠에 둘러싸인 세상을 비추기 위해 살아 계신 예언자로부터 나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미대륙에 회복되기 시작한 이래로, 교회는 종교적 자유를 누릴 수 있었기에 번창해 왔습니다. 순종과 희생의 비옥한 토양에 뿌리가 깊이 내려 훌륭한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충실한 성도들이 수세대에 걸쳐 견고한 기초를 이룩해내었습니다. 이러한 힘의 기반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굴러 퍼지며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채 산에서 뜨인 돌이 굴러 퍼지듯이 드디어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소년의 몸으로 평원을 건넌 것이며 일생 동안 많은 역경을 맞보았던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간증을 전하였습니다. “주님의 왕국은 자라나며 세계로 퍼져가고 땅에 뿌리를 내리며 주님께서 자신의 권세와 말씀으로 심으셨던 곳에 지속되며 결코 다시 파괴되거나 멈추지 않고 전능하신 분의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되고자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이야기되어 온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대회 보고, 1902년 4월, 2쪽)

힝클리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언급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경이롭고 놀라운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기적과도 같이 교회가 지상에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다음을 꼽아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종교는 아주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 우리는 교회 회원들에게 높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들이 표준에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표준에 마음이 끌려 이 교회로 나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가치관들이 표류하는 세계속에서 닻과 같이 굳건히



서 있습니다.

전세계로 뻗어가는 교회의 가슴 벅찬 성장을 겪으면서 우리의 관심은 이미 예언된 왕국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을 낙관적으로 바라볼과 동시에, 잠시 멈추어 서서 겸손했던 우리의 개척자 선조들의 신앙을 돌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들의 신앙으로 놓은 기초 위에 교회가 계속적으로 번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 2월에, 나부와 아이오와 주 전지역 주민들이 성도들의 서부 대이동 150주기를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1846년에, 일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미시시피 연안에 세워졌던 번창하던 도시를 떠났습니다. 예언의 권능을 지닌 지도자를 믿는 신앙으로, 초기 교회 회원들은 그들의 "아름다운" 도시를 떠나 미국 변방의 황무지를 향해 과감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확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얼마나 먼 거리를 더 가야 하는지, 여행이 얼마나 더 걸릴지, 도대체 어떤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실로 자신들을 이끌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며, 한 그분의 종들을 통해 이끌고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으로 그 지도자들을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것들을" 소망했습니다. 그 옛날 니파이가 그랬던 것처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미처 알아 차리기도 전에 영에 이끌려 나아 갔습니다."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의 직분으로 교회를 이끌던 브리감 영은 1844년 6월 27일에 예언자 요셉과 그의 형 하이람의 목숨을 앗아간 폭도들이 그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을 염려한 끝에 1845년 9월에 성도들이 1846년 봄에 나부를 떠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나부에 있던 대부분의 성도들은 브리감 영이 그들에게 떠나야만 한다고 공표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하시기를 바라는지 이야기해 주신 것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1845-46년 가을과 겨울에 걸쳐 교회 회원들은 힘차게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뉴엘 나이트가 그의 아내 리디아에게 성도들은 나부를 떠나 다시 한 번 이주해야만 할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하자, 그녀는 굳건한 신앙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

쎄, 의논할 여지도 없군요. 우리의 있을 곳은 하나님 왕국뿐이에요. 지금 당장 떠날 준비를 하도록 해요." 나이트 형제는 이미 다른 많은 성도들처럼 뉴욕에서 오하이오로, 미주리로, 일리노이 주로 여러 차례 이사해 왔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이처럼 헌신적으로 복종한 리디아 나이트의 모습에서 우리는 영웅적인 초기 성도들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마음에 새기며, 친밀한 다음 찬송가의 가사를 읊미한다면 그 의미가 더욱 선명하게 떠오를 것입니다.

선진들의 신앙, 여전히 살아 있다.  
지하 토굴이나 불이나 칼의 위협에도,  
오, 우리 가슴 기쁨에 뿔뿔하다.  
그 영광스런 말 들을 때마다,  
선진들의 신앙, 거룩하여라.  
우리 죽을 때까지 충실하리.  
(영문 찬송가, 84장)

매서운 겨울 추위가 채 가시기도 전에, 폭도들의 공격 재개에 대한 두려움이 고조되었고 정부 개입의 무성한 소문 등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영 대관장은 성도들을 출발시키고자 일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1846년 2월 4일 추운 겨울 날씨 속에 그는 첫번째 개척자 가족의 본대가 나부를 떠나도록 진두 지휘했습니다. 그들은 짐 실은 마차와 가축들을 몰고 후에 눈물의 거리로 알려진 팔리 가를 지나 나룻터로 갔으며 그 곳에서 아이오와로 건너가는 나룻배에 올랐습니다. 미시시피강을 건너 강에 떠다니던 커다란 얼음 덩어리들이 마차들을 미시시피를 건너 운반하던 나룻배와 바지선들의 옆에 부딪혀 부서졌습니다. 몇 주 후 기온이 더욱 떨어져 얼음 위로 마차를 보다 수월하게 옮길 수 있었습니다.

올해 3월 초에 저는 아내와 함께 나부를 방문했습니다. 몹시 추운 날씨였습니다. 우리는 살을 에이는 찬 바람을 맞고 서서, 광활한 미시시피강 너머를 내다보면, 자신들이 사랑하던 도시를 떠나야만 했던 그 성도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더욱 깊이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는지 놀라워 했습니다. 앞에 놓인 불확실한 미래만을 바라보며 그처럼 많은 것을 뒤로 하고 떠나는

그 희생이 참으로 위대하지 않습니까! 달아나는 개척자들이 덜컹대는 마차를 몰고 자신들의 아름다운 도시로 다시 돌아오리라는 희망도 없이 강을 건너기 위해 팔리 가를 지나가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일단 강을 건너 후, 그들은 록키 산맥을 향해 서쪽으로 가는 그들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슈가 크릭에서 잠시 아영을 했습니다. 역사가 에이치 에이치 벤크로프트가 역사상 전무 후무한 이주라고 표현했던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1846년 2월 15일에 떠나가던 개척자들과 아이오와에 있던 그들의 아영지에서 합류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현대의 "이스라엘 진영"을 조직하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3월 1일에 선두 대열이 아이오와를 가로질러 서쪽으로 가는 대장정의 길에 올랐습니다. 추위, 눈, 비, 진흙, 질병, 배고픔, 죽음 등으로 야기된 여러 고난을 겪는 동안 이 용감무쌍한 개척자들에게는 계속되는 신앙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지도자를 따르며 자신들이 주님의 뜻으로 열렬하게 믿고 있던 것을 행하기로 굳게 맺어졌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도전에 직면했고 그 중 일부의 신앙이 특히 어려울 때를 맞아 뒷걸음 치긴 했지만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부 성전에서 행해진 성전 의식에서 받은 확신으로 버티 나갔습니다.

많은 자매들이 견뎌내었던 더욱 어려운 고난 중에는 혹독한 극한 상황속에서 아기를 낳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자 알 스노우 자매는 이러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개척자들의 여행이 계속되는 동안, 산모들은 그 전까지 그들이 알았던 안락함과 전혀 무관한 거의 모든 여건 속에서 아이를 낳았다. 폭풍우나 혹은 눈보라가 몰아치는 속에서, 어떤 이들은 천막 속에서, 또 다른 이들은 마차 속에서 새 생명을 탄생시켰다." 계속해서 스노우 자매는 자신의 일지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땅에 막대기를 꽂아 그 둘레를 모포로 두르고 지붕 삼아 덮은 나무 껍질 새로 비가 줄줄 흐르는 허술한 오두막속에서 아기를 낳았다고 한다. 인정받은 자매들이 온갖 접시를 들고 서서 떨어지는 비를 막아섰다. 행여나 인생이라는 무대의 입



구에 들어서는 아이와 그 어머니가 빗물로 목욕이나 하지 않을까하여 그렇게 막아 선 것이었다.”(비 에이치 로버츠, 교회사 요해, 3:35)

이 선한 자매들의 희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기를 낳다가 자신의 생명을 잃은 어머니도 있습니다. 많은 아기들이 살아 남지 못했습니다. 제 아내의 할머니인 엘리사베트 리터는 윈터 쿼터스에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포장 마차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산모와 아기가 모두 살아 남았습니다. 그녀에게 생명을 준 여인에 대한 큰 사랑을 담아 엘리자베트는 그녀의 모친이 자신을 해산할 때 누군가가 마차의 포장을 통해 새어들은 빗물을 우산을 들고 막아 서 있었다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토록 영을 감동케 하는 신앙의 본보기가 되신 초기 성도들, 우리 부친들의 신앙과 모친들의 비이기적인 희생을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늘 그 분들을 기억하여 우리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하며]”(교리와 성약 20:59) “그[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고자]” 하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용감한 종이 되도록 합시다.

지금으로부터 약 44여 년 전에, 제 아버지께서는 이 연단에 서서 우리가 물려 받은 유산의 참된 가치를 깨달을 때 왕국에서의 우리의 봉사가 강화되고 생동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개척자들이셨던 부친의 조부님들을 칭송하며 “제 선조들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저는 거대한 산맥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 평화로운 계곡에, 또한 그 무엇보다도 말일의 예언자들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분들에게... 감사함의 빛... 이 위대한 사업에 봉사함으로써 가장 잘 갚을 수 있는 빛을 쬐습니다.”(조셉 엘. 위스린, 신앙의 유산)

이제 왕국이 전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는 가운데, 아름다운 산맥의 그늘이 드리운 유타의 계곡에 사는 교회 회원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통신 기술의 발달 덕분에 전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말일의 예언자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 아버지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습니다. 회복된 복음의 충만함을 알도록 축복을

받은 우리는 우리를 앞서 가셨고, 왕국이 오늘날 세계적인 기적으로 세우기 위해 그토록 많은 것들을 주셨던 그 분들에게 감사함의 빛을 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사업을 위해 봉사할 때 선조에게 진 감사의 빛을 가장 잘 갚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건, 우리의 재능, 능력, 재산, 교육, 경험 등이 어떻든 우리 모두가 왕국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함과 기도와 부지런함과 신앙을 지니고 봉사할 때 우리가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어쩌면 자신이 그 일에 부적합하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우리 개개인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미약해서 주님의 눈에 띄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의심하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멸성에 관해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직면하는 도전들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세속적인 욕구와 열정으로 이끄는 유혹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구세주는 “우리와 한결 같이 시험을” 받으셨기에 “우리 연약함을 체휼<sup>2</sup>하[신다고]”(히브리서 4:13~14 참조) 적고 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이 위대한 사업을 위해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이 부르시면 사무엘처럼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부름이 오더라도 커다란 용기와 흔들리지 않는 결심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의지와 신앙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성도의 빛, 1993년 48쪽)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님은 능력에 상관없이 충실한 봉사라면 주님께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여하시는 큰 축복, 즉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넓게 펼치는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해준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이 교회로 반드시 위대한 사람들만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보다는 자주 평범한 사람이 위대하게 성

장합니다...”

“이 교회가 초라하게 시작하여 지금의 힘을 갖기까지 성장한 주요한 이유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 오로지 뺄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드릴 게 없는 겸손하고 헌신적인 수많은 성도들의 충실함과 헌신에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의 자신만의 이익을 구하는 것을 버림으로써, 모든 이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안을 찾았습니다.”(앤사인, 1994년 4월호, 5~6쪽)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많은 것을 견뎌 왔으며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너희는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닦고 있음이라.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고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왕국에서 어떤 부름을 받든지 그 직분의 의무를 다하는 데 충실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달려 있는 “작은 일”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하겠다고 맹세한 거룩한 성약에 따라 계명을 지키는 데 충실합시다. 우리의 유산과 성장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참으로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다해 주님의 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자신을 헌신합시다. 이 위대한 사업을 위해 충실하게 봉사하여 선조들의 신앙을 존중함을 나타내 보입니다. “예언자를 따르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취하[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간구드립니다. 아멘. □

## 역주

1. “기쁘게 지키라”라고 번역된 이 말은 예언자 요셉에 의해 ‘feast upon’이란 어구로 번역되었다. 이 말의 상징적인 의미는 마치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듯 무엇인가를 취함으로써 영적 자양을 돈구고 영적으로 풍요롭게 되도록 하는 것의 의미이다. (참조 성구: 니파이서서 32:3 야곱서 3:2 엘마서 32:42)

2. ‘체휼한다’란 의미는 ‘be touched with the feeling’의 국역으로 ‘공감한다, 공휼히 여긴다’는 의미이다.



# “네가 생명이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저는 참으로 주님의 계명들을 좋아합니다. 그 계명들은 우리의 인도자요 보호자가 되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 돌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구 세주께서는 “네가 생명이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마태복음 19:17)라고 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야기 하나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빈아다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실화입니다. 아빈아다이는 사악한 백성과 왕에게 회개를 외쳤던 예언자입니다. 그는 생명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용감하고 당당하게 설교했습니다.

사악한 노아 왕은 그의 제사들에게 화를 내며 아빈아다이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자를 끌어내어 죽이라” 그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들이 아빈아다이에게 손을 대려 할 때 그는 깨끗하게 버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다치지 말라. 너희가

내게 손을 댈진대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시리니,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전하게 하신 말씀을 아직 다 전하지 아니하였음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것을 내가 기필코 이루리라”

노아 왕의 백성들은 주님의 영이 아빈아다이에게 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만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얼굴이 “눈부시게 빛났으며,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권위와 권세”로 말했습니다. 아빈아다이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모두 전하겠으며, 그런 후에는 노아 왕과 그의 백성들이 자신을 죽여도 상관없다고 외쳤습니다.(모사이야서 13:1~9 참조)

아빈아다이가 그의 말을 마치자 노아 왕은 아빈아다이에게 그의 말을 취소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빈아다이는 거절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무치게 하는 다음과 같은 거룩한 기록에서 아빈아다이의 확고한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빈아다이가 이 말을 마치자 넘어져 불에 타 죽었으니 하나님의 계명을 부인하지 아니하여 죽음을 당하였고, 저가 전한 진리의 말씀을 죽음으로 봉하였더라.”(모사이야서 17:6~20)

신권을 지닌 형제 여러분, 아빈아다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본보기입니까! 그는 생명을 뱉기면서도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였습니다. 모든 경륜의 시대의

예언자들은 기꺼이 목숨을 바쳤으며, 용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했습니다.

예언자 요셉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양과 같이” 끌려갔습니다.(교리와 성약 135:4) 주님의 계명을 이루는 동안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구세주의 모범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과 같은 방법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자들을 돌보실 때의 그분의 온유한 동정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아버지의 계명에 겸손하게 순종하기로 결심하시고 끝까지 견디셔서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시고, 온 인류를 위한 속죄의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형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과거와 현재의 예언자들이 보인 모범을 따릅시다. 우리에게 많은 예언자들처럼 순교해야 할 일이 없을지 모릅니다. 기껏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분과 맺은 성약에 충실하는 일 뿐입니다.

잠시 아론 신권을 소유하신 청남들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론 신권은 예비 신권입니다. 대신권인 멜기세덱 신권을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 받는 것입니다. 아론 신권 소유자인 여러분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존경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지 말고 여성을 존중하고 순결하며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하지 말고 지혜의 말씀을 지키며 정직한 십일조와 후한 금식 헌금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계명을 잘 지키면 풍성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어린 집사, 교사, 제사 여러분, 성찬을 준비하고 전달하고 축복하기에 합당하십니까? 이러한 것들은 거룩한 임무입니다. 빵과 물은 구세주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분의 속죄의 희생을 나타냅니다.

잠시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매주 집행하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훌륭한 속죄의 은사를 통해 우리는 조건없이 육적인 사망을 이기게 되었으며, 이 속죄의 은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무한히 받게 됩니다. 속죄를 통해 우리는 모두 아담의 타락에서 구속되며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속죄의 완전한 축복이 가능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살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회개와 용서를 통한 속죄의 축복은 주님의 속죄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계명과 의식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오, 주님을 기억하여 교회의 충실한 회원들에게 성찬을 축복하고 전달하는 합당한 아론 신권 소유자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게 임하는지,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성찬을 집행하는 데 합당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멜기세덱 신권을 받고 주님과 성약을 맺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될 것입니다.

청남 여러분,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준비하십시오. 선교 사업을 나가면 헌납의 법대로 생활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일생에서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재능과 자원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유일한 시기가 될지 모릅니다. 보답으로, 주님께서 영을 통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시며 여러분을 굳건하게 해 줄 것입니다.

사립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고 기술을 익히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의 길 이외의 길을 택하도록 유혹하지 않는 좋은 친구들을 사귀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계명을 더욱 잘 지키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친구가 되십시오.

이제,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알고 계시듯이, 주님의 계명은 평생 동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약을 맺은 대로 충실하고 용감하게 주님의 계명을 지킵시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마태복음 19:17)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요한복음 14:15)

누군가 물을지 모릅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까?" 전세의 회의에서 주님은 그분의 영의 자녀인 우

리에게 이 생에서 살아가는 데 표준이 되는 계명을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장자인 여호와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려가자... [하나님의 다른 영의 자녀들이] 살게 될 땅을 만들자.

"이로써 우리는 저들을 시험하여 주 너희 하나님이 저들에게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자.

"저들의 첫째 지체를 지키는 자는 더욱 더하여 질 것이요"(아브라함서 3:24~26)

이러한 계명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 생에서의 영육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 사랑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계명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진보에 관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계명은 우리가 주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지를 재는 잣대입니다.

계명은 짐이나 구속이 아닙니다. 주님의 모든 계명은 우리의 발전과 진보와 성장을 위해서 주어집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행복을 계획하셨으므로 그 행복을 증진시킬 수 없는 성질의... 계명이나 의식을 제정하지 않으실 것이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50쪽)

저는 참으로 주님의 계명들을 좋아합니다. 그 계명들은 우리의 인도자요 보호자가 되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 돌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계명을 충실하게 지키면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중 가장 큰 은사"인(교리와 성약 14:7) 영생이란, 승영하여 다가올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및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된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 다음 세상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이 생에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얻고 성신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로마서 14:17 참조)

계명대로 생활하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게 되며 목적에 있어서 아버지 및 아들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영적인 빛 안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부지런히 계명을 지키면 성신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또 개인적인 계시의 은사를 받습니다. 이것은 등대 역할을 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는 영적인 빛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어둠을 내어쫓습니다. 이 빛은 너무나 강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빛이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깊고 어두운 죄의 수렁에 빠져 있는 때에도 우리에게 비추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어두움을 무서워했던 기억이 나십니까? 겁이 나서 아마온 집안에 불이란 불은 모두 켜지지 모릅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집에 들어오셔서 "왜 집안에 온통 불을 켜 놓았니?"라고 물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 다음 부모님은 가계 예산과 전기세에 관해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전깃불을 켜고 촛불을 점으로써 어둠도, 두려움도 사라진다는 사실을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자연의 법칙을 배운 것입니다. 이것은 또 영적인 법칙이기도 합니다. 빛과 어두움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복음의 영적인 불빛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즉시 달아나기 마련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에게 무엇이든 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권을 소유한 여러분은 마음과 행동으로 사탄에게 떠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명대로 생활하면 우리의 용모는 복음의 빛으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이 영적인 빛이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낯설고 어두운 길에서 헤매다 길을 잃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복음의 빛 안에서 생활하면 영원한 목표를 놓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계명대로 생활하면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예언자 엘마가 그의 아들에게 가르쳤듯이,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엘마서 41:10)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위 사람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견해보다 사람의 견해를 더 염려하는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계명을 알고 지키기 위해서는 구세주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알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현대의 예언자들로부터 "가족-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이라는 중요한 말씀을 받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 선언문에서는 우리가 가정과 지역 사회와 나라에서 가족 단위를 강화시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권 소유자와 시민들은 이 선언문을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합니다.

예언자들은 종종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으로써 오는 결과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 분들은 세상에서 인기 있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인기는 진리의 잣대가 아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언자를 따르는 열 네 가지 원리", 1980년 올해의 영적인 말씀)

왜 예언자들은 인기도 없는 계명을 강조하고 사회에 계명을 거부하고 변형시키며 심지어 무시까지 하는 것을 회개하라고 외치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언자들은 계시를 받자마자 취사 선택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말하라고 주신 계시를 선언하고 재확인합니다. 예언자들은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렇게 합니다. 계명을 지키려 하지 않는 사람은 예언자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 분들의 개인적인 성실성과 명성을 깎아 내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그에 대해 예언자들은 침묵을 지키고 다른 뺨을 돌려대기만 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약한 것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옳다고 아는 것에 충실하고 굽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어떤 결과든지 달게 받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각자 계명을 마음대로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러한 것들을 개인에 맞게 변형시킬 수는 없습니다. 신권 지도자들에게도 세상의 인기를 얻기 위해 계시된 원리와 계명들을 변경시킬 권리는 없습니다. 예언



대회 참석한 회원들.

자들도 합당하게 살겠다는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보다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시킬 권능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한 번은 어느 교회 지도자가 비탄에 빠진 아버지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아버지는 방탕한 생활을 하여 교회에서 징계를 받았던 자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명 하나를 바꾸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슬픔에 찬 이 아버지는 자식에게서 교회 회원으로서의 모든 혜택을 박탈한 지도자는 기독교인도 아니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 교회 지도자는 그 부모 및 자녀와 함께 슬픔을 나누었으나 주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기독교인도 아니라는 비난에 대해 이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명을 바꾸려고 했다면, 저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법을 용납하시기 위해 계명을 바꾸셔야 한다는 주장이 합리화되면 곧 영적인 어둠이 따르게 됩니다. 복음의 빛은 사라질 뿐입니다. 간음의 죄를 지은 여인에게, 그리스도께서는 간

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완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요한복음 8:11)라고 훈계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변화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지 계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신권 소유자 여러분, 우리가 지키겠다고 맺은 성약, 곧 하나님 아버지 및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약속은 우리가 인생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임을 잠시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경전을 공부하고 상고하며 살아 계신 예언자들의 권고에 귀기울입니다.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영이 지시하는 대로 계명들이 참됨을 가르치고 간증합니다. 계명에 순종하고 이 생과 다음 세상에서 약속된 축복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생활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합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마태복음 19:17)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에 맞게 생활하여 자신과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마련된 영원한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 영적인 목자들

더블류 유진 헨슨 장로  
칠십인 회장단

선과 악 사이에 중립 지대는 없습니다. 악마의 세력에 있다면  
즉시 그 곳에서 나오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교회의 신권 소유자들에게 말씀하라는 대관장단의 지시를 따르는 오늘 저녁, 두려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곳 태버나클에는 따스한 사랑의 영과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들의 특징이요 전형인 형제애가 가득 느껴집니다. 세계 각지의 헌납된 건물에서 이 대회를 보시는 여러분도 똑같은 영과 형제애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쯤 위대한 시대로서 때가 찬 경륜의 시대입니다.(에베소서 1:10, 교리와 성약 27:13 참조)

한 겸손한 소년이 기도하면서 이 경륜의 시대는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께서 예언자 요셉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 특별한 시대에 안내하는 일을 돕도록 거룩한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고대의 예언자들이 고귀한 신권의 열쇠, 즉 초기에 주님이 부여하신 권능과 책임의 열쇠를 회복할 목적으로 지상을 방문하였습니다.(교리와

성약 27편 참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독생자는 이 교회의 머리에 계십니다. 그분은 거의 2천년 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는 연차 대회와 신권 모임 때마다 이 자리에 있는 아론 신권 연령의 청남들의 수에 감명을 받습니다. 많은 수가 아버지와 함께 있고 어떤 이는 할아버지와, 또 어떤 이는 신권 지도자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청남 여러분은 저희 시대의 청소년들이 갖고 있던 특별히 용감하고 열성적인 영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잠시 여러분에게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제가 청남 시절에 한 경험들이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꽤 어렸을 때,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열 살이나 열한 살 때였습니다. 유다 주 북부의 산에 있던 저희 양떼들을 갈랜드 마을의 동쪽으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양들을 몰고 여름을 보낼 목초지를 향해 산으로 올라가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작은 산 개울물에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출발하기 전에 잠시 휴식도 취하게 해주었습니다.

양들이 자리를 잡는 동안, 저는 지형을 살피고 갈 길을 미리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계곡으로 수백 미터 가량 올라 가는데 갑자기 섬찟한 느낌이 들게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이라도 독성이 매우 강한 파충류인 방울뱀의 소리를 들어 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 소리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소리는 쪽으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방울뱀이 세 마리나 있었습니다. 그 뱀들은 봄볕에 따뜻해진 바위 무더기에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마리의 뱀들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뱀들을 보며 곤혹스러워 하는 중에 저는 양들이 과연 이 길을 지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염려까지 되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양들이 일어나 계곡을 따라 움직여 가기 시작했습니다. 양들이 가까이 오자, 뱀들은 침입자가 오는 것을 느꼈는지 개울쪽으로 기어 내려갔습니다.

위험에 처할까 걱정이 된 저는 즉시 뱀들이 움직이고 있는 방향에서 떨어져서 언덕 위로 양들을 몰았습니다. 얼마간 문제가 없는 듯 했지만 이내 두 마리의 양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되자, 다른 모든 양들은 길을 벗어난 그 늪은 두 마리 암양을 따르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양들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부화 뇌동"이라는 말을 들어 보신 분도 계시실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설상 가상, 양들은 방울뱀들이 있는 자리로 곧장 움직여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양들이 본능에 의해 안전한 곳으로 가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양 몇 마리가 방울뱀이 있는 길로 곧장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 불쌍한 양들은 당황한 파충류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슬픔에 찬 어린 목동은 소중한 암양 두 마리를 잃었다는 보고를 할아버지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양이 목자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매우 설득력 있는 실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목자였습니다. 저는 위험을 감지하고 양을 보호하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몇 마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서 다른 양들도 따라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잃은 양은 단 두 마리였지만, 잃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불행히도 살다 보면 당시에는 모를 수 있는 위험을 지나칠 수 있는 길로 인도하려는 영적인 목자들의 의도를 무시한 자들이 겪는 결과를 너무나 자주 봅니다.

부모님, 감독님, 조부모님, 소년단 지도자, 고문, 참된 친구들이 영적인 목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목자의 범주



에서 참된 친구를 언급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 그룹에 “또래 친구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도 주목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또래 친구들도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참된 친구는 종종 연약한 때에 격려해 주고 힘을 줌으로써 심각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참된 친구는 그렇게 함으로써 거의 항상 죄에 따르는 슬픔과 당혹감과 자존심의 상실을 막아 줍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또래 친구들의 영향력이 뚜렷하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자신들로 하여금 부도덕하고 우매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또래 친구들의 영향력과 압력이라고 밝힌 많은 조사 결과와 면담 기사를 읽고 듣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기만의 전문가입니다. 저는 사탄이 그렇게 되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사탄은 많은 연습을 했습니다. 사탄은 또래 친구 집단이 한 개인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속하는 것, 즉 그룹의 일원이 되는 것에 대한 욕망은 매우 강합니다. 단 한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유든 그릇된 길을 택하도록 영향을 미치면 사탄이 이기는 것입니다. 종종 가장 쉽고 간단한 자극은 “모두 그러는걸!”이라거나 “근사한데!”라거나 “해보지도 않고 나쁜 걸 어떻게 알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위 사람들보다 높은 표준을 가지십시오. 생각대로 옳은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올바른 원리들을 배웠습니다. 그러한 원리에 충실하십시오.

선과 악 사이에 중립 지대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악마의 세력권에 있다면 즉시 그 곳에서 나오십시오. 다음과 같은 니파이처럼 강한 기도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 주여 당신께서... 내가 죄의 면전에서 몸을 떨게 하여 주시겠나이까?” (니파이서서 4:31)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로 자신의 악행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그런 건 죄도 아니야. 문제없어.” 어떤 행위는 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보다 위험한 것은 그것이 여러분을 밀어



대회 방문자들이 어셈블리 홀에 들어가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이 홀은 태버나클에 입장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쓰이는 건물이다.

넣고 있는 길입니다. “사소한 잘못”이 바로 “더 큰 잘못”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성직자인 해리 에머슨 포즈딕은 다음과 같은 말로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비극의 대부분은 대개 의도되지 않은 것이다. 보잘 것없고 값 싼 목표를 갖고 시작하려는 사람은 없게 마련이다. 그러한 목표를 마음에 담아둘리 없다. 당신이 걷고 있는 길을 보라. 지팡이의 한쪽 끝을 들면 결국 다른 한쪽 끝도 든 것이다. 어떤 길을 처음 시작하기로 한 사람은 그 길이 끝나는 곳의 장소까지 선택한 것이다.” (긴장 속에서 생활함, 1941년, 110~111쪽)

자,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 옳은지를 압니다. 여러분은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성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강하고 충실하게 지내도록 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순결하게 지키십시오. 옳은 길로 들어서서 계속 머무르겠다는 결심을 일찍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여러분을 믿으시며 여러분이 행복하기

를 바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따라야 할 규범을 주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52:14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규범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영적인 목자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의 가장 큰 축복 하나는 바로 살아 계신 예언자가 계셔서 인도하고 안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든 비헝클리 대관장님은 현대의 사랑하는 예언자이십니다. 그 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분의 권고에 귀기울이십시오.

“동년배 친구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강력하게 거절함으로써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과 독립심을 증거하고 보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힘은 약한 자들에게 힘을 더해 줄 것입니다.” (성도의 빛, 1987년 7월호, 49쪽)

“여러분은 십대에 무엇을 하느냐로 30대, 40대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엔사인, 1995년 12월, 66쪽)

참된 행복을 가져 오는 결정을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이며 이 사업은 그분의 사업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 나의 아들이 선교 사업을 떠나기 전에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교회의 신권 소유자들에게 말씀을 해야 하는 지금 가슴이 벅칩니다. 저도 여러분 가운데 한 명으로 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은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다는 것은 참으로 커다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신앙을 행사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오늘 밤 저는 훌륭한 청남 여러분들께 저라면 저희 아들이나 손자가 선교 사업을 떠나기 전에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열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주님과 감독님과 스테이크 부장님과 모든 총관리 역원들과 힝클리 대관장님의 신뢰를 받아 부름을 통해 영예롭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여

러분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종이요 교회의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사들 대부분은 젊은 사람들이고 세상적인 면에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임되어 파송되는 자는 그가 가장 작은 자요, 모든 자의 종이라 할지라도 임명되어 가장 큰 자가 되느니라.”(교리와 성약 50:26)

인간에게 부족한 면이 많고 적절치 못한 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불러서 봉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은 “만물을 소유한 자”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시는 생명이나 빛이나 영이나 권세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만물이 다 저에게 예속됨이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정결하게 되어 모든 죄로부터 깨끗이 되지 아니한 자는 결단코 만물의 소유자가 아니니라.”(교리와 성약 50:27-28)

**둘째, 여러분의 선교부장은 주님의 대표자입니다.** 사적으로든 공개적으로든 그분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권능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선교부의 규칙을 잘 따를 때 여러분은 선교 사업에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장 따르기 힘든 규칙 가운데 하나로 아침에 선교부장님께서 지시하신 시간에 일어나야 하는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아침이 가장 곤하게 잘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선임 동반자로서 순종심이 강했던 윌리엄 그랜트 벵거터 장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일찍 일어나기 위해 자명종 시계로 시간을 맞추어 놓곤 했습니다. 자명종 소리가 온통 제 신경을 뒤흔들어 놓곤 했습니다. 더욱이 그 때는 겨울이라 어둡고 습기차고 추운데다 목욕이나 샤워를 할 더운 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차가운 물로 즐겁게 샤워를 했습니다. 저는 그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와들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는 대로 따르는 것밖에는 별도리가 없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 이가 딱딱 부딪칠 정도였기 때문에 저로서는 도무지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셋째,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교리와 성약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런고로 나는 배우지 못하였으며 세상에서 경멸받는 미약한 자들을 불러 나의 영의 권능으로 나라를 채찍질하게 하니니.

“저들의 팔은 나의 팔이 되며 나는 저들의 방패가 되어 저들의 허리를 동여매어 주리라. 그리하면 저들은 남자답게 나를 위하여 싸우리니.”(교리와 성약 35:13-14)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총관리 역원 가운데 한 분이 선교사 간증 모임에 참석했다가 들은 한 젊은 장로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말씀할 시간을 많이 허락 받지 못한 이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 일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하지 않는 일은 즐길 수가 없습니다.”

앤 엘돈 태너 부대관장님께서 오래 전에 서부 유럽 선교부를 관리하고 계셨을 때 그 분이 내건 표어는 “즐거운 시간을 가지라.”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분은 독일에서 열린 한 선교사들과의 모임에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 모임이 끝난 후 선교사 한 명이 그 분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태너 부장님, 전 부장님께서 선교사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다지 좋은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선교사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



말에 태너 부장님은 “좋습니다. 가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십시오.”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넷째, 봉사할 때는 자신을 잃어버리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마태복음 10:39) 여러분이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로서 행하는 어떠한 행동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방해가 되게 해서는 안됩니다. 복장 때문에, 머리 길이 때문에, 태도 때문에, 행동 때문에, 나아가 고향에 있는 여자 친구 때문에라도 여러분의 선교 사업이 방해받아서 안됩니다. 멋진 남자와 사랑스런 여자 사이의 자연스런 애정까지 무감각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자 친구로부터 자신의 마음이 변했다는, 소위 ‘디어 존 편지’를 받은 선교사가 있을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편지를 받은 분도 계시겠지만- 이전에 리그랜드 리차드 장로님께서 해주신 권고의 말씀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헤마다 새로운 젊은 여성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새로운 젊은 여성들도 기존의 젊은 여성들만큼 훌륭합니다”(여자 친구가 남자 친구에게 마음이 변하여 이별을 고하는 편지를 디어 존 레터[Dear John letter]라고 하며, 남자 친구가 여자 친구에게 이별을 고하는 편지는 디어 제인 레터[Dear Jane letter]라고 한다. -역자 주)

이 안정되지 않은 세상에서 청남 여러분이 여러분의 처소를 찾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표자인 복음 선교사로 부름 받게 되면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교리와 성약 4:2) 섬겨야 합니다.

**다섯째, 절대 동반자와 다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의 동반자들 중에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반자를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동반자에게 이기적인 태도를 갖지 마십시오. 동반자와 다투면, 누가 잘못했는지 간에 주님의 영은 떠나고 맙니다.

우리들은 각기 저마다 독특한 힘과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각기 단점도 있습니다. 동반자와 잘 지내게 되면,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한사람이 약해도 다른 한 사람이 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말 한 때를 모는 법을 배웠습니다. 말 한 마리가 말을 듣지 않으면 다른 말이 혼자서 짐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의 동반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자신이 할 당받은 짐을 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몸을 청결하고 건강하게 하며 여러분의 처소를 깨끗하게 하십시오.** 적당히 먹고 적당히 잠을 자으로써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병들게 되면 여러분은 일을 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동반자에게도 짐이 됩니다. 여러분 개인과 처소를 청결하고 깨끗하게 하면 영을 보다 잘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대표자로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용모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교회와 여러분의 메시지는 여러분이 얼마나 청결하고 단정하느냐에 따라 판가름됩니다. 여러분이 단정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쉽사리 그들의 집으로 초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일곱째, 여러분이 봉사하는 지역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주님을 통해 여러분이 사랑을 가득히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봉사하는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들을 가르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퀸헨에 젊은 페르시아계 학생이 쓸쓸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후 유럽에서의 삶에 대한 의미를 찾고자 노심 초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그의 집 문을 두드려 열어보니, 물론 선교사 두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에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 둘 두 젊은이에 대해 딱 하나 관심을 보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억양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네 가지 언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었지만, 영어는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선교사들을 들어오게 했는데,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선교사들에게 이렇

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 듣고 싶은 게 없어요. 선교사님들의 종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딱 한 가지는 알고 싶어요. 두 분이 다니는 교회의 신자들은 서로를 위해 무엇을 하시나요?”

그가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장로들은 서로를 힐끗 보았습니다. 이윽고 선교사 한 명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선교사들이 할 수 있었을 어떤 말이 이 짧막한 한 마디보다 더 가슴에 와 닿지는 못했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주님의 참된 종들이라는 간증을 곧바로 성신이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그는 침례를 받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여덟째, 경전, 특히 몰몬경과 신약 전서를 공부하고 상고하고, 이 경전들로 가르치십시오.**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을만큼 신리를 살 알도록 하십시오. 비에이치 로버츠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진리는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보다 분명하고 보다 완전하게 가르칠수록 이 사업이 참되다는 간증을 성령이 증거해 줄 수 있는 기회는 더욱 잘 마련될 수 있습니다.”(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증거들, 3권, 1909년, 2:vii) 여러분이 개심한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을 개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몰몬경과 더불어 그 몰몬경에 대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간증은 개심의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칠십인 정원회의 에프 버튼 하워드 장로님은 우리에게 몰몬경이 사람을 개심시키는 데 큰 힘을 갖고 있다는 강한 간증을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 전해 주고 계십니다. 푸에르토리코 산 후안 선교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던 셀리아 크루즈 아얄라 자매는 친구 한 명에게 몰몬경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몰몬경을 예쁜 종이로 싸 뒤, 친구에게 그 책을 주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길을 가는 중에 강도를 만나 지갑과 종이에 싸 몰몬경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녀에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크루즈 여사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부디 저를 용서



해 주십시오. 여사님께 강도짓을 벌였던 것을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여사님은 짐작도 못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저의 삶은 일순간 바뀌어 버렸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뀔 것 같습니다. 그 책[물문경]은 제 생활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꿈을 꾸고는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여사님의 5배소를 돌려 드립니다. 도저히 그 돈을 쓸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여사님을 뵈었을 때, 마치 환한 광채가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제가 여사님을 해치지 못하고 그냥 달아나기만 했던 것은 바로 그 빛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만날 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때엔 여사님께서 저를 알아보시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저도 여사님의 형제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 제가 사는 곳에서 주님을 찾고 여사님이 속하신 교회를 저도 다녀야 하겠지요.

여사님이 그 책 앞부분에 써 놓으신 글을 읽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요일 밤 이래로 저는 그 책을 한시라도 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이제 여사님께도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여사님이 종이에 싸서 들고 계시는 것을 보고 내다 팔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 삶을 완전히 바꿔보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하는 도구가 될 줄이야... 용서해 주십시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간청드립니다.

당신의 친구 올림.

물문경이 바로 것처럼 사람을 개심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젊은이 여러분께 권고드립니다. 여러분이 선교 사업을 나가시게 되면 신비스러움은 잊어버리도록 하십시오. 신비스러움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보니 어떤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시기가 아직 적절하다고 생각하셨던 것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신비스러운 것에는 추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들도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겸손한 종의 증거를 동반함으로써 개심시키는 영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하고 평범한 진리입니다.

**아홉째, 무시피는 여러분을 대적할 것이며 대적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무시피는 여러분이 실패하기를 바랍니다. 악마의 도구 중에는 낙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는 처음부터 얼마간의 진통과 슬픔이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경우는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님은 선교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의 어려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미국 남부의 아칸소, 테네시 및 켄터키에서 선교 사업을 할 당시, 아무 것도 먹지 못하고 늪과 강을 건너 110킬로미터 이상이나 되는 거리를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는 말일성도가 한 명이라도 있는 곳으로 가면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말일성도를 만나기 위해 240킬로미터 이상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 그는 배도해서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한 번은 380킬로미터 이상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여행한 뒤 미주리의 한 폭도와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내내 저를 비난하고 저주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수십만 킬로미터를 가도 말일성도 한 명 찾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설교집 12:12)

**열째,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은 여러분의 화살통에 든 화살 가운데 가장 강한 화살입니다.** 지금은 교회 회원들이 50여만 명이 됩니다만, 제가 브라질에서 선교 사업을 처음 할 당시 저희에게는 포르투갈어로 번역된 물문경도 없었고 값진 진주도 없었고 교리와 성약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이라곤 성경책과 약간의 소책자와 복음의 회복과 요셉 스미스 이야기에 대한 우리 자신의 간증과 살아계신 예언자에 대한 간증이 전부였습니다. 많은 열매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침례를 받았던 분들은 장장 삼 세대 동안을 지나오면서도 여전히 충실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의

60여 년 전 겸손한 선교사들이 전한 강력한 간증에 깊은 감명을 받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서 배우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간증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회원이 되느냐 아니냐는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를 침례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속담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사과 한 알 속에 든 씨앗은 몇 개나 되는지 셀 수 있어도 씨앗 한 개 속에 얼마나 많은 사과가 있는지는 헤아릴 수가 없는 법입니다. 추수는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은 낫질만 하십시오. 침례의 물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요건이 요구되는지가 교리와 성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마음으로부터 침례를 받고자 원하며, 상한 마음과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와 진실로 자기의 죄를 모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 참으로 끝까지 성결 결심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죄사함 얻은 것을 행위로서 나타내는 자에게는 모두 침례를 베풀어 교회에 받아들여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20:37)

여러분에게 성령이 거하게 하고, 여러분이 거룩한 경전에 기록되어 있고 살아계신 예언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그 영으로 전한다면, 하나님은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르침을 확고히 심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선교 사업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대단히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모두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헌신적으로 선교 사업을 한다면 이는 인생에서 가장 충족스러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 겸손하고 충직한 종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거룩한 관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그러한 것을 보아 왔고 제 자신의 생활에서도 느껴보았기 때문에 전혀 틀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하신 여러분들이 언제 어떤 부름이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한 부름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 봉사하도록 부름 받음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이 사업은 여러분의 것도 아니고, 저의 것도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주님의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부름에 응한다면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참으로 많은 청중들이 이  
신권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을 다음과 같이 잘  
묘사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  
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베드로전서 2:9)

청소년 시절 저희는 주일학교에서 이  
찬송가를 자주 불렀습니다.

싸움 끝나는 날까지 다 응모한  
기쁜 우리 기쁜 우리  
예비된 금관 보아라 병사들아  
우리 승리하고 곧 쓰세  
두려워 할 것 하나 없네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격려하니  
다 기쁘고 즐겁게 개가 부르세  
(찬송가 179장)

형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  
운 세상을 생각해 본 다음 우리가 당면하  
고 있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 곁에 우리의 지도자 예수님이 계시  
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낭비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천  
연 자원들이 너무 자주 낭비되고 있습니  
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부족한 세상에 살  
고 있습니다. 온갖 사치를 부리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굶주리는 사람들  
도 있습니다. 모두가 먹을 음식과 살 집  
과 입을 옷과 사랑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줄어들지 않는 고통, 불필요한  
병 및 때아닌 죽음 등이 너무 많이 일어  
납니다. 우리는 전쟁이 가득한 세상에 살  
고 있습니다. 굳이 정의를 내리자면 어떤  
전쟁은 본질적인 면에서 정치적인 이유  
로 일어나기도 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일  
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전쟁은  
인간의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کم을 기억하라...”

“만일 너희가 온 생애 동안 이 백성에  
게 회개를 외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게  
로 이끌어 오면 저와 더불어 나의 아버  
지의 왕국에서 맛볼 너희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

“만일 너희가 나의 아버지의 왕국의  
내게로 데려온 단 한 사람으로 인한 기쁨  
이 그처럼 클진대 많은 사람을 내게로 데  
려오게 될 때면 너희 기쁨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교리와 성약 18:10, 15~16)

주님은 갈릴리에서 어부를 부르셔서  
그물을 버리고 그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  
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태복음  
4:19) 그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사도들을 온 세상에 보내 그분  
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  
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모  
두 오라”며 부르십니다. 그분은 “그러므  
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저마다 자기 의  
무를 배우며 자기에게 임명된 직책을 부  
지런히 완수하게 하라”(교리와 성약  
107:99)라는 훈계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의무  
라는 숭고한 말을 사랑하며 좋아합니다.

존 테일러 대관장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주의를 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름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께서는 여러분이 의무를 다했다면 구원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  
에게 물으실 것입니다.”(설교집, 20:23)

또 다른 대관장이신 조지 엘버트 스미  
스 대관장님은 “우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을 알고 그분의 거룩한 신권의 권세와 힘  
을 통해 사람들이 기쁘게 여러분을 따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 앞에서 부름을 영  
화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대회 보고, 1942년 4월, 14쪽)라고 말씀하  
셨습니다.

어떻게 부름을 영화롭게 합니까? 부  
름에 따른 봉사를 수행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아들이고 성임받고  
신권을 지니게 됩니다.

스티븐 엘 리차드 부대관장님은 신권  
소유자들에게 신권과 관련된 철학을 강  
조하면서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신권은 대체로 ‘인간에게 위임된 하나님  
의 권세’로 정의됩니다. 이 정의는 정확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목  
적으로는 신권을 봉사의 면에서 정의하  
고 싶습니다. 저는 자주 그것을 ‘완전한  
봉사의 계획’이라고 부릅니다.”(대회 보  
고, 1937년 4월, 46쪽)

여러분은 “의무의 길이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라고 물음지도 모릅니다. 형제  
여러분, 준비할 의무와 봉사할 의무라  
는 두 표지가 그 길을 인도할 것이라고  
저는 온 마음을 다해 믿습니다.

이 두 표지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 드  
리겠습니다.





첫째는 준비할 의무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또 연구와 신앙으로써 학문을 구하라."(교리와 성약 88:118)

인생의 기회와 책임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지금처럼 중요한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사회에 살고 있으며, 심한 경쟁이 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 가장, 할아버지, 부양자, 보호자의 역할이 이전 세대보다는 크게 다릅니다. 준비는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식자 우환"(역자 주: 글자를 아는 것이 도리어 근심을 사게 된다는 뜻)이라는 말은 이제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준비는 행위를 낳습니다.

신권을 소유한 우리 모두는 지금 진리의 교사이거나 그렇게 될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충고하셨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하면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가 이해하면 유익한 이론과 원리와 교리와 복음의 율법과 하나님의 왕국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더욱 온전히 배우게 되리라..."

"이는 내가 너희를 부른 소명과 너희에게 맡긴 사명을 완수하게 하려고 또 다시 내가 너희를 보낼 때에 모든 일에 준비를 갖추어 두게 하려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88:78, 80)

두 번째는 봉사할 의무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앤톤 에리치 런던, 찰스 더블류 펜로스로 구성된 대관장단은 1914년 2월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신권은 인간의 명예나 영광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 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을 위해 봉사의 성역을 베풀도록 주어진 것이다."(제임스 알 클라크 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메시지, 6권 1965-75년, 4:304)

여러분 중에는 본성적으로 부끄러워하거나 스스로를 부름에 단호히 응답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 사업은 여러분의 것도 아니고, 저의 것도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주님의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부름에 응한다면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자를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때때로 주님은 이것이 참됨을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약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십니다. 저는 교회 선교사 위원회 위원장으로 봉사할 때 유타 주 프로보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 원장단의 일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선교부에 부름 받은 한 유별난 젊은이가 언어를 배우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는 스페인어를 결코 배울 수 없을 거예요"라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지도자는 "저희가 어떻

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내일 그를 일본어를 배우려고 애쓰는 선교사 반에 견학을 시키고 그의 반응을 알게 알려 주십시오."

그는 24시간 내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 선교사는 일본어 반에 만나질쯤 있더니 저에게 전화를 해서 '스페인어 반으로 저를 보내 주세요, 스페인어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일반적인 교실에서 공부를 배우는 것이 당연하기도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과 배움 가운데는 예배당이나 교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아론 신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교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주님의 대업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기쁨을 얻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십시오. 그런 봉사의 예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추수 감사절이 지난 후 제가 부장단으로 봉사한 스테이크에서 알고 지내던 한 미망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감동당이 마련한 만찬에서 막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편지에는 그녀가 느낀 평안함과 가슴 가득한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문슨 부대관장님,

저는 지금 바운티풀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전의 스테이크 사람들이 보고싶긴 하지만, 제가 겪은 아름다운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월 초에 모든 미망인들과 노인들이 아름다운 만찬에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는 와드에 있는 나이 든 청소년들이 직접 차로 태워다 줄테니 교통편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참으로 근사한 청남 한 명이 초인종을 누르고 저와 다른 자매를 스테이크 센터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자동차가 멈추자 다른 청소년 두 명이 우리를 건물까지 안내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우리를 식탁까지 안내했으며, 자리를 잡자 초대 받은 사람 곁에 청남이나 청녀가 한 명씩 함께 앉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추수 감사절 만찬을 제공 받고 그 후에 특별 프로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또 청소년들이 우리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참으로 근사한 저녁이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에게 보여 준 사랑과 존경심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몬슨 부대관장님, 교회의 모든 청소년들이 그 청소년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면, 교회는 매우 훌륭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의 서한에 있는 다음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 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야고보 1:27)

저도 같이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에게 사심없이 그러한 기쁨을 드리고 그들의 영혼에 그러한 평안함을 안겨 준 지도자들과 청년,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들은 봉사의 의미를 배웠으며 주님이 가까이 하심을 느꼈습니다.

1962년에 캐나다 선교부장에서 귀환하자 매리온 지 롬니 장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분은 대관장단에서 저를 성인 협의 위원회의 일원으로 부르셨다고 알려 주셨습니다. 그 위원회는 가정 복음 교육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관한 준비를 하는 특별한 임무를 지닌 위원회였습니다. 저에게 가장 흥미있고 보람 있는 경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작업이 한 단계 끝날 때마다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가 검토를 했습니다. 1963년 봄에 우리 작업이 끝나고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신권 가정 복음 위원회라는 새로운 위원회에 부름 받아, 교회의 여러 스테이크로 가서 가정 복음의 실천을 격려하도록 지명받았습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교회의 모든 총관리 직원들과 위원회 대표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분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하셨습니다. "가정 복음 교육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영감을 주고, 조언하며 지도하는 가장 시급하면서 또한 가장 보람있는 기회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봉사이며 부름입니다. 거룩한 영을 모든 가정과 마음속에 심어주는 일은 가정

복음 교사로서의 우리의 의무입니다."

1967년에 에스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연차 대회 신권 모임에 참석한 형제들에게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가정 복음 교육을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가정 복음 교육 부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직접 부여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는 교리와 성약 20편에 있는 잘 알려진 구절을 인용하셨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신권 소유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항상 교회 회원을 돌아보며 저들과 함께 있어 격려하며,

"교회 안에 악행이 없는지...살피며,

"교회 회원이 자주 회합하도록 힘쓰며 모든 회원이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돌보며..."(교리와 성약 20:53-55)

"각 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소리를 내거나 은밀히 기도할 것과 모든 가족의 의무를 다할 것을 권고하느니라."(교리와 성약 20:51)

최근에 저희 손자와 손녀들이 성적표를 받았습니. 그들은 자랑스럽게 그것을 부모와 우리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오늘 저녁 신권 소유자 여러분 모두가 가정 복음 교육에 관해 자신의 성적을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까? 예, 아니오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1. 여러분은 가정 복음 교사로 지명 받았습니까?

2. 가정 복음 교사는 여러분의 집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방문합니까?

3. 가정 복음 교사는 복음 메시지를 준비해 발표합니까?

4. 가정 복음 교사는 식구들에 대해 질문을 합니까? -학업이나 선교 사업으로 집을 떠나 있는 가족들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5. 지난 달에 가정 복음 교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르친 공과는 무엇이었습니까?

6. 가정 복음 교사는 방문하는 동안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기도했습니까?

7. 여러분은 지난 달에 가정 복음 교육을 했습니까?

질문을 계속할 수 있지만, 위의 질문만으로도 여러분이 빨리 생각해 보고 좀더 나은 방문을 하도록 하는 데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권 소유자들의 수가 너무 적은



곳에서는 가정 복음 교육을 하는 데 약간 수정을 하도록 본부에서 승인했음을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신권을 지닌 동반자를 구할 수 없을 때 아내를 동반자로 할 수도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예외의 경우이지 원칙이 아닙니다. 우리는 활동적인 벨기세덱 신권 소유자가 교사나 제사나 수련 장로를 동반자로 지명하도록 권유합니다. 이것은 경선의 말씀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 중 어느 사람이 성령의 힘이 강하면 연약한 자를 데리고 다니라. 그리하여 지극히 온유하게 가르쳐 깨우치게 하여 연약한 자로 강한 자가 되게 할지이다."(교리와 성약 84:106) 이것이 일반적으로 행해져야 할 신권 가정 복음 교육입니다.

임무가 너무 힘들거나 시간이 든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께 동독에서 있었던 충실한 가정 복음 교사와 동반자의 경험을 들려 드리고 싶습니다.

조안 덴도르프 형제는 제2차 세계 대전 후 독일에 있는 교회에서 개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헝가리의 테브레센 시에 갇혀 있는 죄수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성전을 얼마나 방문하고 싶어했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축복을 얼마나 받고 싶어했는지 모릅니다. 스위스에 있는 성전을 방문하고자 신청서를 냈지만 계속 거절당해 거의 실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정 복음 교사가 방문했습니다. 발터 크라우제 형제는 독일 북동 지역에서 헝가리까지 갔습니다. 그는 가정 복음 교육 동반자에게 "이번 주 나와 같이 가정 복음 교육을 갈까요?"라고 말했습니다.

동반자가 "언제 떠날 겁니까?"라고 묻자 "내일입니다."라고 크라우제 형제가 답했습니다.

동반자가 "언제 돌아오니까?"라고 묻자 "한 일주일쯤인데 더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먼 길을 떠나 덴도르퍼 형제에게 갔습니다. 전쟁 전까지 그는 가정 복음 교사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종들을 보았을 때 그는 감격했습니다. 그는 악수를 하지 않고 침실로 가서 은밀한 장소에서 그가 교회 회원이 되어 헝가리로 돌아온 날부터 모아 둔 십일조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십일조를 가정 복음 교사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의 곁에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는 주님의 종과 악수할 만큼 합당하다고 느낍니다.”

크라우제 형제는 스위스에 있는 성전에 참석하고 싶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덴도르퍼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용없어요. 계속 노력했어요. 정부에서는 제 가장 큰 보물인 교회 책들까지 가져가 버렸습니다.”

축복사인 크라우제 형제는 덴도르퍼 형제에게 축복사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축복을 마치면서 그는 덴도르퍼 형제에게 “스위스에 가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부에 연락해 보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덴도르퍼 형제는 다시 한 번 신청서를 당국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승인이 났 습니다. 덴도르퍼 형제는 기쁜 마음으로 스위스 성전에 가서 한 달간 머물렀습니 다. 그는 자신의 앤다우먼트를 받고 죽은 아내를 자신에게 인봉했으며 수많은 조상 들을 위한 사업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조안 덴도르퍼 형제를 방문한 역사적이고 영감 받은 가정 복음 교사들은 어떠했습니까?

이러한 인간적인, 드라마같은 회원들의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접하게 되면 헝가리 데브레센에서 동독에 있는 그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이 “두려워 할 것 하나 없네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격려하니 다 기쁘고 즐겁게 개가 부르 세”(찬송가 179장)라고 큰 소리로 노래 불렀다는 것은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신권을 소유한 형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준비할 의무와 봉사할 의무를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 “깨끗할지어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세상의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참**으로 훌륭한 모임이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사들의 말씀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오늘 밤 성신권에 성임된 각 형제들이 갖는 모임과 같은 모임이 세상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우리는 위대한 형제애로 뭉친 수십만 명, 아니 수백만 명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회중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주목할만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가진 보화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빕니다.

일주일 전 저녁 이 태버나클에는 아름답고 영특한 청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교회의 청년 대회였으며 저는 본부 청년 회장단으로부터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많은 분들, 특히 청년들은 “대관장님께서 청남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도 대관장님이 저희에게 하신 말씀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내용을 읽고 싶으신 분들

53.1  
은 성도의 벗 7월호를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시작으로 먼저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이 청년이었을 때 꾸었던 꿈의 내용을 읽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제6대 대관장님이셨습니다. 이분은 1901년 10월 17일부터 1918년 11월 19일까지 대관장으로 17년간 봉사하셨습니다.

스미스 대관장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형님이셨던 하이람 스미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분은 1838년 11월 13일 미주리 주 파웨스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성도들이 미주리에서 쫓겨나 일리노이 주로 보내졌을 때는 유아였습니다. 부친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함께 카테지 감옥에서 살해되었습니다. 여섯 살이 채 못 되었을 때 나무에 위치한 모친의 집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친이 그날 오후 카테지에서 살해되었다고 모친에게 말을 전한 사람은 마부였습니다. 어린 소년에게는 정신이 번쩍나게 하는 무시무시한 경험이었습니다.

53.1  
열한 살이 되었을 때 부친을 잃은 소년은 모친과 함께 소 달구지를 몰고 양야를 건너 이 계곡으로 왔습니다. 열다섯 살의 나이에 하와이에서 선교 사업을 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서 그 곳에서 하와이에 갈 수 있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지붕 널빤지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 당시 하와이는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와이에는 주로 하와이 원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 대다수는 가난했으나 자신들이 소유한 것을 관대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는 이들의 언어를 배웠으며 이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와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결코 시들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하와이 사람드의 사랑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53.1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는 그가 어린 나이로 선교 사업을 하고 있을 때 그가 꾸었던 꿈에 대한 배경을 알려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나는 한 번 선교 사업에서 심한 중압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거의 별거벗고 있었고 가난하고 미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외는 거의 친구가 없었습니다. 나는 궁핍하고 지식과 지혜가 부족한 어린이 상태로 떨어져서 감히 [사람]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을 것같이 느껴졌습니다.”

“꿈에서 나는 여행을 하고 있었으며 너무 늦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여 빨리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온 힘을 다해 빨리 달려갔습니다. 나는 단지 손수건으로 싸여진 작은 보따리를 갖고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이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있는 힘을 다해 빨리 달렸습니다. 마침내 나는 훌륭한 저택에 도달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나의 목적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향해 빨리 뛰어가다가 ‘목욕탕’이라고 씌어진 표지를 보았습니다. 나는 몸을 돌려 목욕탕으로 들어가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벌의 회고 깨끗한 가먼트가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오랫동안 그와 같은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먼트는 깨끗했으며 나는 그것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대한 문으로 보이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는 문을 두드렸고 그 문은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서 있는 사람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였습니다. 그는 나를 약간 책망하는 듯이 바라보면서 하시는 첫마디는 이러했습니다. ‘조셉아, 너는 너무 늦었구나.’ 그러나 나는 자신을 갖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깨끗합니다.”

“그 분은 나의 손을 잡아 안으로 잡아당기고는 문을 잠갔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진짜 사람의 손을 만지는 것처럼 만졌습니다. 나는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나의 부친과 브리감 영과 히버 시 킴볼과 윌라드 리차즈와

그 외에 내가 알고 있었던 훌륭한 분들이 줄을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계곡 건너까지 뻗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무리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도 내가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의 어머니도 거기에 있었으며 무릎에 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내가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택되고 승영된 자들이었습니다. ...

“[내가 이 꿈을 꾸었을 때] 나는 멀리 하와이의 산 위에서 돛자리에 혼자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현에서 나는 예언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의 얼굴에 미소를 보았습니다...”

“그 날 아침 잠을 깨어 보니 소년에게 지나지 않았던 내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두려워할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어떤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도 만나서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영혼 깊숙이 내가 모든 면에서 어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당시 내가 보았던 시현과 목격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만일 내가 주님 앞에 선하고 깨끗하고 올바르며 내 안에 선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복음 교리, 498-499쪽)

이 의미 심중한 꿈의 핵심은 요셉 스미스가 어린 조셉 에프 스미스에게 한 꾸지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셉아, 너는 너무 늦었구나.”라고 예언자가 말하자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깨끗합니다.”라고 조셉 에프 스미스는 대답했습니다.

이 꿈 때문에 한 소년이 성인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라는 선언으로 그는 어느 누구나 어느 상황이나 직면할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로부터 인정을 받음으로써 강화된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되고 그로써 오는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오늘 저녁 이 거대한 회중 속에 있는 모든 성인과 청소년들에게 줄 수 있는 무언가가 들어 있습니다.

의심스럽고 두려우십니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지속하기 위해 지혜와 힘이 필요하십니까?

테니스의 갈라드 경에 나오는 대사가 생각납니다. “나의 힘은 열 사람의 힘과 같네. 이는 내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이라네.” (알프레드 테니스 경, “갈라드 경”)

깨끗할 때 모든 것이 나아 보입니다. 꿈에서 조셉 에프 스미스는 예언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나는 깨끗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도 모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자주 들었던 “깨끗함은 경건함 다음”이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이곳 솔트레이크 시에서 살고 있었을 때 대부분의 가정은 석탄 난로를 이용해 난방했습니다. 거의 모든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 나왔습니다. 겨울이 끝날 때쯤이면 검댕이와 매연이 온 집 안과 집 밖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의 입장으로는 별로 유쾌하지 못한 매년 우리가 치러야 할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의식에 가족 모두가 참여했습니다. 이 의식을 우리는 봄 청소라고 불렀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날이 따뜻해지면 일주일 정도를 청소하는 데 보냈습니다. 봄 청소 기간 중에는 한 번의 일요일과 두 번의 토요일이 끼어있는게 보통이었습니다. 저의 모친이 봄 청소를 이끌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커튼을 걸어 내려서 세탁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커튼을 조심스럽게 다리미질했습니다. 유리창도 안팎으로 닦았습니다. 큰 이층 집이었기 때문에 너무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벽마다 벽지가 도배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친은 벽지를 깨끗하게 해주는 반죽이 든 많은 깡통을 집으로 가져오시곤 하셨습니다. 마치 빵 반죽같았으나 깡통 뚜껑을 열면 분홍색을 띤 아름다운 반죽이었습니다. 이 반죽에서 흥미로운 냄새가 났는데 참으로 유쾌하고 신선한 냄새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달려들어 도왔습니다. 우리는 이 반죽을 뜬 손으로 주무른 다음 사다리에 올라가 천장부터 시작해 벽으로 옮겨 일을 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이 반죽이 벽지로부터 수증기를 들어내면 반죽은 시꺼멓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피곤한 일이었으나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뒤로 멀찍이 물러나 더러운 벽



과 깨끗한 벽을 비교해 보곤 했습니다. 깨끗한 벽이 얼마나 더 나아 보였는지 우리에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카페트도 다 들어내 뒤 마당으로 끌고 가 빨래줄에 하나 하나 걸었습니다. 우리 형제들 한 명 한 명에 카페트 매리제라는 도구라고 불렀던 나무 손잡이가 달린 가버운 쇠 막대가 들려지곤 했습니다. 카페트를 두들기면 먼지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먼지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카페트를 두들겼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이게 되면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집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도 새롭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나아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야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찌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찌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이사야서 1:16-18)

“주의 그릇을 가진 자여 깨끗할지어다.”(고리와 성약 133:5)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날의 계시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깨끗이 하십시오. 마음을 깨끗이 하십시오. 말을 깨끗이 하시고 옷과 행동을 깨끗이 하십시오.

저는 특별히 청소년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성인들도 경청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끊임없는 주의 환기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신체는 성스럽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육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놀랍고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어떤 카메라도 인간의 눈의 경이에 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심장만큼 그토록 오랫동안 열심히 작동하는 펌프는 세상에 없습니다. 귀와 뇌를 보더라도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소리의 파장을 취해 언어로 바꾸는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을 보고 손가락의 경이를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이에 버금가는 것을 만들려고 해왔으나 결코 완전하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다. 우리의 다른 신체 기관처럼 이것들을 통해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인 하나님의 신성과 전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에 의도적으로 가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커다란 재앙입니까. 약간의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 이들은 자제력을 빼앗아가고 습관성이 되고 엄청나게 비싸며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전혀 쓸모 없는 것을 복용합니다.

최근에 음주 운전을 하다가 무고한 희생자를 내고 구속된 젊은이를 생각해 봅니다. 이 젊은이는 큰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자신의 비참한 주변 환경뿐 아니라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것들이 사악함을 상기시켜 주셨으며 이것들을 피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술을 피하십시오. 소위 ‘맥주 파티’라는 것에 가담하지 마십시오. 마약의 뒷에 걸려들지 마십시오. 마약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마약에 노예가 되면 계속 마약을 원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더 많은 마약을 사야하므로 결국 여러분은 빈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성스럽고 신성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술이나 마약을 취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면 여러분의 신체를 보다 잘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옛말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잠언 23:7)이라고 했습니다. 부정된 생각은 부정된 행동을 낳습니다.

몇 년 전 심각한 죄를 지은 선교사를 변호하기 위해 맥케이 대관장님에게 갔던 때가 생각납니다. 제가 맥케이 대관장님에게 “충동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리자 대관장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범법을 저지르기 전에 이 일에 마음을 두었든지요. 생각은 행위를 낳는 아버입니다. 그가 자

신의 생각을 통제했다라면 이런 일은 충동이 되지 않았을거예요.”

주님은 손가락으로 돌판에 “간음하지 말지어다”(출애굽기 20:14)라고 새기셨습니다. 사탕도 이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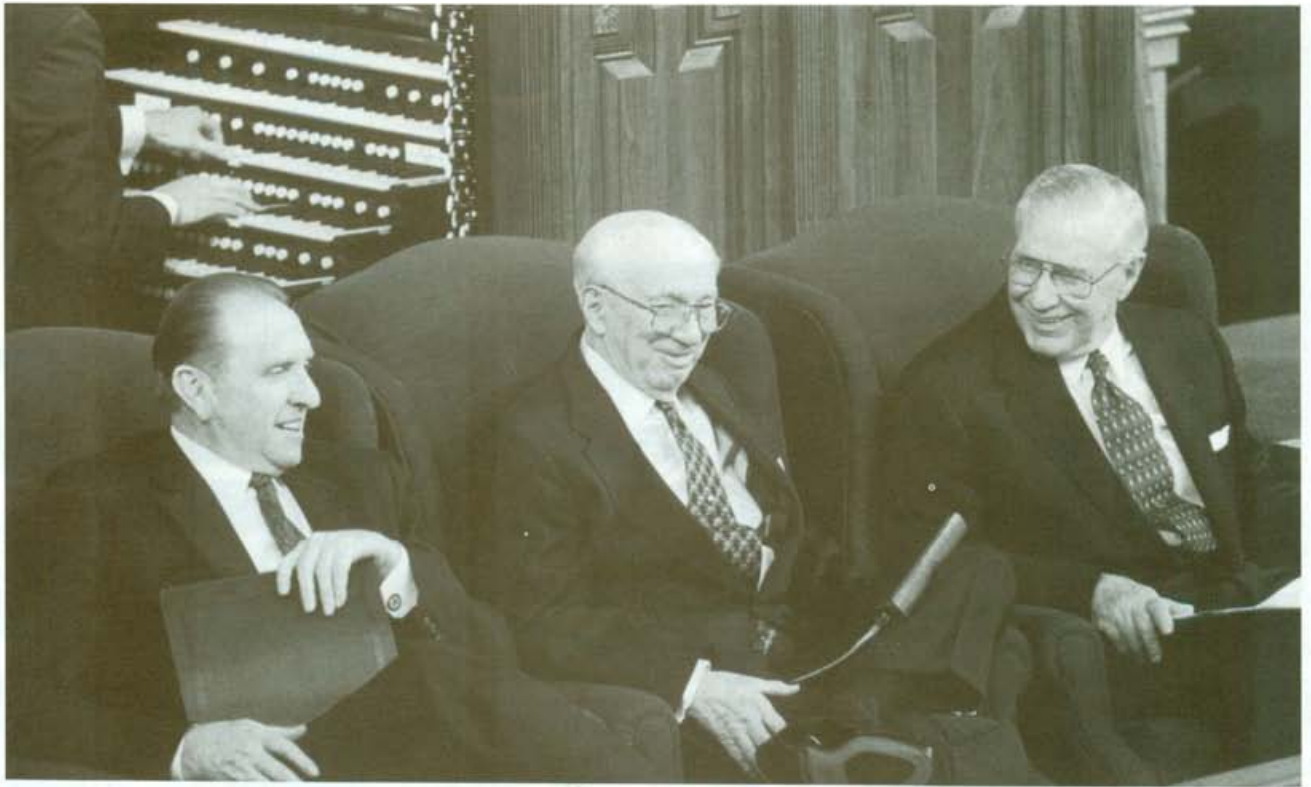
물론 여러분은 유혹을 받습니다. 온 세상이 성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기만적이며 현혹적으로 성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텔레비전과 잡지, 책, 비디오, 심지어는 음악에서조차 성에 노출됩니다. 성으로부터 등을 돌리십시오. 이를 피하십시오. 말하기는 쉬우나 실제로 행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마다 다음에는 그만큼 더 쉬워집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서 “저는 깨끗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적용할 수 있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덕으로써 네 생각을 장식하라.” 또한 주님은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러하면 주의 면전에서 네 신임이 두터워지리라.”(고리와 성약 121:45) 우리가 마음과 육체가 깨끗하면 조셉 에프 스미스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 앞에 서서 “저는 깨끗합니다.”라고 말했다듯이 우리도 자신있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올 것이라는 뜻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자신감도 있을 것이며 승인의 미소도 있을 것입니다.

신권 소유자로서 여러분은 부도덕한 행위의 사악한 뒷에 걸리 수도 없으며 걸려서도 안됩니다. 물론 여러분은 여러 가지 유익한 다른 방법으로 젊은 여성들과 사교하고 데이트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서는 안될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은 죄와 개인의 정결함을 가르는 선입니다. 그 선이 어디에 그어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거듭하여서 여러분은 이에 대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주님 쪽의 선에 머무르십시오.

깨끗한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요즘 세상에는 더럽고 추악한 말이 많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도 말했습니다만,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립니다. 더럽고 추악한 말을 사용하면 여러분의 어휘 실력이 크게





대회 모임 시작하기 직전 잠시 환담을 나누는 대관장단. 왼쪽으로부터 : 토마스 에스 몬슨 대관장단 제1보좌,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제임즈 이 파우스트 대관장단 제2보좌.



모임이 끝난 후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로부터 인사를 받는 파우스트 부대관장과 몬슨 부대관장과 힝클리 대관장.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직원

## 대 관 장 단



토마스 에스 문슨 부대리장



고든 비 험블리 대리장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리장

##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크



앤드루 페트리



테오도어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킨



로버트 웬 넬슨



윌리엄 에이치 욱스



윌리엄 빌러드



조셉 비 워스린



리처드 디 스코트



로버트 디 햄햄드



제프리 알 홀랜드



헨리 비 아이어링

## 칠십인 회장단



제임스 이 에이어리



앤드루 포터



조셉 C 크리스텐슨



켄트 케이 브란트포드



다니얼 위진 영슨



마크 에이치 그울드스트란드



해럴드 지 홀름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관리 감독단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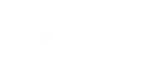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템플 스퀘어의 동쪽에 위치한 교회 본부 건물 광장에 있는 조각. "즐거운 시간". 이 조각에는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이요"(시편 127:3)라는 설명이 적혀 있음.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지게 되며 이 더러운 말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없음을 보여 줍니다. 더러운 말은 나이가 많은 적든 신권을 소유한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신권 소유자로서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해서도 안됩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출애굽기 20:7)

주님의 손으로 새기신 이 계명은 처음 주어진 자들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구속력을 갖습니다. 주님은 현대의 계시를 통해 “위에서 오는 것은 거룩한 것임을 기억하라.”(교리와 성약 63:64)라고 하셨습니다.

더러운 마음은 더럽고 불결하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깨끗한 마음은 긍정적이며 영을 고양시키는 언어와 참으로 가슴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행위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의복과 행동에 있어서도 깨끗하십시오. 여러분이 항상 선교사처럼 보이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의 깨끗하고 보수적인 옷차림과 모발은 선교사들이 어디에 가든지 쉽게 눈에 띄는 명예스러운 뱃지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단정하지 못한 복장과 단정하지 못한 행동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복장이 깨끗하기를 바라는 만큼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느냐에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의 꿈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커다란 저택을 향해 달려갈 때 그에게는 보자기에 싸여 있는 자그마한 꾸러미가 있었습니다. 그가 목욕을 한 후 손수건을 끌러 보았을 때 그 안에 깨끗한 의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찬을 집행하고 전달할 때마다 여러분의 모습을 가장 훌륭하게 보이게 하십시오. 개인적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행동을 깨끗이 하고 예절 바르고 공손하고 정직하며 성실한 청소년과 성인이 되기를 권고합니다.

예절 바름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예절이 없어서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이는 비극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도로를 운전할 때 이를 매일 목격하게 됩니다. 다른 자동차가 끼어들려고 할

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할 때 무언가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본성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약간의 교통 문제에도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추악한 몸짓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상대방의 기본을 상하게 합니다. 거의 매일 일어나는 자그마한 것에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기 수양을 하는 것은 감정이 깨끗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직, 이는 참으로 값진 장신구입니다. 다시 말해, 정직은 생각과 행동이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보험사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권리도 없으면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부정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시험 볼 때 부정 행위를 하는 것도 이제는 공공연한 일이 되어 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출애굽기 20:15, 17) 이 계명은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돌판 위에 새기신 계명에 들어 있습니다. 신문에서 부정직한 방법을 통해 그들이 탐하는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빼앗기 위한 사기 행각에 연루된 교회 회원에 대한 기사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앞에서 정결하게 행하라”(교리와 성약 42:41)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다른 어떠한 부정직한 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들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형제 여러분, 제가 메시지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했습니까? 그러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랬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책임에 관해 크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세상의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중 이 어느 것 하나에라도 죄가 있다면 즉시 회개하십시오. 주님께 고백하고 만약 죄가 심각한 것이라면 여러분의 감독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회개가 있으면 용서도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 죄는 용



서되었나니, 너희는 내 앞에서 깨끗하도다. 그러므로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교리와 성약 110:5)

감람나무 앞으로 알려진 계시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마지막 왕국의 첫일꾼인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함께 모이며 너희 자신과 주변을 정리하며 준비를 갖추며 거룩하게 될지어다. 참으로 마음을 순결케 하고 내 앞에서 손발을 성결케 하여 내가 너희를 순결하게 할지어다.

“그리하여 너희가 이 사악한 세대의 피로부터 순결케 되었음을 내가 너희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증거하게 하며 내가 너희와 맺은 큰 마지막 약속을 내가 원할 때에 이룰 수 있게 할지어다.”(교리와 성약 88:74~5)

결론으로, 서두에서 언급했던, 산 속에서 홀로 잠들었다가 서둘러 가던 중에 거대한 저택을 보았던 불쌍한 소년의 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는 자신을 깨끗이 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늦은 것에 대해 예언자 요셉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었지만 “예, 그렇지만 저는 깨끗합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예언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선교사였던 조셉 에프 스미스는 나중에 예언자이자 대관장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견고 하나님의 승인의 미소를 받을 수 있기에 합당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간청합니다. 아멘. □



# 주님의 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주님에 대해 배우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같이 되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대 성역을 베푸시는 때  
였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  
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  
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  
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  
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  
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  
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  
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값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  
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누가복음 10:25~37)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흐르고 상황은  
다를지라도 이 율법사에게 하신 주님의  
권고는 마치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이 우  
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  
게도 분명하게 적용됩니다.

오늘날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룩  
한 첫번째 계명을 어떻게 완수할 수 있겠  
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  
하는 자니”(요한복음 14:21). “와서 나를  
좃으라”(누가복음 18:22). “내가 너희의  
본이 되노라”(니파이삼서 18:16). “나는  
너희가 치켜 들 빛이니 너희는 나의 행함  
을 본 대로 행하라.”(니파이삼서 18:24)  
사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귀간에서 탄생해서서 구유에 누이셨  
던 주님은 온 시대의 예언을 성취하려 오

셨습니다. 목자들이 주님을 경배하려고  
달려 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분께 드  
릴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절정의 시기  
가 시작된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함으  
로써 큰 연대우먼트와 무기보다 강한 힘  
과 가이사의 돈보다 더 오래 가는 부유함  
이 주어졌습니다. 이 아기는 왕중의 왕이  
요 만군의 주이시며, 약속된 메시아가 되  
실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  
스도였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  
워 가시더라”(누가복음 2:52)라고 기록되  
어 있습니다. 그분은 요한에게서 침례 받  
으셨으며,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사  
도행전 10:38) 행하셨습니다. 나인에서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셔서 그 어미에게 보  
내셨으며, 베데스다에서는 약속의 연못에  
들어갈 희망이 없었던 절름발이 병자에게  
동정심을 느끼고 손을 뻗어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의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겐세마네 동산으로 왔으며  
엄청난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주님은 만  
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위대한 속죄  
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골고다의 잔인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이 생애의 마지막 몇  
시간 동안 주님은 같이 매달린 죄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43)라고 위로하셨습니다. 주  
님은 감동적인 사랑의 말로 그의 어머니  
를 기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  
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  
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  
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요한  
복음 19:26~27) 그리고 위대한 주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있었던 두 가지 질문  
이 우리의 귀에 천둥처럼 울려 퍼집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느냐”(마태복음 22:42).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마태복음 27:22) 저는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 **그분에 대해 배우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



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쉽게 얻으리니”(마태복음 11:29)

2. **그분을 믿으십시오.** 잠언의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언 3:5~6) 우리는 하늘 아래 오로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그분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분은 동정심이라는 말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을 표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사심없는 봉사 그 자체였습니다.

주님에 대해 배우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같이 되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용모가 변화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발걸음이 빨라지고 혜안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삶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여 갑니다. 때때로 느끼지 못한다 해도 변화는 일어납니다.

구세주께서는 모든 성역 기간 동안 질 문한 율법사에게 주신 교훈의 두 번째 부분, 곧 “황금률”이라고도 불리는 이웃 사랑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치유 받은 장님과, 살아난 아이로의 딸과 깨끗하게 나온 나병 환자 모두 예수님의 이웃이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도 이웃이었습니다. 온전하신 분인 주님은 죄 짓고 고백하는 여인 앞에 서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 여인은 여행자였고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자꾸 늘어났습니다.

이 시대 이곳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사랑과 친절과 도움을 기다리는 이웃은 없습니까?

몇 년 전 저는 로이터 통신 기사에서 심한 부상을 입은 소년 한 명을 구조하기 위해 앵커리지에서 시애틀까지 승객 150명을 실어 나르는 알래스카 항공사의 직편 항공기 한 대가 오지 마을로 급파되었다는 보도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두 살된 엘튼 윌리엄스 3세라는 아이가 앵커리지에서 남쪽으로 70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야쿠타트 마을의 집 근처에서 놀다가 유리 조각 위에 넘어져 팔의 동맥이 끊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처를 본 의사들은 항공사에 아이를 구조해 줄 것을 요청



했습니다. 결국 앵커리지-시애틀 간 운항 항공기가 야쿠타트로 급파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아이가 출혈이 너무 심해 시애틀까지 가면 목숨이 위험할지 모른다고 하여 이 비행기는 병원에서 가장 가까우며 30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의 주노로 날아갔습니다. 그런 다음 이 비행기가 시애틀로 돌아갔을 때는 이미 승객들이 2시간 이상이나 연착한 상태에다 연결편 비행기도 모두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호주머니를 뒤져서 이 아이와 가족을 위해 성금까지 거두어 주었습니다.

후에 이 비행기가 시애틀에 착륙할 때쯤, 승객들은 엘튼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는 무선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 조종사의 말에 환호를 질렀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분명히 보여진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이웃 집에 누가 삽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의 성함은 모르지만 아이들이 저희 집 잔디밭을 뛰어다니는 데다 그 집 개까지 제 밤잠을 깨웁니다.”

다른 어떤 한 사람은 어느 날 밤 자신의 일기장에 다른 기분으로 조용히 이렇게 썼습니다. “어제까지도 길 건너 편 집이 비어 있다고 생각했다. 문에 걸린 검정 크레이프 천을 보고서야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알았다.”

어느 시인은 영원히 잃어버린 기회들을 슬퍼하여 시를 읊었습니다.

바로 길 어귀에 친구 하나 있지  
한없이 커다란 이 도시에,  
하지만 여러 날이 지나고 여러 주가 지나고

또 어느새 한 해가 지났네  
내 오랜 친구 얼굴 한 번 못 보네  
삶이란게 손살 같은 땀박질이라.  
내 그를 좋아한단걸 그는 알고 있지  
내 그의 집 초인종을 누르는 날  
그도 우리 집을 찾았거든, 그 어린 시절엔,  
이젠 우리 바빠, 피로에 젖은 어른이 되어

어리석은 게임을 한다고 지쳤어  
이름을 날리겠다고 뛰느라 지쳤어,  
내일 짐을 찾아가 봐야지, 오늘 말하는데  
내 그를 생각한다는걸 보여 주고파서라도,  
하지만 내일은 그냥 왔다 가버리는걸,  
친구 사이 거리는 자꾸 멀어지고  
그 길 어귀-왜 그리 먼 곳인지-  
“전보 왔습니다!”

“짐, 사망”  
한날 그렇게 되는거야, 결국 그런걸  
그 길 어귀, 친구는 고인이 되었네,  
(찰즈 헨스 타우니, “그 길 어귀”, 영원히 살아 있는 명시, 헤이즐 펠리맨 시선 1965년, 128쪽)

오래 전 저는 풀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



과 그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전화 교환수가 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 이야기에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향수로 기억할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대는 결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의 아버지는 동네에서 맨 처음 전화를 가진 분 중의 한 분이셨습니다. 상자 한 쪽에 수화기가 빛을 내면서 걸려 있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전 너무 작아서 전화기에 손이 닿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전화하시는 걸 황홀한 모습으로 들곤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아름다운 기계 안 어디인가에 신기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름은 ‘교환입니다’였습니다. 그녀는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교환입니다’라는 분은 누구 집 전화 번호나 정확한 시간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걸상에 올라서면 전화기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별의 별 이유로 ‘교환입니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분에게 지리 공부를 도와 달라고 하자, 그 분은 필라델피아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분은 산수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집에서 키우던 카나리아 새 피티가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환입니다’에게 전화를 해서 그 슬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듣고 있다가 어른들이 아이를 달래기 위해 흔히 쓰는 말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새들은 온 가족에게 아름답게 노래해 주고 기쁨을 주다가 새장 바닥에서 죽어야 하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 분은 제가 마음이 많이 상했다는 것을 알았는지 이렇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풀, 노래할 수 있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요.’ 약간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이건 모두 시애틀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미국 동부의 보스턴으로 이사했습니다. 친구가 몹시 그리웠습니다. ‘교환입니다’는 시애틀 집의 낡은 목재 상자 안에 두고 왔기 때문에 전화를 걸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대화를 나누었던 추억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의심스럽거나 혼란스러운 때에는 그때 제가 받았던 평온한 안정감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그 분이 얼마나 인내심과 이해심을 갖고 친절하게 그 어린 소년을 대했든가를 생각하며 감사해 했습니다.

“후에, 서부에 있는 대학으로 가던 중에 비행기가 시애틀에 멈추었습니다. 저는 ‘교환입니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분에게 ‘그때 당신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신 분이었는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분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전화가 제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아실지 모르겠네요. 저에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당신의 전화를 손꼽아 기다리곤 했지요.’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무척 많이 생각했었다고 말하고, 서부로 돌아오면 다시 전화해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럼요, 셀리를 찾으세요.’

“3개월 후 시애틀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목소리가 응답했습니다. ‘교환이예요.’ 저는 셀리를 찾았습니다. ‘친구세요?’ 그 여성이 물었습니다.

“‘네, 아주 오랜 친구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안좋은 이야기를 전해야겠군요, 셀리는 지난 몇 년 동안 몸이 아파서 시간제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5주 전에 숨졌어요.’ 하지만 제가 전화를 끊기 전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당신의 이름이 풀이라고 하셨나요?’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 셀리가 당신에게 메시지를 남겼네요. 글로 적었어요. 여기 있네요. 읽어드릴게요. 노래할 수 있는 다른 세상들이 있다고 말하더라고 전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려주세요.’

“저는 감사를 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라고 풀이 말했습니다. “셀리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 교환수인 셀리와 소년, 아니 어른이 된 풀은 서로에게 진짜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정말로 노래할 수 있는 다른 세상들이 있습니다. 구세주이신 우리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진리가 실재한다는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주님은 슬픔에 빠진 마르다를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한복음 11:25~26)

진실로 구세주이신 주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분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옛날 호수 가에서 그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셨던 것처럼 낯선 모습으로 오실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나를 따르라”(요한복음 21:22)라고 하시며, 이 시대에 완수해야 할 임무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든지 없든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하는 가운데 수고와 갈등과 고통을 겪을 때 그분은 이들에게 친히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이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경험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절 안식일에,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가신 사랑하는 분들을 기억합니다. 외로운 밤, 상념에 찬 긴 세월을 보낸 뒤 행복했던 소중한 추억들을 떠올려 보면 이렇게 약속하신 주님께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27)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한복음 14:2~3)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던 주님은 진리의 교사, 곧 교사보다 더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생의 귀감이 되시고, 그 이상 되시는 분이십니다. 위대한 의사이시며, 의사보다 더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실제로 세상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곧 평강의 왕,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곧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보라 나는 예언자들이 세상에 오리라 고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니파이삼서 11:10~11)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살아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아버지와 너희의 증보자니라.”(교리와 성약 110:4)

이 부활절 아침, 주님의 증인으로서 저는 그분이 살아 계시며 우리도 그분을 통해 살게 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 주님의 만찬에서 제정된 성찬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성찬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일반적으로 매주 반복해서 구원의 계획과 그에 따른 의무에 충실할 것을 나타냅니다.



1995년에는 제2차 세계 대전의 종전을 기리는 여러 50주년 기념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그 끔찍한 전쟁에 참전했던 우리 같은 노병들은 이러한 기념식을 맞아 깊은 회상에 잠기게 됩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이 발발한 지도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기억이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러한 일례로, 최근 TV에서 전쟁에 관한 기록물을 보던 중, 빛 바랜 녹색 사물함에 대한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왜 그 사물함이 제 뇌리 속에 그토록 지워지지 않는 인상을 남겼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선교 지역에 부임해 갔을 때, 매우 특별한 선임 동반자의 후임으로 지명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후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지 전까지 우리는 거의 일년여 동안 함께 봉사하는 특전을 누렸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한창이던 때라, 우리가 선교 사업을 마치면 곧 징병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는 중에 어떻게든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놀랍게도, 해병에서의 처음 일요일 교회 예배 모임에 참석했을 때, 바로 그 곳에서 우린 서로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 둘다 해병대에 자원 입대했던 것입니다!

신병 훈련소 과정을 마친 우리는 함께 해병 제 2 사단에 배속되었고 그 후 약 3년 동안 더 우정을 돈독히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사단이 배치되었던 섬에서 전투가 끝난 후, 우리는 예배를 위한 천막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띄었던 별별 종류의 목재들을 사용하여 긴 의자며 설교대며 성찬 테이블 등을 만들었습니다. 성찬 테이블 아래에다 그 특별한 녹색 사물함을 놓아 두었습니다. 해병 제2사단이 임무를 완수하고 이 섬에서 저 섬으로 옮겨 다닐 때마다 그 사물함도 따라 갔습니다. 그 사물함 속에는 나무판, 나무 성찬기, 성찬 기도문 카드, 여러 상자의 작은 종이컵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섬이 안전해지자 우리 사단에 있던 많은 역전의 용사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중에는 교회 지도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 선교 동반자가 우리 그룹의 지도자로 지지를 받았고 저는 그의 제 1보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녹색 사물함에는 우리가 소중하게 지키고자 하던 모든 것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에 함께 모여, 사물함을 열고 그 속에 간직된 성찬기물들을 사용해 성찬을 준비하고, 축복하고, 그 성찬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충만한 영의 느낌에 고무되어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었고 앞날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매주 그 특별한 시간을 함께 나눔으로써 우

리는 일상 생활에서 오는 시련과 역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섬이 안전해졌지만, 공습은 계속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천막 예배당은 유산탄에 찢겨 구멍난 물결이 사나워졌습니다. 자주 내리는 열대성 비가 구멍 뚫린 천막 속으로 들어오는 가운데, 천막 안에 앉아 예배보는 것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보다 나은 장소에서 모임을 갖기로 결정하고, 해병대, 육군, 해군, 공군 등으로 이루어진 교회 회원들이 합심하여 그 섬에 집회소를 짓기에 충분한 건설 자재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녹색 사물함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었던 헌납된 건물의 테이블 밑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섬에서의 우리 임무를 완수했을 때, 우리는 배를 타고 다른 섬지로 이동했습니다. 우리의 녹색 사물함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그 예배당에 그냥 남겨 두었습니다. 결국 그 녹색 사물함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항상 그것을 떠올리며 즐거워 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려면 우리와 맺으신 약속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어야 할 필요성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러한 성약을 맺으실 때, 주님께서는 특정한 계명에 순종하면 그에 따른 축복을 받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태초로부터 한 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계획에 있어 중심 인물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은 지상에 있는 천국 자녀들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역사입니다. 이 신성한 계획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각기 구세주의 역할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율법을 지키겠다는 성약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된 심령으로 영접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구원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하는 모든 일을 아들의 이름으로 행하라. 또 회개하며 영원토록 아들의 이름을 부르게 하리라." (모세서 5:8)

태초부터 주님께서는 이 곳 바로 이 지상에 사는 자녀들 마음속에 그분의 계



획을 확고하게 심기를 원하셨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율법 중 회생의 율법은 절정의 때에 일어날 위대한 사건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주께서 저들에게 저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양 떼의 첫새끼를 주께 드리는 제물을 바치라 명하시니, 아담은 주의 계명에 순종하셨더라.

“여러 날이 지난 뒤, 주의 한 천사가 아담에게 나타나 이르되 어찌하여 너는 주께 회생을 바치느냐? 아담이 저에게 이르되 나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것 외에는 알지 못하노라.

“이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이 일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이니”(모세서 5:5~7)

그 후 구세주께서 지상에 오셨던 때까지 계속하여, 신권이 지상에 존재하였을 때마다, 사람들은 인자가 지상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 최대 최후의 회생을 치르실 때를 기억하기 위해 회생제를 지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속죄가 가져오는 축복은 우리 모두가 불사 불멸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선택하신 십이사도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셨습니다. 마태복음에 그 특별한 마지막 만찬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에 대한 기사를 전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치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마태복음 26:26~29)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이 성찬식 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담에게 주어져, 그의 자녀를 거쳐 그리스도의 시대

까지 계속된 회생의 율법을 대신하여 구세주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죄를 대속하기 위한 큰 희생물이 되어 사망하심으로 성취된 것으로, 아담에게 주어진 율법에 요구된 희생물과 동일한 것입니다.”(복음 교리, 5판, 930, 181쪽)

1829년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하늘 사자들로부터 신권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상에 다시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조직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교리와 성약 20편에 이 특정한 날짜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설립은 이러하니, 우리 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지 일천팔백삼십 년이 되는 해 네째 달 곧 4월 제육일에 하나님의 뜻과 계명으로 우리 나라의 법률에 좇아 정식으로 조직 창립되었느니라.”(교리와 성약 20:1)

그 전에 받은 계시에 따라 1830년 4월 6일 화요일로 예정된 교회의 조직을 위해 피터 휘트머 일세는 자신의 집을 제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조직이 발족되는 것을 목격하기 위해 지정된 시간에 60명 가량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임은 간결했습니다. 당시 24살된 요셉 스미스는 무리들을 정숙하게 한 후 5명의 동료, 즉 올리버 카우드리, 하이람 스미스, 피터 휘트머 일세, 사무엘 에이치 스미스, 데이비드 휘트머 등이 자신과 합류하도록 지명했는데 이는 종교 단체의 법인화를 위한 뉴욕의 법적 요구 사항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무릎을 꿇고 거룩한 기도를 한 후, 요셉은 참석된 사람들에게 자신과 올리버를 그들의 교사요 영적인 지도자로 가까이 받아들이는지를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손을 들어 지지했습니다. 요셉과 올리버는 이전에 멜기세덱 신권을 받았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장로의 직분에 성임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새로 조직된 교회의 장로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만찬에서 제정된 성찬이 그 다음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복음의 회복을 통해 어두운 배도의 시기를 거치면서 많이 왜곡된 성찬의 의미와 용도가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교회의 회원들은 이러한 권고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교회 회원은 자주 모여 주 예수를 기념하기 위하여 빵과

포도즙을 먹고 마실 필요가 있느니라.”(교리와 성약 20:75)

성찬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주님이요 구세주로 받아들이며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임을 성약으로 맺습니다. 이 때문에 성찬을 취하는 것은 우리가 침례받고 교회에 들어올 때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하는 의식이 됩니다. 따라서, 성찬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일반적으로 매주 반복해서 구원의 계획과 그에 따른 의무에 충실할 것을 나타냅니다.

성찬식에 올 때 우리는 성찬을 합당하게 취하도록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린도전서 11:28~29)

브리감 영 대관장은 성찬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찬을 취하는 것은 사람들을 성결케 하기 위해 제정된 다른 어떠한 의식이나 계명과 다름없이 우리 구원에 필수적인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편, 존 에이 윌소, 941년, 171쪽)

교회 회원인 우리는 성찬을 취하는 특권에 기뻐해야 하며, 성찬을 취할 때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충실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은 성약을 지킨다면 항상 그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이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매주 성찬을 취할 준비를 할 의무를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거룩한 안식일에 함께 만나 성찬을 취하고자 할 때, 멈추어서서 하나님과 서로의 면전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하겠다는 것을 증거하고 약속하고 다짐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까? 다음의 것들에 유의하십시오.

첫째, 우리는 아들의 이름을 기꺼이 받든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도자로, 또한 우리의 이상으로 택한다. 그 은 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기억한다. 일요일뿐 아니라, 월요일 [또한 주중



의 다른 날]에도 우리의 일상 생활을 할 때나, 자기 절제를 할 때나...

셋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

십일조, 금식 헌금, 지혜의 말씀, 친절함, 용서, 사랑 등이 이러한 계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의 의무는 막중한 것이지만, 거룩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에 순종할 때 생명, 곧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절서, 경건, 그리스도의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약속, 그 신성한 약속들에 주의를 쏟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언급된 덕을 소중히 키움, 거룩한 약속을 마음에 새김,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함,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정도로 봉사함, 이러한 모든美德은 성찬을 취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함께 만나며 특히 그 거룩한 성찬을 취함으로 하나님과의 성약을 새롭게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복음의 이상 [1954년], 146-47쪽)

그 오래된 녹색 사물함은 언제나 제 마음속에 소중한 것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한 시기에도, 주님의 만찬에서 제정된 성찬을 취함에 따라 영적으로 거듭나 앞으로 놓인 날들을 대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평안이나 혼란, 기쁨이나 슬픔, 힘겨움이나 안락함 등으로 점철된 시간들을 보내면서 성찬식에 참석하여 성찬을 들 수 있었던 나날들은 주님께서 제게 주신 축복들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그분의 율법과 복음에 좀더 가까이 다가서는 생활을 하겠다고 그분과 함께 성약을 맺는 시간이 되어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충실히 성찬에 참여하기를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성찬을 합당하게 취한다면, 주님께서는 오로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계획에 참여하고 있음을 앎으로써만 오는 마음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리라는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충실함에 따라, 현세에서나 앞으로 올 영원한 세계에서 받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특별한 축복들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에게 약속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제 간증입니다. 아멘. □

# 올바른 길에 머무르십시오

칼로스 이 에이시 장로  
칠십인 회장단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을 바라봄으로써 현재의 자신의 위치를 평가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 리 칠십인 정원회 회원들은 어제 우리의 대열에 들어오신 아홉 분의 형제님들을 따듯이 환영합니다. 또한 앞으로 여러 달 여러 해를 같이 지내면서 우정의 손길을 보내며 지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아름답고 거룩한 부활절 아침, 모든 사람의 생각은 그리스도에 모아져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속죄와 "더욱 아름다운 처소... 에 거하리라는 소망"(이더서 12:4)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생각이나 말만으로는 "거룩하신 메시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없으며, 굳건하고 꾸준하며 항상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만이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니파이서 2:8)

따라서 저는 여러분에게 영생으로 인도되는 올바른 길에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 할 필요성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방향으로 계속 가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행위를 계속 해야 합니다. (1)원하는 목표의 재확인, (2)현재 위치의

평가, (3)잘못된 행동을 즉시 바로잡기 시작함. 저는 이러한 행동들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가능해진 생명의 부활과 한겨울의 고통이 이 봄월에 녹아 내리는 절기에 맞는 신선한 새출발과 일치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또한 이러한 행동들이 사도 바울의 다음 권고와도 잘 맞는다고 믿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린도후서 13:5) 많은 사람들은 매년 건강 진단을 받고 일 년에 두 차례씩 치과에 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식이 요법을 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며 매일 운동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생에서 장수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면에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상태를 점검하고 영생으로 향하는 길 가운데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한 영적인 건강 진단은 자주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엘마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고 살아 왔느냐? 바로 지금 너희가 죽게 된다면 너희가 더할 나위 없이 겸손했노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엘마서 5:27) 영적인 체온과 맥박을 재보는 데는 여러 가지 질문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목표의 재확인

생각이 깨끗한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생에서 복음의 행복한 면을 찾고 죽어서 부활한 뒤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이 그치지 아니하는 곳에"(모사이야서 2:41) 거하는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행복은 우리 존재의 목적이다. 행복으로 이르는 길을 추구한다면, 그 종착지가 바로 행복일 것이며, 그 길은 덕, 의로움, 성실,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49쪽)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며 결코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함으로써 행복을 구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특성과는 정반대되며 행복의 특성과도 반대되는 것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바다를 걸으신 예수님과 똑같이 하려 했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는 성경에서 영원한 목표에 중심을 두고 생활해야 할 필요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서 눈을 떼고 물에 빠질까 두려워하고 의심하게 되었을 때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영원한 종착지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생활한다면, “불신의 일렁이는 파도 위를 당당

히 걷고 의심의 풍파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프레드릭 더블류 패러, 그리스도의 생애, 313쪽; 마태복음 14:24~31 참조)

우리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종착지에서 눈을 떼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들 때문에 길에서 벗어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고린도전서 14:10)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과 영생의 소망이 영원히… 마음에 깃들게” 해야 합니다.(모로나이사서 9:25) 우리는 가장 중요한 목표를 재확인하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엘마서 32:40) 매진해 나가야 합니다.

### 위치의 평가

일단 목표를 재확인하고 눈과 생각과 마음을 고정했으면 현재의 위치를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미국 역사상 의회에서 유명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던 위기의 시기에 대니엘 웹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장, 선원들이 여러 날 동안 악천후 속에서 낯선 바다를 떠다니고 있다면, 그는 당연히 폭풍우가 맨 처음 멈추었을 때

가장 먼저 보는 태양으로 자신의 위치를 재보고 폭풍우로 인해 원래의 항로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확인해 보려 할 것입니다. 그 얼마나 조심스러울지 상상해 보고, 우리가 이 논쟁의 파도 위로 표류하기 전에 우리가 본항로에서 얼마나 떨어져졌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래야 최소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대회 보고, 1961년 10월, 78쪽)

선원들은 육분의를 사용해 현재의 방위를 압니다. 육분의란 수평선에서부터 태양이나 별자리까지의 각 거리를 측정하여 배의 현 위치를 알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조사해서 올바른 항로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종종 깊은 바다에서 침몰하기도 합니다. 반면 천체의 빛을 따라 육분의를 사용해 위치를 파악한 지혜로운 선원은 대부분 안전한 항구로 들어옵니다.

인생의 폭풍우는 끊임없이 몰아칩니다. 따라서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위치를 재보고 폭풍우로 인해 원래의 항로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1916년에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이 연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전혀 용인될 수 없었을 수많은 것들이 오늘날에는 당연시되기도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대회 보고, 1916년 10월, 71쪽)

전통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80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도덕적인 면에서 복음의 표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을 거부하고, 이혼을 좋다고 하며 애정도 없이 관계 맺는 것을 권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도 듣습니다. 우리는 교활한 사람들이 퍼뜨리는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들을 봅니다.(에베소서 4:14) 이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규칙을 가볍게 여기거나 계명을 어기게 한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한 통찰력 있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욕탕의 온도가 15분마다 1도씩 올라가면 목욕하는 사람은 비명을 지를 때를 어떻게



게 알겠습니까?”(마살 맥루한)

우리가 규칙과 표준과 성약과 기대의 측면에서 꾸준하고 확고한 태도를 갖지 못하면 점차 위험한 바다로 표류하게 될 것이며 우리 주위에서 끓어 오르는 악의 열기에 적응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 특히 우리 자녀들은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인기있는 견해의 바다나 부도덕의 파도에 묻혀 표류할 필요도 없고 그 래서도 안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계시며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평가하기 위해 소중한 육분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은 한 육분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각자 마음속에 어떤 선원의 육분의보다 더 세련된 육분의를 무한히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천체에서 나오는 빛의 원리에 따라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육분의를 말씀과 의식과 성약에 맞추어 놓고 바라보면, 빛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진로를 그리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지역 대표 세미나, 1987년 4월 3일)

엘마는 우리가 사용하는 또 다른 육분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올바른 위치를 알 뿐만 아니라 “보다 훌륭한 약속의 땅”, 곧 영생으로 이어지는 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엘마서 37:44~47 참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의 육분의는 성장하여 하나님을 대변하도록 부름 받은 살아 계신 예언자들의 형태로 옵니다. 예언자는 경고를 하고, 진리를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용감히 회개를 외치며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욱 잘 맞추어 생활하도록 권고합니다.

이러한 경고가 있습니다. “... 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종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며 예언자와 사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백성으로부터 절단될 날이 임하리라.”(교리와 성약 1:14)

때때로 개인적인 계시와 경전과 살아 계신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을 바라봄으로써 궁극적인 목표인 영생과 관련하여 현재의 자신의 위치를

평가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말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켰사오며”(시편 119:59) 탕자의 이야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누가복음 15:17) 우리도 우리의 행위를 생각하고 스스로 돌이켜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발을 돌이켜야 합니다.

## 잘못된 행동을 즉시 바로잡기 시작함

현재의 위치를 평가한 결과 영생으로 향하는 올바른 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났거나 신앙의 본류에서 조금이라도 표류한 것이 나타나면 즉시 올바른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비통에 찬 한 사람이 울부짖었습니다.  
새출발의 땅이라 불리는  
리는 어떤 좋은 곳이 있으면 좋겠네,  
모든 실수와 모든 상심과  
모든 이기심에서 나오는 슬픔을  
문 앞에 버린 낚은 코트처럼 버리고  
다시는 입지 않을 좋은 곳이  
(루이사 플레처, “새출발의 땅”, 미국인의 애송시, 1936년, 101쪽)*

새출발의 땅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회개의 복음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고 올바른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과 용기와 굳은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 생은 호화 유람선을 타고 즐기는 유람 여행이 아닙니다. 위난이 가득하고 끊임없이 풍파에 밀려오는 항해인 것입니다. 미셔너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배는 인간과 같이 맞바람이 가볍게 불고 돛이 팽팽하고 제 항로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가장 잘 달린다. 배는 사람과 같이 바람이 뒤에서 곧장 불어와서 배를 되는 대로 전진하도록 밀어 제칠 때 가장 잘 달리지 못한다. 항해하는 데 별로 신경쓸 필요가 없는 데다가 배가 나아가려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주기 때문에 유리해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바람은 긴장을 풀어 버리고 기술을 쓰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파멸을 가져다 준다. 가벼운 맞바람이야말로

진짜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해야 계속 긴장할 수 있고, 흥분의 깊이가 더해 가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배는 사람과 같이 위난에 대응해 가기 때문이다.”(제임스 에이 미셔너, *체서 피크 566쪽*; 교리와 성약 123:16 참조)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에 살고 무엇을 하건 간에, 이 시대는 시험의 시대이므로 위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곳에서 행복을 얻고 죽은 후에도 안전한 항구에 당도하길 원한다면 올바른 길에 머물러야 합니다. 올바른 길에서 조금 경미하게 벗어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처음에 위도상 1도가 벌어지면 끝에 가서는 엄청나게 벌어지게 됩니다.

“제 아무리 큰 배일지라도 폭풍이 몰아칠 때에는 극히 작은 키로 바람과 파도를 헤치며 진로를 정함에 도움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키에 손을 얹고 사나운 폭풍을 헤쳐 나가며 소망해 온 영생이라는 항구로 향하는 항로를 주시함으로써 도움을 받게 됩니다.(교리와 성약 123:16) 그러한 것들은 목표를 재확인하고 현재의 위치를 평가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빨리 돌아섬으로써 가능해집니다.

지금은 새롭고 신선한 출발의 계절입니다. 만 인류의 구세주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흘리던 눈물을 거두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우리가 여허히 노력하더라도 다만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구원받게 됨”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니파이이서 25:23, 26)

따라서 우리는 “깨어나 일”해야(엘마서 60:24) 하며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교회 회원으로서, 자칭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신의 자질을 정직하게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살아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분께 나아와 그분과 같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야말로 거룩한 속죄의 목적이요 본질이 아닙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확고한 결의와 인내로 영원한 행복의 곧은 길을 따라 감으로써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 간증의 유산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가 가족에게 진리에 대한 간증을 전하기 위해 충실히 노력하면 그  
힘은 몇 배로 커질 것이고 시간도 늘어날 것입니다.



**작**년 가을 핁클리 대관장님께서 가족 선언문을 낭독하셨을 때 우리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원하시는 것, 곧 그들이 사랑과 의 안에서 사는 것을 우리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함께 있지 못하는 동안에 우리 가족을 인도하고 그들이 예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영적인 위협에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늘의 권세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배우는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도자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성신입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성신을 동반자로 줄 수는 없지만 가족들이 얻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충실하게 생활하고 침례 의식과 합당한 권능을 지닌 사람들에 의해 안수

를 받은 뒤에만 성신을 끊임없이 동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례를 받기 전이라도 어린이와 성인 모두 성신을 통해 거룩한 진리에 관한 간증을 마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를 유지하기 위해 그 증거 받은 진리대로 살아야 하지만, 결국 이 간증을 통해 선으로 인도될 것이며, 머지 않아 성신을 동반할 수 있게 해주는 성약을 받아들이고 지키도록 인도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가족에게 모든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간증의 유산을 물려주게 됩니다.

간증이 어떻게 마음속에 스며드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그러한 유산을 창조하고 전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한 진리에 대해 증거하는 것은 성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족을 위해 최소한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몇 가지 거룩한 진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가르친 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뒤 우리는 우리의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참되다고 한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신이 우리가 말한 것이 참되고 우리가 그것이 참됨을 알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해 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간증의 유산이 한 가정에서 창조되고 보존되고 전달되는 방법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여러분처럼 저희 조상도 그러셨습니다. 저희 증조부이신 존 베니언이 그 한 분입니다. 저희는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그 분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할 수는 없지만, 거기

에서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 분은 웨일즈에서 교회에 개종 분이셨습니다. 증조부모님과 그분의 자녀들은 초기의 한 개척자 부대에 모여 솔트레이크 계곡에 들어오셨습니다. 저희는 증조부께서 그 이후부터 일기 기록하시고 거의 매일 간단한 기록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1855년부터 1877년까지의 일지가 있습니다. 증조부의 자손들이 그 간증의 유산을 전하길 싶어했기 때문에 그 일지는 한 권의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저의 모친도 그런 분 중의 한 분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일은 증조부께서 원고지에 쓰셨던 그 일지를 출판하는 작업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증조부의 간략한 기록집 안에는 설교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브리감 영이 예언자임을 안다는 간증도 없습니다. 다만 예언자께서 솔트레이크를 떠나 머디 선교부에 봉사하라고 하고 또 웨일즈로 돌아가서 선교 사업을 하라고 부를 때마다 “네”라고 대답했던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곡으로 가서, 또 존슨 부대가 다가오는 상황을 살펴보라는 부름과 그 군대가 계곡으로 침략해 오면 가족을 남부로 데리고 가라는 부름에도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님께서 묻하시는 날이 가까워서 그 분이 돌아가신 것도 예언자를 한 번 더 따르기 위해서였다는 가족 전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그 분이 매일 기록하신 것은 그분의 일상 생활이 하나의 역사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임을 분명히 압니다. 그분의 삶이 곧 말일에 시온을 세우는 역사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그 분이 간증을 기록하신 것은 자녀 한 명이 숨졌을 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영혼이 시험받을 때 적은 간증이기 때문에 제게는 그 간증이 더욱 힘있게 느껴집니다.

여기에 그 당시 그 분이 적으신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의 딸인 엘리자 베스가 그분의 팔에 안겨 숨졌습니다. 그 분은 딸의 매장과 무덤의 장소를 몇 줄에 걸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1863년 11월 4일이었는데, 이것이 그 기록입니다.

“수요일, 마구간을 고치고 있는데 어린



자녀들이 내 주위에서 재잘거렸다. 하지만 사랑하는 리지가 보고 싶다. 죄없는 어린 나이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앤, 모로나이, 에스터 엘렌과 엘리자베스를 가족의 원 안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내 죽는 날까지 주님의 대업에 충실하도록 도와주시길 주님께 간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이 아이들은 축복 받고 행복하다.”

그 안에 모든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분은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분은 그것이 참되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그 분은 간증과 일치하는 삶을 사셨으며, 사랑하는 가족과 하나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충실하게 견딜 수 있도록 간구했습니다. 저는 그 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며 그 원안에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간증의 유산을 전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하겠지만, 가르치고 간증하고 진리대로 생활하는 과정은 똑 같습니다.

경전과 살아 계신 예언자들의 가르침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지식을 통해서도 시작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처럼 스스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가족 전통도 우리가 간증의 유산을 갖고 있지 못하면 전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엘마가 시작한 곳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엘마가 간증한 것과 같은 기초에 근거하여 우리가 간증했음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문경에 기록된 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니라. 너희는 바로 내가 스스로 이러한 일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보라 내가 말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임을 아노라. 내가 어떻게 이러한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는지 너희가 알겠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것들이 내게 알려졌느니라. 보라 여러 날을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러한 것을 스스로 알려 하였으며 이제 그것들이 참됨을 스스로 아나니, 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알게 하셨음이라. 이는 바로 내게 임한 계시의 영이었느니라.”(엘마서 5:45~46)

그러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가족과



함께 하는 대부분의 환경은 간증의 유산을 창조하기에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일부 가장 좋은 환경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한 평범한 환경을 가족이 보다 쉽게 간증을 갖게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주례 가정의 밤이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계획하십시오. 어린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간단 명료하게 가르치십시오. 자녀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모두 가르치고 나서 자녀에게 간증을 하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수줍음이 많은 어린이는 더 넓은 곳에서는 간증을 쉽게 전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안정감이 있는 가정에서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과 간증을 하는 자녀에게 성신이 증거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가족과 함께 소리 내어 경전을 읽으십시오. 그럴 시간과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결심과 영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전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성신이 그러한 진리를 확인해 줄 것입니다. 구세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한복음 5:39)

수십 년 전 이 단에서,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님은 물문경을 소리 내어 읽는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부대관장님은 이층 침대의 아래 칸에서 어린 아들은 위 칸에서 성구를 번갈아 가며 읽었다고 합니다. 부대관장님은 아들이 감기가 들어서 코를 훌쩍거린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경전이 참되다는 간증을 느끼고 눈물을 흘린 것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었기 때문에 둘 다 축복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가족이 함께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되, 각자 소리 내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십시오. 기도가 단순한 암송처럼 보이거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집중하지 못하는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절실한 필요 사항을 위해 신앙으로 간구할 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순간들이 있으며 성신이 간증으로 마음을 적셔 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가르침도 많이 주셨지만 우리를 위해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하셨는 줄 모릅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랑과, 그 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를 사랑하셨으며 그 분의 기도들이 응답되었다는 영의 확신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머리 위에 축복이 내리게 하셨으며, 당신의 기도에 대한 기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주님의 만찬에 참석하는 모임



이 있기 전 한 달에 한 번씩 금식하고 자녀들도 금식하게 하며,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게 하면, 아마 자녀들도 간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를 극복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녀들에게 더욱 큰 영적인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후한 금식 헌금을 바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치면 일어납니다. 우리가 먼저 구세주께서 항상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돌보도록 제자들을 준비시키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간증했다면, 자녀들은 영을 통해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라는 확신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확인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의 목록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정 복음교사들을 따뜻한 마음과 신뢰를 갖고 맞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 교사들이 하나님의 종의 자격으로 온다는 확신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자녀들이 새학년을 시작하거나 가정을 떠날 때 신권의 축복을 주면 그들은 마음이 곁손할 때나 영의 속삭임에 민감해질 때 영을 찾게 됩니다.

간증의 유산을 만들고 전하는 가장 좋은 기회들 중에는 계획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비극이나 손실이나 상처는 흔히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보이는 우리의 반응을 보고 가족은 우리가 가르치고 간증한 것이 거짓이었는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구세주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다고 가르칠 것입니다. 물론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는 그의 백성을 얻어 맨 죽음의 사슬을 푸시려 죽음을 당하실 것이요, 육신을 입은 인간의 연약함을 취하시어 자비로 가득 차게 하시리니, 육신을 입은 인간들의 연약함을 육신을 가지고 구해 내는 길을 아시려 함이었느니라.”(앨마서 7:12)

비극이 일어나거나 그럴 것 같은 때, 우리의 가족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우리가 안다고 말한 것을 정말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가르친 대로 살았다는 것을 지켜 보고 영의 확신을 느낄 것이며 그 확신을 기억할 것이고 후손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이야기 하나를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의사에게서 할머니 이어령이 위암으로 돌아가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남으로서, 그 곳에 할머니를 모시고 갔던 지회 부친은 할머니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께서는 “자, 헨리, 기운을 내자꾸나. 같이 찬송가를 부르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두 분은 “오 높은 영광 보좌”와 마지막 절이 “행복한 날 여행이 끝나는”으로 시작하는 “성도 돌아 두려울 것 없다”를 부르셨습니다.(찬송가 139장, 16장)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신앙을 갖고 눈물도 흘리지 않으며 그다지 아픔답지 않은 목소리로 크게 노래 부르신 모습이 상상됩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몇 개월 동안 첫째 딸의 집에서 얼마씩 지내셨습니다. 카밀라 고모님에 따르면 할머니는 딱 한 차례 불평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불평이 아니라 몸이 아프다고 하신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죽음을 맞이해서 힘을 내고 용기를 가졌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분으로부터 구세주께서 가지신 구원의 권세와 부활에 대한 확신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배우고 이에 대한 간증을 들었던 가족들에게 훨씬 더 큰 의미를 줍니다. 저는 영을 통해 할머니의 평안과 용기는 그 분의 간증이 참되다는 징표이며, 그 때문에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가르치고 간증하고 그 간증대로 생활하는 것이 유산으로 전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매우 훌륭한 부모들도 그렇게 생활했으나 가족 전부나 일부가 그 간증을 거부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큰 소망을 갖고 낙관해도 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 곧 그분이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뿐 아니라 가족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간증을 가지면 그렇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곧 우리 가족을 위해 그분이 속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간증을 가지

면 그렇게 됩니다. 신권 열쇠의 부활로 인해 가족을 함께 인봉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이 높이 여기시는 성약을 맺을 수 있는 권세가 지상에 회복되었다는 간증을 가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간증을 유산을 주려 할 때 받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 세대 이상의 후손에게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유산을 주시기 위해 거듭 손을 내미실 것입니다.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가족에게 진리에 대한 간증을 전하기 위해 충실히 노력하면 그 힘은 몇 배로 커질 것이고 시간도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들에게서 그러한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남미에서 선교사들을 만나던 중에 그것을 보았습니다. 선교사 수백 명이 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악수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족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리하이와 새라이아의 아들들이 그 곳에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확신에 거의 압도될 정도였습니다. 리하이는 숨을 거둘 무렵,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간증했으며 그들을 축복하려고 하였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그와 다른 예언자들과 경전의 간증을 거부했을 때 무서운 비극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선교사들의 눈과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리하이의 성약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을 내밀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며 우리가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 부활하게 되고, 또 성결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신의 권세로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영생을 얻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은사입니다. 우리가 평생 온 마음을 다해 진리에 대한 간증을 우리의 가족에게 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이 영광스러운 부활절 아침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살아 계신 아들이신 그분은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살아 계십니다. 이 기쁜 부활절 아침에 바로 이 사실을 엄숙하게 간증드립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 부활절 아침 태버나클에 모이신 여러분을 뵈니 매우 기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전세계의 3천 개 이상의 장소에 모여 있을 훨씬 더 많은 분들을 생각하니 대단히 기쁩니다.

오늘 아침 이 태버나클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금 바깥에는 매우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개척자 선조들의 손으로 지어져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헌납된 이 독특하고 훌륭한 전당에는 약 6천 명 정도가 편안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두 시간 동안 그 딱딱한 의자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로서는 편안하게라는 말에 고개를 가우뚱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들어오고 싶어도 자리가 부족해서 들어오실 수 없는 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약 1년 전, 저는 총관리 직원들께 이 건물에 들어올 수 있는 수보다 서너 배 가량 많은 수를 수용할 훨씬 큰 규모의 예배소를 하나 지어 헌납하는 것에 관한 타당성을 조사해 보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성장하고 있는 교회의 모든 회원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큰 건물을 짓지 못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통신 수단들을 이용할 수 있는 축복을 많이 받았으며, 전세계의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 대회와 실황을 중계할 수 있는 위성 중계 시설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말씀하시는 분들과 다른 부분을 위해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회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건물은 운동 경기장이 아닙니다. 고정된 좌석과 뛰어난 음향 시설을 갖춘 거대한 전당입니다. 건물의 일부만 사용할 수도 있고 전체를 모두 사용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지어질 것입니다. 그 곳에서는 종교적인 행사뿐 아니라, 거룩한 종교극과 같은 종류의 것들을 발표하는 것과 같이 기타 교회의 목적으로도 쓰일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 사회의 문화 행사들도 개최될 것입니다.

건축 및 공학상의 연구는 자세하게 발표해 드릴 수 있을 만큼 진척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를 두고 보면 꽤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곧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잠시 개인적인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1년 전 이 대회와 성회에서 여러분은 손을 들어서 저를 이 크고 거룩한 부름에 지지해 주셨습니다. 신뢰를 표시해 주신 여러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친절하고 충실하며 사랑에 찬 말씀에 저는 겸손해지고 감격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임이 막중함을 최소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외의 소망은 없습니다. 저는 그분의 종이며 그분의 백성을 섬기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속한 교회의 청지기일 따름입니다.

제 곁에서 보좌로 계시면서 충실하게 많은 도움을 주시는 훌륭하고 유능하신 두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형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어디에서도 이분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고자 노력하는 헌신적이고 유능한 분들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칠십인 정위원회와 관리 감독단에도 감사드립니다. 지역 관리 직원과 스테이크 부장과 감독과 정위원회를 관리하시는 분과 충실한 선교부장 및 성전장제 감사드립니다. 상호부조회, 청년, 초등학교 조직을 관리하시는 분들의 힘과 능력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신앙을 지니고 충실하게 생활하시는 이 교회의 모든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말일성도로서 똑같이 이 사업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구속주이신 주님을 똑같이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받드는 성약의 백성입니다.

회원 각자가 신앙 생활을 훌륭하게 하느냐 아니 하느냐에 따라 교회도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여러 곳을 여행했습니다. 세계 힘이 있는 한 국내외의 백성들에게 찾아가 감사를 표하고 격려해 주며 신앙을 강화시키고 가르치고 그들의 간증에 저의 간증을 더하고 동시에 그들에게서 힘을 끌어 모을 것입니다. 이 일을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오래 동안 힘을 다해 일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 수많은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기운 솟게 하는 경험이었습니





템플 스퀘어의 손수레 개척자 기념비. 이 기념비는 거의 3,000명의 말일성도들이 아이오와 주, 아이오와 시에서 솔트레이크 계곡까지 약1,300마일을 걸어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고 의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며 매우 많은 선행을 하는 삶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청남 청년들의 눈을 바라보면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 보탬이 되는 기술을 연마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보다 훨씬 많은 수가 교회를 위해 선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청결하고 밝고 유능하며 행복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분의 교회 안에서 배우고 봉사하는 이 선택된 세대의 청소년들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이 그것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타인의 삶을 황폐화시킴으로써 부자가 되려고 하는, 악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해 악이 그렇게 매력적이고 그렇게 유혹적인 방법으로 모습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악한 상품들을 취하게 되면 삶은 피폐해지고 손상되게 됩니다.

저는 서로에게 충실하며 자녀들을 신앙과 사랑 안에서 양육하는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을 존경합니다. 우리가 작년 10월에 공표한 가족 선언문에 대해 반응들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것을 읽고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탁월하고 훌륭한 방법으로

세계 전역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 나라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이 성장에는 중요한 과제가 동반합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현재 교회에는 미국 내보다 미국 이외의 교회 회원들이 많아질 만큼 성장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선한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주님의 교회의 높은 표준에 맞추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감사드립니다. 손과 마음으로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불사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모세서 1:39 참조)

이 거대하고 거룩한 프로그램에는 한 가지 기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인류의 구속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제 간단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오늘은 가장 큰 승리, 즉 죽음을 이긴 승리를 기념하는 주님의 날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들은 날카로운 창으로 그분의 뿔고 있는 육신을 찌르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면 그분을 영원히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들이 꿈도 꿀 수 없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 부활과 영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분이 갯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그분을 지켜 보는 사람들이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마태복음 27:42, 마가복음 15:31)라고 조롱하는 가운데 두 도적 사이에서 치욕스럽게 십자가에 매달리시므로써 겪으신 고통은 어느 누구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싸인 채 상처받고 생명이 떠난 그분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그분이 사랑하시고 가르치셨던 사도들의 생활에서는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주님으로 바라보았던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시신은 입구를 막은 무덤에 누워졌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망과 부활에 대해 가르쳤건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버림받고 낙담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무덤을 막은 큰 돌이 굴러졌을 때 의심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유대의 안식일이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날이 왔습니다. 주님의 날이 온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슬픔에 젖은 채 무덤으로 갔습니다. 돌이 제자리에 없었습니다. 의아해 하며 그들은 안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혼란과 두려움에 빠진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외쳤습니다.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요한복음 20:2)

그들은 달려갔으며, 두려워한 바가 현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상심한 그들은 빈 무덤을 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요한복음 20:10)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푸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  
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  
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  
신 것을 보나 예수신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  
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  
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  
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 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  
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  
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요한  
복음 20:11~17)

그분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분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맨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들에게도 나타나셨는데 바울에 따르면  
한번에 5백 명에게까지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사도들은 주님이 무엇을 가르치  
려고 하셨던가를 이해했습니다. 그분의  
상처를 만져본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외쳤습니다.(요한  
복음 20:28)

어느 누가 그 이야기의 참됨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상 어떤 사건도 이보  
다 분명하게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부활  
하신 주님을 보고 만지고 그분과 대화한  
모든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주님은  
두 반구의 두 대륙에 나타나셔서 마지막  
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백성들을 가르치  
셨습니다. 두 권의 거룩한 책, 두 권의 전  
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  
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러한 것은 단지 이야기일 뿐이라고 신앙  
심 없는 비평가는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  
에 대답합니다. 이것은 이야기를 넘어서  
이 가장 놀랄 만한 사건이 참되고 정당하  
다는 간증이요 증거로서, 이 간증은 성신  
의 권세로 얻을 수 있습니다. 수 세기 동  
안 무수한 사람들이 부활하셔서 살아 계

신 주님이 실재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자  
신의 안락과 재산과 목숨까지도 희생했  
습니다.

그리고 이 경륜의 시대의 예언자도 놀  
라운 시현으로 자신이 본 것과 전능하신  
아버지와 부활하신 아들의 말을 들었다  
는 강력한 간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그 시현  
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열쇠와 권  
능과 권세와 함께 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  
스도 교회의 기초가 되었으며, 그 백성들  
의 간증에서 찾을 수 있는 훌륭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죽음보다 더 일반적인 것도 없지만, 불  
사 불멸에 대한 확신보다 더 밝은 희망과  
신앙도 없습니다. 모든 죽음에 따르는 절  
망적인 슬픔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사별  
로 인한 고통은 그 첫번째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셨다는 확신에  
의해서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불사 불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인생은 그저 “벌어서 쓰는” 암울한 여행  
밖에 되지 않을 것이며 중국에는 완전히  
희망도 없는 망각으로 끝나는 것에 불과  
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는  
나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55)

사망의 고통은 영생의 평안 속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처럼 부  
활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건은 없었  
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속죄의 경이에 대해  
숙고하던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러한  
상세하고 아름다운 말로 선포했습니다.

“산들아, 기뻐 소리 지르라. 너희 모든  
골짜기여 크게 외치라. 너희 모든 바다와  
마른 땅이여, 너희 영원하신 임금이 행하  
신 기이한 업적을 말하라. 또 너희 강과  
시내와 개천이여, 즐거움으로 흘러내리라.  
숲이여, 들의 모든 나무여, 주를 찬양하라.  
너희 굳은 바위여, 기쁨의 눈물을 흘려라.  
해와 달과 새벽 별이여, 함께 노래하라.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아, 기쁨으로 외치  
라. 영원한 피조물아, 그의 이름을 영원토  
록 선포하라. 내가 거듭 이르노니, 하늘에  
서 우리에게 들리는 음성은 얼마나 영화  
로운고, 그 음성은 우리의 귀에 영광과

구원과 존귀와 불사 불멸과 영생과 왕국  
과 주권과 권능을 고하도다.”(교리와 성  
약 128:23)

죽음의 차가운 손이 닿을 때마다, 그  
시간의 슬픔과 암흑을 뚫고 건줄 수 없는  
영원한 권세로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찬 모  
습이 빛을 발합니다. 그분은 세상의 구속  
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를 위해 생  
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다시  
취하셔서 잠든 자들 가운데 첫열매가 되  
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다른 모  
든 왕들 위에 계십니다. 전능하신 분인  
주님은 모든 통치자 위에 계십니다. 몸에서  
영이 떠나 밤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를 덮을 때 그분은 우리의 평안, 곧 유일  
하게 참된 평안이 되십니다.

영광의 왕이요 흠없는 메시아이시며  
임마누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온 인류를 내려다 보고 계십니다. 가장  
슬픔이 깊은 시간에 우리는 그 부활절  
아침 천사가 한 말에 소망과 평안과 확  
신을 얻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 하시던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6) 우리는 바울의 말씀에  
서도 힘을 얻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린도전  
서 15:22)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에 놀라며  
주 내리신 큰 은혜에 나 당황하네  
이 죄인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큰 사실을 알 때  
맘심 히 떨리네  
오 나를 사랑하여 죽으신  
그 일 놀라운 일일세  
주님의 업적을 훌륭하셔라.  
(찬송가 111장)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아버지의  
권능을 대표하시는 살아 계신 그리스도  
이십니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의 살아 계신 아들이신 그분은 영광스럽  
고 아름답게 살아 계십니다. 빈 무덤의  
기적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 아침, 이 기  
쁜 날,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실을  
엄숙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오직 우리의 “신앙이 시련을 겪은 후에야” 완전한 증거가 오는 것이며  
그러는 동안 자주 “어린 아이가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이더서 12:6, 이사야서 11:6)



**새**로 부름 받으신 칠십인들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다가올 여려해 동안 우리가 서로 함께 하는 가운데 우정을 나눌 것을 약속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우선 오늘날 세상적인 사막을 헤쳐 나아가야 하는 어려움을 보여주는 몇 가지 간단한 예를 든 다음, 영감받은 아이들이 어떻게 이 여행 길에서 도움이 되는 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도덕적인 면에서 허용을 해줌으로써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없이 윤리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했던 정의와 도덕적 질서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무질서와 혼란을 초래했다. 세속주의

로 인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 결국 세속주의가 일종의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극히 이율 배반적이다...

“... 이제 그 주이가 완성되었는데 그 상태는 교회가 되었다.”(피터 마린, “세속주의의 맹목적인 신앙” *하퍼스 매거진*, 1995년 9월, 20쪽)

만약에 하나님이 옳다고 선언하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옳다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 문제에 대한 더 많은 비효과적인 해결책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홍수가 났을 때 소화기로 해결하려는 것에 대한 씨 에스 루이스의 비유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면, 폭력과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수가 늘어지만 특별한 관심은 범죄자의 권리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증가되는 외설물 중독과 발맞추어 검열 제도에 대한 불평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불법이 가정을 파괴하고, 정부의 비용 부담 능력을 위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결과 성실이 조롱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다른 결과들이 불협화음을 냅니다. 로마가 불에 탈 때 악기를 연주했던 네로는 최소한 음악은 만들어냈습니다. 쉽게 잘못을 용인해 버린다면, 결국에 가서는 인류가 끔찍한 결과를 말없이 바라만 보게 될 것입니다.

알듯게도 어떤 사람들은 더 어려워질 때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묘사하는 데 좀더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세속주의의 의해 완화된 것 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불필요한 낙태는 “재생산적인 건강 절차”라고 하는데 이것은 “임신 중절”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조지 맥케나, “유산에 대하여: 링컨의 입장,” *아틀랜틱 먼스리*, 1995년 9월호, 52-54쪽) 불법이라는 말은 “비혼인 출생”이나 “대체 부모”라는 전적으로 수용할만한 용어로 바뀌어 지고 있습니다.(와텐버그, 173쪽)

교회 회원들은 복천년이 될 때까지 이러한 밀과 가라지의 상황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진짜 가라지들은 밀인 것처럼 가장하는데 여기에는 자신들은 더 이상 믿지 않는 교회 교리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열성적인 소수가 포함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 총관리 역원들을 짐짓 겸손한 양 충고하려 합니다. 그들은 비판적이지만 물론 자기 자신에게는 비판적이지 않으며, 교회를 떠나지만 교회 비판을 그치지 않습니다.(앤사인, 1980년 11월, 14쪽) “크고 넓은 건물”의 벽에 있는 균처럼, 그들은 맹렬하고도 분주하게 선입관을 갖고 조롱의 손가락을 확고 부동하게 쇠막대를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향합니다.(니파이일서 8:27, 28, 33 참조) 그들의 끊임 없는 편견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의아해 합니다. “그렇게 큰 건물에서 조롱하는 일 말고, 보울링장같이 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다른 활동은 없었나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의 위치에 대한 의심을 가리고 있는 표시인지도 모릅니다. 대중의 인기에 편승하려는 위형성이 주어지는 어떤 경우에도 “이 사람들은 조롱의 손가락이 그들에게 향할 수도 있는 곳에 놓여져야 합니다.”라고 브리감 영은 충고했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존 에이 윌소, 1941년, 434)

그러므로 예언된 대로 선한 것에 대해 성을 낼 때라도 조용히 선을 행해야 합니다.(니파이일서 28:20)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은 비난의 오만함에 대해 온유함과 명료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를 신랄하게 비난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하며 특히 낙담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래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81:5) 인간으로서 우리의 결점





태버나클 합창단이 일요일의 두 모임을 위해 음악을 제공했다. 헝클리 대관장은 일요일 오후 모임에서 합창단을 "교회의 훌륭한 보물"이라고 칭했다.

이 간혹 두드러지게 된다면, 우리는 더 잘하려 노력합시다.

게다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기쁨은 제자가 됨으로써 받는 짐보다 훨씬 큼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적인 속세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듯 회복의 축복으로 힘을 얻습니다. 복음의 기쁨에 대한 우리의 첫인상은 완전하다기 보다는 어린 아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기쁨에 잠기는 동안 우리는 그 기쁨에 도취됩니다. 오아시스에서 과일로 주머니를 채우듯 우리는 복음의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채웁니다. 그것을 모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에 우리들 중 어떤 사람들이 복음의 일부를 전체 복음으로 착각하거나, 복음의 특정 부분을 회복의 "생명수" 전체로 생각한다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기쁨을 처음 묘사할 때 본의 아니게 과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고 맛보아서, "내가 느끼는 것 중 극히 작은 것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엘마서 26:16)

이런 오아시스와 같은 기쁨에다가 주님께서는 우리의 여정을 위해 가족, 이웃

및 동료들을 포함한 더 깊고 넓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편, 1976년) 이것들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연합"(골로새서 2:2)하는 동안 우리를 강하게 하고, 교화하고, 가르치고, 위안하며, 영감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관계를 맺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도록 돕고 격려해 주는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약 12년 전, 두 명의 말일성도 의사들과 브라질에서 온 비회원인 의대 학생과의 테니스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연락이 안됐다가, 지난 달 브라질 쿠리티바에서 발렌팀 곤칼브스가 다시 제 옆에 섰는데 이번에는 테니스장이 아닌 지역 대회에서 제 통역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타고난 선함과 다른 사람들이 잘 도와주어서 안과 의사인 발렌팀은 회원이 된 것뿐 아니라 쿠리티바의 스테이크 부장이 되었습니다. 발렌팀과 그의 특별한 아내는 성전에서 인봉되었으며, 세 명의 사랑스런 자녀를 갖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만남으로 인해 주님이 손수 행하시는 일에 대해 제가 갖고 있던 감사함으로 가득찬 놀라움이 더해졌습니

다.(교리와 성약 59:21)

영감 받은 어린 아이들은 가끔 광야를 헤쳐나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베냐민 왕이 한 다음과 같은 질문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섬기지도 아니하며, 알지도 못하며, 마음에 생각해 보지도 않은 주님을 알 수 있으리요.(모사이야서 5:13)

어린 아이들은 자주 "마음의 생각과 뜻"을 주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나이가 차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어린 아이들은 신앙으로 가득 찼습니다. 교회의 공식부름을 받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리지만, 그들은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로 "봉사하도록 부름" 받았으며, 특히 훌륭한 부모로 축복받았을 때 더 잘합니다. 경전에서 보증하듯, 어린 아이들은 그들에게 "여러 번 전하여진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엘마서 32:23) 예를 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니파이 아이들에게 일들을 드러내 보이셨고, 그 아이들이 어른들과 부모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보다 더 위대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니파이삼서 26:14 참조)



지금은 아리조나에 살고 있는 낸과 덴 바커가 여러 자녀를 입양한 것은 특권이었습니다. 얼마 전, 이제 막 세 살이 지난 네이트가 “엄마, 우리 가정에 올 또 다른 여자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검은 머리에 검은 눈을 가졌고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현명한 어머니가 “네가 어떻게 아니?”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층에 서요.”

“우리에게는 이 층이 없단다.”라고 말하고는 곧 이야기된 것의 중요성을 알아차렸습니다. 많은 진통과 기도를 한 끝에 바커 가족은 1996년 가을 솔트레이크 성전의 인봉실에서 카자크스탄에서 온 검은 머리에 검은 눈을 가진 어린 소녀를 현세와 영원을 위해 그들에게 인봉하고 있었습니다. 영감받은 아이들은 여전히 부모들에게 “위대하고 기이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발람은 마이클과 로리 발람의 특별한 척추 피열 자녀입니다. 그 아이는 부모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또한 너무 영적이어서 베냐민은 사랑과 확신의 끊임없는 근원입니다. 열일곱 번의 수술을 하면서도 쾌활한 베냐민은 병원과 의사들에 관해 모든 것을 압니다. 한 번은 베냐민 때문이 아니라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으로 인해 지친 한 간호인이 큰 소리로 화를 내게 되었을 때 이 세 살된 어린 베냐민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필요성에 대해 다른 베냐민이 말씀한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었습니다.(모사이아서 3:19) 어린 베냐민은 다가가서 초조해 하는 간호인을 부드럽게 다독거리며 “어쨌든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라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일화가 최근에 이스라엘 병원에서도 있었는데 그곳에서 필요하기는 하지만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 어린 베냐민이 의사를 확신시키기 위해 똑같은 사랑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순간에 어린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영적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조셉과 제니스 클라크는 제이콥과 앤

드류라는 두 아들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년 전, 조셉은 갑자기 중풍에 걸려서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게 되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거기서 조셉의 아들들은 종종 그가 누울 때 팔을 잡아 주었습니다. 조셉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할 수는 없었을 지라도 항상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의 병은 재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셉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아이들은 부모 및 가족의 든든한 지원으로 오년 동안을 훌륭하게 이겨나갔습니다. 실제로 일어난고 있었던 일에 대해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은 읍과 같이 “하나님께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욥기 1:22)

끊임없이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들 많은 사람들은 제니스와 조셉이 “그들에게 내리시는 모든 것에” “기꺼이 순종함”을 보임으로써 베냐민 왕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모사이아서 3:19) 빛을 발하던 조셉은 최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은 바로 다음날, 아버지의 사랑과 도움을 펼치려는 본성을 직접 알았던, 통찰력이 있는 아홉살된 제이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벌써 하늘 나라에서 많은 친구가 생겼을 거예요.” 며칠 후 일곱 살된 앤드류는 학교에서 컴퓨터 숙제로 애쓰다가 나중에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아빠 생각을 했는데 아빠가 도와줬어요.”

네 살된 브라질 소녀 마야라 페르난다도스 산토스는 백혈병을 앓고 있으며 산소 마스크로 호흡을 하고 있는데 최근 클라우디오 코스타 장로님과 제가 브라질 쿠라티바에서 축복을 주었습니다. 축복받은 후 인정받은 이 어린 마야라는 웃으면서 걱정스러워 하는 어머니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나이에 걸맞지 않게 현명한 마야라는 기꺼이 주를 섬기며 기다리는 소중한 부모님들을 포함하여 “고난당한 자를 위로”할 줄 압니다.(모사이아서 18:9)

크레이그 즈워 장로님과 저는 브라질 포르텔라에서 소중한 순간을 함께 했는데 그 곳에서 우리는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일곱 살된 특별한 아이를 축복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야렛 암몬이라는 이

름에서 그의 부모님과 가족에 관해 많은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려 깊은 선교부장과 스테이크 부장이 함께 해서 우리 네 사람이 서 있기에는 아주 비좁은 방에 야렛 암몬의 14세된 충실한 누나가 침대에서 그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의 복부는 심하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스테이크 부장이 축복을 받고 싶은지 묻기 위해 산소 마스크를 들었을 때, 야렛은 “네, 제발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를 축복하고 장막을 넘어 봉사하도록 그에게 부름을 준 것은 특권이었습니다. 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다시 들고 우리가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암몬에게 물었습니다. 야렛은 “난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 달라고 부드럽게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울면서 유순한 야렛 암몬의 마지막 청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두 시간 후 그는 이 생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우리는 교회로 고인을 보러 갔습니다. 그의 훌륭한 부모는 신앙으로 가득 차 있으며, 침착했고, 경건하게 “기꺼이 순종”했습니다.(모사이아서 3:19) 야렛을 안고 있던 누나는 나중에 야렛이 장막의 다른 쪽에서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장막의 이쪽에서 봉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는 거룩한 지시는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모사이아서 3:19) 그러한 신성함이 우리가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 됨을”(시편 46:10) 알아야 할 순간을 포함해서 우리가 세상의 광야를 건널 때 우리를 지탱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헌납한다는 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여 가만히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이 시련을 겪은 후에야” 완전한 증거가 오는 것이며 그러는 동안 자주 “어린 아이가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이더서 12:6, 이사야서 11:6)

저는 기쁘게 이 사업의 진실됨을 간증하며, 핑클리 대관장님에 의해 우리가 훌륭하게 인도될 때 그 모든 일들이 놀랍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요셉, 의로운 자이며 예언자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요셉에게는 어떻게 예언자가 되는지를 배울 본보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사자들들과 그의 특별한 영적인 은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이** 아름다운 부활절 주일에 저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의 예언적인 부름을 좀더 확신시켜 주는, 그의 잘 알려지지 않은 생의 단면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요셉 스미스와 그의 여러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편찬한 교회 정사를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법과 대학원을 졸업한 후, 저는 그 일곱 권을 모두 자세히 읽었습니다. 저는 또한 예언자 요셉이 그의 생애에서 마지막 5년을 보낸 일리노이 주에 있는 원본 기록을 개인적으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알게 된 그 분은 제가 상상했던 그러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소년이었을 때, 교회에서 성장하면서 예언자 요셉은 나이도 많고, 위엄이 있으며, 거리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상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읽고 개인적으

로 조사한 가운데 알게 된 요셉 스미스는 개혁자로서의 특징을 지닌 젊고 감정적이며 힘이 있으며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접근하기에 편했기 때문에 종종 그들은 "요셉 형제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그의 예언자로서의 부름에 대한 저의 간증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또한 저는 이분도 인간이었기에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고통을 겪었던 분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언자 요셉의 전체 성역 기간의 특징은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청년 시절과 보잘것 없는 정규 교육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지식의 습득과 성숙함이었습니다.

그는 14세 때 첫 번째 시현을 보았으며, 17세에 모로나이 천사의 첫번째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금판을 받았을 때가 21세였으며, 60일도 안되는 기간 동안 물문경의 번역을 완성한 것이 23세였습니다. 교리와 성약의 계시 중 절반 이상이 예언자가 25세 이하였을 때 주어진 것입니다. 26세에 대관장단을 조직했으며, 커틀랜드 성전이 헌납되었을 때가 30세였습니다. 미주리 감금 생활에서 탈출하여 나부로 집합하는 성도들의 지도자로 복귀한 때가 33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39세에 순교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인간으로서의 고통을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이 겪었습니다. 그가 일곱 살이었을 때 심한 고통이 따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마취도 하지 않은 채 다리 뼈를 깎아냈습니다. 그 후 삼 년 동안 목발을 잡고 다녔습니다. 가족이 가난

했기 때문에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고, 청소년 시절에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장시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요셉과 그의 사랑하는 엠마의 처음 세 자녀들은 출생시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 아기도 출생시 사망했으며 다른 아기는 어릴 때 사망했습니다. 요셉과 엠마의 아홉 자녀 중에 겨우 네 명만 생존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쌍둥이를 입양했었는데 이 중 하나는 아기였을 때 사망했습니다.

요셉은 많은 경우에 물리적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종종 거짓 고발을 당해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거의 끊임없이 재정적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의 거룩한 부름에 따른 엄청난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농부로서, 또는 장사꾼으로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일을 그의 예언적인 부름에서 그를 지탱시켜준 놀라운 영적인 은사가 없이는 행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 일에는 힘을 기울이지 말라. 이는 네 천적이 아닌 까닭이니라"(교리와 성약 24:9)고 충고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시현 이후 십대의 시절에 관하여 요셉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종종 하나님을 거슬리는 어리석은 과오를 범하여 젊은이로서의 약점과 인간의 결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어떤 큰 죄나 증오할 만한 죄는 범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 나에게는 이러한 죄를 범할 성질이 결코 없었기 때문입니다."(요셉 스미스서 2:28)

요셉의 인간적인 약점에 대한 분명한 증거는 그가 기록하여 세상에 내놓은 초기 계시 중에서 주님으로부터 심하게 꾸지람을 당한 사실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116페이지에 달하는 물문경 번역 원고를 22세의 요셉이 마틴 해리스의 간청에 못 이겨 그에게 빌려주었다가 분실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네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어기며 인간의 실득에 넘어가기 그 몇 번이 있더냐."(교리와 성약 3:6) 주님께서 요셉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거두어 가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가 출판한 그 후의 네 계시에서도 "회개하여 더욱 올바르게 행



하고"와 "죄를 지은 것"이 언급되었으며(교리와 성약 64:7)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꾸짖기도 했습니다.(교리와 성약 93:47 참조)

예언자 요셉은 어떻게 주님의 백성들의 예언자요 지도자가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본보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늘 사자와 그의 특별한 영적인 은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본보기가 없었던 동료들에게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노력하고 배웠으며 예언자는 참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요셉이 성도들에게 인간적인 불완전함에 대해 경고했을 때 그는 자신을 추켜세우지 않았으며, 성도들은 그런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나부에 새로 도착한 성도들에게 만사가 온전히 행해지지 않았을 경우 만족해하지 않는 경향에 대해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그에게 완전하게 되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라고 한 동료는 기록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그에게서 완전함을 기대한다면 그도 사람들에게 완전함을 기대해야 하지만, 그들이 요셉과 관리 역원들의 불완전함을 이해한다면 그도 그들의 불완전함을 이해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요셉 스미스의 서한, 일지 2권, 1832~1842년 단 시 제시 편집, 489쪽)

요셉은 "천성"이 쾌활했습니다.(요셉 스미스서 2:28) 그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놀고자 했으며, 항상 쾌활하고 행복했습니다."라고 어떤 친구는 회상했습니다.(라헬 리치웨이 그랜트, "예언자 요셉 스미스", 청녀 일지 16, 1905년 12월, 551쪽) 그는 어린이들을 사랑했으며 다른 성직자들에게서 흔히 보는 지극히 근엄한 태도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만한 태도로 아이들과 즐겁게 놀았습니다. 이런 따뜻하고 인간적인 자질들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요셉의 예언자적인 역할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이런 면들 때문에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로 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기록을 보면 그를 아는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과 같은 수많은 찬사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들의 그에 대한 사랑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메리 엘리스 케년 램버트, 청녀 일지, 16:554)

그의 친근하고 우의 어린 스타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그의 임무를 행함에 있어서 단호했습니다. 대관장단과 십이사도의 권고를 거부한 사람의 제재를 결정하는 모임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도들은 내가 그들과 친하고 명랑하고 낙천적이려고 해서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부정도 이 교회에서는 유지될 수 없으며, 내가 있는 곳에서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인도해 가는 동안에는 올바르게 인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교회 정사, 5:411) 또 다른 경우에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업과 미덕과 순결과 바른 행동을 사랑합니다. 나는 위선자나 성약을 깨뜨리는 자를 경멸합니다."(요셉 스미스의 개인적인 기록, 단 시 제시 편집, 1984년, 246쪽)

요셉 스미스는 온 생애동안 개혁자로서의 생활을 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자연과 서로에 대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는 체구가 컸고 힘이 셸으며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는 경쟁적인 운동을 즐겼는데 그 중에는 육체적인 힘을 시험하는 막대기 잡아당기기가 있습니다.(교회 정사, 5:302 참조) 기록을 보면 친구들과 씨름한 것을 회상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요셉과 브리감 영은 나부에서 하루 거리인 일리노이 주 라무스에 있는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월요일에 라무스를 떠나기 전 요셉은 "라무스의 장사"라고 불리던 사람과 씨름을 한 판 겨루었는데(요셉 스미스 일지, 1843년 3월 13일, 윌라드 리차즈 기록, 요셉 스미스 모음집, 말일성도 교회 기록) 요셉이 그를 던져버렸습니다. 요즘 대회 일정에는 지역 회원들이 이런 방법으로 방문 총관리 역원을 시험하는 일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개혁자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요셉 스미스는 물리적인 위협에 대해 위축되지 않는 사자와 같은 용기를 지녔습니다. 한 번은 장전된 권총을 머리에 들이댄 두 남자에 의해 요셉이 납치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요

셉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총을 쏘버리겠다고 계속 위협했습니다. 예언자는 한 동안 이 위협을 견디어내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짜라, 나는 그 동안 온갖 박해와 압박에 시달려와서 이제는 사는 것이 싫증이 났다. 그러니 이제 나를 쏘서 여러 말할 것없이 끝내 버려라."라고 말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그의 일생을 통해 심한 압박과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그의 거룩한 부름에 대해서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부에서의 대중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짐은 매우 큰 것입니다. 박해자들은 나에게 쉴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일을 행함에 있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함을 느낍니다. 비록 이 경륜의 시대에 이 위대한 사업과 왕국의 기초를 놓고, 흠어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름을 받았지만, 고대 예언자와 같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격정에 지배를 받습니다."(교회 정사, 5:516)

순교하기 한 달 전쯤에 행한 설교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내가 완벽하다고 말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르친 계시에는 아무런 오류도 없습니다."(요셉 스미스의 말씀, 앤드류 에프 이아트 및 런던 더블류 쿡 편집, 1980년, 300쪽)

반 물문들의 적개심에 불을 지르고 직접 순교로 이어진 사건은 나부에서 새로 설립된 반물문 신문을 폐간하는 일에 요셉 스미스 시장과 시 평의회가 취한 조치였습니다. 비 에이치 로버트가 포함된 물문 역사가들은 이 조치가 불법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본을 조사하는 젊은 법학 교수로서 저는 1844년에 제정된 일리노이 주의 법에서 이 조치에 대한 합법적 근거를 찾았습니다. 시와 주 정부의 조치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 합중국 헌법에 추가된 수정안은 1868년에 채택되었고, 1931년까지는 연방 정부 법안으로 효력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나부 해설가의 제지" 유타 법률 리뷰, 9:862, 1965년) 우리는 전임자들이 취한 행동을 우리의 시



대가 아닌 그들이 살던 시대의 법과 계명과 상황에 의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시카고 대학의 학생들이었던 역사가인 마빈 에스 힐과 저는 요셉과 하이람 스미스의 죽임에 대해 다섯 명의 사람이 일리노이 주에서 재판에 회부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0년 이상 우리는 이 재판과 이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도서관과 기록 보관실을 바쁘게 찾아 다녔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요셉 스미스를 아는 일리노이 주 주민들의 말과 판결문서를 연구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요셉을 싫어하여 죽일 음모를 꾸민 사람들도 있고 그를 사랑하여 목숨을 걸고 고발된 피고인들의 재판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법정의 원본 기록이나 긴 재판의 증언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에는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불명예스럽게 행동한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델린 에이치 옥스 및 마빈 에스 힐, *카테지 음모*, 1975년)

일리노이 법원의 기록을 접해 보면 요셉 스미스에 대한 연구 조사 분야에서 손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재정 활동입니다. 당시 시카고의 법학도였던 조셉 아이 벤틀리와 저는 요셉 스미스의 비즈니스 활동을 보여주는 수많은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기사에서 설명했듯이 이것은 전국적인 금융 공황과 불경기에 뒤이은 기간이었습니다. 일리노이 주와 같은 개척지 주의 경제 상황은 황폐했습니다. 일리노이 주의 동시대 사람인 아브라함 링컨의 전기 작가들은 이 기간 동안의 재정 곤란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 시기에는 비즈니스 불안정했고, 채무 이행이 되지 않았으며, 소송이 빈번했다고 했습니다. 요셉의 적들은 요셉이 대부분 교회를 대신하여 행한 여러 가지 소유권 양도에 대해 사기를 쳤다고 고소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연장된 연속된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주장이 매우 자세히 조사되었습니다. 마침내 성도들이 일리노이 주를 떠난 오랜 후 1852년에(그리하여 사람들이 예언자에게 호의를 베풀 정치적 또는 다른 이유가 없었던 때) 연방 법원 판사는 이 소송에 대해 아무런



템플 스퀘어의 북방문자 센터 안에 있는 그리스도 조각상.

사기성이나 도덕적인 잘못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델린 에이치 옥스 및 조셉 아이 벤틀리, "요셉 스미스 및 법적 과정: 나부의 증기선을 따라서", *비와이유 법률 리뷰*, 1976년, 735.)

이 판결과는 별도로 수백 쪽에 달하는 이 진행 과정의 증거와 진술을 검토해 본 저는 예언자의 무죄를 증거합니다.

초기 일리노이 주의 소유권 법을 잘 알고 있고 백 년 이상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되돌아보는 법률가로서 저는 요셉과 동료 교회 지도자들과 회원들이 방금 설명한 논쟁에서 형편없는 법률 조언을 받고 상당히 불리했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나쁜 법률 조언은 브리감 영이 공개적으로 법률가들의 의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1846년에 브리감 영이 "일리노이 주의 모든 법률가들보다는 차라리 6연발 권총을 갖겠다."라고 선언한 것에 대해 종종 질질 웃습니다.(*교회 정사* 7:386)

요셉을 잘 알고 교회 지도자로서 그와 가까이 있어 본 사람들은 그를 사랑했고 예언자로서 그를 지지했습니다. 그의 형 하이람은 그의 곁에서 죽기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살해되었을 때 함께 있었던 존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 앞에서 증거합니다. 요셉은 선하고, 존경할만 하고, 고결한 사람이며, 그의 사적, 공적인 인물됨을 말할 나위 없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고, 죽었습니다."(*복음 왕국*, 1987년, 355쪽, 교리

와 성약 135:3 참조) 브리감 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보다 요셉 스미스를 더 잘 아는 사람은 이 지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담대히 말하거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이 지상에 살았던 또는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습니다.(*설교집*, 9:332)

다른 충실한 말일 성도처럼 저도 제 인생을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간증과 사망 위에 세웠습니다. 제가 읽은 책과 연구 조사로 인해 요셉 스미스의 예언자적인 부름 및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복음과 신권을 회복하신 것에 대한 저의 간증이 결코 시들지 않았습니. 저는 1842년의 유명한 웬트워드 편지에 표현된 그의 간증을 엄숙히 확인합니다.

진리의 표준이 세워졌습니다. 어떤 더러운 손도 이 사업의 진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박해는 더해 가고, 폭도들은 규합하며, 군대가 조직되고, 중상 모략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대륙에 전파되고 모든 지방을 방문하여 모든 나라를 휩쓸고 모든 귀에 들릴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서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까지 그 진리는 독자적으로 대답하고 고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타임즈 앤드 시즌스*, 1842년 3월 1일, 709; 다니엘 에이치 루드로 편집, *몰몬주의 백과 사전* 5권 1992년, 4:175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거듭남과 헌신

더블류 맥 로렌스 장로  
칠십인 정원희

여러분이 현재 거듭남과 헌신에서 나오는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변화를 가져올 필요한 단계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 계신 예언사를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부름을 받은 분들의 영감 받은 말씀과 간증과 권고의 말씀을 이 훌륭한 대회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큰 특권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 분들에게서 들은 말씀은 곧, “주의 뜻이 되며, 주의 생각이 되며, 주님의 말씀이 되며” 경전에 나와 있듯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의 권능”(교리와 성약 68:4)이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이 점에 관하여, 저는 여러 해 전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배리온 지 롬니 장로님께서 대회를 마치시며 말씀하신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대회에서 우리가 따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인도할 진리와 지침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대회 보고, 1954년 4월, 132쪽)라고 그 분은 말씀했습니다.

이 대회와 같은 모임에서 단지 하나님

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려면, 즉 약속된 축복을 받으려면, 그대로 따라 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것임이라.”(교리와 성약 84:44)

우리는 본 대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이제 그것을 생활화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지난 연차 대회를 마치면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회에서 되새긴 사실들을 제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면 저는 더욱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도 이 훌륭한 대회에서 들으신 것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면 더욱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89쪽)

이러한 권고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안에서 더욱 거듭나게 되고, 그리하여 성약과 계명을 지키고, 교회에서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더욱 헌신하게 됩니다. 제가 현재 하고 있고, 또한 기타 다른 지도자의 부름을 받아 여러 해 동안 목격한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스테이크 부장님들에게 가장 큰 문제나 관심사가 무엇인지 질문할 때마다, 그 분들은 이구 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좀더 헌신적이 되고 거듭나게 되어 성약을 충실히 지키고 부름을 완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문제에 관하여 많이 생각하며 기도했

습니다. 분명 말일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가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불행히도,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들이 받은 가르침을 수행해 나가는 것을 미루는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교리와 성약 4:2)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자]”(니파이일서 4:34) 하는 간증과 소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점에 관해서 생각하고 기도한 끝에 저는 개심과 헌신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및 그분의 교회에 대한 개심이 부족하며, 개심한 경우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을 강건케 하도록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부름을 위해 헌신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누가복음 22:32)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헌신은 거듭남의 결과요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약속된 축복을 충만히 받기 위해 우리의 부름을 온전하게 수행하려면,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 마음속으로 참으로 거듭났다면, 최선을 다해 성약이나 계명을 지키고, 과제를 수행하며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으로 개심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즉 제자 또는 성도라 불릴 수 있는 자는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성약과 계명을 지키는 일에서 부주의하거나 자기 만족에 빠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의무를 배우며... 부지런히 완수하게 하라”(교리와 성약 107:99)는 주님의 권고를 분명히 따를 것입니다.

개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해롤드 비 리 대관장께서는 “거듭남이란 단지 십일조 영수증이나... 성전 추천서를 가지고 명목상으로만 다니는 회원 이상을 뜻합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외부로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내적인 약점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처치 뉴스, 1974년 5월 25일자, 2쪽)



개심하여 헌신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과제를 수행할 때 형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심한 가정 복음 교사는 지명받은 가족을 방문하여 소속 정원회 지도자에게 임무를 완수하거나 끝냈다고 보고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듭난 초등학교 교사는 공과를 가르쳐 주는 데 만족하지 않고 영으로 가르치기를 소망하며, 따라서 자신이 돌보게 된 어린이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려 노력할 것입니다.

진실로 거듭난 말일성도가 성전에 가는 이유는 할당 수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스러운 구원의 의식을 스스로 행할 수 없는 돌아가신 조상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조상들을 위해 수행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나 보고의 목적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헌신과 사랑의 영으로 남을 돕고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하신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의 권고의 말씀을 상기해 봅시다. 힝클리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통계 수치 항상보다 달성해야 할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원들의 영적인 면에 관심을 갖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통계상으로 더 좋은 결과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목표량을 설정해 놓고 통계 수치를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업에는 그러한 압박감보다 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참된 개심으로 동기가 유발되는 것입니다. 말일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이 사업의 진실성에 대한 위대하고 생생한 간증의 맥이 힘차게 뿜어질 때, 그들은 각자 이 교회 내에서 자신이 할 일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는 성찬식에 참석하고, 신권 회에도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는 정직한 십일조와 헌금을 바칠 것이며, 자신이 맡은 가정 복음 교육을 완수할 것입니다. 사정이 허락하는 한 자주 성전 행사에 참석하여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려는 마음이 강하게 일 것이며, 그의 형제 자매들에게 힘을 주는데 앞장 서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지역 대표 세미나, 1984년 4월 6일)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참된 개심과 헌신에서 나오는 축복을 현재 받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변화를 가져오기에 필요한 단계를 취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쩌면 예언자 엘마가 그 당시 그의 백성에게 전한 말씀과 같을 것입니다. “보라, 교회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너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났느냐? 하나님의 모습을 네 몸에 지녀 보았느냐? 이 놀라운 변화를 너희가 마음으로 느껴 보았느냐?”(엘마서 5:14)

“마음에 놀라운 변화”는 바로 거듭남을 뜻합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주님의 종의 간증을 겸허하게 들을 때, 마음속에 주님의 영이 스며들어 개심하게 됩니다.”(교회사 및 현대 계시, 십이사도 평의회, 1953년 제1권, 30~40쪽)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을 다시 강조해 봅니다. 이 대회나 다른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약속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아니면 스미스 대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종의 간증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현재의 개심과 헌신의 상태를 평가해 볼 것을 겸허한 마음으로 권고합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 스스로와 접견을 하는 시간을 가져 현재 부름은 직책을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이 예언자와 스테이크 부장님이나 감독님을 포함하여 거룩하게 부름 받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신 권고를 실행하고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의 임무를 되새겨 보아야 합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헌신적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엘마의 질문을 다시 살펴 봅시다. “너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났느냐?” 엘마가 자신의 개인적으로 거듭나게 된 간증을 전하는 것으로 당시의 백성들에게 그의 권고를 끝맺은 것은 주목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보라, 내가 말한 이 모



유티주 슬드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 선교부에서 선교사 임기를 마친 최주이 자매는 대회 후 한국 서울로 귀환했다.

든 것들이 사실임을 아노라. 내가 어떻게 이러한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는지 너희가 알겠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것들이 내게 알려졌느니라. 보라, 여러 날을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러한 것을 스스로 알려 하였으며 이제 그것들이 참됨을 스스로 아나니, 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알게 하셨음이라. 이는 바로 내게 임한 계시의 영이었느니라.”(엘마서 5:45~46)

이와 같은 계시의 영, 곧 거듭남의 영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금식과 기도와 순종하고 경전을 상고함으로써 부지런히 추구한다면 누구나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엘마서 17:2~3 참조)

이 대회를 마치면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욱 온전히 개심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 가짐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야고보서 1:22)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사도 야고보의 권고에 따르도록 합시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경전에 나와 있는 그분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따르도록 합시다. 이 교회는 성스러운 교회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님은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충만한 복음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은 살아 계신 참된 예언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증드립니다. 아멘. □



# 유혹

롤런 지 크레이븐 장로  
철심인 정원희

유혹은 자장 내에 있는 금속 물체를 잡아당기는 자석의 힘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기서 멀리 떨어져 나가면 그 힘을 잃습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시련에 닥쳤을 때 그들의 용기와 의지력을 보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때로 총관리 역원의 부탁을 받아 회개하는 교회 회원을 만나 접견을 하고 그들의 성전 축복을 회복시켜 준 일이 있습니다. 회개한 훌륭한 분들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는 일을 언제든지 영적인 감동을 줍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일시적으로나마 교회의 회원 자격을 잃게 되신 것입니까?" 눈물이 가득 찬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교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복음을 연구하는 등의 복음의 기본 원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유혹에 빠져 성령의 인도하심을 잃은 것입니다." 제게 있어

이들, 회개한 영혼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용서의 기적을 느끼고 성도들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맛보는 것은 언제나 특별한 경험이 됩니다.

유혹은 우리가 이 지상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우리가 유혹을 받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악마가 인간의 자녀를 유혹함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악마의 유혹이 없으면 자신의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없나니, 인간이 쓴 것을 알지 못하면 단 것도 알 수 없는 연고니라."(고리와 성약 29:39)

물문경에서 니파이는 유혹에 굴복하는 결과를 말해 줍니다. "... 악마의 유혹이... 인간들의 눈을 멀게 하고 저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며 저들을 넓은 길로 인도하며 저들이 멸망되며 주 앞에서 잃은 바 되느니라."(니파이일서 12:17)

눈이 먼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를 못보거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박하다는 것은 권고를 무시하거나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인도된다는 것은 세상의 유혹에 빠져 우리 삶에서 성령의 영향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브리감 영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악마는 육신과 영을 초월하는 권세와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악마가 인간을 능가하는 힘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영을 육신이 지배할 때만은 예외입니다. 악마의 영에 굴복당함으로써... 영은 육신의 영향을 받고, 그 영에

의해 육신이 영향을 받습니다."(설교집, 69~70쪽)

유혹은 자장 내에 있는 금속 물체를 잡아 당기는 자석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기서 멀리 떨어져 나가면 그 힘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으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온종일 계속해서 활동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다니는 사색의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생각이 흘러 들어오게 하면 불의한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속 도로를 여행하는 동안 우리의 신체적인 감각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인기곡 순위나 포스터, 잡지, 비디오, 영화 등으로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면, 말일성도에 게 적합하지 않은 생각을 품게 됩니다.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면, 멈추고, 생각하십시오!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마음의 눈에 커다란 비상구를 그려 보십시오. 즉시 생각을 바꾸고, 그 마음의 길에서 벗어나십시오.

옳지 못한 감정이나 욕구가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면, 성신이 곧 아니더라고 말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멈추고, 생각하십시오! 마음속에 잘못된 길 표시를 그려 보십시오. 마음과 육신을 중독시킬 수 있는, 옳지 못한 감정과 사악한 상상은 곧바로 바꾸거나 지워버리십시오.

불의한 행동을 하도록 유혹을 당하거나, 또는 불의한 생각을 하게 될 때는 앞에 놓여 있는 길을 내려다 보고, 그 행동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결과를 머리 속에 그려 보십시오. 멈춰 서서 생각하십시오! 마음속에 멈춤 표시를 그려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제동을 거십시오. 즉시 여러분의 생각을 다른 면에서 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바꾸십시오.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속의 나쁜 생각에서 빠져 나오십시오. 불의한 생각의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십시오. 말일성도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도하는 생각을 끊어 버리십시오. 유혹에 넘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무엇을 보고, 귀로 듣고, 입





으로 말하고, 손으로 만져야 할 것들을 평소 가르침 받아 훈련해 두십시오.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심신의 중독으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중독을 강력한 힘으로 노예 상태로 이끌어 자유와 내적인 평화를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유혹에 빠지게 되면, 권고의 말씀, 즉 성신의 권고, 우리의 예언자와 지도자들의 권고, 훌륭한 교리의 권고, 성약의 권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권고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우정과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유혹은 앞으로 닥칠 수도 있는 위협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특별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표시와도 같습니다. 다가올 위협을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유혹은 우리의 마음에 경각심을 주어 옳지 못한 생각이나 행동을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상 생활을 하는 영원한 존재로서, 우리는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유혹은 올바른 것을 행하기 위한 내적인 투쟁을 의미합니다. 항상 육감적이고 세속적인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인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의 육욕적인 생각은 영적인 성장을 막습니다.

조지 큐 케는 부대관장은 말씀했습니다. “인간이 유혹을 받지 않게 되면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그들 자신의 약점이나 하나님의 권능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권세를 갖지 못했다면, 그들은 성이나 악을 알 수도 없고, 행복도 비참함도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이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경험이 부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복음 진리, 제럴드 엘 뉴퀴스트 선집, 2권, 1987년, 제1권 109쪽)

복음의 원리에 순종함으로써, 세상의 유혹은 오히려 우리의 생활에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할 때,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강화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나씩 쌓아가게 되면 내적으로 영적인 힘을 키우고 거룩한 성품을 갖게 됩니다. 유혹을 받음이 없이 유혹을 기대해야 한다면, 가르침이나 성품의 개선을 바랄 수 없을 것입니다.

악마의 권세가 이 세상에서 날로 증가해 간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현실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악의 권세에서 벗어날 방법은 있는가? 그렇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의 회원들은 다음과 같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1)복음 원리와 교리에 순종하고, (2)예언자의 권고에 따르며, (3)항상 성신의 권세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와 성약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단련시키십시오. 매일 개인 및 가족 기도로 길을 닦아나가며, 경전 연구와 예언자의 가르침의 길을 따르며, 교회에서 봉사하는 생활을 하고, 매일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영생으로 인도하는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십시오. 유혹에 대한 여러분의 가장 큰 보호망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맺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힘차고 살아 있는 간증입니다. 유혹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모범이 되시는 분은 구세주이십니다. “저는 유혹을 받으셨으나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20:22)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이 사업이 참됨을 압니다. 저는 예언자들께서 이 지상에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께서 하늘에 살아 계심을 압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의로움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수잔 엘 워너 자매  
본부 초등협회 회장단 제2보좌

우리가 심는 씨앗은 여러 해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르치는 자녀들이 언젠가는 영과 관련된 것들을 기억하게 되리라는 것을 바라며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 이 태버나클에서 열리는 연차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네바다 사막을 달려온 생각이 납니다. 당시 자동차에는 냉각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디오에 터가 끊어 넘칠 경우에 대비하여 차 앞에 물주머니를 매단 채 밤에 운전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건물 밖에 서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에 시온의 찬송가를 부르며, 커다란 나무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넓고 큰 기둥 뒤에 앉게 되거나, 더 운 나쁘게 커다란 모자를 쓴 부인 뒤에 앉게 되지 않기를 남모르게 바랐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는 충분히 볼 수 있을 만큼 키가 크지는 않았지만, 예언자께서 들어오시는 것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설 때의 그 느낌을 기억합니다. 그러한 경건한 느낌은 제가

이 건물에 들어설 때마다 혹은 연차 대회에서 지도자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느끼게 되는 영적인 느낌입니다. 저는 무엇을 받았으며 무엇을 들었는지 기억합니다. 저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느꼈는지 생각합니다.

우리는 각자 영적인 느낌을 받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받은 영적인 느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주님의 참된 교회를 발견했을 때의 느낌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 것입니다. 대체로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 자매와 연관된 영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성도들과 왕국에서 봉사할 때 받게 되는 사랑과 소속감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참석하여 함께 복음을 연구하고 간증을 나누는 뒤, 안식일 저녁에 영적으로 새롭게 된 느낌을 가졌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과 슬픔이 닥칠 때 간절히 기도 드린 후의 진지한 느낌, 성신의 위안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슬픔과 깊이 회개하여 얻은 기쁨, 그리고 사함받고 깨끗이 씻음 받은 느낌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구세주의 속죄의 은사에 대한 깊은 감사의 느낌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느낌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참된 자아에 대한 감각을 갖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예언자들께서 최근에 온 세상에 선언한 것을 생각나게 합

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성도의 빛, 1996년 6월호, 10쪽) 영적인 느낌을 돌이켜 보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가르침 받고, 권고 받고, 또한 명령을 받는 경전에서 “오... 기억하고 다시 기억하라”는 말씀이 수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되풀이되는 권고의 말씀은 우리의 과거의 영적인 느낌을 회상하는 것과 현재의 신앙 사이에는 뜻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요한계시록 3:3)

사탄은 우리가 받고 들은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우리가 참으로 누구인가를 말해 준 영의 조용한 증거를 최소한 적게 생각하고 아예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사악하게 계획하는 것의 일부는 우리 자녀들에게 자아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게 하여, 그릇된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초등 학교 교장 선생님은 어린 학생들조차 거룩한 것을 경시하는 것을 보고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비디오 및 유행 음악을 통해, 그들은 자신을 무감각하게 하고 죄를 짓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사악한 것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도 삶에 어떤 성스러운 목적 같은 것은 없으며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자연스런 것이며 바람직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교묘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권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향을 받은 어린이들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며, 그들의 육신은 거룩한 성전이며, 순종은 훌륭하고 행복한 느낌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자의 권고를 따를 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가정의 밤을 정기적으로 갖고 경험을 나누고 서로 간증을 나눌 때, 우리 가정 안에서 그러한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학생들을 돕기 위해, 지도자들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와 “달성의 날” 소책자 뒤에 나와 있는 “나의 복음의 표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족과 함께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의 느낌을 나누고, 함께 배울 때,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연소자나 연장자에 상관없이, 교리적인 지식과 영적인 느낌들을 풍부하게 심어주어 늘 기억하도록 다시금 상기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경에서 이노스는 자신의 기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숲으로 짐승 사냥을 갔을 때, 나의 부친께서 영생과 성도들의 기쁨에 관하여 종종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깊이 스며들음을 느꼈고”(이노스서 1:3) 이노스는 교리와 느낌의 저장고에서 끄집어 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부친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주의 돌보심과 훈계로 나를 가르치셨으며 하나님의 이름에 축복을 돌리노라.”(이노스서 1:1)

문제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한 분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수월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돌아온 청소년들은 표준과 영성의 기초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기억으로 힘을 얻고, 그들에게 있어 회개는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순수함과 배움에 대한 열망과 열린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옵니다.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명하고 단순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이 영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 자신의 영적인 느낌들을 알고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우리의 즐거운 특권이며 엄숙한 책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시조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계명을 주어 너희 자녀에게 이 일을 자유로이 가르치게 하노니...”(모세서 6:58)

저희 가족은 이른 아침에 경전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아이 하나가 불평을 하는데다 억지로 잠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야 했기 때문에 좌절감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나와서도 테이블 위에 머리를 대고 앉아 있기 일쑤였습니다. 여러 해 뒤에, 선교



사업을 나가 있던 그는 집에 편지를 보내 왔습니다. “제게 경전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시절 제가 잠자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을 때, 저는 실상은 눈을 감고 듣고 있었던 것이예요.”

부모님과 교사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풍부한 영적인 기억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심는 씨앗은 여러 해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르치는 자녀들이 그들이 “받고 들은” 영과 관련된 것들을 기억하게 되리라는 것을 바라며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알고 느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거룩한 목적으로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들의 주체성을 기억할 것입니다.

매주 전세계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들은 함께 모여 자신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각국의 언어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부릅니다. 어디를 가나 청년들은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청년은 합당한 아론 신권 소유자로서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고 봉사하며 기억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취할 때, 누구나 다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꺼이 받들고 항상 그를 기억할 것을 성약하며 기억합니다.

우리 아이들 중 한 자녀가 그의 친구와 함께 학교에 갈 때의 일이 생각납니다. 저는 잘 다녀 오라고 손을 흔들며 “네가 누구인지 기억하거라.”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아이들이 걸어갈 때 그 친구가 묻는 소리가 제 귓가에 들렸습니다.

“너의 어머니는 왜 항상 저런 말씀을 내게 하시지? 그게 무슨 뜻이냐?” 저는 아들이 곧바로 대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착하게 굴라는 뜻이야.” 바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선행을 함으로써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며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착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범사에 주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기억하고(니파이일서 15:25 참조), 경전을 부지런히 상고할 것을 기억하며(모사이아서 1:7 참조),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엘마서 57:27 참조),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권고를 기억하고(유다서 1:17), 죄를 범하는 것이 무서운 일임을 기억하며(니파이이서 9:39), 주님은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우심을 기억하고(엘마서 32:22 참조),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히라멘서 5:9)

저는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과 함께 초등학교 노래로 저의 간증을 전하며, 제가 “받았으며 들은 것”과 제가 알고 느낀 점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회원.

하나님 계획 굳게 믿고

주 따라 가리라.

나는 구세주 믿고

주 이름 찬양하리라.

의를 행하고 주 빛 따르며

진리 전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교회,” 어린이 노래책, 47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님의 상에 와서 먹음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예언자를 통해 인간을 혹사시키는 영적인 굶주림을 없애고 자신의 상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이번 대회 또한 영광스러운 대회였습니다. 여러분과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을 갖는 이 시간, 주님의 영이 저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지난 2월에 저는 아내와 함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역 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저희는 그곳 회원들의 신앙과 특별한 영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방문하면서 저는 십이사도로 일하던 초기 시절에 동, 서 아프리카 지역에 관한 업무를 맡았던 때를 회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또한 1985년도에 전세계 교회 회원들이 행했던 특별한 금식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특별 금식으로 모은 약 6백만 달러로 가뭄으로 혹사당한 이디오피아인들의 고통과 굶주림을 덜어 줄 수 있었습니다. 대관장단의 지시로 아프리카에 가서 그곳 주민들의 필요 사항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특별 기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제언을 하라고 하였을

때 글렌 엘 페이스 형제님과 저는 교회 회원들이 후하게 낸 헌금의 열매를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가뭄이 극심한 나라의 난민촌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곳은 대단한 불모지였습니다. 저희들은 중앙 적십자사와 중병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야전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끔찍하고 가련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저희는 간이 침대에 누운 채 자녀들에게 음식을 떠 먹이며 달래는 병든 어머니들을 보았는데, 그들 중 대다수는 눈동자에 초점을 잃고 있었으며 극한 아사 상태에서 팔과 다리는 연필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았던 것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디오피아 국민들이 음식이 없어서 신체적으로 기아 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영적인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그들 중 태반은 어디서 영적인 양분을 찾을 수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리 저리 방황하고 있는데, 이는 또다른 형태의 애처로운 난민인 것입니다. 참된 영적인 빛과 지식을 갈구하는 사람들은 성신의 권세로 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영은 빛을 주시며 사람들에게 영원한 인생의 목적을 깨우쳐 줍니다. 교회 회원들은 영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상 앞에 와 앉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도록 권유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영적인 지식을 그들과 나뉘어 함을 알게 됩니다.

위대한 물문경의 예언자 야곱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로 나와와 멀하거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잔치하여 너희 영육이 기쁨 가운데 살찌게 하라." 나중에 니파이는 그의 무리에게 이르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라. 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행하여야 할 바를 모두 전하여 주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선택 받은 예언자이신 고든 비헝클리 대관장님께서는 최근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모든 회원들은 남자나 여자나 소년이나 소녀 등 각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큰 책임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되[어]'(모로나아서 6:4) 각자가 주님의 사업과 방법에서 성장과 발표와 훈련의 기회를 갖고..."

"이 사업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 각자에게 관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달성한 것을 숫자로 표현하지만 우리의 모든 노력은 개인의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성도의 빛, 1995년 7월호, 51~52쪽)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인간에게 불사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그의 신성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회 회원들은 복음이 주는 영양분을 섭취하겠다는 욕구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채워지기 전에 "의에 주리고 목말라"야만 합니다.(마태복음 5:6)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려는 소망을 갖기 전에 우리 자신들 내에서 그러한 것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참된 복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삶과 사명에 관한 간증은 영생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한복음 17:3)라고 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영생은 우리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지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의 거룩하신 아들을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에 관한 단순한 지식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을 확고하게 해주는 개인적인 영적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구하는 것처럼 강도있게, 그리고 집중해서 구함으로써 오게 됩니다.

헝클리 대관장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인용하겠습니다.

"굳건하고 확실한 간증을 얻는 것은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기회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한복음 7:17)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와 연구 및 기도는 이 사업에 대한 신앙을 갖게 해주며, 그 다음에는 그것의 참됨을 알게 해줍니다. 이것은 항상 개인적으로 추구되어 왔던 것이며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양분을 제공하겠다는 소망을 갖기 전에 우리 자신을 강화해야 합니다. 일단 우리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훌륭한 말씀으로 양육되고 그의 상에서 개인적으로 음식을 취함으로써 우리들의 신앙이 강해지고 약동하게 되면, 우리들은 회원 선교사로서 선교사들과 함께 우리들의 가족을 시발로 다른 사람들을 영적인 잔치에 초대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누가복음 22:32)라고 이르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시면서 구세주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구세주께서 그에게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기에 베드로는 근심하여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옵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요한복음 21:17)

만약 우리가 구세주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계명에 순종하면, 우리들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과 발전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 각자가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복음의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의무를 단지 선교사들만이 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고를 받은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이웃을 경고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성하며 막중한 의무는 각 교회 회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언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랑할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주위의 굶주린 자를 돌아보며 우리가 가진 풍족한 것들을 기꺼이 나눌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한 의로운 남자나 여자, 또는 소년, 소녀가 한 것

만큼 큰 일을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정과 가족은 개인적인 신앙과 간증을 기르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인 신앙과 강한 간증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는 사랑으로 가득 찬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 내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이에 따라 생활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매우 커질 것입니다. 경전을 읽고 토론하며, 주야로 기도하고, 매일의 행위에서 주님에 대한 경건함과 그에 대한 순종심이 정형화될 때 영생에 관한 참된 원리가 노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가슴과 영혼에 깊이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식사는 집에서 요리되어지듯이, 가장 튼튼한 복음에 관한 가르침도 가정 내에서 주어집니다. 강하고 충실한 가족들은 강하고 충실한 교회 회원들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대관장단은 세상에 전하는 가족 선언문을 발표하였으며 십이사도 정원회는 가족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선언문에 따르면 가족의 분해는 각 개인과 지역 사회 그리고 나라에 재앙을 가져다 줄거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는 고대 및 현대 예언자들에 의해 예언되어 온 바입니다.

가정 내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 성장의 토대가 마련되어지고 자라나게 되며 아울러 교회는 가정을 지지하고 강화시키는 일을 돕는 방편이 됩니다. 교회가 가정에 복음 원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 보조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많은 영적인 가르침과 성장은 교회로부터 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신중하게 계획된 성찬식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는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그들에 관해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잔치인 것입니다. 감독 여러분, 혹시 여러분 와드의 성찬식이 훌륭한 영적 양분을 공급하는 잔치가 못된다면 와드 평의회, 특히 자매님들께 매번의 성찬식이 좀더 경건한 영적 경험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와드 평의회에서 회원들에게 예배당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분의 거룩한 아들을 경배하는 영으로 가게 되는 여러 건물 중에서도 특별한 장소

가 됨을 가르치는 일을 돕도록 하십시오. 고요하고 평화로운 성령의 속삭임이 예배 모임 동안 거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로 인해 영적인 교리와 양분이 우리들의 생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하십시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가 가르칠 때에는 반드시 복음의 영원한 목적에 관해 뚜렷한 비전을 가지십시오. 암과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던 열일곱 살의 자매가 얼마 전에 저에게 축복을 부탁했을 때 저는 신앙과 복음이 주는 영적인 힘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벨라드 형제님, 죽는 것이 두렵진 않지만 살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가 구세주이시요 구속주이심을 알고 있지만 아직도 해야 할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과거 몇 년 동안 구세주께서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셨으며 저는 그분을 신뢰하고 있으며 형제님을 그의 대표자로 믿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무엇을 원한다해도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기적을 간구했으나 그녀의 요청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님의 평화스러운 영을 지닌 채 숨졌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들은 가정 및 교회 모임에서 계시된 원리와 영감받은 교리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모든 부모나 공과 교사들은 잘 준비해서 주님의 영의 권세로 복음을 가르쳐야 하며 그들의 간증이 새로와지며 현재 및 영생에 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서는 지도자들에게 신권 정원회, 보조 조직, 그리고 스테이크와 와드 평의회에서 가정과 가족의 탁월함을 끊임없이 강조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바로 정규적으로 경전을 연구하고 기도를 드리는 곳으로서, 이로 인해서 가족들은 저마다 모든 점에서 구세주를 따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 지도자들은 모든 교회의 성인 회원들이 성전 의식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조상을 알고 조상을 위한 신성한 성전 의식을 받아야만 합니다.

부모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모든 청소년들이 멜기세덱 신권과 성전 의식을 받고 복음 선교 사업을 위한 준비를 하는 데 필



요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청년들은 마찬가지로 성악을 맺고 지키며 성전 의식을 받을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신성한 성악을 맺고 지키는 일은 주님의 식탁에서 가장 맛있는 코스입니다. 이것은 이 생애 중 갖게 되는 궁극적이며 만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적인 잔치로서 영원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의 살아 계신 예언자께서 성전 의식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고 성전 성악을 지키며 주님의 집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하는 회원들에 대한 위대한 비전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헝클리 대관장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보다 나은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불신앙이 줄어들거나 없게 될 것입니다. 이혼이 거의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빈민과 비통함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더 많은 평안과 사랑과 행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아내와 자녀들이 거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더 많은 감사와 상호 존중심이 우리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기쁘게 바라보시리라 확신합니다.”(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57쪽)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예언자를 통해 인간을 혹사시키는 영적인 굶주림을 없애고 자신의 상으로부터 해아릴 수 없이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온 후 가정과 교회의 지지를 통해서 필멸의 기간 동안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공하도록 돕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찌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요한계시록 3:20)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살아 계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도록 권유하십니다. 요셉 스미스는 말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한 예언자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을 간구하고 영적인 것들을 누리려는 소망을 키움으로써 축복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오, 주여 당신의 교회를 기억하소서”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

이 사업은 구속주의 사업이며, 복음의 좋은 소식입니다. 참으로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훌륭한 대회를 마치게 됩니다. 주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많은 지혜와 영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거룩한 사업에 대한 우리의 간증을 굳건히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원리에 따라 더욱 충실하게 생활하고자 다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분명히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도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음악은 더없이 훌륭했습니다. 우리는 대회의 영에 큰 몫을 하는 헌신적인 음악 담당자들과 함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찬양과 합창은 비할 바 없이 훌륭했습니다.

오늘 음악을 들려주신 태버나클 합창단에 대한 특별한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님과 그의 보좌인 조지 큐 캐넌 장로님과 조셉 에프 스미스 장로님께서 101년 전인 1855년 2월

11일에 당시 합창단에게 보내신 편지를 우연히 본 일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합창단이 국내외에서 획득한 명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하나님의 예술품 중에서 정상의 본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 모든 합창과 음악 활동을 이끌어 나가는 합당한 선두 주자와 모범이 되어, 지극히 순수한 감성과 가사와 화음으로 음악가들과 시인들에게 영감을 주어 마침내 그 빛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모든 나라가 그 음악에 매혹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합창단은 시온의 대업에 위대한 보조 수단이 되며 앞으로도 그러해야 합니다. 음악이라는 영광된 영역의 그 온전성으로 인하여, 진리에 귀가 막힌 수많은 사람들의 귀를 열어주고, 돌처럼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며, 거룩한 것을 사랑하는 귀중한 영혼에 영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듯 우리에게 관해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는 수많은 영혼에게 편견을 없애고, 무지를 일깨우고, 천상의 빛을 비추어 줍니다.”(제임스 알 클라크 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메시지, 6권, 1965-75년, 3:267-68)

이러한 임무를 이 합창단은 지난 일세기도 넘게 담당해 왔습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책임자들이 바뀌었으나, 그 공연의 질은 계속 향상되었습니다. 이 합창단은 교회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입니다. 저는 이 합창단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합



창단이라 생각합니다. 이 합창단이 국내외에서 정상의 영감에 찬 음악을 들려주는 위대한 사명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교회 전체를 대표하여, 재능있는 음악인들로 이루어진 이 헌신적인 모임의 임원들과 지휘자와 반주자 및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른 문제를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저는 미국 전역으로 방송되는 CBS 방송국의 "60분"이란 프로그램의 주임 기자인 마이크 윌레스씨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매주 2천만명 이상이 시청을 합니다.

제가 출연하게 되면, 교회에 대해 비판을 하거나 반대하는 분들도 함께 출연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기대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한편 저는 이것이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문화와 메시지를 적극적인 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겁을 내어 가만히 주저앉아 있기 보다는 과감히 도전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단정했습니다.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여러 촬영 장소에서 인터뷰도 하고, 대화 내용과 말씀 등을 여러 시간 동안 촬영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활동적인 회원들과, 또한 비평하시는 분들도 인터뷰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편집하여 15분 간의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방영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오늘 저녁에 이 계곡에서 방영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결과가 좋게 나오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그런 함정에 발을 들여 놓지 않을 것입니다. 솔트레이크 지역에서는 오후 6시에, 다른 지역은 현지 시각으로 오후 7시에 방영될 것입니다.

커트랜드 성전의 헌납 기도문은 당시 예언자 요셉의 계시로 받은 것으로써, 그는 주님께 이와 같이 간구하였습니다:

"오 주여, 당신의 모든 교회를 기억하시고... 당신께서 손대지 아니하시고 세우신 왕국이 태산이 되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그러하여 당신의 교회가 흑암의 광야로부터 나와서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를 세운 군대같이 두렵게 하소서"(교리와 성약 109:72-73)

우리는 지금 이 훌륭한 간구에 대한 응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국내외적으로 점차 참되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험담하고 방해하는 자, 배교하고 반대의 음성을 높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들은 무대로 걸어 나와 할 말을 하고는 사라져 잊혀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업을 하려 하는 한 언제나 이러한 사람들은 있게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은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진리로 무장한 것발을 든 군대처럼 진군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와 선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전쟁터로 나아가듯 행진하는 주 예수의 군병들입니다.(찬송가 185 장 참조)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조직되어 있는 곳은 어디든 열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구속주의 사업입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입니다. 참으로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복음에 보다 충실한 생활을 하고, 더욱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 두려움없이 열심히 진리를 수호할 것을 마음속 깊이 다짐합시다. 주님의 종으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신앙 생활을 해 나가시는 여러분에게 행복이 깃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 살아 계신 예언자를 지지함

제닛 헤일즈 베킴 자매  
본부 청녀 회장

우리가 지지한다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믿음에 대한 어떤 것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헤**마다 갖는 청녀 대회에 이렇게 모인 청녀들을 볼 때마다 저는 언제나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오늘 밤 저는 성신이 증거하시는 바 하나님의 예언자께서 바로 이 청녀들을 위해 메시지를 준비하셨다는 속삭임에 더한 흥분을 느낍니다.

이 모임의 주제는 “살아 계신 예언자를 지지함으로써 증인이 되라”입니다. 지지함이란 단어를 생각해 보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봅시다. “살아 계신 예언자를 지지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언자가 계시다는 간증을 갖는 것과 다른 말입니까?” 우리가 지지한다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믿음에 대한 어떤 것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예언자에 대한 우리의 간증은 우리가 그 분을 지지할 때 행동으로 바뀝니다.

살아 계신 예언자에 대한 저의 믿음은 초등학교에서 시작되어 성장해 가는 동

안에도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예언자가 계시다는 간증을 갖고 있었지만 예언자를 지지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994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 교회의 대관장을 지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분이 모든 신권의 열쇠를 정당하게 지닌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하여 오는 지시와 권고에 순종하겠다는 성약을 하나님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한 성약입니다.”(“성회”, 성도의 빛, 1995년 1월호, 14쪽)

저는 헤이트 장로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서 예언자를 지지하겠다고 하나님과 거룩한 성약을 맺을 때 하는 거룩한 약속에 대해 상고해 보았습니다.

다음해 4월, 교회의 회원들은 고든 비힝클리 대관장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예언자요, 선견자며 계시자로,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님과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님을 그분의 두 보좌로 지지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보조 조직별로 일어서도록 요청받아 청녀들이 일어섰을 때 저는 그들을 지켜 보면서 자문해 보았습니다. “저 청녀들이 지지한다는 말의 뜻을 알고 있을까?”

그 날 대회에서 힝클리 대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지하는 이 절차는 의례적으로 손을 들어올리는 것이 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된 자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돕겠다는 결의입니

다.”(성도의 빛, 1995년 7월호, 50쪽) 힝클리 대관장님은 또한 교리와 성약 107편 22절을 인용하셨는데 여기에는 대관장단 또는 “세 사람의 관리 대체사”가 “그 직분에 임명 성임되며 교회 회원의 신임과 신앙과 기도로써 지지”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청녀들과 함께 자주 우리의 주제를 토론하면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모사이사서 18:9, 개인 발췌 기록부, 6쪽에서 인용)라는 말의 의미를 묻습니다. 저는 그 말이 우리가 믿는 바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뜻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살아 계신 예언자들을 지지할 때, 특히 지지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지지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자들의 가르침과 조언을 따를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엄숙한 성약을 맺으면서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에게 예언자가 계시며 그 분은 진실을 말씀하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가 개인적으로 내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젊은 아내이자 어머니일 시절, 제 남편은 2년 동안 공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뉴욕 주 롱 아일랜드에 있는 군인 관사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한 이웃과 함께 서로의 종교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그 이웃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남다른 점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복에 관해 간략하게 이야기한 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에는 오늘날 살아 계신 예언자가 계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실로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같았고 그녀는 예언자가 말씀하신 것을 알고 싶어했습니다. 제가 교리와 성약 및 현대의 계시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최근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저는 연차 대회에 관한 것과 예언자의 메시지가 실려 있는 교회의 월간 간행물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정말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의 메시지를 읽지 않은 것을 인정하기가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이야기를 종결지었습니다. “살아 계신 예언자는 있는데



# 새로운 마음으로 경청함

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 자매  
본부 청녀 회장단 제1보좌

그가 말씀한 것은 모른다는 말씀이군요?” 그 상황에서 저는 지지가 의미하는 바를 보여 주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지지란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이얼린을 켤 때, 그 바이얼린이 제대로 조율되어 있는 것이라면 활로 한 현을 켜면서 그 밖의 현들을 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현들이 균형잡히면 소리를 받쳐 줄 뿐만 아니라 소리를 확대시켜 내어 주기까지 합니다.

우리들이 각자 예언자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메시지에 따를 때 우리가 제대로 조율되어 있으면 그 분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은 예언자의 메시지를 느낄 것입니다.

예언자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1편 3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으니라.”

다행히도 오늘날 우리는 위성 및 현대 기술로 예언자를 볼 수 있고 그 목소리도 들을 수 있으며 그 분의 메시지를 읽고 또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 히클리 대관장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모인 우리 청녀들에게 있어 이 밤은 신성한 밤입니다.

오늘 밤 고든 비 히클리 대관장님께서서는 우리들 개개인을 위해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지만 우리 또한 청녀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지도자로서 대관장님과 두 보좌이신 몬슨 부대관장님과 파우스트 부대관장님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음을 대관장님께서 알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대관장단 세 분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대관장단 세 분이 주시는 가르침과 조언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신임과 신앙과 기도로써 세 분을 지지합니다. 다음주 연차 대회에서 우리 청녀 및 지도자들이 손을 들어 살아 계신 예언자들의 가르침과 조언을 따를 때 우리는 “거룩한 성약을 맺고 지키며, 성전 의식을 받고, 승영의 축복을 누릴”(개인 발전 기록부, 6쪽) 준비를 더 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약의 백성임을 행동으로 보임으로써 살아 계신 예언자를 지지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예언자를 통해 여러분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한 어머니입니다. 모든 어머니들처럼 저 또한 제 자녀들로부터 많은 교훈을 배웁니다. 제 개인적인 사담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신다면 그러한 교훈 중 한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집에는 골프광인 아들과 사위가 있는데, 몇 해 전에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프로 선수의 골프 강습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 그들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하던 모습을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한 여름의 느지막한 오후, 골프 가방을 서로 맞바꾸치면서 아들과 사위가 거실로 들어 다녔습니다.

제임스는 신이 나서 그날의 중요 사건들을 보고했습니다. “그 프로 선수가 한 사람 한 사람 앞을 지나가면서 각각의 스윙을 지켜보고는 여러 가지 제안

을 해주었어요.”

“이윽고 제 앞에 다가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윙의 기본기가 좋군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 뒤로 조금만 더 뻗었다가 그대로 쳐 올리세요.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 연습하세요. 누구라도 탄말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은 멋진 스윙을 가졌다고 제가 칭찬하더라고요!’ 그런 후에 그는 다음 사람에게 갔고 저는 계속 연습했어요.”

“그래, 잘되던?” 우리가 물었습니다.

“아뇨, 아직은 아니지만 잘 될 거예요.”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뒤뜰에서 좀 더 연습하기 위해 방을 지나 다른 문으로 나가는 그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시샘을 느꼈습니다.

그처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제게 있다면 참으로 좋지 않겠습니까? -제 삶을 한 번 살펴보고는 “기본적으로 당신은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것 하나만 덧붙인다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해 줄 수 있는 전문가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여자 친구들과 함께 심야 파티를 하던 중에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친구들로부터 여러분의 어떤 점 어떤 점이 잘못되었다고 한 마디씩 듣는 상황에 처하였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추천해 줄만한 것이 못됩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오히려 모두의 기분이 상하게 되기 십상이니까요.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제가 참으로 원하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한 진정한 전문가의



권위 있는 정보입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바로 연차 대회였습니다. 제가 그 대회의 모임들과 메시지들을 갈망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제가 필요로 하던 전문가들이 있으니까요. 그 전문가들은 제 스윙이 기본적으로 좋다고 재확인을 해준 뒤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지시해 줌으로써 큰 변화를 갖게 해주시는 예언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수많은 경험으로 무장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지시는 직접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세계 성신을 통해 오는, 제가 직면한 개인적인 필요 사항을 꼭 들어 맞게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대변자와 성신, 제가 신뢰하는 데 이보다 더 나은 전문가 집단이 또 있겠습니까?

이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 방편입니까! 저희 본부 청녀 회장단은 모든 청녀와 그들의 지도자들이 핑클리 대관장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개인적인 메시지를 얻기를 권고합니다. 그런 연후에 그 메시지를 행동으로 옮겨보십시오. 그에 따라 확연히 다가올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해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어느 청녀 한 명이 이러한 기록을 하였습니다.

핑클리 대관장님께서 하시던 어느 말씀 도중에 여호수아 1장 9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간혹 친구들이 저에게 좀 변해보라고 하지만 저는 제 아닌 다른 사람이 되길 원치 않아요. 저는 제 자신이고 싶은데, 친구들을 잃을까봐 두려워요. 그들을 잃고 싶진 않아요. 예언자께서 이 경전 구절을 읽어 주셨을 때, 그건 마치 그 분이 제 마음을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같았어요. 이제 다시 친구 문제가 생긴다 해도 저는 어떻게 해야 하며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말씀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결코!

다음 권유들을 살펴봅시다.

1. 핑클리 대관장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속독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참 홀

륭한 말씀이었어. 그 분은 내가 좋아하는 연사 중 한 분이야."라고들 쉽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다시 똑같은 문제로 씨름하는 변화없는 삶을 살아 갑니다. 핑클리 대관장님께서 오늘이 모임의 주연사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음 주말에는 그 분과 다른 총관리 역원들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 가짐으로 경청하십시오. 그 메시지들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주님께서 그분의 예언자들 통해 여러분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분의 예언자들을 통해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며 여러분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즉 여러분의 기본 스윙이 멋지다는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분의 예언자들을 통해 여러분이 실천해야 할 지시나 실행으로 옮겨야 할 경고를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2. 다음엔 성신의 도움을 받아 개인적인 메시지, 즉 여러분이 스윙을 잘하기 위해서 고쳐야 할 몇 가지 점들을 찾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읽어 드렸던 편지를 쓴 청녀와 마찬가지로 그 말씀 속에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생각이나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메시지의 해석은 전적으로 여러분만의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계시의 과정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3. 그 메시지를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실천하십시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야고보서 1:22) 이것이 계시의 주요 핵심입니다. 우리가 받은 계시를 실행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자주 말씀해 주신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한 월계반원이 선교 사업에 관한 핑클리 대관장님의 말씀에 부응하려는 열망을 적었습니다. 그녀가 해야 할 선교 사업이란 친구들에게 더 좋은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는 개인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어렵게 느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일찍 학교에서 빠져 나와 친구 집으로 다 같이 비디오를 보러 갔습

니다. 친구들은 미성년자 관람 불가 등급이 매겨진 영화를 보고 싶다고 하면서 그 영화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들 했습니다. 언제나 나만이 착한 사람이야 하는 것에 신물이 났기에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려 했습니다. 다행히도, 친구 한 명이 보기를 거부하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3세 이상의 어린이가 부모의 안내를 받아서 볼 수 있는 영화를 보았는데, 아마 그 영화도 나쁘기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것을 보지 말자고 설득하려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갔어야 했지만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후회스러웠습니다. 그 날 밤 기도하면서 친구들에게 보다 좋은 모범이 되겠다고 주님께 약속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나쁜 말을 버리고, 학교 수업을 빼먹는 일도 그만두었습니다. 몇 명의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학교 수업 빼먹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보다 좋은 영화를 보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보지 않았으면 하는 영화를 친구들이 볼 때에는 그냥 그 자리를 떠납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성공할 때까지 계속 정진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노력할 때 우리에게만 주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부여됩니다. 주님의 도움을 간구 하시며 계속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의 생활과 느낌에서 오는 변화를 주목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그분의 선택된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느낌이 우리를 채울 것입니다. 핑클리 대관장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낮기 위해 좀 더 열심히 노력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충고를 따르기를 간구합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의로운 삶을 위해 지시해 주고 강화시켜 주는 전문가를 갖고자 하는 소망에서 비롯된 열정을 가지고 예언자의 메시지에 가까이 다가가기로 기원합니다. 16세된 청녀의 말을 빌어보겠습니다. "저는 핑클리 대관장님의 모든 말씀을 진실로 믿고 있으며 그 분이 하나님의 참된 예언자임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청녀의 간증이 참됨을 전합니다. 아멘. □



# 낙관을 가슴에 품고 역경을 이겨냄

앤 매리 로즈 자매

유타 프로보 오크 힐 스테이크, 오크 힐 제9와드

저는 또한 제 인생에서 많은 좋은 것들을 대할 때 낙관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살**아 계신 예언자,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을 지지한다는 것은 그분의 권고의 말씀에 귀기울이며 그대로 따르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지난 가을에 있었던 연차 대회에서, 저는 힝클리 대관장님께서 “낙관과 열정”을 가슴에 품고 고난을 견디어냈던 수천 명에 이르는 유럽 성도들의 이민사에 관해 말씀해 주셨던 것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관장님은 우리에게 그들과 같은 모습을 지니도록 권고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받아들이기 힘든 권고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비참함에 빠져 좌절했으며 자기 연민의 수렁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여름 내내 저는 대학 배구 팀의 대표 선수로 선발되기 위해 훈련을 거듭했습니다. 끊임없이 달리고 기구 운동에 의한 몸 만들기 등 힘겨운 연습을 하는데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디어 팀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제 꿈이 실현되어 가고 있다고 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던 제 꿈이 바래졌습니다. 팀 내의 다른 선수들에 비해 제 기량이 모자랐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벤치를 지키고 앉아 팀 동료들을 응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조금이라도 더 경기에서 떨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고 애타게 갈망하였으며, 그렇지 못한데 따른 실망감을 억누르기 위해 애쓰면서 보냈습니다.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 저의 태도로 팀 내의 다른 소녀들과의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그 때문에 전 제 자신을 스스로 나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저로 하여금 그토록 힘겨운 노력을 하게 하시고는 끝내 실망으로 치닫게 하셨던거죠? 선택의 기로에서 번민하며 기도도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던 끝에 저는 팀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배구를 떠나 소홀히 했던 공부와 제 자신의 삶을 다시

찾아야 하는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느꼈던 실망감과 적개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연차 대회가 다가왔습니다. 한 해 중이 기간을 사랑하는 이유는 저희 집에 영이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대회의 말씀을 모든 방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힝클리 대관장님의 말씀은 제가 필요로 하던 사물을 올바르게 조망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권고였습니다.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영의 충만함으로 낙관과 열정적인 마음 가짐을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곤혹스럽던 배구 경험의 아픔을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제 인생에서 좋은 많은 것들, 즉 우정, 공부, 가족 등에 낙관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마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배구를 이겨야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도 벗어날 수가 없을 듯 보였던 궁지에서 벗어난 듯이 헤어날 시작했으며 제 자신에 대해서도 보다 좋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경전을 더 많이 읽었으며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되었으며 영이 제 삶을 다시 채우기 시작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자기 연민의 감정에서 벗어나도록 가르쳐 주신 살아 계신 예언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 분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 우리만큼 기뻐해야 할 큰 뜻을 가진”자가 없었다고 가르친 엘마서 26장 36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감사해야 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즐거워 해야 할 이유 또한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내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커스틴 보이어 자매

유타 주 스프링빌 스테이크 스프링빌 제7와드

매일 밤 잠자기 전에 저는 경전을 읽었습니다.

저는... 깊이 생각해 보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제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제**가 조그만 어린 아이였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제가 어머니 방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께서는 어떤 책을 읽고 울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므로 저는 읽고 계시는 책이 무슨 책이냐고 여쭙 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하나님의 예언자이신 스펜스 더블류 킴볼이라는 분에 대한 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분의 생애 동안 행하셨던 많은 훌륭한 일들에 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때부터 저는 예언자란 내가 신뢰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으며, 특히 제 어머니가 그렇게 느끼셨다면 더더욱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지도자들이 제게 히클리 대관장님의 말씀에서 어떤 메시지를 발견했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이미 그 말씀 속에 저를 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언자의 말씀을 끝까지 읽고 귀기울

임으로써 제가 발견한 개인적인 메시지는 끊임없이 경전을 읽고 그것에 관해 깊이 생각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기 전에 저는 경전을 읽었습니다. 저는 경전의 말씀들을 깊이 생각해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그 말씀들이 사실인지를 여쭙어 보기도 했습니다. 기도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온 가슴이 따스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 주일은 내내 행복했으며 학교 생활도 더 좋았습니다. 공부도 잘되었으며 배운 것도 기억이 잘되었습니다. 또 평상시 같으면 어머니께 말대꾸도 많이 했지만, 그 주에는 어머니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분의 견해도 이해

해 보는 인내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제 자신에 대해 그렇게 좋게 느꼈던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또한 주님께서 제게 경전 공부를 계속하도록 더 많은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저의 간증은 강화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자기 전에 경전을 읽는 것이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남은 생애 동안에도 이와 같은 느낌들을 계속 지니고 살고 싶습니다. 또한 그와 같은 많은 축복들을 계속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축복들은 히클리 대관장님의 말씀에 귀기울임으로써 온 것입니다. 제가 경전을 읽을 때만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워지며, 그러한 놀라운 변화를 갖기를 원합니다.

전세계에 계시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개개인이 예언자의 말씀에 귀기울여 무언가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 분의 충고에 따를 때 여러분은 축복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이 이루어짐을 압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빚지고 있는 몸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언자의 말씀에 귀기울일 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게 예언자를 주셨습니다

앤 프리스콧 자매

유타 주 미드베일 동 스테이크 동 미드베일 제3와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분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도와주시는 예언자를 제게 주셨습니다.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분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울하십니까?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오. 두 발을 딛고 일어서서 크리스마스 노래를 부르십시오. 적극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이 몇 마디 말씀은 제게 큰 의미를 주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이렇게 힘든 시기에 제가 최선을 다한다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힝클리 대관장님께서 하신 말씀들 때문에 제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행복해야 하며 엄마와 가족이 행복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에 회중은 일어나서,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 건물을 가득 채운 사랑의 힘과 영은 믿어지지 않을 만큼 놀라웠습니다. 회회를 나선 후 우리가 한 횡단보도의 정지 신호에 멈추었을 때, 놀랍게도 힝클리 대관장님을 태운 차가 옆에 정지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마구 들떠서 그 분께 손을 흔들었습니다. 대관장님께서 우리들을 보고 손을 흔들어 주었을 때 그 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분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 분의 손을 잡아 본 것도 아니지만 그분으로부터 제가 느낀 사랑은 강력하고도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말일의 예언자가 제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대변자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경전에서뿐 아니라 힝클리 대관장님께서 연차 대회나 영적 모임이나 오늘 밤과 같은 모임에서 가르치신 것으로부터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분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도와주시는 예언자를 제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지난 연차 대회에서 말씀들을 듣는 가운데 저는 무엇인가를 얻고자 시간과 정성을 들였습니다. 힝클리 대관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 분의 영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분이 저희 또래였을 때 자신의 믿음에 따라 진실되이 살아가고자 내린 그 분의 의로운 선택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권고의 말씀을 주시는 대관장님 모습에서 저는 그 분의 부름과 우리에게 대한 사랑과 헌신을 보았습니다. 그 분이 농담하시며 웃으실 때 저는 주님을 섬김으로써 얻는 기쁨을 볼 수 있었습니다.

12월 성탄절기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서 우리 집 형편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아빠는 엄마와 저만을 남겨둔 채 녀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저는 힝클리 대관장님이 예고도 없이 방문하신 어느 스테이크 대회에 함께 하는 행운을 가졌습니다. 그 분께서는 간증을 전하시며





# 영원과 오늘을 위한 닷

보니 디 파킨 자매

본부 청년 회장단 제2보좌

예언자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생활에 적용시키는 것이야말로 그분의 신성한 부름에 대한 간증을 얻는 확실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예언자이신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을 모시고 함께 모임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 분께서는 우리들 각자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분의 영향력을 느낌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신성한 부름에 대한 간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살아 계신 예언자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은 영원을 위한 귀중한 재산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진리로 우리를 묶어 주는 닷이기도 합니다. 예언자에 대한 이 간증은 우리 교회에서 크게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간증 모임에서 자주 이야기하고 들으며 친구들의 질문을 받고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간증을 갖는 것은 우리 자신의 책임이며 성신만이 그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힝클리 대관장님이 우리 아버지의 살아 계신 예언자라는 간증을 가

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귀중한 은사를 얻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청년 시절 어느 겨울 날 제가 솔트레이크 시내에 왔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교회 본부 건물 앞에 차를 주차시키고 요 금기에 막 동전을 넣다가 그 건물에서 한 남자 분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어두운 색의 코트를 입고 있었으며 모직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가 지닌 이상의 것, 즉 제 영혼을 흔들어 놓는 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을 보던 중에 갑자기 그 분이 데이비드 맥케이 대관장님이시란걸 알아차렸습니다. 맥케이 대관장님께서서는 내 앞을 지나치면서 아무 말씀도 없이 단지 온화하게 미소 지으시며 모자를 살짝 들어 올려 인사하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영이 내 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예언자를 보았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예언자를 직접 볼 기회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다행히 그것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오래 전에 그 계단에서 제가 느꼈던 것과 똑같은 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언자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생활에 적용시키는 것이야말로 그분의 신성한 부름에 대한 간증을 얻는 확실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뉴멕시코 주 파밍톤의 청년 고문인 다이애너 레이시 자매님은 청년들이 개인 발전 기록 프로그램에 대해 적극적

이고 긍정적인 것이라는 시각을 갖도록 도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회 중 힝클리 대관장님으로부터 갈렙과 여호수아가 다른 열 명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곳의 자원과 백성들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하도록 지시 받은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는 어떠한 가르침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열 명은 그들이 본 부정적인 것들만 모두 이야기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러한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긍정적인 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불행히도 사람들은 의심하는 자들 쪽을 선택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보호되었습니다. 힝클리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 사업의 장래에 관하여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거나, 편협되게 말하거나 두려움을 표하... 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나’ (잠언 29:18)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71쪽)

레이시 자매님은 이 예언적인 말씀에 감동 받았으며 개인 발전 기록 프로그램이 미래에 관한 모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변화를 시도했고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저의 태도와 아울러 개인 발전 기록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방법을 바꿈으로써 소녀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힝클리 대관장님의 말씀의 영은 내 인생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레이시 자매님의 간증이 예언자를 따름으로써 어떻게 강화되었는지를 아십니까? 그 자매님은 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 자매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단계를 활용했습니다. 그녀는 우선 힝클리 대관장님의 말씀을 읽고 귀기울였습니다. 개인적인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녀의 삶에서나 느낌에서 변화를 인식했습니다.

저는 스펜서 더블류 김블 대관장님이 다니시던 와드에서 성장한 한 청년을 압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교사 부름에 대한 열렬한 간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교 사



업 기간 중에 김볼 대관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젊은 선교사는 자기가 잘 모르는 예언자에 대한 간증을 걱정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새로이 지지 받으신 벤슨 대관장님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는데 금새 그녀의 마음은 영의 따뜻함으로 넘쳐 흘렀고 그녀는 새로운 간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걸 아셨으며 제가 다른 사람의 개종에 이 간증을 나누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라고 그 자매는 말했습니다.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힝클리 대관장님은 모든 사람이 개인적인 간증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5쪽 참조) 저는 이 간증을 간구함에 있어 약간은 겁먹게 될 수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응답을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거나 응답을 받게 되면 그대로 따라야 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 계신 예언자에 대한 간증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생활에 어떤 변화와 축복을 주겠습니까?

여러분과 성신만이 이 질문에 대해 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힝클리 대관장님에 대한 간증이 없다면, 자신의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간증에 의존하십시오. 힝클리 대관장님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공부하고 개인적인 메시지를 발견해서서 그 메시지를 적용하시고 훌륭한 느낌들을 경험하십시오.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여러분의 삶을 위한 메시지를 발견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를 염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 계신 예언자가 계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오늘 밤 우리 모두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그분의 교회를 인도하시며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이 지금 그분의 예언자라는 이 거룩한 간증을 가질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재확인하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참되고 충실하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교회에 진실하십시오. 교회에 매달리십시오. 그렇게 하면 교회는 심한 풍랑 속에서 여러분을 지탱해 주는 닻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장엄한 광경입니다. 이 큰 태버네클이 명량하고 아름다운 청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밤 한 자리에 모이기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훌륭한 모임이었습니다. 연사마다 우리의 정신을 고양시켜 주고 영을 불어 넣어주는 말씀을 하셨으며, 이 아름다운 합창단의 음악과 개회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고를 따르면 여러분은 살아가는 동안 많은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동안 주님의 영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은 12세에서 18세 사이의 청녀들로서, 여러분을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모두는 매우 훌륭한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어려운 선택을 끊임없이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면하는 문제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오히려 좀더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흥미를 끄는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진리의 적은 여러분을 상처내고, 여러

분의 신앙을 무너뜨리며, 여러분을 재미있고 흥미롭지만 치명적인 길로 끌어내리고 싶어합니다.

교회에는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젊은이들이 이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의와 진리 지키기에  
 시은 청년 지체하라  
 우리 원수 물려 올 때에  
 겁을 내어 피하라.  
 아! 선조들이 품은 참되신 신앙  
 순교자들의 생명 바치신 진리  
 정성 다해 수호하라  
 영원토록 굳게 서리라.  
 (“의와 진리 지키기에”, 찬송가 141장)

저는 신앙에 대한 진실함과 자신 및 동료에 대한 진실함과 부모와 조상 및 유산에 대한 진실함과 교회에 대한 진실함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함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앙개조 제13조에는 우리가 정직과 진실을 믿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믿습니다. 자신에게 진실하게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의 차이를 압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두고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른 일을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또 옳은 일을 했을 때도 압니다. 그래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자신에게 진실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로운 삶의 표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에게 진실하다는 것은 정직하다는



뜻입니다. 학교에서 정직하게 생활한다는 뜻입니다. 시험을 치를 때 부정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목숨이 걸린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의과 대학교에서 다른 사람의 답이나 보고 베끼면서 시험을 치렀던 의사에게서 수술을 받고 싶으시겠습니까? 물론 아니겠지요. 우리가 학교에 가는 것은 학문을 배워서 장차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훈련 받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느 교회도 그 회원들에게 영적인 지식뿐 아니라 세상적인 지식까지도 추구하라고 가르치는 경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청녀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한 학교 교육을 모두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움직여 나갈 세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생존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반 남성이나 여성들은 직업을 갖고 일하는 동안 최소한 다섯 가지의 다른 일거리를 가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변화가고 있으며, 그러한 변화에 맞춰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밝은 면은 있습니다. 역사상 그 어떤 세대의 여성들도 여러분만큼 그렇게 많은 기회는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첫번째 목표는 주님의 성전에서 인봉되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며 훌륭한 가족을 양육하는 것이 그 다음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이상을 실현하는 데 교육은 보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생활하십시오. 말일성도인 여러분들이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따위의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주님은 돌판 위에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탐내지 말지니라”(출애굽기 20:15, 17)라고 손가락으로 쓰셨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덕목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 진실해야 합니다. 이 교회의 회원인 여러분과 저는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고리와 성약 121:4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도덕한 문제에 관해 생각조차도 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생각이 악한 행위를 낳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덕으로 생각을 장식하면 하나님 면전에 당당하게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다스림은 영원한 다스림이 될 것입니다.(고리와 성약 121:45~46 참조) 참으로 기적 같고 놀랄 만한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덕적인 죄에 오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은 더욱 그렇습니다. 텔레비전, 잡지, 서적, 비디오 테이프, 이 모든 것에서 유혹을 받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을 상하게 할 뿐입니다. 도덕률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변 여건 때문에 자꾸 옆으로 미끄러지려고 할 때마다 마음을 잡으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멈추십시오. 그렇게 하면 영원히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에게 진실된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내부에 가장 좋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이란 매우 훌륭한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진실되라 그러면 밤 뒤에 낮이 오듯 누구에게도 거짓되지 않을테니”(헐릿, 제1막 제3장, 78~80줄)

여러분 또래의 청녀들 가운데는 자부심을 잃고 고통스러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종류의 것이든 부도덕한 행위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존심만 낮아질 뿐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진실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더욱 자랑스러워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더욱 좋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 관해 통렬한 비평을 해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이 무지하다는 표시일 뿐, 결코 여러분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딸인 청녀임을 나타내 주는 기쁨을 갖고 생활하십시오.

불법 약물에 결코 말려들지 마십시오. 만지지도 마십시오. 그러한 것들을 시험 삼아 먹어 보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독을 피하듯이 그러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여러분 앞에는 훌륭한 미래가 놓여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으로 여러분의 삶은 환히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언젠가 결혼

하여 자녀들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불법 약물을 취하면 여러분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게까지 심각한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취하게 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자신에게 진실 되십시오. 또 여러분의 친구나 동료 및 서로에게 진실되십시오. 그러한 친구나 동료들을 통해 여러분에 대한 좋은 점들을 찾고 그 좋은 점들을 더욱 키워 나가십시오. 절대 여러분의 친구들에 대해 험담하지 마시고 그들에 관해 불친절한 말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말은 반드시 여러분에게로 되돌아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출애굽기 20:16)라고 명하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서로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누구든지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격려를 필요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편이 되어 줄 친구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러한 친구가 되도록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중에는 뉴 이라 3월호에서 제니라고 하는 장애인 소녀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신 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녀는 늘 혼자였고 그다지 매력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반 친구들에게 “난 친구가 필요해. 나하고 점심을 함께 먹을 친구가 필요해. 누가 내 친구가 되어 줄래?” 하고 말했습니다. 한 소녀가 일어나 “내가 친구가 되어 줄게.” 하고 말했으며, 다른 소녀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장애인 소녀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격려해 주었으며 그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장애인 소녀의 어둠던 세상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도 자신의 생활에 새로운 행복을 느꼈습니다.(빅토르 더블류 해리스, “제니의 기적”, 뉴 이라, 1996년 3월호, 12~14쪽)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이 물려받은 유산에 진실되십시오. 안타깝게도 자신의 자녀들을 매우 부당한 방법으로 대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나



아버지보다 여러분의 복리와 행복과 장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보다 많은 삶을 살아오신 세대입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한때는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들은 근본적인 면에서 그 분들이 가졌던 것들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때때로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행동을 규제한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앞에 위험이 놓여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일을 한다면 훨씬 행복해질 것입니다. 어머니는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그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어머니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여러분을 돌보고 양육하셨으며, 여러분이 아플 때 간호해 주시고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어머니가 여러분을 언제나 신뢰하고 계시며 어머니께서 참으로 뛰어난 지혜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조상 때부터 이 교회에 다닌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매우 열심히 생활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진실되시고 그분들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교회에 항상 진실되십시오. 저는 여러분 각자가 오늘 밤제가 이 자리에서 이 교회가 참되다고 한 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교회도 물론 대단히 훌륭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살아 있는 교회"(교리와 성약 1:30 참조)입니다. 교회에 진실하십시오. 교회에 매달리십시오. 그렇게 하면 교회는 심한 풍랑 속에서 여러분을 지탱해 주는 닻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 교회는 결코 그릇된 길로 인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엄숙하게 간증드립니다.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재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그릇된 곳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지도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멸하여 없애실 것입니다. 그분은 마지막으로 왕국을 회복하셨으며, 이는 "영

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교리와 성약 138:44; 다니엘 2:44~45 참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모두 세미나리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조직에서는 여러분을 행복으로 이끌어 주는 교리를 배울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권고와 가르침을 구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이 재미있고 만족스럽게 만들며 치명적일 수 있는 악의 수렁에서 여러분을 구해내고 여러분이 영원한 진리의 햇불을 높이 들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해 주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철학은 변화합니다. 풍습도 변화하고 문화도 변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변한다 해도 복음의 기초는 결코 변하지 않았으며 또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인 여러분들이야말로 얼마나 큰 행운을 얻은 분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곳에서 합당하고 훌륭한 친구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곳에서 유능하고 충실한 교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곳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침례를 받는 것에 견줄 만한 봉사가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저마다 주님의 거룩한 집에 가서 여러분의 봉사가 아니고서는 사후의 세계에서 진보할 길이 없는 분을 대신해 침례를 받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침례를 대신해서 받아 주는 그 분은 세상에 있는 동안 권력이나 영향력이 매우 컸던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침례 의식을 받지 않고서는 영원히 진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의 봉사가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이기적이고 훌륭한 봉사입니까! 자그마한 노력 하나를 통해 여러분은 그 사람이 불사 불멸과 영원의 길로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문의 자물쇠를 열어 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이러한 기회를 주는 다른 조직은 없습니다. 이 교회야말로 가장 비이기적인 봉사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는 조직입니다. 여러분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침례 받은 것으로 이 세상에서 사례를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비이기적이고 매우 훌륭한 일을 함으로써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와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진실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노래했듯이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 곧 그분의 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 그분께 나아갈 수 있으며, 그분께서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위대한 분이시며 우주의 창조자요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기도

에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죄는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범법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며, 불순종도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관련된 문제 한 가지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습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청녀를 포함한 청소년들 중에는 중·고등학교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돌판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와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라"(출애굽기 20:7)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식탁 위에 책을 푼 던지고는 드디어 하루 수업이 끝났다고 좋아하며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저희 어머니께서 들으셨습니다.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으신 듯 제 손을 잡고 목욕탕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곳에서 깨끗한 수건과 깨끗한 비누를 손에 드셨습니다. 그런 뒤 저에게 입을 벌리라고 하시고는 그 때 온 비누



로 제 입을 썼으셨습니다. 저는 엉엉 울며 저항했습니다. 어머니는 꽤 오랫동안 제게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하신 뒤 "이제 두 번 다시는 엄마가 그런 말을 듣게 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맛이 지독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의 꾸지람에 비하면 그것은 약과였습니다. 이후로 저는 그 말씀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었으며, 그때 이후로 한 번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컬은 적이 없었기를 바랍니다.

수년 전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께서 수술을 받으셨을 때의 일입니다. 수술을 마치고 바퀴 달린 침대에 누인 채 집중 치료실로 옮겨지고 있는데, 그분의 침대를 밀던 남자 간호사가 실수로 비틀거리게 되자 주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의식이 거의 들지 않은 상태에 계시던 킴볼 대관장님께서서는 희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제발 이요! 지금 당신이 욕하고 계신 분이 바로 저의 주님입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그 젊은이는 차분한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하고 속삭였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의 가르침, 에드워드 엘 킴볼 편, 1982년, 198쪽 참조)

말에 관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만, 정말이지 청녀 여러분, 추악하고 저속한 말은 절대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그러니 말이 너무나 흔하게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사용해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허수아에서나 견저널 법한 말들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없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어휘 실력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광고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것처럼 불결한 말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마십시오.

영원하신 아버지과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진실되십시오. 다른 사람은 못해도,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여러분은 각자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짐을 나를 때 주님의

도움을 받으도록 하십시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29~30) 그분은 늘 우리들 누구나 모든 짐을 쉽게 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갓 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리셨으며,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시워 끌고다 언덕에 오르도록 강권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통을 받으신 뒤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하게 완전하고 흠없는 분으로 세상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구세주요 구속주였습니다. 그분의 희생과 속죄로 인해, 언젠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며, 불사 불멸과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께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들 개개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7)

아버지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은 필요합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올 수 있는 도움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청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칭송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복음에서 가르치는 대로 생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고 덕스럽게 생활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에게 친절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생활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매우 중요한 분들입니다. 이 사업은 여러분으로 인해 훨씬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도덕한 행위를 하거나 어떤 다른 종류의 악행을 범함으로써 선을 넘어설 때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 한 일로 인해 그만큼 훨씬 약해집니다. 여러분이 진실되고 충실할 때, 교회

는 그만큼 훨씬 강해집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선을 넘어섰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 손을 내밀고 계시며, 교회 안에도 여러분을 기꺼이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을 물리치십시오. 여러분의 처지에 대해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부모님과 상의하고, 감독님과 이야기 나누십시오. 감독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들으시고 은밀하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분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을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복음의 첫째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용서는 신상함의 표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회개에 있습니다. 과거가 죄로 인해 흉하게 변했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은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구원하고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목적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케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찌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찌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1:16, 18)

지금은 바로 과거의 악행을 모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여 좀더 굳건히 서서 자신감과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진실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음대로 생활하시고 신앙에 진실하시고 교회에 매달리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생활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행하고 그럼으로써 많은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어린이에 관한 총관리 역원의 말씀

1996년 4월 6일~4월 7일에  
개최된 제166차 연차 대회 말씀 중에서 발췌함

##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신앙을 지니고 충실하게 생활하시는 이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말일성도로서 똑같이 이 사업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구속주이신 주님을 똑같이 사랑합니다.

##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함으로써 큰 엔다우먼트와 무기보다 강한 힘과 가이사의 돈보다 더 오래 가는 부유함이 주어졌습니다. 이 아기는 왕 중의 왕이요, 만군의 주이시며, 약속된 메시야가 되실 분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교회를 위한 계시와 지도력은 교회 대관장을 통해서 계속됩니다. 그 분은 결코 성도들을 잘못 이끌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는, 이 교회의 예언자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권고하며 간구합니다.

##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지혜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합당한 동반자를 찾으십시오. 교회에 충실히 참석하십시오. 기도도 매일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방법이 더욱 쉬워질 것이며, 마음에 평정과 인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은 위험에 대한 경고를 받게 되며, 성령의 속삭임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

어린 아이들은 자주 "마음의 생각과 뜻"을 주님께 맞춥니다. 나이가 차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어린 아이들은 신앙으로 가득 찼습니다.

##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

제가 소년이었을 때, 교회에서 성장하면서 예언자 요셉은 나이도 많고 위엄이 있으며, 거리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요셉 스미스는 젊고 감정적이며 힘이 있으며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접근하기에 마음이 편했기 때문에 종종 "요셉 형제님"이라고 불렀습니다.

##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

여러분은 주님의 창조물 중 가장 귀중한 창조물 중의 하나입니다. 주님이 뜻하시는 바는 여러분의 삶이 환경에 관계없이 영광스럽게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운명지워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배우는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도자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성신입니다.

## 얼시 텅기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

안식일은 성스러운 날이며, 우리 모두 일요일에 물건을 사지 않겠다는 결심을 할 필요가 있음을 겸손히 간증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율법이며 계명입니다.

## 키스 비 맥멀린 감독 관리 감독단 제2보좌

성신은 영체를 지닌 존재입니다. 성신은 모든 사람들, 즉 어른과 어린이의 영에 말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아주 분명하게 전달됩니다.



# 연차 대회에서 부름 받은 새로운 칠십인



달러스 엔 아치볼드 장로



메릴 제이 베이트먼 장로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모**두 열두 분이 칠십인 정원회에서 봉사하도록 4월 6일, 제166차 연차 대회의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 지지 받았다. 메릴 제이 베이트먼 장로는 브리감 영 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되던 지난해 11월에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으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이 발표되었으나 이번에 부름 받았다. 또한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회원으로 봉사해 오던 달러스 엔 아치볼드

장로와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가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으로 부름 받았으며, 이외에 브루스 시 하펜 장로가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으로 지지 받았다.

그리고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회원으로 부름 받은 새로운 총관리 역원은 다음과 같다. 엘 에드워드 브라운 장로, 셸던 에프 차일드 장로, 케틸 엘국 장로, 윌리엄 볼프 카 장로,

데니스 이 시먼즈 장로, 제럴드 엘 테일러 장로, 프란시스코 제이 비나스 장로, 리차드 비 위스런 장로(하펜 장로 및 다른 새로운 총관리 역원들의 약력 참조)

베이트먼 장로(59세), 1992년 6월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회원으로 부름 받았으며, 그 후 1994년 4월, 관리 감독으로 부름 받았음. 1995년 11월,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으로 부름 받았으

며, 동시에 브리감 영 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되었음. 1996년 1월 1일 총장에 취임했음.

아치볼드 장로(57세), 1992년 6월,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회원으로 부름 받았으며, 현재 브라질 지역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음.

우흐트도르프 장로(55세), 1994년 이래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회원으로 봉사해 오고 있음. 현재 유럽 서 지역 회장단 제2보좌로 봉사하고 있음.

## 브루스 시 하펜 장로

칠십인 정원회



**가**족 관계, 어린이 및 교육에 있어서 저명한 학자인 브루스 시 하펜 장로는 “오늘날 교회의 신념과 그 가르침이

만방에 알려질 필요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지난 25년 동안, 유타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브리감 영 대학교의 제이 르우벤 클라크 법과 대학의 학장을 지낸 하펜 장로는 가정 법률 및 교육에 관해 강연과 저술 활동을 해 왔다. “오늘날 가족 생활에 관한 복음의 통찰력이 법정이나 교실 또는 가정 등 전세계의 모든 곳에서 절실히 필요합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하펜 장로의 확신은 풍부한 종교, 교육, 그리고 행정 경험에

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감독단과 스테이크 부장단에서 봉사했으며, 지역 대표로도 봉사했다. 1973년 브리감 영 대학교의 법과 대학 설립에 기여했으며, 법과 대학의 제1학부에서 가르쳤다. 1978년부터 1985년까지, 그는 리스 대학의 학장으로 재직하였으며, 매 학기당 항상 한 과목 정도는 강의했다. 1989년에 그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대학 관리직으로는 두 번째 서열인 교무처장이 되었으며, 영적 교육적 사명에 초점을 맞추려는 브리감 영 대학교의 최근의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항상 교사나 학자로서 그의 학구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위한 교수

자료로서 자신의 종교적인 지식을 더욱더 많이 활용했다. 그는 인생의 경험에 어떻게 속죄를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주제들을 공부해 왔다.

1940년 10월 30일에 출생한 하펜 장로(55세)는 유타 주 세인트 조지에서 성장했다. 1960년 디시 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는 서독 선교부에서 봉사했으며, 귀환 후에 브리감 영 대학에 다녔다. 종교 수업에 참석하면서 그는 같은 반 친구인 매리 카치너 자매를 알게 되었다. 그들은 1964년 6월 2일에 세인트 조지 성전에서 결혼하였으며, 슬하에 일곱 자녀와 열명의 손자녀들(한 명은 사망함)을 두고 있다.



## 엘 에드워드 브라운 장로

철십인 정원회



**엘** 에드워드 브라운 장로는 1937년 6월 18일, 아이다호 주 프레스톤에서 태어났다. 열네 살 되던 해 어느 날 밤, 그는 그의 아버지와 함께 그들이 살고 있었던 아이다호 주 듀보이스에서 탄광용 석탄차에 석탄을 채

우느라 매우 바빴다. 그의 아버지는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에드워드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였다. "집에 가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집에 도착하자 마자, 그의 아버지는 옷을 걸치시고 기다렸다. 잠시 후 전화 벨이 울렸다. 그의 어머니가 심한 자동차 사고를 당하였다는 것이었다.

"저는 신문 배달을 하던 중에 눈 위에서 무릎을 꿇고 저의 어머니의 생명을 구해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 드렸던 그 날 밤 일이 생각납니다."라고 브라운 장로는 회상한다. 그의 어머니는 많이 다치셨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시간이 흘러 청년 에드워드는 당시 북극동 선교부의 소속이었던 한국에서의 선교 사업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그의 사랑을 더욱 깊이 키워 나갈 수 있었다. 그는 1960년 8월 3일 로간 성전에서 캐롤 이위 자매와 결혼하였으며, 34세가 되던 해에 아내와 다섯 자녀들(현재는 여덟 명)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 선교 부장으로 봉사했다.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브라운 장로의 중요한 직업이 되었다. 유타 주립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는 교회 교육 기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석사와 박사 학위 모두를 캔자스 대학교에서 취득했다. 33년 동안 교회 교육 기구에서 봉사하는 동안, 그는 처음에 세미나리 교사와 대학부 교사를 거쳐 다음에

는 동 아이다호 주의 지역 책임자가 되었다. "교사로서 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경전에 심취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바로 오늘날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포카텔로에서 살았던 몇 년 동안, 그는 엘라메다 제1와드의 감독으로서 봉사하였으며, 포카텔로 아이다호 대학교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했다. 그는 사회적으로는 포카텔로 시장으로서 시의원 및 세 차례나 아이다호 주의원으로 봉사했다.

1995년 브라운 장로는 북미 북서 지역의 지역 관리 역원으로 부름 받았다. "저는 주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구세주를 사랑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희망이시며, 이 세상의 희망이십니다."라고 그는 설명한다.

## 셸던 에프 차일드 장로

철십인 정원회



**셸**던 차일드 장로는 어렸을 적부터 힘든 노동의 가치를 배웠다. 1938년 5월 8일에 태어난 그는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근처에 위치한 조그마한 마을인 유타 주 시라쿠스 부근에 있는

20에이커 정도의 가족 농장에서 농장 일을 도우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셸던이 여덟 살이었을 때, 그의 부모는 그에게 송아지 한 마리를 길러 보도록 주었다. 그 송아지를 팔았을 때, 셸던은 조심스럽게 십일조로 바칠 돈을 세어서 그것을 가지고 감독에게 갔다. 돈을 다시 세어 보았을 때, 셸던은 실제로 내야 할 십일조보다 더 많은 액수의 돈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그는 그 십일조를 그대로 감독에게 드렸다. 그 후로도 그는 주님과 관련된 일이라면 언제나 관대했으며, 그러한 그의 행동은 그의 생애를 통해 계속될 것이다.

그는 유타 주립 대학교와 유타 대학교를 다녔다. 1957년 그는 조안 핵크 자매와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하였다. 그는 그의 동생 빌과 함께 알 시 윌리 상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용구점을 동업했다. 몇 해가 지난 뒤, 두 형제는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는데 일곱 개의 체인점이 있는 가구점을 열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도, 셸던은 교회의 부름을 자신의 생애에 있어 가장 우선 순위 두었다. 시라쿠스 제2와드에서, 그는 장로 정원회 회장, 그 후에 감독으로 봉사했다. 후에 그는 유타 주 시라쿠스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 받았다. 교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던 이 기간 동안에 그는 지역 사회 봉사과 여섯 자

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은 가족을 통해 오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의 중요한 교회 봉사 중의 하나는 뉴욕 주의 뉴욕 선교부에서 선교부장으로 봉사하라는 부름과 함께 왔다. 그들은 귀환하자마자, 그의 직장 근처인 솔트레이크시티로 이사했다. 귀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유타 북 지역의 지역 관리 역원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아들였다.

철십인 제이 정원회의 최근 부름에 대해, "저는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강한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주님께서 제가 행하도록 바라시는 일들을 제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차일드 장로는 말한다.



## 켄틴 엘 쿡 장로

칠십인 정원회



“저는 제가 복음을 믿지 않았던 때를 한번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쿡 장로는 말한다. 한 사업 동료는 그를 “결의가 굳고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쿡 장로는 “심는 대로 거두리라”라는 말을 믿고 있다. 그는 어렸을 때 복음을 받아들였

는데, 그 이후로 항상 복음에 대한 그의 강한 간증은 그가 자신의 인생의 성약들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1940년 9월 8일, 유타 주 로간에서 쿡 장로는 버니스와 제이 버는 쿡 사이에서 삼남매 중 한 명으로 태어났다.

“양친 모두 제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게 완전한 모범을 보여 주셨으며, 아버지께서는 제게 참으로 귀중한 권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쿡 장로가 열 다섯이었을 때, 그는 의과 대학에 갈 것인지 선교 사업을 나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그의 형을 돕기 위해 함께 토론을 하였다.

“선교 사업이 정말 훌륭한 것인가, 아니면 복음이 참되기 때문에 그것은 해야 할 일인가? 결국 제 형님은 선교 사업을 나가기로 선택하였고, 그러한 생각과 결정의 과정은 제 인생에서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960년부터 1962년까지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마친 쿡 장로는 선교 사업은 “저에게 있어서 발전의 기초가 되는 사건”이라고 말한다. 그는 1962년 11월 30일 로간 성전에서 고등학교 때 친구인 메리 가디와 결혼했다. 1963년 유타 주립 대학교를 졸업하고 1966년에 스탠포드 법과 대학을 졸업했다.

캘리포니아 주 힐스버로우에서 살면서 캐더린, 래리, 조셉의 세 자녀를 두고 있는 쿡 부부는 가족, 교회, 직업 그리고 지역 사회 등의 일에 모두 열심이다. 쿡 장로는 27년 동안 변호사로 그리고 3년 동안은 캘

리포니아 헬스케어 시스템사의 회장으로 봉사하는 등 자신의 직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14년 동안 시 변호사로 자원 봉사 활동을 했다. 교회에서는 15년 동안 샌프란시스코 스테이크 부장단에서 봉사했으며, 지역 대표로 그리고 후에는 북미 서 지역 지역 관리 역원으로 헌신적인 봉사를 해왔다.

“저는 항상 간증을 지녀 왔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생애에서, 심는다는 것은 또한 거두어들이는 것에 대한 약속임을 의미해 왔습니다.”라고 쿡 장로는 말한다.

쿡 장로는 어린 시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강한 간증을 가졌다. 그것은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서 선행을 실천하는 삶과 미래의 봉사에 대한 결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 윌리엄 롤프 카 장로

칠십인 정원회



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 새로이 부름 받은 윌리엄 롤프 카 장로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교회와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는 매우 헌신적인 그의 부모로부터

배운 것이며, 이같은 봉사에 대한 소망은 그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저의 성품은 매우 적극적입니다.”라고 카 장로는 말한다. 그러나 자신의 새로운 부름에 대한 중요성과 도전을 고려해 볼 때, 그는 압도되었다 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는 형제님들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압도됩니다. 또한 저는 제가 배워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카 장로는 유타 주립 대학교, 웨버 주립 대학(현 대학교), 유타 대학교, 덕시 대학(학장 역

임) 및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강단에 서거나 행정직에서 근무했다. 1963년 선교부장으로 부름 받았을 당시, 그는 유타 주 고등 교육 담당 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금년 7월까지 텍사스 주 달라스 선교부의 선교부장으로 계속 봉사할 것이다.

1935년 6월 29일 유타 주의 트레몬톤에서 태어난 롤프 카 장로는 농장에서 성장했다. 그는 유타 주립 대학교에서 농업 학사 학위를 받았는데, 군복무 후에 학생 활동 책임자로 일해 달라는 유타 주립 대학교의 제의를 받기 전까지는 자신의 생을 농장에서 보낼 생각이었다. 후에 그는 결혼 및 가족 관계학 분야의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마친 후, 그는 유타 주립 대학교에서 제널 레이볼드를 만났으며, 1960년 9월 15일 로간 성전에서 결혼했다. 카 부부는 슬하에 여섯 자녀를 두고 있다.

카 장로는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했으며 또한 감독단과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에서 봉사했다. 1960년대에는 2년 동안, 그는 말일성도 학생회를 조직하는 일을 돕는 데 참여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봉사에 대한 자신의 풍부한 경험들을 돌아보면서, 카 장로는 “구세주의 사랑과 복음의 변함 없는 간증”을 가져왔던 경험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것들은 제가 미래에 할 수 있게 될 어떤 것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 데니스 이 시먼즈 장로

칠십인 정원회



“**주**님께서는 제 인생을 통하여 여러 가지 중요하고 의미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 인생에서의 모든 직업의 추구, 모든 의미있는 활동, 선한 모든 것들은 저의

복음의 가르침 및 간증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라고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일원으로 부름 받은 데니스 이 시먼즈 장로는 말한다.

1934년 6월 27일, 유타 주 비버 댐에서 태어난 시먼즈 장로는 1953년 10월 15일 로간 성전에서 캐롤린 도프 자매와 결혼했다. 유타 주립 대학교에서 음악 교육학 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한 후에, 캘리포니아 주 리버모어 근처의 공군 기지에서 체육 담당 장교로 2년 동안 복무했다. 이어서 그는 유타 주 트레몬톤에 있는 학교에서 2년 동안 교편을 잡았다. 그런 다음,

그와 그의 가족들은 네바다 주 라스베이저스로 이사를 갔는데, 그 곳에서 시먼즈 장로는 네바다 [핵] 실험소의 1급 계약자로 근무했다. 1965년 그의 가족들은 워싱턴 디시로 이사했으며, 시먼즈 장로는 그 곳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였으며, 한 네바다 출신 상원 의원의 입법 보좌관으로 일했다.

법률 사무소를 열기 위해 라스베이저스로 돌아온 직후, 시먼즈 장로는 감독으로 부름 받았으며, 1977년에는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 받았는데,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하면서 그는 그의 와드에서 복음 교리반 교사 및 배구 코치로도 봉사했다. 1986년 새로 조직된 워싱턴 디시 북 선교부의 초대 선교부장

으로 부름 받은 시먼즈 장로는 아내와 함께 다시 워싱턴 디시로 돌아왔다. “선교 사업은 우리의 생활에서 가장 위대한 경험이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시먼즈 장로는 성악을 즐기며, 몇몇 청소년 합창단과 스테이크 합창단을 이끌어오고 있다. 그와 그의 아내 슬하에는 여섯 자녀와 여덟 명의 손자녀들이 있다.

칠십인으로 부름 받았을 때, 시먼즈 장로는 지역 관리 역원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개개인을 알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헝클리 대관장이 이 지상에 주님의 대표로 신성하게 부름 받았음을 확실하게 간증드립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 제럴드 엘 테일러 장로

칠십인 정원회



“**목**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농부였던 우리들은 주님께 의지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관수를 위한 깊은 우물이 없었기 때문에, 인공으로 만든 저수지에 의존했습니다. 만약 충분한 비가 오지 않으면, 물

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저는 많은 가족들과 와드 회원들의 금식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멕시코 치와와의 콜로니아 듀블란 말일성도 거주지에서 성장했던 제럴드 엘 테일러 장로는 말한다.

테일러 장로의 증조부는 브리감 영을 따라 포장 마차를 이끌고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들어왔으며, 그의 조부는 멕시코의 콜로니아 후아레스에 정착하였다. 테일러 장로는 1937년 3월 22일에 콜로니아 듀블란에서 태어났으며, 대학 시절과 선교 사업 기간 동안을 제외하고는 평생을 그 곳에서 살

았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세 살이었을 때 돌아가셨다. 후에 그의 아버지는 아이가 아홉이 있는 미망인과 재혼하였는데, 이렇게 해서 그의 형제들은 모두 열 다섯이나 되었다. “저는 어머니가 두 분이나 계셨던 축복을 받았습시다. 저는 자신감과 신앙, 그리고 많은 형제 자매들의 사랑에 의해 강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테일러 장로는 말한다.

제럴드 테일러 장로는 아르헨티나로 선교 사업을 가기 위해 브리감 영 대학교를 잠시 휴학하였다. 그 후 그는 축산학 학사 학위로 브리감 영 대학교를 졸업하기 몇 달 전에 아내 샤론 윌리스를 만났다. 그들은 1963년 6월 5일 맨타이 성전에서 결혼하였으며, 슬하에 여섯 자녀와 네 명의 손자녀들을 두고 있다.

테일러 장로는 축산업과 사과 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그는 교회에서 지부장, 스테이크 선교부장, 스테이크 집행서기 및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해 왔다. 1986년 그는 칠레 산티아고 남 선교부를 관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멕시코로 돌아오자 마자 그는 감독으로 부름 받았으며 후에 지역 대표로 봉사했다.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일원으로 부름 받기 전에 그는 지역 관리 역원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저는 제가 받았던 유산에 감사드립니다. 말일성도 거주지에 살았던 사람들은 회생과 순종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제게 보여 주었으며, 매우 큰 지지를 보내 주었습니다. 교회는 제생의 전부입니다. 저는 복음에 감사드립니다.”



## 프란시스코 제이 비냐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보**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달려 있다고 최근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일원으로 부름 받은 프란시스코 제이 비냐스 장로는 말한다.

“인생에서 저와 제 아내는 봉사를 통해서 중요한 모든 것

들을 배웠습니다. 실상, 우리의 간증의 대부분은 주님에 대한 봉사를 통해서 오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한다.

비냐스 장로는 그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봉사하였을 때, 그러한 간증을 나눌 수 있도록 자신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었던 복음에 대해 매우 감사드린다. 그는 아르헨티나에서 지역 관리 역원, 세 번의 지역 대표, 스테이크 부장, 감독 및 선교부장으로 봉사해 왔다.

1946년 12월 28일에 스페인의 세빌에서 태어난 비냐스 장로는 스페인에서 1963년부터 교회 교육 기구의 대표로 봉사해 오고 있다. 비냐스 장로의 부모는 1948

년에 스페인에서 파라과이로 이민을 갔는데, 이제 스페인에서의 봉사가 그에게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귀향의 기회가 된 것이다. 비냐스 장로의 부모는 이민 간 지 2년 후,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에 정착하기 전에 그 당시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던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로부터 침례받았다.

몬테비데오에서 자라면서 비냐스 장로는 농구에 대한 관심을 키웠으며, 마침내는 교회에서 감독으로 봉사하면서 우루과이의 프로 농구 리그전에서 뛰게 되었다. 그는 체육 교육학을 전공했으며, 잠시 농구 코치로 일하기도 했다.

1977년 몬테비데오에서 교회 교육 기구의 대학부 책임자로 일하기 전에, 비냐스 장로는 바이어사의 생산 비용 관리자로 일했으며, 그후에는 우루과이 지역

사무실의 재정부에서 근무했다. 후에 그는 우루과이 교회 교육 기구의 코오디네이터가 되었다.

1966년 12월 30일에 비냐스 장로와 크리스티나 자매는 몬테비데오에서 결혼했다. 그들은 1974년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교회 봉사와 직업상 여러 곳을 여행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야하므로, 비냐스 장로와 크리스티나 자매는 그들의 세 자녀들과 함께 가능하면 더 많은 가족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

“이제까지 제가 수행했던 모든 부름은 제가 이 새로운 부름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저를 준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전 특히 총관리 역원들의 영향과 가르침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은 하나님 의 종들이십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 리차드 비 워스린 장로

칠십인 정원회



**리**차드 비 워스린 장로는 최근 30년 동안 대중의 태도와 의견을 조사하는 가운데 세상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확고히 했다.

“컨설팅과 여론 조사 등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이 느끼는 혼돈, 좌절 및 절망감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화평을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이를 실천하는데 있습니다.”라고 워스린 월드와이드 사의 회장이자 최고 경영자인 워스린 장로는 말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워스린 장로의 동생인 워스린 장로는 두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부장단에서, 고등 평의원과 감독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지역 대표로 봉사해 왔다.

1931년 3월 15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출생한 그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서 선교 사업을 하였다.(1951~1953년) 그 후 그는 미 육군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에는 유타 대학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와 경제학 및 통계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워스린 장로와 제럴드 매첸들러 자매는 1956년 11월 23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하였다. 워스린 장로는 자신과 여덟 자녀들에 대한 워스린 자매의 헌신이 가정에 많은 축복을 가져왔다고 말한다.

1969년, 리차드 워스린 장로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여론 조사 기관을 하나 설립했다. 초기부터 그의 업무 수행 능력은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로널드 레이건 주지사의 관심을 끌었으며, 레이건 주지사는 그에게 1972년 자신의 주지사 재선 선거 운동에서 여론 조사 참모로 일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후에도 레이건 주지사는 1980년과

1984년 대통령 선거에서 그에게 대선 전략을 세워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가족과 더욱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소망과 더불어 스키와 승마와 같은 야외 활동 등을 좋아하기 때문에, 리차드 워스린 장로와 그의 가족들은 14년 동안의 워싱턴 디시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1995년 다시 유타로 돌아왔다.

워스린 장로는 자신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기를 바란다. 스위스에서 젊은 선교사로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대로 생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복음의 진리가 화평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지켜 보았다. “그와 같은 경험들을 통해 복음을 쉽게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바로 오늘날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기쁨과 화평의 메시지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 힝클리 대관장 방한 특별 한국 대회

5월 21~22일 양일간 부산과 서울에서



교회의 제15대 대관장으로, 한국에 대한 지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내외분이 김볼 대관장 이후 교회 대관장으로서 16년 만인 지난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 위스린 장로 내외분 및 북아시아 지역 회장인 데이비드 이 소렌슨 장로 내외분을 동반하여 한국을 방문하였다. 홍콩 성전 헌납을 위한 여정에 일본을 거쳐 한국에 도착한 힝클리 대관장은 지난 5월 21일 부산과, 22일 서울에서 개최된 특별 한국 대회를 감리하였다.

예정보다 조금 늦은 5월 21일, 낮 12시 30분 김해 공항에 도착한 힝클리 대관장은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UN 묘지를 방

문하여 6.25동란 중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세계 자유 우방 장병들의 넋을 위로했다.

UN묘지 참배 후, 해운대 하이얏 호텔에 여장을 풀 힝클리 대관장 일행은 이어 오후 4시 30분 부산 스테이크 광안 와드에서 열린 부산 선교부와 대전 선교부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사 대회를 감리하였다.

이 대회에는 힝클리 대관장을 비롯한 총관리 역원과 지역 관리 역원인 김종열 장로, 고원용 장로 그리고 부산 선교부의 허드 선교부장과 대전 선교부의 홍병식 선교부장 및 부산 지역의 몇몇 신권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선교사 대회 후, 부산 지역의 초청된 전·

현임 신권 지도자들 부부와 함께 만찬을 나누었으며, 7시 20분 쯤, 부산 및 부산 서·마산·대구 스테이크에서 모인 2,1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해서 기다리고 있는 대회장(부산KBS홀)에 도착하였다.

힝클리 대관장이 감리하고 부산 스테이크의 양기욱 스테이크 부장이 사회를 본 이 대회에서는 소렌슨 장로와 소렌슨 자매, 위스린 자매와 위스린 장로 그리고 힝클리 자매가 말씀하였으며, 마지막 연사로 등단한 힝클리 대관장은 "여러분이 신앙 속에서 걸어가면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결코 굶주리거나 헐벗지 않고 거주할 곳이 없지 않으며 참으로 행복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만이 축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이 위대한 나라도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였다.

이튿날 핑클리 대관장은 김해 공항을 출발하여 오전 10시 10분경에 서울 김포 공항에 도착하였다. 11시 15분에 레이니 주한 미 대사를 예방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공항에서부터 밀리기 시작한 교통 체증으로 미 대사관에는 11시 30분쯤에 도착하여 간단한 인사말을 전한 후, 기자 회견을 위해 플라자 호텔로 향했다.

12시 10분부터 시작된 기자 회견에는 조선 일보를 비롯한 국내 10개 주요 일간지와 연합 통신, 코리아 헤럴드의 문화부 종교담당 기자들이 참석하여 오찬 및 기자 회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위스린 장로와 북아시아 지역 회장인 소렌슨 장로 및 지역 관리 역원인 김종열, 고원용 장로 그리고 한국 공보 책임자인 이도환 형제가 배석하였으며, 오찬 중에는 은누리 합창단이 아름다운 음악으로 말일성도 음악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기자 회견 후 숙소인 서울 하이아트 호텔에 여장을 풀 핑클리 대관장 일행은 잠깐의 휴식을 취한 뒤, 오후 4시 30분 영동 스테이크 센터에서 서울 선교부와 서울 서 선교부의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사 대회를 주관하였다. 이 대회에는 서울 선교부의 전종철 선교부장과 서울 서 선교부의 스웨인 선교부장 그리고 동행한 총관리 역원과 지역 관리 역원이 함께 참석하였다.

이 모임에 이어 6시부터는 서울과 경인 지역의 초청된 전·현임 신권 지도자 부부와 만찬을 나누었는데, 핑클리 대관장은 참석한 신권 지도자 부부와 일일이 개인적으로 인사를 나누었다.

한편 이날 서울 대회가 열리는 올림픽 공원 역도 경기장에는 오후 5시부터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여 모임 시작 30분전인 7시에 이미 대회장이 주님의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성도들로 가득 찼다.

모임 시작 10분 전, 핑클리 대관장 일행이 참석한 5,500여 명의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을 부르는 가운데 입장하였다.

이 대회에서는 소렌슨 장로, 소렌슨 자매, 위스린 자매, 위스린 장로, 핑클리 자매가 핑클리 대관장의 지명을 받아 말씀을 하였으며, 마지막 순서로 말씀을 한 핑클리 대관장은 "이 땅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선택 받은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녀야 하므로 다시 이곳에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한국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저의 사랑을 전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나라와 이 백성에 대한 큰 사랑을 전해 주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오전에 서울 성전을 방문한 후, 오후 1시경 곧바로 다음 여행지인 대만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 핑클리 대관장 한국 관련 주요 역사

- 1960년 겨울: 한국에 처음으로 방문함
- 1961년 5월: 한국 교회를 돌아보러 방한함 5·16을 목격함
- 1964년 4월: 휴 비 브라운 부대관장과 십이사도의 일원으로서 한국을 방문함
- 1968년 4월: 태평양 지역을 관장하게 됨에 따라 한국을 방문함
- 1975년 8월: 16일 한국 대회를 위해 김봉 대관장과 함께 한국을 방문함
- 1979년 9월: 부산 스테이크 조식을 위해 방한함
- 1980년 10월: 한국 대회를 위해 김봉 대관장과 함께 한국을 방문함
- 1985년 12월: 한국 서울 성전 헌납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함
- 1986년 : 부산 지역 대회 감리를 위해 방한함
- 1987년 9월: 아시아 지역 회장이던 더글라스 에이치 스미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던 델린 에이치 욱스 장로와 함께 대관장단 제1보좌로서 서울 지역 대회를 감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함
- 1991년 4월: 아시아 지역 회장이던 앨런 알 리버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던 에이 맥스웰 장로와 함께 광주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된 광주 지역 대회와 서울 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서울, 서울 서 지역 대회 참석차 방한함
- 1995년 3월: 교회의 15대 대관장으로 선임됨
- 1995년 9월: 은누리 합창단 미주 순회 공연시 합창단을 접견함
- 1996년 5월: 홍콩 성전 헌납을 위한 여정에 한국을 특별 방문하고 특별 한국 대회를 감리함



위로부터: 공항 도착, UN모지 방문, 대회에 참석한 성도들, 신권 지도자 만찬에 참석, 기자 회견



# 부산 대회 말씀 요약

## 1996년 5월 21일

### 부산 KBS홀

#### 소렌슨 장로

정말로 아름다운 음악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합창단의 합창을 들을 때 마치 천사들의 노래를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천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합창도 필요합니다.

이 특별 부산 대회가 가능하도록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임을 위하여 특별히 신권 지도자들에게서 여러 가지로 잘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자매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힝클리 자매님께도 감사드리는데, 온화하고 인자하게 남편인 대관장님을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워스린 자매님과 저의 소렌슨 자매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워스린 자매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길에 관해서 어떠한 짐도 결코 무겁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부산에 있는 모든 자매님께서도 주님의 길을 가는 데 결코 짐이 무겁지 않다고 생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언자께서는 많은 영감에 찬 말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의 이유는 예언자께서 교회 회원들을 아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사랑하십니다. 이번에 아시아 지역을 여행하고 계신데, 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입니다. 모든 형제와 모든 자매, 그리고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입니다. 저는 예언자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두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은 모든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은 성신의 권세로써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살아 계신 예언자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뜻을 전하고 계십니다. 저는 바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뜻을 전하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워스린 장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아주 훌륭한 광경을 볼 수 있어서 기쁩니다. 1990년에 저의 아내와 저는 이곳에 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과 같이 많은 성도들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오늘 듣는 아름다운 합창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합창은 정말로 훌륭했습니다. 제가 잠시 태버네클 합창단의 합창을 듣고 있구나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합창단을 정말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임과 또 다른 모임들을 잘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름다운 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알려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께는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라는 아주 훌륭한 친구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계시자요 선견자이십니다. 그 분은 어려운 일이나 좋은 일이나 저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분의 그러한 많은 경험들을 통하여 여러분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힝클리 대관장님과 함께 하다 보면 그 분이 교회를 위해서 정열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큰 정열입니다. 그 분과 함께 있지만 해도 그러한 정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분의 훌륭함에 우리는 전부 놀라게 됩니다. 그는 어떤 것들의 이름이나 날짜 같은 것까지 너무나 잘 기억합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다. 그리하여 유혹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아주 강한 간증을 가지고 있으며, 요셉 스미스가 진정한 하나님의 예언자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 오늘 날 참된 복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힝클리 대관장님이 이 왕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열쇠가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힝클리 대관장님의 말씀을 듣고 모범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부산 대회에서 말씀하는 소렌슨 장로



부산 대회에서 말씀하는 워스린 장로



## 힝클리 자매

아마 오늘 저보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행복하신 분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 아주 많이 왔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세 번째는 제가 한국에 오는 것이 마지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찬송가를 부를 때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지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합창단만 훌륭하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아주 훌륭하게 노래를 부르십니다. 제가 아주 오래 전에 9살이던 저의 딸과 함께 한국에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는 아주 적은 인원이 참석한 성찬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다른 모임에 참석하시느라 매우 바빴습니다. 그래서 저의 딸과 저는 언덕에 있던 교회를 찾아가서 성찬식에 참석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몇몇이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어린 딸은 저를 쳐다 보면서 아주 놀라워 했습니다. 딸이 저에게 말하기를 한국 사람들처럼 찬송가를 잘 부르는 사람들이 없다고 말했고, 저는 그것에 대해 내가 전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었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 회원이었고 교회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저는 훌륭한 신앙을 가진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저의 가족은 5대째 말일성도 가족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한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위해 훌륭한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기쁘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을 압니다.

제가 이 말씀을 끝내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에 있을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오랫동안 함께 한 사람들과 함께 있기에 감사합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저에서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마음 다해 그분을 섬긴다 해도 무익한 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한국에 있는 저의 친구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여 주신 신앙과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복음이 참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사업을 이끌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저의 남편에게 감사하며 남편이 가지고 계신 신권에 대해 감사합니다. 저는 저의 남편이 아주 충실하게 교회에 온 마음을 바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한국에 있는 저의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저의 신앙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말씀 요약 : 이희숙 자매  
사진 촬영 : 송선에 자매  
김중철 형제  
강희준 형제



위로부터: 부산 대회에서 말하는 힝클리 자매, 부산 연합 합창단.

부산의 선교사 대회에서 말하는 힝클리 대관장.

부산 대회를 마쳐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을 함께 부르는 성도들



## 우리는 성약의 백성들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안녕하십니까?(한국말로) 합창단이 아주 훌륭하게 노래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합창단의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합창단이 '전승가'를 불러 주십시오. 이제 그들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기 때문에 노래를 두 번 부를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합창단이 전승가를 부름)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훌륭하게 피아노를 연주해 주신 자매님 감사합니다. 이제 태버나클 합창단을 지휘하시는 오틀리 형제를 이곳에 보내서 뭐 좀 배워 오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훌륭한 음악을 들려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이 자리에 와 계시는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여행을 하면서 이곳에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여러분들께 참으로 뭔가를 전해야겠다는 책임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참으로 성령이 저를 인도해 주시도록 간구드립니다.

저희들은 홍콩 성전을 헌납하기 위해 아시아에 왔습니다. 제가 잠시 생각하기를 아시아에 갈 때 동경과 서울을 둘러보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산도 생각했습니다. 제가 부산을 가지 않는다면 서울도 가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곳에 있는 저의 친구들을 만나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부산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이곳에 있는 선교사들과 가졌던 추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1960년과 1961년의 일입니다.

그때 제가 부산에 왔고 한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선교 사업이 어떻습니까?' 그는 길에서 사람을 만나고, 가가 호호를 하고 회원 소개를 받으며 또 가끔은 넓은 광장에서 설교도 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신앙을 굳건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회 생활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오늘 나가서 야외에서 그런 설교 모임을 가져보자고 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할때 늘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항공 무기가 전시되어 있는 어떤 작은 공원에 갔습니다. 그때 저는 통역을 통해 짧게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유진 톨이라는 장로를 불러서 한국말로 설교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하기를 이 선교사가 한국에서 얼마나 살았는지를 물었고 제가 한 1년 반쯤 되었다고 하자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정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랫동안 있어도 이렇게 한국사람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톨 장로의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선교사 훈련원에서 다른 나라의 언어를 가르치지 않던 때였습니다. 선교사들은 한국말 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왔지만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서로 한국말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

렇게 변성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1975년 김볼 대관장님과 함께 한국에 와서 서울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김볼 대관장님께서 지역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이 땅의 백성들과 교회의 회원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회원들이 참으로 신앙에 따라 걸어 간다면 그들이 먹을 만큼 충분한 양식과 충분한 옷, 머무를 수 있는 훌륭한 집을 갖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부산에 와서 유엔 묘지에 갔는데 참으로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제가 그 곳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곳은 우리가 이렇게 오늘 향유하고 있는 자유를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바친 사람들에게 대해 참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교리와 성약 1편을 함께 봅시다. 20절에 보면 "또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주 하나님 곧 세상의 구세주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며 이제 신앙이 이땅에 증가되게 하며 나의 영원한 성약이 이루어지게 하며 나의 복음의 충만함이 미약한 자와 단순한 자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전파되며 왕과 통치자 앞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들 중에 신권 소유자는 손을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도록 권능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 복음이 회복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기이하고 훌륭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권능, 그것은 결코 소수의 무리에게 제한되어서는 안됩니다. 의로운 가운데 걸어가는 모든

의 모습은 또 다른 기적입니다. 지방부 대회를 갖기 위해 이곳에 왔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대회를 위해 100개의 의자를 빌려서 토요일 저녁에 예배당에 그 100개의 의자를 아주 잘 정돈했습니다. 그곳은 아주 작은 장소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곳에 갔을 때 그 100개의 의자가 모두 어디로 가고 없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도둑이 훔쳐가 버렸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바닥에 앉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굶주리고 어려웠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때보다 모든 사정이 발전하고 좋아진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평화와 풍요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충분히 먹을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많이 먹었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땅이 이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능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을 줄 수 있는 권능입니다. 병든 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을 주는 권능. 이제 하늘에 있는 권능이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권능입니다.

저는 이 훌륭한 곳에서 그 권능이 행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호직 형제님의 미망인에게 이러한 것을 행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분께서는 나이가 많으셨고, 몸이 편찮으셨지만 신권의 권능에 의해 생명이 연장되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벨기세덱 신권을 기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이하고 위대한 축복입니까? 참으로 그들이 그들이 자매 위에 축복을 내리며 그들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참으로 충실하게 자신이 소유한 신권을 영화롭게 행사하면 그들은 더 훌륭한 남편이요, 아버지요, 인간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선교사들은 그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생활을 바꿔 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신앙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며 우리가 불사 불멸과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약의 백성들입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자손을 통해 온 세상이 축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시며 성약을 맺으셨습니다.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성약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회복을 통해 다시 우

리에게 소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약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매주 안식일 성찬을 취하여 그때의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바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약속했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전에 다녀 오신 모든 분들은 우리가 성약의 백성임을 잘 아실



부산 대회 합창단

것이며 성전에서 결혼하신 모든 분들은 그 성약이 영원히 지속될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그 성약의 정신 속에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존경하고 영화롭게 하도록 하며 아내들은 남편들을 존경하고 영화롭게 하도록 하길 바랍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친절하며 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일성도 가정은 사랑으로 이루어진 조화와 평화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복음의 충만함이 미약하며 단순한 자들에 의하여 땅끝까지 전파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곳에 있는 선교사들을 대신해 성도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를 소

개하고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해 질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저의 약속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 뒤에 합창단에는 많은 젊은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참으로 신앙을 굳건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사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며, 지혜의 말씀에 충실함을 알며, 충실한 십일조를 내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결코 희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문을 열어 놓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축복이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내려질 것입니다. 충실하시고 진실하십시오.

제가 언제 다시 이곳에 다시 올 수 있을 지 모릅니다. 제가 다음 달이면 만 86세가 되고 저는 점점 늙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다시 올 수 있을 지 모릅니다. 올 수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에 대한 큰 사랑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신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온전하십시오, 참으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나누고 평화 속에서 지내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참조)

저는 오래 전 김볼 대관장님이 주신 그 축복에 저의 축복을 더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신앙 속에서 걸어가시면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결코 굶주리거나 헐벗지 않고, 거주할 곳이 없지 않으며 참으로 행복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만 축복 받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이 위대한 나라도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저의 사랑도 함께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참으로 겸손한 저의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국말로)



## 서울 대회 말씀 요약

### 1996년 5월 22일

### 올림픽 공원 제3 체육관

#### 소렌슨 장로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합창단이 훌륭한 찬송으로 영을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임을 준비해 주신 신권 지도자와 상호부조회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모임의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고원용, 김종열 두 분의 지역 관리 직원에게 감사드립니다. 멀리서 이곳에 오셔서 이 모임을 감리해 주고 계시는 핑클리 대관장 내외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녁 부산에서 핑클리 자매님은 이곳 아시아 지역에서 여러분은 말일성도 개척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더서의 예언자는 "너희는 보이지 않는다고 부정하지 말찌니, 너희의 신앙이 시련을 겪은 후에야 증거를 얻겠음이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시련을 이겨 내야만 신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곳으로 나오도록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개척자임을 선포합니다. 알곡을 곳간에 거두는 그 시간에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위대한 선교 사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과 아시아 지역의 다른 나라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에 필요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초기 개척자들이 솔트레이크 계곡에 돈이나 기술로 정착한 것이 아니고 신앙으로 정착했

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언자에 대한 강한 신앙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고든 비 핑클리 대관장이 예언자라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그의 권고와 가르침을 따를 때 축복을 받으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워스린 장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곳에 다시 올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핑클리 대관장 부부와 함께 이곳에 올 수 있어서 기쁩니다.

몇 년 전 저의 자매와 저는 갈릴리 호수를 여행하며 돌을 하나 주워 왔습니다. 이 돌이 혹시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닐실 때 그곳에 있던 돌일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그동안의 세월을 말해 주듯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핑클리 대관장님은 이 돌처럼 단단하고, 영감으로 잘 다듬어진 분입니다. 그 분은 오늘 낮에 한국의 주요 일간지 기자들에게 우리 교회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우리 교회의 개요를 잘 알게 되었고 감명 받았습니다.

저는 최근에 야고보서를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야고보서 1:6~7)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영감을 받았습니 다. 어린 요셉 스미스는 야고보서를 읽고 야고보서에서 인도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회복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은사는 다 위로부터 옵니다.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와서 인간에 역사합니다.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22절에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대로 생활하는 가운데 돌처럼 단단한 간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 핑클리 자매

안녕하십니까?(한국어로)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제가 아이였을 때, 제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유타 주 멘타이에 있는 성전을 헌납할 때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천사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할머니를 다시 만나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서울 대회에서 말씀하는 워스린 사도



서울 대회에서 말씀하는 핑클리 자매

교회임을 믿습니 다.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참된 예언자였음을 믿습니 다. 고든 비 핑클리 대관장은 20세기의 예언자임을 믿습니 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머니를 다시 만나서 한국의 천사들의 노래 부르는 것을 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교회는 기적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오는 동안 아주 많은 기적을 보아 왔습니 다.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모임을 갖게 된 것도 기적입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한국에 대한 사랑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땅에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는 소식을 맨 처음 듣고 성전이 지어진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교회 본부 건물에 있었을 때, 그곳에 있었던 직원이 제게 전화를 해서 한국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 분이 제게 말하기를 제가 자매님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매님이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의 모든 지역을 다녀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세상 모든 곳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이 있다면 어느 곳이나고 물어 보면 항상 한국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한국을 좋아하십니까? 한국이 자매님께서 방문하셨던 곳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까?"라고 물어 봅니다. 그러면 저는 "예, 그 곳은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렇지만 아름다운 경치보다 더욱 좋은 것은 아름다운 사람들로 가득 찬 나라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방문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는지 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어린 아이였을 때는 텔레비전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한편으로는 저에게 아주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어머니가 어린 자녀들에게 항상 책

을 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에게 세계 유명한 고전들을 들려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큰 사랑을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저의 형제님은 이 세상의 많은 국가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의 모든 나라를 방문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나라를 방문하여서 그 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크나큰 신앙과 이 사업에 대한 열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교회에 다닐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매일 매일 살아갈 때마다 저의 신앙이 더욱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어서 기쁩니다. 헤롤드 비리 대관장님께서서는 간증은 아주 연약한 것이며, 매일 매일 새로 태어나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 매일 저의 신앙이 새로 태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간증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간증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간증이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간증을 더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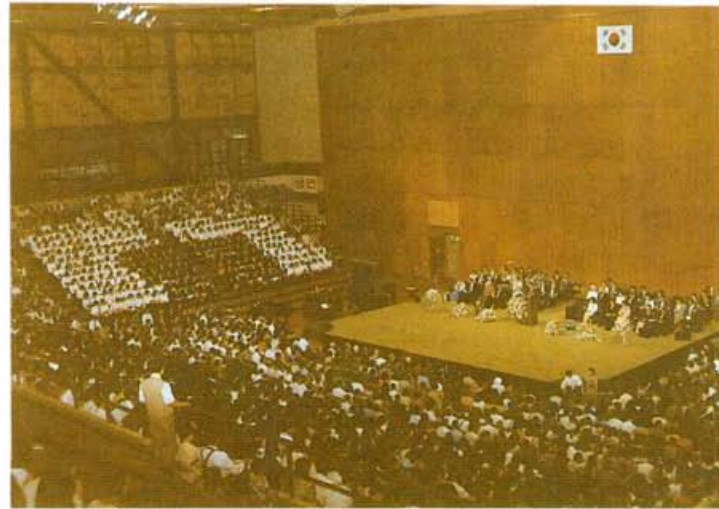
저는 제가 신권을 가진 형제와 결혼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의 형제님의 신권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형제님

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저에게 아주 훌륭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저희 자녀들에게도 아주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저는 저희의 자녀들에게 한 번도 꾸중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 남편은 자녀들에게 한 번도 너희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항상 보고, 배우고,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남편과 교회의 모

과 감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여러분께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구세주께서 저를 위한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응답을 주시는 방법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



든 형제님들이 의롭고 모범적인 삶을 살고 계신 것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형제님들! 여러분들이 가진 신권은 우리 자매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가 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침례 받은 이래로 평생 동안 이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배나민 왕이 한 말을 자주 말합니다. 배나민 왕은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지라도 무익한 종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위치에서 훌륭하게 살고 계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의 인생에 아주 큰 영감

을 주었지만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개개인으로, 이름으로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때 기뻐하십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말일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을 간증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말씀 요약 : 김승겸 형제  
사진 촬영 : 김균천 형제  
박 웅 형제



##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멀리 콰에서 오신 분들이 함께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울 성전에 오기 위해 4-5 시간의 비행기 여행을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주 일요일에 홍콩 성전을 헌납할 예정입니다. 여행 계획을 짤 때 저는 홍콩에 가는 길에 한국에 들리고 싶다고 이야기 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다시 온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어제는 부산에서 약 2000여 명의 성도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주 훌륭한 모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4000여 명이 넘는 성도들과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는 기적입니다.

36년 전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곳은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그때 이곳에는 참으로 큰 가난과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은 세계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신앙이 더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풍요와 평화가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는 이 땅에서의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아픈 역사를 함께 했고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961년 5·16이 일어나던 날 저는 이 땅에 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하와이로 망명하고 군인들이 정권을 장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날 호텔에서 대포 소리를 직접 들었으며 길거리에서 군인들이 진주하는 것을 창

문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거리에서 데모할 때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저도 최루탄 가스에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의 경험을 모두 이야기 하기에는 오늘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처음 한국에 와서 어느 여자 고

끝이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머무를 호텔이 없어서 미군 숙소를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훌륭한 호텔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에게 는 예배당으로 쓸 만한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운동에 있는 건물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 건물은 원래 카바레로 쓰이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은 크고 훌륭했으며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함께 왔었습니다. 그 분은 한국이 처음 이겼고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한국을 왔었습니다. 그 분은 제가 한국에 여러 번 왔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저는 "그들은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그들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해 드렸습니다. 그 분은 이 백성들의 식탁에 음식과 입을 옷과 거할 집



이 땅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선택 받은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등학교 강당에서 가진 예배 모임에서 2명의 젊은 자매가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도 그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해에는 겨울에 한국에 왔었는데 체육관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마루 한가운데 식유 난로가 있었고 연통이 천장으로 올라가서 체육관을 가로질러 창문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통이 무너져 내려 실내가 검은 연기로 가득 차 더 이상 말씀을 계속할 수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이야기는

한가운데 큰 강당이 있었습니다. 강당 한가운데에는 기름 난로가 있었지만 강당 안은 너무 추워서 저는 오바를 입은 채 앉아 있었고 저의 자매는 담요를 무릎에 두르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루 바닥에는 담요를 깔고 아이들이 앉아 있었고 강당 안에는 충실한 성도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과거의 고통을 잘 알고 있고,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1975년 킴블 대관장님이 처음

을 축복해 주셨고 그 축복은 실현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분의 축복이 실현된 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축복 받은 세대들입니다. 저는 191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미국인의 평균 수명은 50세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균 수명이 75세 이상이니



다. 짧은 기간 동안 평균 수명이 25세나 증가했습니다. 과학, 기술, 공중 위생, 교육이 엄청나게 발전했으며 거기가 우리에게서 회복된 복음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축복 받은 세대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기 모인 형제들은 대부분 신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바로 그 신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낮에 신문 기자들과 회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와 분명히 다른 점은 교회의 합당한 모든 남자는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신권 소유자로서 여러분은 합당하게 생활하십니까? 아내에게 친절하며 자매를 존중하십니까? 자녀에게 친절하며 올바르게 모범으로 양육하십니까? 사회에서 생활할 때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며, 거래에 있어 정직하십니까?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신권 소유자는 정직하고, 진실되고 선하고 친절하고 관대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거룩한 나라에 속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며, 그 나라에는 인종, 국적, 피부색과 관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속하게 됩니다.

이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참으로 선택된 사람들이며,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말일성도는 선택된 사람들이며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말일성도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슬, 담배는 물론 커피, 흥차도 취하지 않습니다. 멀리 팔에서 여기까지 성전에 참여하기 위하여 오신 성도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기를 원하며 아무런 보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의 다음 구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베드로전서 2:10)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땅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선택 받은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여러분을 불러 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특별히 택하신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는 다소 활동이 저조한 성도들도 함께 하셨습니다. 자주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때 알았던 행복으로 다시 되돌아 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활동적으로 교회에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충실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행복해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직 회원이 아닌 구도자들에게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열심히 공부하여 이 교회가 참됨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침례 받고 회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풍요롭고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충실하게 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살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 안에서 의롭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계명을 지키에 감사드립니다. 십일조는 회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투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확실한 투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십일조의 법을 지키면 경제적인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다녀야 하므로 다시 이곳에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한국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저의 사랑을 전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헌납된 주님의 집

이 있습니다. 모든 성인은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가능한 대로 자주 성전을 방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전에 방문할 때마다 더 나은 형제와 자매로 발전되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의 나라에 충돌이나 분쟁이 없고 평화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것들을 겸손하게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저의 간증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고든 비 힝클리 형제는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업은 그분들의 거룩한 사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폐회 후 합창단의 발표에 답례하는 힝클리 대관장



서울 대회 연합 합창단



## 헝클리 대관장 기자 회견

1996년 5월 22일

서울 프라자 호텔

지난 5월 22일 정오에는 헝클리 대관장 방한 특별 기자 회견이 프라자 호텔에서 조선 일보를 비롯한 국내 10개 주요 일간지와 연합통신, 코리아 헤럴드의 문화부 종교 담당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회견에는 교회에서 고든 비헝클리 대관장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 워스런 장로, 데이비드 이 소렌슨 북아시아 지역 회장과 북아시아 지역 지역 관리 역원인 김종열 장로와 고원용 장로 및 이도환 공보 위원장이 참석하였다.

기자 회견은 오찬을 겸하여 진행되었으며 오찬에 이어 데이비드 이 소렌슨 회장이 고든 비헝클리 대관장의 약력과 업적을 소개하였다.

이어 헝클리 대관장이 약 20분간에 걸쳐 이번 방한의 목적과 교회의 사명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고든 비헝클리 대관장은 발표에서 자신은 이번에 일본, 한국, 대만, 홍콩등 아시아 지역 교회 순방길에 한국에 왔으며, 자신은 지난 1960년 처음 한국을 방문했으며 특히 1961년 5·16때는 당일날 호텔에서 직접 총소리를 들었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 15회 한국을 방문하는 등 한국과는 특별한 유대가 있고 한국과 이땅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번 방한 기간 동안에 부산에서 어제 2,000여 명의 회원들과 모임을 가졌고, 오늘 오후 서울에서 5,000여 명의 회원들과 모임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전세계적인 교회의 성장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현재 우리 교회는 전세계 159개 국가에 22,000개의 집회소를 갖고 있으며, 전세계에 950여 만명의 회원

이 있고, 미국에서는 단일 교회로서 일곱 번째 큰 교회이며, 캘리포니아에서는 두 번째로 큰 교회라고 소개하고, 한국에도 150여 개의 집회소에 70,000여 명의 회원이 있고 88개의 교회 건물이 세워져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교회는 선교 사업을 강조하고 있으며 현재 50,000명에 이르는 자발적인 복음 선교사가 봉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러한 선교사들의 노력에 의해 교회의 성장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건강의 올바른 지혜의 말씀을 소개하고 모든 말일성도는 술, 담배, 커피, 흥차를 금한다고 말하고, 이어서 가정의 중요성과 가정의 단합을 강조하고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한 가정이 있어야 하며 가정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우리 교회의 가정의 밤을 소개하면서 전세계의 모든 말일성도들은 월요일 저녁에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경전을 읽으며 가족의 문제를 토론하고 해결책을 찾는다고 밝혔다.

또한 교회는 전통적으로 교육을 중요시해 왔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사립 대학이 교회가 운영하는 브리감영 대학이며 자신이 그 대학의 재단 이사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학부모들이 교육을 중요시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지난 30년 간의 한국의 눈부신 발전에 경의를 표하고 한국이 크게 발전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된 질의 응답에서 조선 일보의 이선민 기자는 자신은 우리 교회가 모르몬 교회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식 명칭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인 것으로 보아 크게 보아 기독교 한 종파 같아 보이는데 다른 기독교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헝클리 대관장은 우리 교회의 공식 명칭에서 보듯이 우

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교회에서 급여를 지급 받지 않는 지역 지도자들의 자발적인 봉사에 의하여 교회가 운영되는데 그들은 신권의 권세로써 그러한 일을 한다고 말하고 교회에 속한 모든 합당한 형제는 신권을 소유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일반 기독교와의 차이점의 하나로서 물론경에 대해 언급하면서, 물론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또 다른 책이며, 우리는 성경을 믿고 물론경을 믿는다고 말했다.

경향 신문의 서화동 기자는 우리 교회의 창시자인 요셉 스미스에 대하여 질문했는데, 교회에서 요셉 스미스가 어떤 위치인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헝클리 대관장은 요셉 스미스는 이 교회를 조직하기 위한 도구였으며 그의 겸손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났고,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살아계실 때와 같은 교회가 지상에 회복될 수 있었다고 말하고, 그에 이어서 14명의 대관장이 그의 직분을 승계해 왔으며 자신이 15번째 대관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화동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 사후 2,000년 동안 전통적인 기독교가 있어 왔는데, 왜 또 다른 교회가 필요한가 하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그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나 종교를 존중하며 다른 교회나 종교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과 단체를 존경하며 모든 교회나 종교는 기본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 교회에는 다른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무언가 더 나은 것이 있으며 우리는 다른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훌륭한 것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중의 한 가지로 모든 합당한 남자에게 주어지는 신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교회는 목사, 전도사 등 소수의 사람들에 게만 신권이 주어지며, 그들에 의해 교회가 운영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 전도사 등 직업적인 성직자가 없고, 모든 합당한 남자에게 주어지는 신권을 통하여 교회가 운영되며 신권이 행사됩니다.”

연합통신의 임형수 기자는 요셉 스미스가 우리 교회를 조직하기 전에 다른 교회에 속한 적이 있었는지를 질문하고 건강의 율법이 다른 교회보다 더 엄격한 것 같은데 건강에 율법에 대한 종교적인 이유가 있는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헝클리 대관장은 요셉 스미스는 우리 교회를 조직하기 전에 다른 교회에 속한 적이 없었음을 밝히고, 건강의 율법에 대한 종교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성스럽게 간직해야 하며 잘못 사용되어서는 안됨을 지적하고, 우리의 몸은 주









은 것은 아예 꿈도 꾸지 못했던 음악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교회에 들어와 제일 처음 접했던 것이 음악이었습니다. 찬송가의 아름다운 선율은 저를 사로잡았으며 가사의 영감에 가득 찬 아름다운 시귀는 늘 저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이듬해 대학교 1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해 크리스마스를 1달 앞둔 어느 날 갑자기 그때까지 전혀 지부의 음악과 합창을 도맡아온 친구 김대운 형제가 진주에 있는 학교 문제로 하숙을 할 수 밖에 없어 이동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부의 음악 담당자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 지부장님이셨던 박남수 지부장님(지금 서울 성전장단 제 1보좌로 봉사중임)은 저에게 지휘를 해보라시며 니파이일서 3장 7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전, 순간 기가 막혔습니다. 음악의 음자도 겨우 해매던 저더러 지휘를 하라니요? 하지만 지도자의 말씀엔 오직 순종 뿐이라고만 알고 있던 저에겐 별다른 수는 없었습니다. 학교의 학기말 시험 기간이었지만 저는 모든 시험 공부를 전폐하고 도서관에서 음악 관련 서적을 뒤적이고 음대 강의실 앞에만 들락 거렸고, 학교 합창단 연습실 밖에 쪼그려 앉아 조금씩 들리던 음대 교수님의 말씀을 귀동냥하며 외워야 했습니다.

저는 합창 연습이 있는 날에는 2시간 전에 와서 거울에 비치는 저의 모습을 바라다 보며 혼자서 노래 부르면서 미친 듯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박자 관념이 전혀 없던 저의 손 휘두르기는 한달쯤 계속 되었을 즈음부터 조금씩 가닥이 잡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후 반주자와 한 시간 전부터 들어서 또 연습하고는 단원들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급하게 준비했고 너무나 기초가 없어서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저의

지휘 아래의 그 해 크리스마스 모임의 합창 순서는 잘 되었다는 평가였고 덕분에 저의 학기말 성적표는 온통 C학점으로 얼룩졌으나 저는 할 수 있었다는 기쁨에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80년에 있었던 김블 대관장님을 모신 지역 대회에 합창 연습만 죽도록 하고 참석하지 못했던 저는 1986년 핑클리 부대관장님께서 오셨던 첫번째 부산 지역 대회에서 정대관 형제님의 지휘 아래 합창단의 조직과 관리에 도왔으며 350여 명의 합창단을 다루시던 정대관 지휘자님을 바라보며 '기왕 합창 지휘를 배우는 것, 저분처럼 지역 대회에서 지휘를 해보면 어떨까'하는 거창한 생각도 품어 보았습니다. 합창에 대해 정식으로 배우지 못한 저의 결점은 계속 저를 따라다녔고 1990년의 지역 대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으나 지휘자가 되기에 부족하였기에 다른 형제가 지휘를 하는 것을 합창단 좌석 배치를 하면서 지켜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 후 1994년의 지역 대회에서 지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나 실력 부족으로 인해 좋은 합창은 들려주지 못했습니다. 그해 12월 어느 날에 저는 한 형제의 이야기에 귀가 열려 진해 시립 합창단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시에 시립 합창단원 중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합창단을 혼자 찾아가 단원되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입단의 조건은 물론 오디션의 통과였습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오디션 없이(정말 기막히게 오디션 할 날마다 단장 부재, 지휘자 부재 등의 이유로 연기되다가 어느 날에 합창단원 명단과 출석부에 이름이 등재되어 버렸습니다) 합창단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젠가는 다시 한번 지역 대회 모임에서 지휘를 맡게 되면 정말 잘 해 보리란 소

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96년 들어 갑자기 대관장님의 한국 방문 소식이 들리더니 뒤이어 합창 지휘자로 제가 지명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이후 저는 저와 온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다하여 합창 연습에 임하였습니다. 저의 지닌 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니 비로소 오늘의 이 감격과 환희와 흥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회의 폐회 순서가 끝난 후 우리들은 모두 선 채로 우리가 특별히 준비한 후주곡 '저녁 다투와'를 불렀습니다. 모두의 얼굴엔 눈물로 가득 찼고 기쁨이 넘쳐 흘렀으며 아름다운 찬송가의 선율은 조용히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간증과 함께 흘러나와 사방으로 멀리 멀리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지역 대회 사상 대관장님으로부터 앵콜 송을 부르도록 요청 받은 합창단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연로하신 핑클리 대관장님 내외분과 워스런 장로님 내외분 등 단상에 계신 모든 분들과 부산 KBS 홀에 참석하신 모든 회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선 채로 우리들의 간증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저와 합창단 모두를 격려 해 주셨고 "원더풀"을 연발하시며 우리들을 몸둘 바 모르게 하셨습니다. 이윽고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의 찬송이 울려 퍼질 때 대관장님은 가시다 멈추고 손 흔들어 주시길 서너 번 너무나 아쉬운 발걸음을 옮기시며 퇴장하셨고 우리들은 대관장님이 좋아하시는 우리 나라의 가곡 '보

리발'을 이별 노래로 불렀습니다. 이 날의 영적인 풍성함과 우리들 합창단 모두의 머리 위로 쏟아진 축복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 지면을 빌어서 장거리를 마다 않고 열심히 참석하였으며 또한 연습 때 마다 두서너 시간을 강행군 하는 어려움 속에서 불평 없이 잘 따라와 주셨던 합창단원 모두와 연습 때마다 모든 단원들의 간식을 도맡아 준비해 주신 어느 자매님과 특히 너무나 훌륭히 반주해 주신 온전 와드의 신미라 자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로나에서 7장 40절부터 43절에 있는 모로나이의 말씀처럼 의로운 소망과 신앙은 우리가 신앙 생활을 영위하며 지상 생활에서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데 꼭 필요한 것임을

저는 알며, 또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소망은 그에 수반된 행함이 있을 때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정말 이 교회가 진실된 하나님의 참된 교회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아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고든 비 핑클리 대관장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참된 예언자라는 사실을 저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간증드립니다. 아멘.

(편집자 주: 하정욱 형제는 현재 경화 와드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이번 부산 대회에서 합창단 지휘자로서 수고하였다.)



## 서울 대회에 참석하고서

이용환

수원 스테이크 부장

1996년 5월 22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올림픽 공원 역도 경기장, 멀리서 날아오신 살아 계신 현대 예언자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각지에서 모인 성도들이 좌석을 꽉 메우고서도 모자라 앞 줄에 보조 의자까지 놓고 통로까지 사람이 앉았습니다. 베냐민 왕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각처에서 아기를 업고 걸리며 모여들었듯이 현대의 예언자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서울, 인천, 수원, 청주 지역만이 아니라 멀리 대전, 전주, 광주, 원주, 강릉 등지에서도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 자리가 있어 예언자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크나큰 축복을 받았습시다마는 멀리 뒷자리에 앉은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아주 미안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상 위에는 스피커 소리가 들리지 않아 회원들에게도 이렇게 들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예언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말씀이 잘 들리는 것 같아 다소 안심하였습니다. 뒤에 회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모든 회원들이 대관장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었다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대회에 참석하고 오신 시골 어머니가 전화를 하시면서 "우리 교회에도 사람이 많더라"고 흐뭇해 하셨습니다. 양산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는 아이들밖에 없다며 늘 서운해 하시던 분이 부산 대회에 가보니 우리 교회에도 사람이 많은 것을 보시고 마음 깊이 흡족해 하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교회에 사람이 많은 것보다 예언자의 말씀이 좋았다고 흐뭇해 하실 날이 빨리 왔으

면 좋겠습니다. 사람 욕심은 끝이 없나 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지 않을 때에는 우리 어머니도 우리 교회에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한 지 10년 세월이 넘어 우리 교회로 모셔 오는 데 성공하였는데, 그 때는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시집 간 딸이 넉 달밖에 안 된 첫아들에게도 대관장님을 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려고 데리고 참석하였습니다. 시작 전까지 생글거리며 잘 놀던 아기가 개회 찬송이 시작되자 이 세상에 나온 지 처음으로 듣게 되는 큰 개회 찬송 소리에 그만 놀라 기도하는 동안 내내 악을 쓰며 울어대는 통에 결국 밖으로 쫓겨 나갈 수밖에 없었



저는 단상 위에 자리가 있어 예언자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크나큰 축복을 받았습시다.

답니다. 쫓겨간 복도에서도 계속 울어 재껴서 하는 수 없이 아는 자매님에게 아기를 맡기고 물병을 가지러 간 사이에 젖을 토하여 온 옷에 묻혀 놓았으니 이 일을 어찌 면 좋겠습니까? 딸이 미안하여 어쩔 줄 몰라 하니 그 자매님 말씀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웃는 그 모습에서 참으로 잘 준비된 하나님의 자매를 만나게 된 기쁨을 맛보았습시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참으로 의아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을 몸으로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어머니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임이 끝난 후 오산에서 참석하신 어떤 부부가 대관장님과 악수를 나누고서 "대관장님과 악수를 하겠다"고 기뻐하던 그분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삽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그 전날 밤 꿈에 대관장님과 악수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대관장님은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회에서의 말씀으로 뿐만 아니고 그분의 평소 생활에서 참된 주님의 예언자로서의 모범을 몸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참된 예언자, 선견자로서 이 한국 땅을 방문하시는데 마땅히 회원들이 공항에 나가 대대적인 마중 행사를 하고 매스컴에도 알리는 것이 상례이겠지만, 대관장님

은 몇 사람만 나올 것을 지시하시어 오시는 것조차 잘 모를 정도로 조용히 오셨습니다. 대관장님 자매님의 옷차림은 너무나 수수하여 우리들 보통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현대의 살아 계신 베냐민 왕의 모습을 확인하고서 가슴으로 전해지는 진한 감동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대관장님께서 우리들을 역사상 그 어느 시대 사람들보다 선택된 주님의 백성이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서 회원 수도 많지 않은 아주 작은 교회에 속해 있다고 실망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라는

사실을 잊은 채 세상적인 일에만 가치를 두고 거기에만 몰두해 온 것은 아닌지 조용히 반성하고 뒤 돌아 보아야겠습니다.

또한 대관장님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점은 신권이 있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많이 배우고 잘난, 아니면 신학 대학을 나온 특별히 훈련된 사람들에게만 신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지 않은 보통의 모든 형제들이 신권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위대한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가 되려면 의사 면허가 있어야 하고 변호사가 되려면 사법 고시에 합격하고서도 특별히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물며 자동차 운전 면허를 하려 해도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어찌 이러한 세상 일에 비할 수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보통의 모든 형제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그러한 신권을 가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어찌 위대한 교회라고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대관장님께서 우리 나라 회원들을 크게 4축복해 주셨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형제, 자매들이 성전에 가도록 권고하셨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를 이 땅에서 맞이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이 축복을 어찌 이 조그만 글로써 표현할 수 있었습니까?

이 대회를 통하여 이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교회이며,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며, 헝클러 대관장님이 살아 계신 이 시대의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이 귀한 기회를 가슴 속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1996년 전반기 순천 지방부 대회

1996년 전반기 순천 지방부 대회가 지난 5월 11, 12일 양일간에 걸쳐 교리와 성약 64편 33절 “그런고로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너희는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닦고 있음이라. 작은 일에서 큰일이 생겨 나느니라.”를 주제로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1보좌인 샘 케이 시마부꾸로 장로를 감리자로 모시고 순천 지방부 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조중현 지방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신권 지도자 모임에서 홍병식 대전 선교부장은 새로 개종한 회원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랑과 관심을 가져줄 것을 권고하였고, 시마부꾸로 장로는 신권을 가진 형제들이 더 좋은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생활할 것을 권고하였다.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 지방부장단 제1보좌인 박준옥 형제는 실생활에 적용한 신앙의 경험을 간증과 함께 전해주었고, 여수 지부의 오호례 자매는 참된 마음으로 행할 때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인용하여 말씀하였으며, 순천 지부의 윤형식 형제는 봉사야말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였다. 또한 대전 선교부장단 제2보좌인 박주인 형제는 교회에서 주어진 본분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이 지금까지 활동적인 회원으로 남을 수 있는 비결이 되었다고 간증했으며, 감리자인 시마부꾸로 장로는 복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증이며, 모든 회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지니고 성령을 받아들여 음 안에서 끝까지 견디어 영생 얻을 수 있도록 생활할 것임을 강조했다.

날 개척된 일요일 총회에

서 조중현 지방부장은 복음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과 가정의 밤을 통해 가족간에 사랑과 유대감으로 하나가 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 말씀하였으며, 순천 지부의 이충송 자매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 말씀하였고, 지방부장단 제1보좌인 박준옥 형제는 순천에 스테이크를 세울 수 있도록 성도들 저마다가 회개하는 가운데 더욱 변화하고 거듭날 것을 당부하였다. 홍병식 대전 선교부장은 성전에서 부모님의 대리 침례를 통해 영원한 가족이 됨으로써 얻게 된 기쁨에 대한 간증과 함께 우리들이 복음 안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였다.

모임의 감리를 위해 한국의 조그마한 중소도시를 방문한 시마부꾸로 장로는 미국 하와이에서 감독 시절에 얻게 된 귀중한 간증과 함께 “아카마이” 즉 올바른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순천 지부의 조영직 형제가 장로 신권을 받았으며, 지방부 산하 4개 지부의 회원들로 구성된 지방부 합창단은 아름다운 화음으로 모임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었다.

이 날 대회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함께 영적으로 더욱 고양 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갖게 되었다.

(조오성 자매)

## 공주 지부 힐라맨 축구단

창과 칼은 없지만 물몬경 시대와 똑같은 신앙을 지닌, 힐라맨의 이천 용사를 닮고자 하는 형제들이 힐라맨 축구단의 깃발 아래 모였다.

1995년 3월 23일 창단된 힐라맨 축구단은 공주 지부 회원들의 신체 단련과 친목 도모 및 축구를 통한 비활동 회원의 활동화, 구도자 찾기를 목적으로 매주 토

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교회 근처의 중학교의 운동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으며, 시간이 허락되는 회원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7시 30분부터 8시 20분까지 중학교 학생들과 축구 시합을 하고 있다.

축구를 통해서 이미 활동이 저조했던 회원 한 명이 다시 활동하기 시작했고, 함께 아침 운동을 하는 중학생들 중에서 구도자를 찾기 위해 시간이 허락하는 한 복음 선교사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독신 성인 한 명이 회원의 소개로 선교사들과 약속을 맺고 토론을 시작할 예정이며, 중학생 중에서도 한 명이 선교사와 토론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힐라맨 축구단원들은 모두 물몬경에 나오는 힐라맨의 이천 용사들처럼 ‘저들은 모두 젊어 뛰어나게 용맹스럽고 기운차며 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상 진실하며 무엇을 하든지 맡은 바에 충실하였고,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를 배운 자들이다. 모두 진실하고 신중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모임을 통해 주님의 왕국을 굳건히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라고 있다.

(이준우 형제)

## 부산 스테이크 청녀 표준의 밤

지난 5월 25일 오후 4시부터 부산 스테이크 수정 와드에서는 청녀 표준의 밤 모임이 있었다. 개회 순서를 마친 후, 진행된 순서에서 연산 와드의 하선희 자매가 청녀 주제 낭송을 하였고, 스테이크 청녀 회장인 조경순 자매는 환영 인사를 통해 청녀들이 청녀 가치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간직하고자 권고하며 대관장의 말씀에 따라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영의 양식을 위해 세미나리를 참석하자고 말씀하였다.

발표 시간을 통해 온천 와드에서는 비활동 회원을 개입시키는 과정을 그린 연극을 보여주었고, 광안 와드에서는 ‘내친구 찾으리’라는 중창을 불러주었다. 또한 수정 와드에서는 ‘사랑의 빛 안에 걸어가고’를 수화로 불러주었고, 연산 와드에서는 바이올린과 플루트가 함께 한 중창을 불러주었다.

특별 찬조로 연산 와드의 김립 자매의 바이올린 연주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전영준 형제는 청녀들의 지켜야 할 표준과 청소년들의 생활에 관해 말씀했다.

이번 모임에는 7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청녀들이 가져야 할 표준과 그들의 다양한 재능을 알아 볼 수 있었던 훌륭한 기회가 되었다. (이희숙 자매)





## 새로운 부산 선교부장 스티븐 알 리시먼 선교부장부부



윌리엄 알 허드 부산 선교부장을 이을 새로운 부산 선교부장으로 스티븐 알 리시먼 선교부장이 부름 받았다. 그는 유타 주 로간 캐시 스테이크 로간 9와드 소속으로 선교부장으로 부름 받기 전에 스테이크 부장단 보좌, 고등학교원, 감독, 감독단 보좌, 청년 고문, 장로 정원희 회장단 보좌, 제사 정원희 고문 등을 역임했다. 그는 유타 주립 대학교에서 역사학과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한국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리그랜드 존슨 건축 회사 영업 대표로 일했다.

## 제2회 전라·충청 연합 합창제

지난 5월 24일 전주 스테이크에서는 전주 스테이크 독신 성인 위원회 주관으로 전라 충청 연합 합창제가 개최되었다. 청주 스테이크 합창단이 먼저 '대장간의 합창', '가고파' 등을 부른 후, 이어 광주 스테이크의 구모라 합창단이 '단가', '오월의 하늘', '누군가 기도하네', '깨어라 먼동이 튼다'를, 전주 리아호나 합창단이 '기도', 'Swing Low 그는 하나님을 믿으니'를 발표하였다.

김종갑 전주 스테이크 부장은 "1시간 반의 연주회가 아쉽고 끊임

없이 노력하여 숫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후원이 계속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하였다. 모처럼 충청과 전라의 성도들이 음악으로 함께 만나는 귀중한 기회인 연합 합창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느낄 수 있었고 이 지역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가 될 수 있었다. (박유미 자매)

## 제8회 구모라 합창단 정기 발표회

지난 5월 26일 광주 스테이크 센터에서는 제8회 구모라 합창단이 정기 발표회를 가졌다. 김지연 자매의 반주와 박정자 자매의 지휘로 1부에서는 '단가', '오월의 하늘', '바둑이 방울', '사랑해요', '나물 캐는 처녀' 등의 가곡을 발표하였고, 2부에서는 '온 땅 주님의 것일세', '주께 간구합니다', '만군의 주', '깨어라 먼동이 튼다' 등 성가곡을 발표하였다.

풍향 와드의 조용현 감독은 "노래가 곧 간증이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참석하신 많은 회원들은 아름다운 합창을 통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박유미 자매)

### 역원 변경

서울 북 스테이크  
스테이크 부장단 제보좌: 김영근  
(전임자: 정대판)  
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 김치원  
(전임자: 김영근)

강서 스테이크  
신정 지부 지부장: 김봉석  
전임자: 박한성

마산 스테이크  
총무 와드 감독: 권영일  
(전임자: 양대철)  
진애 와드 감독: 김용조  
(전임자: 김은광)

천사음악

## 사랑하는 두나!

이준택 서울 북 스테이크 부장

사랑하는 두나!  
날씨가 무더워지기 시작했구나.  
아직도 머리 속에 상쾌한 초여름,  
신록의 잔영이 지워지지  
않았는데, 더위는 벌써 한여름으로  
가고 있다.

보내온 소식 잘 받았다.  
7월에 선교부로 부터 귀환하고,  
건강히 잘 봉사한다니,  
모든 일이 기쁘고, 감사할  
따름이다.

두나가 집을 떠난 5년이 너무나  
길고 멀게 느껴져서,  
남모르게 마음속으로  
걱정도 많이 하였는데,  
이제 주님과 나라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건강히 돌아오는  
두나가 눈물이 날 정도로 아빠는  
자랑스럽다.

두나가 가진 가장 좋은 것들,  
순결하고 순수한 사랑,  
온 마음을 다한 정성과 노력,  
네가 가진 힘과 재능을  
선교 사업을 통하여  
주님께 바치고 돌아오는  
네 모습이 아빠의 눈에는  
든든하고 아름답게만 보인다.

사랑하는 두나!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지 말고 최  
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아빠가 너의 형에게 준 조언을 너  
도 잘 따라주기 바란다.

선교부장님의 말씀에 온 마음을  
다하여 따르도록 하여라  
적게 보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교회의 원칙과 원리를 항상 충실  
히 지키도록 노력해라.

"모든 승리와 영광은 너의 근면과  
충실함, 신앙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교리와 성약 103편 36절에 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거라

보고 싶은 두나!  
마당에 심어 놓은 꽃들이 한참 때  
라 너무나 아름답다. 특별히 연산  
홍은 너무나 곱게 피었다.

주목들의 새싹들은 날마다  
질풍부러가고 있고,  
한구석에 심은 상추는 벌써  
두 번이나 뜯었다.  
호박은 옮겨 심은뒤에 몸살을  
하더니 이제 뿌리가 내렸다.

맹칠이와 누렁이는 자기 밥을 넘  
겨보는 새들을 쫓는 일이  
일과이며, 날이 더워지니 낮잠을  
자는지 조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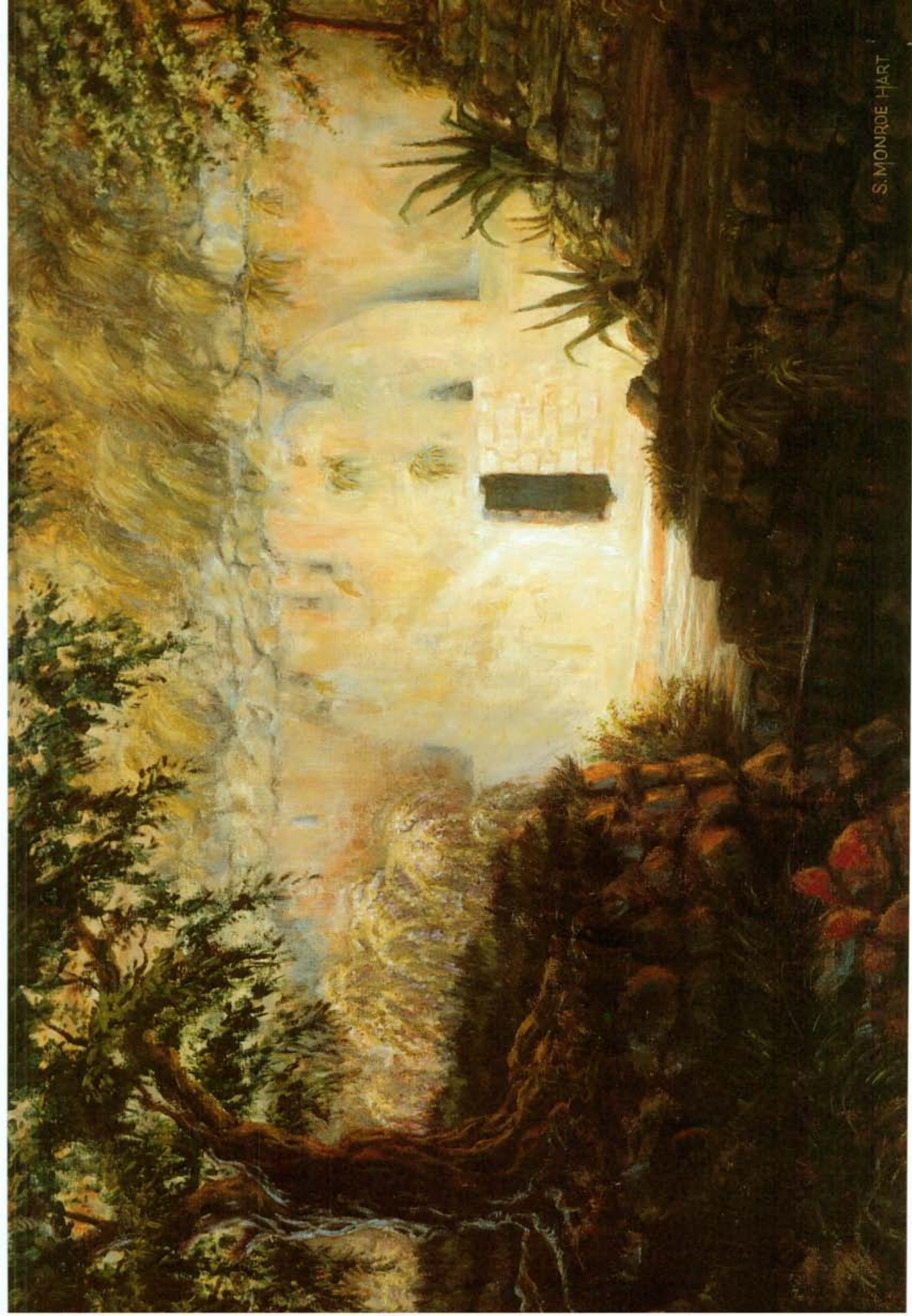
올해는 감꽃이 풍성한 것을 보니  
감이 많이 열릴 것 같다.  
가족 모두가 너를 기다린다.  
네가 돌아오면 한 3년 안에  
온 가족이 잠시 모이게  
되는 것 같구나.  
네 형이 8월 중순에 떠난다고  
하니, 한 20일은 모두가 같이 지  
낼 수 있겠다.

두나! 사랑한다.  
주님의 특별한 보살핌이 두나와  
함께 하도록 기도한다.

두나를 기다리며,  
유월 이후에...  
서울에서 아빠가

(두나는 이준택 형제의  
둘째 아들로 대전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음)





S. MONROE HART

그림: 스티븐 몬로 하트, 동산 무덤

"보라, 거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박을 것이나, 무덤에 누이지 시름 끝에 그의 외복의 능막으로 죽음에서 일어나리라, 그의 이름을 만는 자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으리라." (누가복음서 24:13)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화에 의해서 세워진 모든 성전은 영원하신  
**르**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 계시고 온 세대에 살았거나 살고 있는 아들과  
딸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시고, 예수님의 속죄의 희생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 말일성도들의 간증을 우뚝서서 나타내 보여 주고 있습니다.”

-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성도의 빛, 1993년 7월호, 74쪽)